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어려운 시기에 불교가
국민들에게 감동 주었으면…"
A16·17면

현대불교

창간 20년
2014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4월 2일) · 주간

제990호 2014년 4월 30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숫타니파타〉
모든 생명에 대해 한없는 연민을 가져라
그리하여 자비심이 골고루 스미게 하라.
모든 행위에서 연민의 마음을 굳게 지녀라.



"세월호 희생자 왕생극락 발원합니다" 올해 연등회는 슬픔에 빠진 대한민국과 함께 애통함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는 장으로 진행됐다. 4월 26일 종로 일대에서 진행된 연등회 연등행렬에서는 예년과 다르게 석가모니 정근 속에서 하얀 연등과 만장의 행렬이 이어졌고, 시민과 불자들은 세월호 희생자들의 왕생극락과 실종자 무사귀환을 기원했다.

글= 신성민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하얀 연등·만장… 연등회 슬픔 나누다

봉축위원회 4월 26일 종로 일대서 연등회 개최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기 위한 연등회 연등축제가 세월호 참사의 슬픔을 국민과 함께 나눴다.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는 10만여 하얀 연등과 장엄등이 서울 종로를 메웠고 시민들은 함께 희생자 애도와 실종자 무사귀환을 기원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는 4월 26일 오후 7시부터 동대문에서 종로를 거쳐 조계사에 이르는 연등행렬을 진행했다. 매년 있던 화려한 오색연등과 흥겨운 율동, 노래 대신 올해는 연등행렬은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연등행렬은 세월호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백색장엄등과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발원하는 적색 장엄등이 선두에 섰으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대표자, 중앙승가대 학인 등 300여 명의 스님들이 백색 연등을 들고 행렬에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달고 석가모니불 정근으로 세월호 실종자들의 귀환과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뒤에는 하얀 만장 행렬이 이어졌다. 250여 만장에 쓰여진 '어른들이 미안하다' '보고싶다' '아이들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 등의 글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만장 뒤로는 사찰과 단체에서 나온 불자들이 행렬이 이어졌다. 이들 역시 백색 연등과 컵등을 들고 추모행렬에 동참했다.

세월호 참사를 의식해서 인지 연등행렬을 관람하러 온 시민과 불자들은 예년에 비해 줄었다. 하지만 참관한 시민들은 추모에 동참하며 합장으로 경건히 행렬을 맞았다. 다만 외국인 관람객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동국대 운동장에서는 1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오신날 연등회의 시작을 알리는 연등법회를 봉행했다.

식전행사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모금행사를 시작으로 천수경 독경과 석가모니불 정근, 실종자들의 생환을 기원하는 축원의식으로 거행됐으며, 이어진 법회에는 기원문, 발원문 낭독을 통해 국민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눴다.

백색 장엄등 · 10만 연등 행렬
사부대중 '석가모니불' 정근
동국대서 1만 대중 연등법회
"지혜 등불 밝혀 아픔 위로"
회향은 '국민 기원의 장' 으로

봉축위원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연등회 개회사를 통해 "한없이 여리고 애꿎은 생명들이 어둠에 갇혀 온 국민의 가슴과 나라를 아프게 하고 있다. 피할 수 없는 아픔과 두려움 앞에서 하나하나의 소중한 생명이 밝은 광명으로 나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며 "이런 때 일수록 우리는 지혜의 등불을 함께 밝혀서 모두가 화합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슬기로움이 필요하다. 이 길은 자비를 베풀고 고통을 나누는 길이다. 연등 불빛 밝게 비추는 그 길을 향해 다 같이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기원문 낭독을 통해 "세월호 여객선 침몰은 슬픔과 비통함, 분노를 넘어 저희들의 부끄러운 마음을 돌이켜 눈물짓게 한다. 차가운 바닷속에서 어린 생명들이 엄마를 부르며 불쌍하게 죽게 만든 어른들의 이기심과 무관심을 간절히 참회한다"고 밝혔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발원문에서 "세월호 사건으로 모두가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가득한 이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혀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불자들이 앞장 서겠다"고 서원했다.

이와 함께 연등행렬을 마친 불자들은 종각역 사거리에서 회향한마당을 '세월호 아픔을 함께하는 국민기원의 장' 으로 전환해 개최했다. 기원의 장에서는 진명 스님이 사회를 맡았으며, 조계종 의례위원장 인묵 스님의 집전으로 천도의식이 봉행됐다. 선정 스님은 "고운임아 정든임아 서글서글 웃는 임아"라고 시작하는 화청에서 "눈뜨고는 못보나니 눈감으면 만나려나. 세월호 희생자는 서방정토 왕생극락 하옵시길 빈다"고 말해 대중들의 눈물을 자아냈다.

대불련 활동가인 성신여대 박선연 양의 발원문도 낭송됐다. 박 양은 "그분들이 느꼈을 공포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숨이 막혀온다. 그러나 침몰해가는 배속에서 마지막까지 부처님 모습을 보여준 살신성인을 기억하고 인간다움의 길을 배우겠다"며 "부모들의 가슴에 쌓인 원망과 분노, 억울함과 고통이 모두 씻겨나가길 간절히 바란다. 바다에서 생을 마감한 우리 아이들이 밝은 세상에 태어나길 간절히 빈다"고 발원했다.

신성민 · 이나은 · 배현진 기자

종정 진제 스님 진도 방문

현장서 실종자 귀환 기원… 유시 발표도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전 불교계가 나섰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4월 19일 실종자 가족이 모여 있는 진도 팽목항을 찾아 현장을 위로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진제 스님은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했다.

현장에서 진제 스님은 반야심경 봉독 후 수차례 "실종자들이 무사히 기원하길 바란다"고 간절한 어조로 밝혔다.

이후 진제 스님은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현지 사찰 부스를 찾아 활동가들을 격려했으며, 실종자 가족에 대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기를 당부했다.

진제 스님은 방문 직후 종단 전체에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실종자 귀환을 기원하는 유시를 발표하기도 했다. 현장에 급파된 조계종 긴급구호봉사대는 4월 21일 진도 군실내체육관 부스에 법당을 조성하고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했다. 태고종 총무원도 4월 19일 팽목항에 이동식 천막 법당을 조성하고 실종자들의 무사 생환과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철야기도에 들어갔다.

진각종도 4월 21일 오후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안산심인당에서 '세월호 실종자 무사생환 및 희생자 추모를 위한 강도불사' 를 봉행하기도 했다.

조계종 · 태고종 등
팽목항 임시법당 설치
세계 불교계도 애도문

세계불교계의 희생자 추모와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메시지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불교협회와 일한불교교류협의회는 4월 19, 23일 발표한 메시지에서 "희생자 및 실종자에게 깊은 위안을 보내드리며,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관련 기사 A2, 3, 31면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4월 19일 진도 팽목항을 찾아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고 현지 활동가들을 격려했다.

2014년 부처님오신날 특집호 - 60면 발행

A 종합 · 불자들 · 지역 2·4·5
함께 나누는 세월호의 아픔 3
특집 · 통일로 가는 길 12·13·14·15
종단 · 단체 봉축 법어 및 메시지 7·8·9·10

B 특집 · 한국불교 포교합시다 1·2·3·5
문화 · 30대 불자 '문화 사업가' 들이 뜬다 9
특집 · 봉축 화보 14·15
출판 · 부처님 전기를 읽읍시다 18

국민과 함께 세월호의 아픔을 나누며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일동

불기2558년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자비와 화쟁으로 이웃과 함께 하겠습니다

종정 진제 법원

원로회의의장 밀운 총무원장 자승
중앙종회의장 향적 교육원장 현응
호계원장 일면 포교원장 지원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모든 불보살님의 가피가
저 바다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세월호 참사’ 추모시

국상(國喪)

유 자 효 (시인)

불쌍한 나의 아가야
운명의 그날 2014년 4월 15일
배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 다녀오겠다며 인사하고 떠났던 네가
다음 날 아침 배가 기울어지자
선실에 있으라는 어른의 말에 선실에서
쓰러지지 않으려 구석에서 버티다
구명동의를 입으라는 어른의 말에
구명동의를 허둥지둥 찾아 입고
또 선실에 그대로 있으라는 어른의 말에
더욱 더 기울어지는 선실에서 그래도 침착하게 견디던 네가
마침내 배가 거꾸로 뒤집어지고 거센 바닷물이 덮칠 때
얼마나 놀랬니 무서웠니 기가 막혔니
그날 이후 엄마 아빠의 삶도 끝났다
그 절박한 마지막 순간
네가 보내온 ‘사랑한다’는 외마디 문자를 보고 또 보며
통곡하고 통곡하다 실신하기 여러 번
엄마 아빠는 더 이상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지가 않다
이제는 목욕탕 물만 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환생이 있다 하더라도 이 나라에
다시 태어나달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
위험한 때일수록 어른의 말을 듣고 질서를 지켜야한다는
그 가르침마저 뻐저리게 한스럽고 원망스럽다
어린 너희들, 선생님들, 또 다른 승객들이
물에 잠겨 유명을 달리 하던 날
대한민국도 물에 잠겨버렸다
나라는 지금 국상중이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고 다닌다
차라리 자연 재해였더라면 …
전쟁이 나면 왕이, 대통령이 백성을 버려둔채 먼저 도망을 가고
사고가 나면 기관사가, 선장이 승객을 버려둔채 먼저 도망을 가고
사고, 또 사고가 나도 고쳐지지를 않는
인간의 가장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야비한 인간들
돈만 아는 더러운 인간들
부끄러워라 대한민국아
야수들이 설치는구나 대한민국아
물살 세기로 유명한, 칠흑같이 캄캄한 서해 바다 속에서
얼마나 추웠니 불쌍한 아가
이 죄는 선장 아무개, 선원 아무개의 죄만이 아니라
어린 너희를 지키지 못한
대충대충 밥버러지로 살아온 어른들의 죄며
바로 이 아빠와 엄마의 죄며 나라의 죄다
기적처럼 태어났으니 기적처럼 돌아와달라고 빌고 또 빌었었건만
차디찬 물속에서 건져져
이번에는 뜨거운 불 속에서 태워지다니
어린 네 꿈이며 가슴 설레어하던 이성 친구며
함께 재잘대던 네 친구들을 모두 떠나서
어린 네가 연기로 화해서 사라지다니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짓이란 말가
아가 우리를 용서말거라
이 시간만큼은 내세를 믿고싶다
부디 내세가 있어 그곳에서 너를 만날 수만 있다면
내 새끼 내 자식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 수 있다면



1947년 부산 출생. 구상기념사업회장
불교언론문화상 심사위원

“동체대비 생활화, 붓다 되는 길”

조계종 교수아사리 스님 ‘붓다관’ 주제 정기 포럼

“스스로 붓다임을 알고 행동하면 그가 바로 붓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이 4월 24일 ‘붓다관’을 주제로 열린 제6차 교육아사리 정기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람은 본래 붓다이다. 붓다의 가르침대로 실천해야 불교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그가 누구이든 언제 어디에서나 매순간 순간 붓다의 행위를 하면 그가 바로 붓다이다.(도법 스님)”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4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붓다관’을 주제로 제6차 교육아사리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은 “깨달은 사람인 붓다의 삶은 양극단을 벗어난 중도의 삶”이라며 “그 삶과 가르침은 누구나 이해, 실현되도록 나타났고, 그렇기 때문에 붓다는 인류의 보편적 스승이 되고 인간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전도몽상과 미망에서 깨어나면 본래 사람이 중생 아닌 붓다”라며 “그럼에도 누군가가 굳이 다시 붓다가 되려 한다면 그것은 소를 타고 있으면서 다시 소를 찾는 어리석음”이라고 지적했다.

도법 스님은 붓다의 행위에 대해 “당장 마음먹고 상대를 진실하게 대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즉각 진실한 사람이 된다”며 “일찍이 붓다는 스스로 그렇게 삶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했듯이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안내하기 위해 온 생애를 바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죽을힘을 다해 또 하고 또 하면 그 순간 즉각 그대로 된다”며 “지금 당장 마음먹고 매 순간순간 전존재를 바쳐 본래붓다의 동체대비행을 또 하고 또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포럼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현 시대의 붓다관에 접목시키려는 논의도 활발히 진행됐다.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를 이끌고 있는 도법 스님은 “세월호 참사 소식을 듣고 순례단과 고민해 봤지만 추모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었다”면서 “이미 소를 잃은 상황이라면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한다. 불교계 스스로 근원적인 성찰을 통해 생명평화의 삶을 모색하고 실천 방안을 사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생명윤리협회 대표 법응 스님은 “가라앉은 배는 기도한다고 떠오르지 않는다”며 “불교계가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에 참석한 현견 스님은 “세월호 참사는 큰 틀에서 보면 사회 가치관의 문제”라며 “사람들의 가치관이 올바랐다면 이 같은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불교적 입장에서 바른 생각과 마음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각묵 스님이 ‘초기불교의 붓다관’, 현석 스님이 ‘대승불교의 붓다관’, 영석 스님이 선불교의 붓다관, 금강 스님이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붓다상’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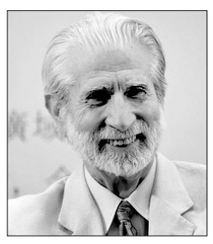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자대상 수상자 김동건 · 랭카스터 · 선우용여

선정위 25일 결과 발표 5월 6일 법요식서 시상



김동건



랭카스터



선우용여

불기 2558년 조계종 불자대상에 김동건 불교포럼 상임대표와 루이스 랭카스터 UC 버클리대학교 명예교수, 탤런트 선우용여가 선정됐다. 외국인이 불자대상에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종 불자대상 선정위원회(위원장 자승)는 4월 25일 ‘불기2558년 불자대상’ 수상자를 이 같이 선정, 발표했다.

불자대상 선정위는 “김동건 대표는 사회각계 불자 지도자들의 대사회적 활동 확대와 불교의 대사회적 위상 강화에 기여했고, 조계종 화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헌신적인 위원회 활동을 통해 사회 갈등의 통합과 조정에 힘써왔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김동건 대표는 서울고등법원장, 참여불교재가연대 대표 등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바른 명예대표 변호사, 불교포럼 상임대표, 조계종 화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불자대상에 선정된 루이스 랭카스터 교수에 대해선 “해인사 고려대장경의 문화적 배경과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해왔으며 대장경의 전산화, 불교문헌자료의 전자화에 기여했다. 또 버클리 대학 내 불교학 박사과정을 창설하는 등 한국불교를 세계로 알리는 데에 공헌했다”고 밝혔다.

탤런트 선우용여씨에 대해서는 “BTN불교TV에서 방송을 통한 포교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2012년 지구촌공생회 홍보대사 위촉 활동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여성불자 108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4월 승려복지회 승보공양운동 홍보대사에 위촉되어 승려노후복지 기금 마련을 위한 각종 홍보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발표했다.

불자대상 시상식은 5월 6일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자승 스님 종지협 의장 재선출

8월엔 교황 접견 예정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이하 종지협) 대표 의장으로 선출됐다.

종지협은 4월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14년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11대 공동대표 의장에 자승 스님을 만장일치로 재추대했다. 자승 스님은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대표 의장에 오르면서 2016년 5월까지 임기를 연장하게 됐다.

이사회는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 남궁성 원불교 교정원장, 서정기 유교 성균관장 등 공동대표 6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종교지도자들은 개회에 앞서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실종자들의 무사생환과 사망자들의 명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도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천도교 박남수 교령과 유교 서정기 성균관장의 공동대표 인준 또한 이뤄졌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는 종교 간의 화합과 교류를 위해 지난 1997년 설립된 단체로서 한국 사회 대표적인 7개 종교 수장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 회장에 취임하기도 한 자승 스님은 오는 8월 방한예정인 프란치스코 교황을 접견할 예정이다. 회동은 8월 18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공동대표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다. **배현진 기자**

“노동자 대접 받도록 불교가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종 노동위, 24일 노동자 문화제

“악기가 노동자들의 착취로 만들어진다면 그 악기는 결코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 없습니다”

2721일. 햇수로 7년째 부당해고에 맞서 거리투쟁을 하는 콜트콜텍 기타노동자들에 대해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가 사회적 지지를 호소했다.

노동위는 4월 24일 한국불교역사기념관에서 콜트콜텍기타 부당해고 노동자들의 사회적 해결을 촉구하는 문화제 ‘마음의 소리’를 개최했다.

종호 스님은 “지금까지 투쟁해 온 노동자분들께 경의와 위로를 전해드린다”며 “노동이 노동으로 대접받고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위해 조계종이 힘이 되어드리겠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세월호 희생자의 극락왕생과 무사생환, 콜트콜텍정리해고 노동자 복직을 염원하는 순서도 마련됐다. 동환 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수생, 조계종 노동위원)은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며 회심곡을 불렀다. **배현진 기자**



조계종 노동위원 동환 스님이 4월 24일 열린 콜트콜텍 노동자를 위한 문화제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며 회심곡을 부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佛紀 2558年 甲午年 Buddha's birthday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석 도 선

승정원장 석벽봉 고 문 석암두 원로원원장 석법령 종회의장 석무송

원로위원 석월타 원로위원 석지관 원로위원 석대원 원로위원 석일장
원로위원 석혜암 원로위원 석화담 원로위원 석일우

호법원장 석대원 의전원장 석의담 교육원장 석남산 포교원장 석보광
기획원장 석일두 총무원장 석도선 비구니회장 석혜담 연수원장 석대공
문화원장 석도명 사정원장 석법혜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강 서울중앙종무원장 석설정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강원중앙종무원장 석성만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경기중앙종무원장 석재현
아포중앙종무원장 석혜천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학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전북중앙종무원장 석덕진 광주중앙종무원장 석아도 충남중앙종무원장 석문공
안산중앙종무원장 석일현 제주중앙종무원장 석경만 인천중앙종무원장 석지일
전남중앙종무원장 석청우

총무부장 석도흥 교육부장 석정허 사회부장 석청암 호법부장 석성보
포교부장 석도명 교무부장 석보현 비구니부장 석용정 문화부장 석도명
의전부장 석성담 중앙포교부장 석효성

문화국장 석민경 사서국장 석성덕 사서특보 석성만 기획국장 석성각
사회국장 석원각 종무국장 석보각 연수국장 석함월 비구니국장 석지현
의료봉사국장 석법천 포교국장 석성우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창종주 총무원장 석도선

■ 종립미래로봉사회
회 장 학 산(이종길)
부회장 진불심(이순심)
총 무 심진화(차영란)
임 원 대도심(어월순)
임 원 법화심(김막두)
종립예술원 원장 묘 각(이재인)

■ 총무원포교국장
포교국장 석지명
포교국장 석법성
포교국장 석성운
포교국장 석혜공
포교국장 석태허
종립예술원 부원장 보연화(유희연)

■ 법사승단임원
경남원장 도혜 대구국장 혜련 울산원장 법광 재무국장 덕운
충남원장 보인 종무국장 혜명 경북원장 성호 국제국장 도원
포항원장 명성 부산국장 혜성 충북부장 상학 청도국장 지천
대전부장 정민 울산국장 상학 경기부장 덕산 포항국장 득원
전남부장 혜명 구미국장 혜진 강원부장 성월 화순국장 보정
재무부장 자운 포교국장 청운

■ 각 종무원 국장
사업국장 석민허 연구국장 석경담 역경국장 석청허 홍보국장 석동운
복지국장 석용운 의식국장 석운담 교화국장 석지허 지도국장 석청도
관리국장 석지도 조직국장 석견성 조사국장 석담월 호계국장 석원호
규정국장 석성공 사정국장 석도운 감찰국장 석성도 재무국장 석노담
총무국장 석원경 의전국장 석운경

■ 총 본 산 : 경북 영양군 수비면 계2리 58-1번지 대표전화 054)682-5808 / 팩스 054)682-9848
■ 총 무 원 : 서울 서대문구 홍제 3동 279-26 2층 대표전화 02)3217-4611 / 팩스 031)963-1688

사부대중 한마음으로 '동체대비'

'대한민국의 아픔' 불자들 함께 나누다

지난 4월 16일 벌어진 세월호 참사. 총체적 시스템 부실로 빚어진 인재였던 이번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분노했고 아파했고 눈물을 흘렸다.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었다.

이번 참사 현장에는 불교가 있었다.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주요 종단 소속 사찰과 심인당들은 사고 직후인 4월 17일부터 '진도 여객선 실종자 무사 생환' 기도를 시작했다.

조계종은 가장 먼저 구호대를 현장에 급파해 상황을 파악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아름다운동행은 4월 17일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대'를 진도 팽목항으로 파견했다. 봉사대는 현지에서 사고지원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진도사암연합회와 진도 향적사(주지 법일) 봉사단과 함께 팽목항에 부스를 설치해 차와 식사를 제공하는 등 현장 지원 활동을 펼쳤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비롯해 백양사, 대흥사 등 호남 지역 본사 주지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스님 등도 현장을 찾아 실종자 가족을 위로했고, 해남 미황사는 떡을 지어 실종자 가족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조계종과 태고종은 현장에 천막 법당과 이동식 법당을 각각 설치하고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기도에 들어갔다. 모두 실의에 빠진 실종자, 희생자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진도사암연합회 회장 진현 스님(진도 쌍계사 주지)은 "현재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불교신자들이 많다"면서 "현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비롯해, 대흥사를 비롯한 지역 사찰의 불자들이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다. 무사귀환을 바라는 불자들이 마음을 모아 배 안에 있을 아이들이 부모 품으로 빨리 돌아오길 바란다"고 상황을 전했다.

서울에서도 진도 여객선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염원하는 촛불이 켜지고 노란 리본들이 걸리기 시작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4월 19일 조계사에서 불자 및 일반시민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도 여객선 실종자 무사귀환을 발원하는 108배를 봉행했다. 대웅전 앞에는 촛불로 '기다릴게'라는 문구를 그려 넣어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했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오늘 여러분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는 하나 된 마음을 가지고 진도 여객선 사고의 안타까움을 함께하러 와주셨다"며 "이번 사고를 통해 다시 한 번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느낄 수 있다. 아이들이 어서 부모님들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고를 당한 분들과 가족들의 고통, 희망과 함께하자"고 말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기원문을 낭독한 엄봉숙 씨(조계종 자원봉사단)는 "온 국민이 가슴을 쳐미는 슬픔에 잠긴 가운데 꿈도 많고 고민도 많았을 아이들이 저 차가운 남쪽바다 한가운데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프다"며 "두려움과 슬픔이 아닌 마음의 평화가 가족분들에게 자리하고 목숨을 걸고 구조작업에 임하는 구조요원에게도 힘과 용기, 지혜가 깃들어 최대한 많은 이들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해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서울 청계천에 봉축을 알리는 전통 장엄등 전시회의 시작과 함께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노란 리본이 청계천 난간에 걸렸다.

4월 23일 첫 점등을 한 제 7회 청계천 전통등전시회는 진도여객선 침몰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분위기로 시작됐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은 노란 리본에 기원 문구를 적은 후 합장하고 기도 후 리본을 달았다.

청계천에 전시된 전통 장엄등을 살핀 주요 종단 지도자들은 무사생환과 추모 촛불 기원 행사도 참가해 시민들과 함께 기원의 촛불을 켰다.

불교계 최대 축제인 부처님오신날 연등회는 추모와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행사로 전환됐다. 연희단 율동과 노래는 취소되고 대신 희생자들을 위한 천수경 독경과 석가모니불 정근, 실종자 생환을 기원하는 축원으로 이뤄졌고 국민과 슬픔, 고통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상생하는 공동체를 발원하는 기원문들이 발표됐다.

이번 연등회에 대해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올해에는 불자와 국민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기원의 장으로서 슬픔에 빠진 국민들을 위한 연등회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정총림 범어사 주지 수불스님은 4월 24일 세월호 희생자를 위해 KBS 부산방송총국을 통해 1억원을 전달하는 등 후원금과 물품 지원도 잇따르고 있다.

재능기부도 눈길을 끈다. SNS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무사귀환을 위한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에 동참하는 의미로 불교계는 '노란 연등' 달기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노란 연등'을 제작한 사람은 육군 8사단 팔정사 주지 지용 구윤호 법사로 알려졌으며, 그는 "노란 리본을 새로 만들다가 불교적인 연등에 착안해 노란 연등을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4월 19일 조계사에서 열린 세월호 실종자 무사귀환을 발원하는 108배 행사에서 시민들이 촛불로 '기다릴게'라는 염원을 그려넣고 있다.



진도 팽목항에 설치된 조계종 긴급구호단 부스에서 지역 사찰 봉사자들과 활동가들이 과일과 떡을 준비하고 있다.

사고 직후 현장 내려가
실종자 가족 · 유족 위로
주요 종단 사찰들 일제히
무사귀환 기원 · 슬픔 달래



주요종단 지도자들이 4월 23일 청계천 전통등 전시 개막 점등에서 실종자의 무사귀환과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SNS와 인터넷에도 '노란 리본'으로 무사귀환을 위한 기원을 이어가고 있고, 불교계는 '노란 연등'을 제작해 동참 중이다.

연등회 축제 대신 '애도' 전환
국민의 슬픔 나누고 염원 담아
군승이 제작한 '노란 연등' 달기
SNS 통해 급속 확산 '눈길'

이제 '치유와 평상심 찾기'에 나서자

대한민국은 지금 국상(國喪) 중이다. 불교는 슬픔에 빠진 희생자 유족과 실종자 가족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과 국민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정리=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공감을 연민으로 바꿔 '사무량심' 염송



선업 스님
봄 행복치유센터 원장

이번 사건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스스로 무엇을 욕심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조금 더 욕심내고 한 것이 지금의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한 것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사물이 거울에 비치면 뇌 속 뉴런이 반응하듯 우리 모두는 상황을 보고 공감하는 뉴런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사고를 함께 슬퍼하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아픔 속에만 갇혀 있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공감을 연민으로 바꿔야한다. 이와 관련해 부처님께서 제시한 방법은 사무량심이다. 모든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과 미혹을 없애주는 자(慈)·비(悲)·희(喜)·사(捨)의 네 가지 무량심을 가질 때 나도 너도 치유될 수 있다.

희생자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이 없어지길, 아픔이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자. '세월호 사건으로 가슴 아픈 모든 분들이 슬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며 1시간에 한 번 정도만 마음속으로 염송하는 것이다.

이 마음을 거듭 되풀이한다면 희생자 가족들은 물론 우리 스스로를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다.

알아차림의 '정념'으로 사회주시 하자



서광 스님
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장

군, 정치 등 여러 문제가 얽힌 세월호 참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만 머문다면 좌절 끝에 무기력과 무감각에 빠지게 되고 만다.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와 공감 역시 중요하고 자숙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면 안된다.

선가귀감에서 서산대사는 비회비출(非懷非出), 즉 마음에 품지도 말고 밖으로 내품지도 말라고 하셨다. 슬픔과 분노를 안으로 품어 너무 힘들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밖으로 표출하게 되면 감정의 소진만을 불러와 사건에 대한 빠른 망각으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가 해야할 일은 세월호 사건을 잊지 않고 계속 자각해나가는 일이다. 참사를 몰고 온 원인 하나하나가 시정될 수 있도록 사회를 주시해야한다. 알아차림의 정념(正念)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실타래처럼 꼬인 사회문제에 대해 올바른 목적과 방법으로 화를 내야 한다. 냉철한 시선으로 사회의 아픔, 고통과 함께하면서 의식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

애통 절제… 원칙 통하는 사회 만들자



최훈동 원장
한별정신건강병원

절망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부터 살아있는 자는 희생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이 시대의 국민들과 국가를 위한 각성의 메시지로 읽고 사회가 맑아질 수 있도록 해결책을 강구해나가야 한다.

그러기 전에 세월호 참사는 이기적 욕망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나만 살고자 하는 이기적 욕망과 남을 살리고자 하는 이타적 살신성인이 공존해있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천지차이가 생긴다. 이기적 욕망은 지옥중생의 마음가짐이고 이타적인 삶이야말로 불보살의 삶이다. 이웃의 행복을 위해 내가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자세를 철저히 배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희생자들이 극락왕생하길 바라는 마음처럼 희생자 또한 남은 이들의 안위를 걱정할 것이다. 애통해하는 마음을 절제하고 죽은 이들의 의식이 부담없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고요한 마음을 모은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 국 사

佛紀 2558年 甲午年 Buddha's birthday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주 지 성 타

관 장 종 상 재 무 종 천
학 장 덕 민 사 회 종 민
선 원 장 종 우 포 교 성 요
총 무 종 천 호 법 각 천
기 획 정 문 사 서 정 빈
교 무 정 수 회 계 성 명
신도회장 이 영 숙

부설기관
- 분당 포교당 석가사
- 불국 성림원(노인요양시설)
- 불국사 문화회관
- 불국 유치원
- 성림 어린이집
- 경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대 중 일 동

■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1 TEL 054)746-9912~4 / FAX 054)746-1476



일 주 문



한암 스님 63주기 추모다례재

평창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4월 26일 월정사 적광전에서 한암스님 63주기 추모다례재를 개최했다.



무산복지재단 지역 무료의료봉사

무산복지재단 이사장 정념 스님은 4월 20일부터 1주일간 전국병원불자연합회와 함께 강원도 양양군 주민을 대상으로 한 자비나눔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정전60주년 기념사업 감사패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4월 23일 부산지방보훈청으로부터 정전 60주년 행사를 주도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홍법사 간디 흉상 제막식

부산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4월 25일 한 · 인도 수교 40주년을 맞아 부산인도문화원과 함께 홍법사 내에 간디 흉상을 제막했다.

조계종 국제불교학교 학장에 선일 스님



용인 화운사 주지 선일 스님이 조계종 국제불교학교 새 학장에 임명됐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4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집무실에서 선일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선일 스님은 1981년 통도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1998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동국대에서 선학을 전공했으며 운문사 승가대를 졸업했다. 인도 뿌냐 대학에서 팔리어 및 산스크리트어 석 · 박사학위를, 스리랑카 페라데니야 대학에서 불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조계종 교육아사리이자 화운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총동창회, 장학금 2,400만원 전달



동국대 총동창회(회장 송석환)는 4월 24일 동국대 본관 로터스홀에서 2014학년도 1학기 총동창회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학생 18명에게 총 2,4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수여식에는 송석환 총동창회장, 전영화 수석부회장 등 총동창회 임원들과 김희옥 총장, 정창근 경영부총장, 박정극 학술부총장, 정각원장 법타 스님, 학생 18명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송석환 총동창회장은 "건학정신을 계승하여 개인의 성취는 물론 학교 위상을 드높여줄 동량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노덕현 기자**

"학자 · 종립대간 소통의 장 만들 것"

권탄준 한국불교학회 신임회장

"불교학 결집의 장을 만들어 다양한 연구 경향을 공유하고, 신구 학자간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 이런 자리는 종립대학 간 유대를 강화하는 효과도 지닐 것입니다."

불교계 대표학회인 한국불교학회 제21대 학회장으로 권탄준 금강대 교수가 선출됐다. 한국불교학회는 4월 18일 임시총회를 열고 제21대 학회장에 권탄준 금강대 불교학부 교수를 선출했다. 권탄준 신임 학회장은 동국대 불교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불교학회 이사와 동국대 교수를 거쳐 2003년부터 금강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권 학회장은 먼저 선임 회장들의 노력으로 학회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권 학회장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불교학회가 사실 이상적으로 잘 꾸려져 온 것만은 아니었지만 근자 본 위상을 찾았다"며 "이평래 학회장 당시 사단법인화로 재정적 안정이 되고 김성근, 김용표 학회장을 거치며 학회가 발전해 이제는 명실공히 한국불교학을 대표하는 학회로 자리했다"고 말했다.

권 학회장은 불교학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불교학결집대회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신임학회장 선출과 함께 금강대와 원광대 교수들이 이사에 대거 포함되는 등 학회 외연이 넓어진 만큼 상호 교류를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4월 18일 제21대 학회장으로 선출
금강대 · 원광대 등 구성원 폭 넓어져
불교학 결집대회 등 교류의 장 계획

권 학회장은 "지금까지는 각 종립대학에서 개별 학회를 중심으로 소통이 진행됐다. 불교학계를 대표하는 학회로서 종립대 불교학자들 간의 유대를 적극적으로 제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학회장은 "불교학 결집대회로 한 장소에서 여러 불교학 연구 현황을 공개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한국철학회, 역사학회 등에도 전국철학대회나 역사학자대회 등을 열며 학문발전을 이끌고 있다. 불교학계에도 결집대회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밖에 권 학회장은 한국불교학회가 봄 · 가을에 진행하는 춘추계 학술대회와 겨울방학 중 여는 워크샵과 함께 젊은 신진 불교학자들이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발표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권 학회장은 또 "그동안 불교학 연구 경향을 보면 순수 불교학 중심으로 치우쳐 있었는데 대회 등을 통해 교류가 활발해지면 인접학문과의 융합, 사회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 등이 보다 다양해 질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한편, 한국불교학회는 이날 임시총회에서 신임법인 이사를 비롯해 제 21대 감사도 선출했다. 신임법인이사는 최종석, 윤영해, 석길암 금강대 교수, 김도공 원광대 교수이며, 신임 감사는 윤원철 서울대 교수, 하춘생 동국대 교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스리랑카인 위한 마하위하라센터 건립에 관심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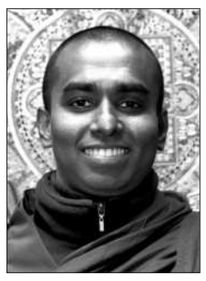
담마프렌즈 대표 담마끼띠 스님
5월 4일 평택 팽성읍서 기공식

스리랑카인 커뮤니티인 담마프렌즈가 스리랑카 불교사원 마하위하라센터를 건립한다. 담마프렌즈 대표 담마끼띠 스님〈사진〉은 5월 4일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석근리에서 기공식을 갖고 내년 부처님오신날을 목표로 사원 건립에 들어간다.

담마끼띠 스님은 "마하위하라 센터가 완성되면 위빠사나 수행처는 물론, 이주민들의 교류의 장, 상좌부 불교를 알리는 문화원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마하위하라센터는 초기불교, 빨리어, 위빠사나 명상 등에 관심을 가진 불자들에게 수행 공간을 제공,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마하위하라센터는 완공까지 총 20억원의 예산이 들 예정이다. 스님은 "마하위하라센터는 전통적인 싱할라 건축 배치인 중앙 건물을 중심에서 사방으로 연결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현재 6억 3천 만원의 예산으로 건물 건립을 시작하고 있으며 완공까지는 총 2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기에 꾸준한 모금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국제선센터 서울 남부교도소 지원법회

서울 국제선센터(주지 탄웅)가 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한 포교활동을 시작했다. 국제선센터는 지난 4월 16일 구로구 천왕동에 소재한 서울 남부교도소를 찾아 개원 이후 첫 지원법회를 봉행했다.

남부교도소 강당에서 봉행된 이번 첫 법회에는 재소자 250명과 포교사단 및 국제선센터 신도 10여명이 동참했다.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자비나눔행사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교도소 지원법회는 4월 6일 군법당 1공수여단 일취사 자매결연식에 이은 것이다.

주지 탄웅 스님은 "지난 군법당 일취사에 이어 가까이 있는 재소자분들에게 불법을 전하고 교정교화함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금 회향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는 일이 곧 부처님 일"이라며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인생에 있어서 선택과 책임의 중요성' 에 대해 법문했다.



국제선센터는 향후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지원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BATI, 불교문예 신인상 3명 수상



불교문학창작교육원(BATI, buddhist author training institute, 원장 남지심) 회원 3명이 불교문학 계간지 〈불교문예〉 신인상을 수상했다.

신이산(소설 '녹') · 조재훈(동화 '옻샘') · 마선숙(소설 '저녁의 시') 씨는 4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신인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정혜숙 기자**

동국대 정각원 '평화의 불' 봉안



선묵 혜자 스님이 이끄는 108산사순례기도회가 동국대 정각원을 찾아 '평화의 불' 행사를 열었다. 전국 사찰을 돌며 나눔과 봉사활동을 펴고 있는 108산사순례기도회원 2,500여 명은 4월 24~25일 동국대를 방문해 정각원을 참배하고 '평화의 불'을 봉안했다.

이 날 법회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 무사생환과 희생자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행사도 함께 열렸다. 선묵 혜자 스님은 "건학108주년을 맞은 동국대 정각원에 평화의 불을 분등하게 되어 기쁘다"며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 희생자들과 슬픔에 잠긴 모든 가족들에게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노덕현 기자**

무등산풍경소리 교보환경대상 수상



무등산풍경소리(지기 연광)는 4월 22일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제16회 교보환경대상 '생명문화' 대상을 수상했다. 교보환경대상은 매년 각 분야에서 시민환경의식 고취와 환경 친화적 사회 실현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국내 최고의 종합환경상이다. 연광 스님은 "환경음악회와 숲 탐방을 꾸준히 이어온 것이 존중받는 것 같아 행복하다"며 "무보수 자원봉사로 오늘을 지켜온 무등산풍경소리 가족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佛紀 2558年 甲午年 Buddha' s birthday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봉

한 국 대 승 불 교 조 계 종

축

종 정 봉 진

총무원장 취운 사정원장 혜관 비구니종무원장 덕산

호계국장 금강 사회국장 성군 감찰국장 대진 비구니총무국장 덕심

불 국 사(봉진)	지 장 사(광영)	금 정 사(덕심)	법 성 사(법룡)	문 수 사(성묵)	약 샘 사(대진)
용 주 사(용주)	대 성 사(지선)	당 포 사(종철)	성 불 사	칠 성 암(사우)	운 고 사(운고)
동 방 사(법운)	불 현 사(대공)	용 연 사(취암)	여 래 암(경담)	보문선원(보문)	청 호 암(혜인)
동 방 원(법운)	극락정사(석도)	쌍 암 사(덕산)	약 불 암(혜각)	구 룡 암(대공)	대왕정사(혜월)
미 정 사(운선)	미륵정사(미정)	범 굴 사(무법)	칠 성 암(무설)	무 심 사(보명)	보우선원(성군)
개 남 사(도일)	보광정사(자공)	약 불 암(무여)	천 자 암(무우)	약 수 암(법륜)	항 운 사(해인)
공 덕 사(선혜)	백 련 암(문정)	화 성 암(성화)	쌍 봉 암(쌍묵)	내 원 암(해인)	대 연 사(일화)

불심정사(혜관) 052)275-5539, 010-4590-5539 천광정사(취운) 051)514-8766, 010-9706-1103 금강사(금강) 061)392-0999, 010-8604-1111

■ 총본산 :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1150, 불국사 (055-521-1236) ■ 총무원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361, 천광정사 (051-514-8766) ■ 사정원 :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59번길 30-8, 불심정사(052-275-5539)

전국 지역 봉축행사 경건한 분위기로 진행

'세월호 참사' 애도… 취소하거나 축소키로

세월호 여객선 사고와 관련해 전 국민이 애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지역불교계는 예정된 봉축행사의 일부를 취소하거나 불가피하게 진행하게 될 경우 봉축행사를 경건하고 차분한 분위기로 치르기로 했다.

전북불교봉축위원회(위원장 성우)는 4월 19일 전주 덕진공원에서 개최된 전북어린이 큰잔치는 문화공연을 취소하고 백일장과 사생대회만 진행했다. 20일 익산솜리예술회관에서 개최하려던 전북불교합창제와 23일 예정됐던 35사단 연등제는 행사자체를 전격 취소했다. 26일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진행하는 연등축제는 식전공연 등 축하공연을 생략하고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염원하는 법회로 진행했다.

고창 선운사는 4월 26일 예정됐던 고창군민 한마당잔치를 취소했다. 대신에 교도소등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 자비나눔 법회로 대체했다.

각 사찰에서는 사고당일부터 세월호 희생자의 극락왕생과 실종자의 무사생환을 기원하는 기도를 입재했다.

전북봉축위 관계자는 "대규모 문화공연등은 모두 생략하고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법회로 경건하고 차분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봉축행사도 일부 일정이 축소됐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는 4월 26일~27일 양일간 진행된 봉축행사를 일부 축소해 26일 관등법회와 추모의식을 봉행했다. 먼저 광주공원앞에서 진행된 26일 행사는 당초 행사 예정인 연꽃문화제(동련,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청소년음악놀이한마당(광주파라미타청소년협회) 행사는 취소되고, 영산재, 관등법회와 탑돌이 행사, 전통등 전시회만 개최됐다. 이어 27일 열릴 예정이던 전통차시연, 외국인문화축제(광주외국인복지센터, 해뜨는 복지센터)는 전면 취소됐다.

광주불교연합회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적 아픔을 공감하는 의미로 행사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하지만 시민들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봉축행사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불교계는 4월 18일 광주시청 사거리에서 '불기 255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백양사 주지 진우스님, 현지스님(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 호산스님(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장), 연광 스님을 비롯한 광주불교연합회 회원사찰 스님들과 신도 500여명 동참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 밖에 **포교사단 전북지역단**(단장 주정기)과 전주완주 불교청년회, 대불련 전북지부가 공동주최하고 전라북도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성우)가 후원한 제11회 전북어린이 큰 잔치가 4월 19일 전주 덕진공원에서 개최됐다.

당초 마술쇼, 어린이 댄싱경연대회, 장기자랑등이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진도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고와 관련해 차분한 분위기속에서 글짓기와 백일장대회만 진행하고 예정돼있던 마술쇼, 어린이 댄싱경연대회, 장기자랑은 취소됐다.

여객선 침몰사고 여파로 인해 예년에 비해 참가자수가 대폭 줄어든 가운데서도 전북지역의 초등학생과 학부모 가족 등 1천여명이 참가해 글짓기, 사생대회와 다양한 민속놀이, 불교문화체험의 기회를 가졌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수불)와 **부산불교연합신도회**(회장 이윤희)도 '2014 부산연등축제' 와 '제등행렬' 을 취소하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고 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박대성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이 현지 파악 후 꼭 필요한 물품들을 선정 · 구매하여 4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양말, 물티슈, 우의, 차 등 1천만원 상당의 1차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수불 스님은 "세월호 사건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참담한 비극이다. 부산 불교계의 안타까움과 슬픔을 전하고 끝까지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구호물자 전달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불교연합회는 향후에도 세월호 침몰사건 희생자 가족들을 위한 자비 행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경주 불국사(주지 성타)는 4월 20일 '제29회 불국사 어린이 그리기 · 글짓기 대회' 를 경내 범영루 앞 광장에서 개최했다. 8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 역시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시상은 28일 불국사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각 학교에 상장 및 부상이 배부될 예정이다. 장려상 이상의 입선작은 불국사 경내에서 5월 6일부터 6월 6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울산 황룡사(주지 황산)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법회를 4월 20일 황룡사 법당에서 거행했다. 황산 스님과 70여 사부대중은 희생자 영가 위패와 세월호 침몰사고의 현장 사진을 사전 준비해 법당에 모시고 49일 후 왕생극락의 길 '반혼재' 를 지냈다.

부산 원오사(주지 정관)도 4월 22일 지역어르신을 위한 '제6회 효 삼사순례' 를 거행했다.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어르신을 위한 순례를 준비해오고 있는 원오사는 올해 450여 어르신을 모시고 익산 미륵사지, 완주 송광사 · 위봉사를 순례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전북… 26일 연등축제 희생자 추모법회
광주… 26일 관등법회 추모의식 진행
부산… 연등행렬 취소 · 구호물품 전달

"무애자재한 차별 없는 한반도 되길"

고불총림 방장 지선 스님 고불법회



백양사 제4대 방장인 지선 스님이 법회를 열고 있다.

고불총림 백양사의 제4대 방장 지선 스님의 고불법회가 봉행됐다.

이날 지선 스님은 법어에 앞서 18일 진도를 방문해 희생자 가족을 위로하고, 이날 세월호 희생자의 조속한 구조와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말을 전했다.

스님은 법어를 통해 "이곳 한반도는 활발발(活潑潑)하고 무애자재(無碍自在)한 차별 없는 참사람(無位眞人), 신인류가 탄생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했다.

행사는 축하공연이 생략된 가운데 명종, 불교의례에 이어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묵념, 반야심경 봉독, 행장 소개, 고불문,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명선 · 원명 · 월탄 · 암도 · 월서 · 도문 스님 등과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정념 · 원경 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혜암 대종사 탄신 95주년 법회

4월 21일 해인사 원당암 달마선원서

조계종 前 종정 혜암 대종사의 95번째 탄신을 기리는 법회가 거행됐다.

혜암문도회는 4월 21일 해인사 원당암 달마선원 선불당에서 원당암 감원 원각 스님과 문도대표 성법 스님 등 3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사부대중은 헌향과 죽비삼배와 육법공양을 올리는 의식을 거행했다.

한편 법회에 앞서 해인사 원당암은 무생교 다리를 새로 설치하고 준공식 및 개통식도 가졌다.


사부대중이 혜암 대종사의 탄신을 기리며 육법공양 의식을 올리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구례 화엄사 지역민 위한 떡국공양

구례 화엄사(주지 영관)는 4월 23일 구례군민과 어르신들을 위한 '7회 떡국공양' 을 구례 5일장터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는 화엄사 스님들과 신도회, 화엄사가 운영하는 구례군노인요양원, 구례군장애인복지관 직원 등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500인분의 떡국을 군민 및 어르신들과 함께 나눴다.

화엄사는 "진도여객선 사고로 인한 국민적 어려움에 힘이 들지만,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화엄사 대중들이 이웃과 함께 나누는 마음을 실천하고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화엄사는 "지역민들의 유대관계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구례 화엄사(주지 영관)는 4월 23일 구례군민과 어르신들을 위한 '7회 떡국공양' 을 구례 5일장터에서 가졌다.



대구 능인학원 합동수계법회 거행

4월 22일 능인중고등학교 1500여 학생 수계

조계종 종립 학교법인 능인학원(이사장 자현)은 4월 22일 대구 능인중고등학교 대강당에서 합동 수계식을 거행했다. 수계식에는 학생 1500여명이 참석해 자현 스님을 수계법사로 모시고 오계를 받아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학교법인 능인학원은 깨달음의 종교인 불교포교와 신심 함양을 위해 3년 마다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수계식을 봉행하고 불명과 수계증을 수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백일순례단, 전주 야단법석 토론회

화쟁코리아 백일순례단(단장 도법)은 4월 19일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야단법석 토론회를 개최했다.

'AI 조류독감, 살처분문제의 생명 평화적 해결방안' 이라는 주제로 박병기교수(한국교원대)와 박소연(동물사랑실천협회)씨가 발제자로 나서 불교생명윤리 관점에서 본 동물의 살처분과 대안모색, 공장식 축산 방식 및 살 처분 실태보고에 대해 발표했다.

이들은 올 겨울 발생한 AI조류독감으로 인해 가금류의 살처분 방식과 공장식 사육 환경에 대해 심도높은 토론을 전개했다.

이어 전주 풍남문 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최근 발생한 진도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실종자들의 무사귀환과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국민통합 위령제를 봉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쟁코리아 백일순례단이 토론회에 앞서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와 희생자를 기리는 위령제를 거행했다.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 조계종

계율청정종단

■종 정

총무원장 : 혜인 사서실장 : 대산

율 원 장 : 혜일 방 장 :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중앙선원장 : 도일

■원 로 원 : 성민, 혜일, 혜정,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총무원

부 원 장 : 동안, 도불
총무부장 : 천산
재무부장 : 혜만
교무부장 : 혜일
사회부장 : 정덕
문화부장 : 지운
총무국장 : 남산
재무국장 : 정일
교무국장 : 지성
사회국장 : 법일
문화국장 : 해인
문화재관리국장 : 진각
교육원장 : 상산
교육부원장 : 광덕
교육부장 : 태산
교육국장 : 진산
포교원장 : 정산
포교부장 : 법진
포교국장 : 무량
국제포교원장 : 중산청목
기획원장 : 진성
기획실장 : 노사나
호계원장 : 천불
호계부장 : 태산
규정부장 : 월성, 서산
규정국장 : 영암, 지산
호법부장 : 성산, 지호
호법국장 : 법성
감찰원장 : 정오
감찰부장 : 백산지견
감찰1국장 : 법산
감찰2국장 : 수산
감찰3국장 : 인산
감찰4국장 : 봉산
비구니 회장 : 지성
총무 : 정해
부회장 : 해월, 혜산, 월산
재무 : 도은, 향인
교무 : 현타, 수정
교육 : 법신, 성담
문화 : 남산, 보현
포교 : 보명, 홍산
강원 : 덕산, 혜승
복지 : 본각, 화광
감찰 : 금산, 보현
불화 : 혜담, 인산, 진화
의식 : 련성, 지해, 수옥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 정산
서울남부종무원장 : 보덕
경기종무원장 : 도불
경기서부종무원장 : 자명
경기남부종무원장 : 해인
인천종무원장 : 혜원
강원종무원장 : 광덕
충남종무원장 : 혜덕
충북종무원장 : 학산
경남종무원장 : 백산 지견
경남남부종무원장 : 천산
경남서부종무원장 : 지명
경남창원종무원장 : 지원
경북종무원장 : 덕운
부산종무원장 : 서봉금산
부산북구종무원장 : 수산
전남종무원장 : 도명
전북종무원장 : 법성
제주종무원장 : 청호
울산종무원장 : 혜공
일본오사카종무원장 :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 : 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 해산
중국청도종무원장 : 중산청목

◇ 학교법인 삼화학원 ◇

▣불교조계종대학림

학 장 : 혜일 부학장 : 일봉
교 수 : 해운, 월곡, 봉선, 혜정, 정산, 박수구, 김수정, 김동균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호,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지성

▣불교조계종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상산,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도홍,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중국남경중의약대학

총 장 : 오멘화 부 학 장 : 정오, 남산
한국총장 : 손혜인 중고등학교장 : 손영진
학생처장 : 손영진 조 교 : 심미, 유위, 손정 국제부교무과장 : 이안산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금산,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불교조계종 신문사

발행인 : 혜인 편집인 문화부장 : 태산
편집기자 : 이기영 문화국장 : 용산
사회부기자 : 이근진, 유현석 사회국장 : 법산
이사 : 혜원, 정산, 보운, 각원, 덕산, 향인, 금산, 해인, 정해,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종단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총 림

서울종림 해인사
삼화종림 백화사
부산종림 흥국사
경남종림 백천사
강원종림 조주선관
충북종림 청룡사

▣종단사업부

대표이사 : 노사나
불교조계종
좋은상조 : 김호철
H&G : 이영호
금융사업본부

▣전국신도회

고문 : 김윤주
회장 : 설주성
사무처장 : 이상훈
부산신도회장 : 허민
강원신도회장 : 김현재

▣청년신도회

회장 : 손영진
홍보처장 : 박영실
총무계장 : 조일
기획실장 : 심원일

총무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우135-887
총무국 (02)511-2026~7 / 팩스 (02)511-2028
종단사업부 : (02)549-1918
총무원장실 (02)511-1080
불교조계종신문 (02)3445-7375~6
일간동국신문사 : (02)511-1080
인터넷주소 : 불교조계종.kr(www.sh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 www.jogaejong.or.kr
불교조계종학림 :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E-mail 주소 : samhwade@hanmail.net
samhwade@naver.com

佛紀 2558年 甲午年 Buddha's birthday | 전면광고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 A6

"몸소 체험해 보지 않았다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좋은 글귀를 잘 외워도 이익될 것 없고 훌륭할 것이 없다.
목동이 주인의 소를 아무리 많이 세어도 자기의 소는 한 마리도 없는 것과 같다." 〈증일아함경〉



모든 불보살님의 가피가 저 바다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불교태고종

종정 혜초

승정원 원장 남파
부원장 법장

원로회의 의장 덕화
수석부의장 법달
차석부의장 지족

중앙종회 의장 혜공
수석부의장 지홍
차석부의장 자운

총무원 원장 도산
부원장 호명
총무부장 재홍
교무부장 상진
문사부장 성인
규정부장 지담
홍보부장 혜철
전법사부장 도정
사서실장 현광

호법원 부원장 상묵

종도일동

■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 (사간동 112)
전화 02)739-3450~4 팩스 02)739-3470

大韓佛教 天台宗

종정 김도용 대종사

종정사서실장 박덕수

총무원
총무원장 변춘광
총무부장 김월도
교무부장 방경혜
교육부장 정장호
재무부장 정월중
사회부장 지설혜
규정부장 조용문

원로원
원로원장 전운덕

감사원
감사원장 김용암
감사위원 엄행주

종의회
종의회의장 이문덕
종의회부의장 김무원 · 김형구

참의원장 김학송
금강대학교 총장 정병조

■ 충북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총본산 구인사 / TEL 043)423-7100 FAX 043)420-7399 www.cheontae.org

진기 2558년

봉 부처님처럼 살자 축

생활불교 실천불교 진각종

당신은 진언 향기 가득한 참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총인 성초

통리원장 회정
종의회의장 덕일
현정원장 회성
교육원장 경당
예경실장 · 총무부장 덕정

여객선 침몰사고로 힘들어 할 우리 가족들에게 불자님들 모두가 힘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136-130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3길 17 전화: (02)913-0751~4 팩스: (02)913-0755 http://www.jingak.or.kr

총기 43년
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불교총지종

종령 효강 대종사
통리원장 법등

중앙종의회 의장 수현
사감원장 법상인
총무부장 인선
재무부장 우인
교정부장 원당
사회부장 지정

중앙교육원장 화령
동해중학교 이사장 지성
서울경인교구 교구장 법우
대구경북교구 교구장 안성
부산경남교구 교구장 시정
충청전라교구 교구장 환수원

중앙종의회 의원
총지종 유지재단
전당건설 위원회
통리원 임직원

법장원
밀교 연구소
(재) 사회복지재단
각 사원 주교 및 스승

총지종보 및 종보통신원
(주) 이지스상조
각 교구 신정회 일동
만다라요양원 · 바라밀 공부방 · 초록어린이집
일원어린이집 · 포레스타7단지 어린이집

불교총지종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 (역삼동) | Tel. 02)552-1080~1083 | Fax. 02)552-1082 | www.chongji.or.kr

(사) 대한불교 무량종

종정 정혜안 사서실장 보인
원로원장 양지은

총무원장 보운 교육원장 보산 감찰원장 정담 포교원장 지관
중앙종회의장 법우 부의장 보월. 보아 사무총장 보성
고시위원장 현장 종책자문위원장 종성 선관위원장 보아

총무부장 보공 재무부장 보혜 교무부장 정은 사회부장 보상 포교부장 자운
총무국장 보림 재무국장 보정 교무국장 보선 사회국장 정심 포교국장 정혜

■ 총 림 : 부산시 사하구 괴정 2동 314-7 은암천불정사 / 전화 051)292-4586
■ 총본산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칠성로 748-8 칠보정사 / 전화 055)883-7771. 7790

사단법인 대한불교 원융원(종)

宗正 靈山 一空
總務院長 원정 성관

원로원장 성인
원로원 선명. 신수
정각. 법성
승정원원장 평신
중앙종의회의장 해안
총무원부원장 진호
감찰원장 해주
종정예경실장 대천

교육원장 도현
문화원장 혜광
포교원장 담원
중앙비구니회장 선덕
중앙비구니회부회장 진월
사업부장 태상
국제포교부장 도우. 체상

부산종무원장 해운 전라도종무원장 혜천
충청도종무원장 의성 경상남도종무원장 우담
경상북도종무원장 성군 경기도종무원장 정안
강원도종무원장 보원 제주도종무원장 원각

■ 총무원 : 서울시 구로구 구로 2동 704-39호
전 화 : 02)853-0531~2 / 팩스 02)853-0533

고통 받는 이웃 보살피는 것이 봉축의 참 뜻

극락왕생 · 무사귀환 燈 밝히자

진제 스님
조계종 종정



마야부인 태중에서 나와 일곱 걸음을 걸음이여, 자비스러운 광명(慈光)이 천하에 가득함이요,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또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며,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홀로 높음이라(天上天下 唯我獨尊)"하시니, 과연 홀로 높고 홀로 귀함이라. 비록 그러하나, 다리 아래를 보소서(看脚下).

사부대중이여, 다 같이 집집마다 거리마다 마음마다 축복의 등, 나눔의 등, 통일의 등을 환하게 밝혀 부처님께서 오심을 봉축합시다. 부처님오신 날은 기쁜 날입니다. 어둠의 무명이 가득한 사바세계에 영원한 상서로운 빛이 처음 깃든 날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은 성스러운 날입니다. 진리의 세계, 적멸의 세계에서 만중생에게 영원한 자유와 위없는 행복의 바른 길을 밝혀주기 위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의 몸을 나투어 이 땅에 출현하신 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성불하시어 생사가 없으셨건만, 어찌하여 굳이 중생의 옷을 입고 생사를 보이시고 성불의 길을 다시금 걸으셨겠습니까? 과거 · 현재 ·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중생의 몸을 의지해, 바른 신심으로 생사해탈(生死解脫)의 길을 증득하는 것임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왕자로 태어나 출가하신 것은, 세상사 어떠한 부귀공명이라 할지라도 한낱 물거품이요, 아침이슬과 같으니, 생노병사를 요달하여 자기사(自己事)를 찾는 것보다 값진 것이 없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온갖 고행과 선정(禪定)을 초월하여 대도(大道)를 이루신 것은, 진리의 대도는 근기에 따른 방편이 따로 있지 아니하여서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여래의 국토에 이르는 것임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여래의 국토에 이르겠습니까? 바로 참선수행법이니, 일상생활가운데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던고?"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주 간절한 의심으로 화두를 챙기되, 하루에도 천번 만번 챙기어 화두의심 한 생각이 끊어지지 않게끔 정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흐르는 물과 같이 간절한 화두의심 한 생각이 흘러가다보면 문득 사물을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소리를 듣는 것도 잊어버려서 한 달이고 일년이고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화두가 박살이 남과 동시에 참나를 깨달아 영원한 안락정토에 이르게 됩니다.

사부대중이여, 요즘 세상에 교훈삼아야 할 가르침이 있으니, "일일전허(一人傳虛)에 만인전실(萬人傳實)"입니다. 한 사람이 거짓된 말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이 이를 사실처럼 전하게 되는 것이니, 한 마디의 말을 듣고 전하는 데도 깊이 생각하고 생각해서 세상을 맑혀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애도합시다. 진도 앞바다에서 우리의 가족이요, 나의 한 몸과 같은 어린 생명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다 같이 극락왕생 발원의 등과 무사귀환의 등을 밝혀 영원한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금일 부처님오심을 봉축함과 더불어 세월호 참사에 따른 모든 희생자분들이 영원한 진리의 낙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산승도 진리의 등불 하나를 밝히고자 합니다. 모든 사부대중과 모든 영혼들께서는 잘 간직하소서.

일파유조수부득(一把柳條收不得)하여
화풍탑재옥난간(和風搭在玉欄干)이로다
한 주먹의 버들가지 잡아 얻지 못하여
봄바람에 옥난간 벽에다 걸어 둠이로다.

말법 세상에 정법을 세웁시다

성초 정사
진각종 총인



오늘은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두 손 모아 받들어 찬탄합니다.

사바의 무여(無餘) 중생을 제도하려고 무수겁 세워 온 원력에 따라 법신(法身)에서 화신을 나타내시니 이 땅에 환희의 물결이 넘쳐흐릅니다.

부처님은 거래금(去來今)이 없으신 몸이시라 삼계의 도사(導師)로서 자비무량 베푸십니다. 여전히 탐진치(貪瞋癡)의 물결이 휘몰아쳐서 세월호 여객선이 전복(顚覆)하여 목숨을 잃은 이들, 슬픔에 잠긴 가족 친지 등, 여기 고통이 가득하니 뭇 생명을 보살피는 부처님의 자수(慈手)를 기원합니다.

법계의 실상(實相)은 본래 일여(一如)하여서 자타(自他)가 상보(相補)하여 공존(共存)을 이루고 화해의 정토세계(淨土世界)가 여기 항상 하여도 과학물질의 혜택은 미증유(未曾有)로 누리면서 가정 정치, 종교에서 마저 분별의 갈등이 깊어가니 우리 모두 무명망상(無明妄想)을 참회합니다. 말법(末法) 세상에 심인정법(心印正法)이 우뚝 서서 진언염송의 묘법(眞言法妙)이 심전(心田)을 정화하면 세사(世事)의 환란이 다시 희망의 동력으로 승화하고 진각성존의 무진서원(無盡誓願)이 세간에 두루 하여 빈부와 세대(世代), 이념과 남북이 화음和音을 이루는 부처님의 밀엄국토가 이 땅에 펼쳐집니다.

동서고금 남녀노소 그 누구도 하늘 위 하늘 아래 홀로 존귀한 뜻을 걸음걸음 심중(心中)에 새겨서 초목군생이 제 향기를 품어 내고 중생이 사는 세상이 그렇게 평화롭도록 일심(一心)으로 발원하여 부처님 오심을 봉축합시다. 부처님의 원력에 귀명합시다.

내 이웃의 아픔이 곧 내 아픔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은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웠으며, 보이지 않던 것을 바로 보게 하였으며, 치우친 생각을 바르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하였으며, 한 뿌리임을 알게 하였습니다. 이웃의 아픔은 곧 내 아픔이고, 내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이웃을 평화롭게 해야 함을 깨우치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부러워 할 만큼 짧은 시간에 부와 번영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부지런하고 가장 성실한 국민들 덕분입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하고 쉼 없이 달려 왔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부강한 나라를 세웠으며, 이제는 경제를 넘어서 문화적으로도 다른 나라가 부러워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른 생각이나 바른 실천을 몰라주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는 미래가 밝지 못한 사회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합니다.

일 할 때는 작은 일이라도 품앗이를 하는 나라, 짐이 생기면 문화예술로 쉬는 나라, 맛있는 음식은 콩 한쪽이라도 나눠먹는 이웃 사촌이 많은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나라, 우리의 아이들을 모두가 내 자식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키우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족하더라도 마음이 여유로운 나라, 기회가 되는대로 이웃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여객선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길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영가분들이 어둠과 혼란에서 어서 나오시기를 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분들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부디 시간이 더디더라도 기운을 내시고 슬픔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바람과 햇볕이 원만하고 만물이 소생하는 오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청정심과 자비가 온 세상에 퍼지길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봄바람에 날리는 꽃 내음이 가득한 오늘은 부처님 오신날 입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자 선각자이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천만불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봉축합니다.

해마다 부처님 오신날이 되면 우리는 연등을 밝힙니다. 연등은 번뇌와 무지로 가득 찬 어두운 무명(無明)의 세계를 영원한 진리의 광명으로 밝게 비추는 것을 상징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등을 켜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가진 내면의 지혜를 밝히고 부처님의 자비로움으로 온 세상이 밝고 향기로운 세계가 되기를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천만불자와 국민 여러분!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시면서 "일체중생이 하나도 빠짐없이 불성(佛性)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신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 개개의 존재가 모두 존귀하며 모든 생명들이 차별 없는 절대 평등자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추구해 온 무한한 물질의 가치는 생명경시의 풍조로 이어지고 전통적 가치관의 훼손과 함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역 · 계층 간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사회적 약자의 고통은 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께서 진실로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웃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요, 일체 생명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라 말씀하시고 완성된 지혜를 혼자만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중생구제의 길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비록 자라는 곳이 진흙밭이지만 그곳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리고 중생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보살도 아프다는 비원(悲願)의 가르침처럼 청정한 마음과 차별 없는 자비가 온 세상에 두루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고통받는 모든 이에게 위로를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불자와 국민 여러분! 오늘은 부처님오신날, 만중생이 찬탄하고 환희해야 할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지금 참담한 마음을 가누며 연등을 밝히고, 진도해상 여객선 침몰사고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인천(人天)의 스승이신 부처님께서는 지혜로 상생하고 자비로 화합 하는 길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중생계의 대립과 갈등은 끝이 없어서 지구촌 곳곳에 기아와 질병, 전쟁의 공포가 가득합니다. 우리 삶의 터전인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도 경제 불황도 여전합니다. 탐욕과 어리석음이 스스로를 고통 속에 가두었으니 육도윤회의 어둠은 한 순간도 멈춤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진도해상 여객선 침몰사고 희생자와 가족들을 위해 깊은 위로와 희망의 등불을 밝혀드리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염원해야 합니다.

불자와 국민 여러분! 오늘 부처님오신날, 우리는 손에 손에 등불 밝혀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을 비춰봐야 합니다. 자성이 청정하여 중생이 곧 부처이며, 법계가 무궁하여 극락과 중생계가 따로 없음을 깨달아 현생정토 구현의 큰 서원을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연등하나 밝히는 공덕으로 사해인류가 평온하고 사람마다 가정마다 웃음꽃 피어날 것이니 부귀와 빈천의 벽도 허물어질 것입니다. 중생심에 등불 밝혀 부처의 눈 뜨고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은 억겁보살이요 곁에 있는 사람은 삼세제불의 현신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고통 받는 모든 분들께 따뜻하고 밝은 위로를 보냅시다.

불교의 자주정신으로 육행을 실천하자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불자님들 가정에 복과 지혜가 충만하고 이웃과 사회에 희망과 자비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삼라만상 모든 것이 진리요, 자비와 지혜이자, 무한한 성품, 그 자체임을, '천상천하 유아독존' 의 가르침으로 이 땅에 전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가 주인이자, 부처임을 자주정신의 깨달음으로 전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 자주정신으로 단지, 삼독을 단제하겠다는 수동적인 마음보다는 육바라밀을 실천하여 부처의 본심으로 진정한 해탈의 기쁨을 나눕시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쁜 마음으로 나눔의 보시를 실천하고, 자신의 행동과 습관을 절제할 줄 알며, 하심을 통해 인욕의 지혜를 배우고, 매사 최선을 다하는 열과 성의를 가지며, 바른 사유로 가지런한 마음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삼라만상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볼 줄 아는 인과 이치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현 시대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도 이 인과 이치를 깨달은 지혜로 통찰해 마음속 깊은 어리석음을 밝히도록 참회합시다. 그래서 불교의 자주정신을 일상생활 속에 육행실천으로 옮겨,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상을 불국정토로 건설하겠다는 대 서원을 세워봅시다.

끝으로, 이번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분들과 아직도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을 유가족분들을 위해, 이 힘겨운 시간들을 무사히 이겨낼 수 있도록 불자님들 모두가 힘이 되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희생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실종자 무사생환과 희생자분들 모두가 극락왕생성불하시길 간절히 서원합니다. 더불어 유가족분들에게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길 서원합니다.

마음 밭 갈아 중생구제 열매 맺자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



기화요초가 만발하고 만물이 생동하는 호시절에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지구촌의 명절이요 온 우주의 축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외치셨다는 초성 '하늘 위나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다' 는 말씀은 내가 우주삼라만상이 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씀이고 '온 세상 만중생의 고통을 모두 건져내리라.' 는 선언은 우주 삼라만상을 집어삼키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걸식하는 부처님을 보고 농사짓는 바라문이 당신도 밭을 갈고 씨를 뿌려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나도 마음 밭을 갈고 보리종자를 씨 뿌린다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사짓는 농부의 마음은 수행자의 마음이고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선남선녀의 마음입니다. 보리종자를 씨뿌리기 위해 마음 밭을 갈고 탐 진 치 삼독 잡초를 뽑아 작물을 키우고 중생구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겨자씨 속에 온 우주를 머금었다는 말은 겨자씨 속에 우주 삼라만상이 들어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70억 인구 가운데 들어있는 이 하찮은 나, 즉 겨자씨가 우주 만물 만상을 집어삼켰다는 말이기도 하고, 좁고도 좁아 겨자씨 한 톨도 허용하지 못하는 중생심이 우주를 허용하고도 남는 대자대비의 마음이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온 우주를 집어삼키고도 넉넉한 수행자로 선남선녀로 거듭나길 바라며 온 세상 온 우주가 부처님의 향기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더불어 세월호 희생자 여러분의 무고안온한 극락세계 왕생을 발원하며 다 함께 불도를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본래 있던 기쁨으로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여래청정묘법신(如來 淸淨妙法身)이 여
자연구족항사덕(自然具足恒沙德)이라.
주변법계무궁진(周遍法界無窮盡)하사
불생불멸무거래(不生不滅無去來)하네.

여래의 청정한 진리의 몸이여.
바닷가 모래 같은 무수한 공덕
빛나고 빛나 세상에 가득하니
오고 감이 없이 우리 곁에 늘 계시네.

채워짐은 비어있음에서 비롯되니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이여
내 것이 아닌 것을 버릴 때
본래 있던 기쁨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생명이 귀하고 사람이 거룩합니다.
모든 어르신은 내 부모요,
모든 어린이는 나의 자녀이니
지혜의 등불로 사바의 어둠을 밝히고
자비로운 불심으로 아름다운 연꽃을 피워내소서.

슬기롭게 극복합시다

효강 정사
총지종 종령



오늘은 인천의 위대한 스승님이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쁜 날입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꽃등이 피어나고 새들이 맑은 소리로 부처님 오심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뜻을 되새기며 지혜로서 슬기롭게 생활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의 절대적 진리는 인연법이요, 내가 지은 것은 지은대로 받는 인과법입니다. 일체의 모든 인연은 내가 과거에, 전생에, 그리고 현생에 지어온 일체의 모든 행위들이 원인의 씨앗이 되어 때맞춰 과보를 받는 것입니다. 인과는 누가 인연 지어 주는 것이 아니요,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입니다. 쉽게 내 뱉었던 말 한마디, 머리 굴려 쥐어 짜낸 생각 하나 하나,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 하나 하나가 아주 적은 것이라도 숨겨짐이 없이 오늘의 현실을 만들어 냅니다.

우리 불자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지은 업을 다 없애고 앞으로 새로운 업을 짓지 않겠다고 비로자나부처님께 지심으로 참회하여 업장을 소멸시키고, 삼밀관행 진언염송정진으로 즉신성불 해탈해야할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모든 불자님들이 인연법과 인과법을 깨쳐서 일제 모든 경계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 집착과 아집을 버리고 자신의 업을 지심으로 참회하여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비로자나부처님께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와 지혜는 세상 어둠 밝히니

환희와 축복으로 오신 부처님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보통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먹고살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쁘고, 자식들 돌보기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쁜 일상이 참으로 행복한 삶인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우리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은 감로수 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의에 찬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아상으로 가득한 사람에게는 무상의 이치를 깨닫게 합니다. 빈자의 등불로 거친 비바람을 이기는 힘을 보여주신 것처럼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러일으키십니다. 부처님의 강탄을 봉축 드립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탄신을 봉축합니다.

자비의 등불을 함께 밝힙시다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법등 정사



찬란한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신 부처님께서 연꽃처럼 맑은 향기와 대자대비하신 원력으로 무명의 어둠에 쌓여 있는 중생을 구제하시고자 나투신 참으로 뜻 깊고 행복한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우리 불자들은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부처님의 불성과 자리이타의 등불을 밝히도록 합시다. 내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 나아가 일체 중생 모두가 부처님의 불성을 지니고 있는 고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지혜의 등불, 이웃과 사회를 위해 사랑과 봉사를 다짐하는 원력의 등불, 불퇴전의 용맹심으로 대자대비를 실천하기 위한 정진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모두 한마음 한 뜻되는 기회로

(사)대한불교원융종 종정 일공 스님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우주의 주인이요, 삼계의 스승이며, 사생의 어버이이신 부처님께서 어리석은 무리를 이끄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날을 맞이하여 온 국민과 더불어 거룩하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와 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여, 모든 인류에게 축복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붓다는 우리 인간계에 태어나셔서 천상천하(天上天下)에 가장 거룩한 대도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인간은 이지의 탐조력과 이성의 창조력을 발휘하여 누구나 다, 붓다가 된다는 인간성불(人間成佛)의 비법(秘法)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너와 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굳게 뭉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청정 계율 지키면 자유로와

불교조계종 종정대행 혜인 스님



계율이 청정하여 계율을 잘 지키고 고요한 생각으로 부처님 순리를 생각하고 부처님 말씀을 읽고 따르면 언제나 자유롭고 행복하리라.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극락천국에 살 수 있고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부처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 고통에서 헤맬 것이다.

부처님 진리에 순응하는 자는 복덕이 따르고 행복하고 부처님 진리에 역행하는 자는 불행이 따른다. 부처님 오신 날을 새기는 것은 성불을 바라는 것이며 모두가 행복하고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웃 고통 어루만지는 봉축되길

국제선불교조계종 종정 목탁 스님



길 잃은 중생을 뿌리로 삼아 대비(大悲)의 물로 적셔 시들지 않게 하는 님이여! 하늘에서는 감로의 비 뿌리고 땅에서는 미묘한 샘물 솟아올랐네. 마른 나무에 꽃 피어남이고 집나간 이들 돌아옴이네. 만생명의 행복과 평화와 기쁨위해 님은 이 세상으로 오셨네.

길 잃고 헤매는 중생들,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을 심신(心神)까지도 그 무량한 대비의 물로 적셔서 시들지 않도록 하기를 염원하며 살아온 중생들에게 새 인간으로 맞아 주시고자 저희들 가까이 오셨습니다.

축복의 등, 지혜의 등을 밝히세

(사)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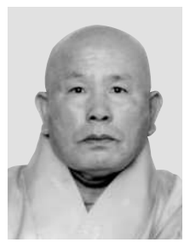


향을 싼 종이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긴 새끼는 비린내가 난다. 심성(心性)또한 부딪치는 경계에 따라 변해지니 또한 제반사가 인연 따라 만나고 인연 따라 혜여지도다.

피할 수 없는 고통도 내가있어 부딪히네. 모든 것들은 내 탓이로다 마음달래며 마음깊이 부처를 앉고 있다면 미움도 원망도 두려움도 살아지네. 아무리 좋은 명약이 있어도 환자가 의심하여 먹지 않으면 병 고치기 어려운 법. 불의의 사고를 당한 모든 가족과 영령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희생자 극락왕생과 실종자 무사생환을 부처님 전에 기원합니다.

화합과 단결 위에 밝은 법이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정 지공 스님



화합과 단결 위에 밝은 법이 나오고, 밝은 법에서 제도가 살아 있어야 사회질서가 안정되고, 사회질서가 안정되어야 행복을 찾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즐거운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니 우리 먼저 깨달아 진리의 본 성품과 청정한 심성으로 돌아가 옛 조사 스님들의 뜻을 뿌리로 삼고 부끄럼 없는 삶 속에서 열심히 정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큰 빛이 되어 주실 것을 간절히 빕니다.

참회의 마음으로 성찰합시다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스님



부처님 오신 날, 참회의 마음으로 모두가 성찰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에게 잘 사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자리이타 동체대비로 서로를 위해 나누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서로 탓하며 탐욕과 분노만으로 부질없는 망상 속에서 벗어날 수 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상황을 맞아, 서로가 서로를 보듬는 마음으로 이겨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웃 부처님을 찬탄하고 섬기세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혜승 스님



삼세여래도불회(三世如來都不會)
역대조사출불득(歷代祖師出不得)
우우눌눌주인공(愚愚訥訥主人公)
도행역이무궤칙(倒行逆施無軌則)
삭파팔만사천문(삭破八萬四千門)
나변운외청산벽(那邊雲外靑山碧)

삼세의 여래도 알지 못하고 역대의 조사도 나오지 못하네. 우둔하고 어눌한 주인공이여 뒤죽박죽 행실로 아무 법도가 없네. 팔만사천법문을 다 녹이고 깨트리니 저쪽 구름 바깥에 청산이 푸르구나.

부처님은 오고감 없어

대한불교불입종 종정 면철 스님



나(佛)는 항상 이곳에 있어
갖가지 신통력을 보이나
중생들이 어리석어
알아보지 못하는 구나
我常住於此 以諸神通力
令顚倒衆生 雖近而不見

묘법연화경의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오신바 없고 가신바 없습니다. 룸비니동산의 부처님 탄생은 오늘날과 같이 어지러운 세상에 모두가 하나의 마음으로 덩실덩실 춤추고도 남을 경사입니다.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고자 모두가 지혜와 복덕을 쌓아갑시다.

축원하는 마음으로 성불하소서

대한불교본조계종 종정 회암 스님



부끄러움으로써 의복을 삼았기에
세속 옷은 먼지와 때만 더하나니
법의(法衣)야말로 참된 분의 옷이며
마음을 쉬었기에 어래아 부르니라.

법의 맛의 도의 음식이 되나니
굶주림은 이제 이미 없앴거니와
세상을 가엾이 여겨 짐짓 걸식하면서
발우를 가지고 중생들을 복되게 함이요.
〈아함결 원지부국품〉
석가탄신을 축원하는 마음 정신으로 성불하소서!

가고 오고 없는 부처님오신 날

(사)대한불교대원종 종정 신풍 스님



봉축 일을 맞이하여 우리종단을 비롯하여 종도들, 특히 불자님과 더불어 경하(慶賀)합니다.

춘유백화추유월(春有百花秋有月)
하유량풍동유설(夏有凉風冬有雪)
약무한사괘심두(若無閑事掛心頭)
변시인간호시절(便是人間好時節)

봄에는 온갖 꽃들이 만발하고, 가을엔 달빛이 좋네.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겨울에는 눈이 아름답네.

남녀노소 차별 없는 평등 오길

세계승가회 회장 아신 수완나 스님



거룩한 여래의 탄신일을 맞이하여, 세계의 인연 있는 불자들은 가장 존귀한 중도를 실천하는 수행자 되시기 바랍니다. 본래(本來)로 시법평등(是法平等) 무유고하(無有高下)라. 일체 제법에는 높낮이가 없이 평등한 법인데 오늘날 불평등의 분별취사가 일어남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 라는 아만(我慢)이 높아지고 중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중도란 모든 상(相)을 떠난 자리이니 이것을 놓치지 말고 늘 깨어있음으로 정진하여 차별 없는 평등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깨달음 바다 뛰어들어 정진하세

(사)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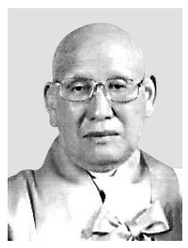
불신보변시방중(佛身普遍十方中)
삼세여래일체동(三世如來一切同)
광대원운항부진(廣大願雲恒不盡)
왕양각해묘난궁(汪洋覺海渺難窮)

부처님 몸 시방세계에 두루 충만하니 삼세 여래가 한 몸이다. 넓고 크신 원력구름 항상 다함이 없으니 넓고 먼 깨달음의 바다 헤아리기 어려워라.

우리들도 다함없는 원운(願雲)을 내어 깨달음의 바다에 뛰어들어 더욱 열심히 정진해 부처를 꼭 이룹시다.

부처님 나투시니 삼천대천 진동해

(사)대승불교조계종 종정 은파 스님



降王宮示本然
周行七步又重宣
指天指地無人會
獨振雷音遍大千

룸비니 동산에 본 모습을 나투시어 사방칠보 걸으시고 가운데 우뚝 서니 한 손은 하늘 또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며 우레와 같은 큰 소리로 외치시니 삼천대천세계가 진동하도다.

고통 받는 이웃도, 어둠속의 중생들의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여유로움에서 내일의 행복을 추구하는 불제자가 됩시다.

공존공생의 삶 되도록 행합시다

(사)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월인 스님



사바세계가 진정 삼독 암흑이라, 오색광명 비추며 진리의 광명으로 나투시기를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마음아파 부처님 오신 날을 더욱 기다립니다.

부처님의 삶과 말씀을 되새겨 지금의 나를 반성하고 이 어두운 중생사회가 밝아지도록 하는 스스로의 주인공이 되어야겠습니다. 탐진치로 물들어 거짓에 가득차고 미혹으로 가득한 나를 참회로 놓아버리고 참된 나를 찾기를 기원합니다. 내 안의 본래 청정을 되찾아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여 가정과 사회가 화목하기를 바랍니다.

진면목 바로봐 고통서 벗어나세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종정 봉진 스님



무명을 밝히고자 지혜의 등불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처님의 삶과 말씀을 의지해 이 어두운 현실을 밝혀가는 주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래 미혹하면 중생이요, 깨달으면 부처라 하지만 범부와 성인과 부처가 이름만 다를 뿐, 모두가 분별하여 스스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진실한가가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나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고 나의 지금 마음이 어떠한가를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짐하는데 있습니다.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열쇠는 바로 자성의 진면목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본래 부처임을 자각 합시다

한국불교원융교단 개산대법주 마정 스님



태어날 때는 무명의 업식으로 태어나지만 부처의 근본 종지는 누구나 그대로여여 하여 안과 밖이 따로 없음을 깨달으면 법신의 기용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깨닫는데 있어서는 차별상을 일으키지만 법신은 은현하여 오고감이 없이 온 누리의 광명이요, 언제나 본체의 대기대용을 원만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래 미혹하면 중생이요, 깨달으면 부처라 이름 하지만 범부와 성인과 부처가 다만 이름일 뿐이며 차별된 이름과 모습과 선악은 모두가 분별하여 스스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모두 부처입니다

(사)대한불교금강종 종정 권한대행 겸 총무원장 법산 스님



제법종법래(諸法從本來)하야
상자적멸상(常自寂滅相)이요
불자행도이(佛子行道已)하면
내세득작불(來世得作佛)이니라.

모든 법은 본래부터 고요하여, 크고 작고 더럽고 깨끗하고 좋고 싫고 태어나고 죽는 것이 없으니, 부처님을 믿고 따르고 수행하는 사람이 이 같은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수행하면, 오는 세상에 반듯이 부처를 이루리라.

우리 모두 부처이며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성불합시다!

봉축은 모두의 기쁨입니다

(사)대승불교본원종 종정 대화 스님



인류의 평화와 자유와 번영을 위해 지혜의 등불과 자비의 원력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뭇 생명이 새롭게 탄생하도록 하였으니 우리 모두의 생신이요 기쁨입니다.

마음의 등불 밝혀 다함께 봉축하고 부처님 오신 뜻 받들어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온 세상이 평화로워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세상, 극락정토를 실현합시다. 부처님오신 날을 심축 드리며 불자님 가정과 하시는 일 마다 부처님의 자우가 편조하시길 합장 축원 드립니다.

정진의 등불을 켜고 이웃에게 한발짝 다가섭시다

부처님 자비의 눈물 흘리소서

대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청해 스님



부처님 부처님 온 세상 부처님
세상사람 모두가 나 그런 듯 아니지만
나쁜 자 더러운 자 추악한 자 못된 자
이제는 정말 벌하실 때 되신 것 같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불쌍하고 애처로운 어린 꽃들이
무참히 희생되어 갔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뜻 잘 알지만
오늘만은 자비의 눈물로 통곡하소서.
땀 흘려 고생하시며 구조에 여념이
없는 분들에게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부처님 탄생을 찬탄합니다

(사)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이사장 의륜 스님



佛誕日
年年佛前 好好年
月月佛前 好好月
日日佛前 好好日
佛子喜日 佛誕頌
부처님 오신날에
부처님 앞이라면 해마다 좋은 해이고
부처님 앞이라면 달달이 좋은 달이며
부처님 앞이라면 날마다 좋은 날이다
기쁜 날 불제자는 부처님 탄생을 찬탄한다.

말하는 자 그리고 듣는 자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현불 스님



설자하물(說者何物)
청자하물(聽者何物)
불걸불래처(不去不來處)
세인모의(世人莫疑)
육진환화(六塵幻花)
말하는 자는 무엇이며 듣는 자는 무엇인가. 가고 옴이 없는 곳에 세인은 의심치 말지어니, 육진이 환영의 꽃인 것을.

우리들은 본래 스스로 가지고 있는 보배를 찾지 못하고 바깥에서 찾고 있습니다. 육진이 환영의 꽃인 것을 바로알고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찾읍시다.

심외무불의 도리를 깨쳐야

(사)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
회장 무산 스님



우리 모두 일체가 만약 지금 여래성을 품었음은 여래가 내 몸에 있으리로다. 내 마음에 스스로 부처가 있으니 이제 내가 참 부처라 견성하는 찰라가 바로 참 부처일 것이다.

나와 여래가 차별이 없음은 여래가 즉 나의 진여이리니 진여자성은 참 부처요, 사견삼독은 마왕이니 삿되고 미망할 때는 마왕이 사는 것이요, 제 마음을 보아서 참됨이 있으면 그것이 부처가 계심이라. 한 생각 생기지 않으면 처처에 부처 아님이 없고, 말 한 마디가 통해지면 일일이 불공 아님이 없네.

마음의 등불을 밝힙시다

대한불교조동종 종정 지명 스님



삼라만상은 바다의 물거품이요, 허공에 번쩍이는 번개와 같은 것, 그러니 마왕의 소굴은 물론이고, 불전마저 무너뜨려 치워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탐 · 진 · 치' 삼독심에 물들어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중생들을 가엾게 여기시어 중생구제라는 큰 뜻을 품고, 대자대비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구하여 자기 스스로 수고로이 얻은 것이라도 남에게도 주고 자기도 쓰며 또한 널리 베풀어 복을 짓는 공덕의 씨앗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생활하는 일에 나섭시다. 세상을 밝히는 마음의 등불을 밝힙시다.

꿈같은 인생살이에서 깨어나야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정
능인 스님



먼저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 및 희생자와 실종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인생은 항상하지 않기 때문에 꿈같은 것이요, 이러한 꿈같은 인생살이에서 깨어나야 큰 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는 또한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 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중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처럼 가까이에 있는 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45년간을 설해 주셨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를 위하여

현대불교조계종 종정
벽운 스님



사람 세상 한바탕 꿈이 깨지니
이제금 어디에서 묘용을 이룰 것인가
아아, 비통하도다.
젊은 청춘의 꽃들이여
차가운 맹골에 묻혀 버렸구나.
활활 타는 붉은 불을 가지고
온전히 삶과 죽음을 태워 없애 버리고
내생에는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라
할

중생에 회향하는 참불자 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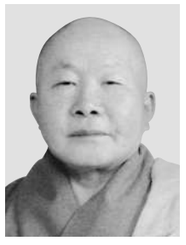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회장
송산 스님



부처님은 자비의 등불이시며 지혜의 등불이시며 또한 진리의 등불이십니다. 부처는 자비의 마음속에 태어납니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자비의 마음으로 중생의 무명과 어둠을 밝히는 광명의 등을 밝혀 각자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반성하고 정진하여 이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처님오신 날의 참뜻을 헤아려 고통 받는 이웃에게 대자대비한 마음을 발하여 부처님의 법을 나누고 복을 지어 모든 중생에게 회향하는 참 불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타실천행을 펼칩시다

대한불교법상종 종정 자봉 스님



부처님오신날 차분한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온 사회가 비통한 이 때, 지금이야말로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한 순간도 마음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탐진치 삼독을 떨쳐버리고 무연대자의 정신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의 마음을 살피고 이타의 실천행으로 내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지혜로 사회의 아픔이 치유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이 어둠이 어서 빨리 물러나기를 다함께 진실한 마음으로 기원합시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자비

(사)대한불교해동종 종정
혜봉 스님



부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중생이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해탈하기를 염원하는 대자대비 원력이셨습니다. 부처께서는 오늘 오신 것이 아니라 세세생생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내가 부처이며 내 가족, 내 이웃 모두가 부처인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밖에서만 찾다보니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사는 길은 남을 위해 나누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비의 원리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사문제

(사)대한불교승가회 총재
무공 스님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난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삶과 죽음을 것이다. 즉, 생사(生死) 문제야말로 그 무엇보다 앞선 궁극적인,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몸을 담고 살아가는 동안 기필코 풀어야 할 중심문제이다. 인간의 생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교가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우리 자신의 어디든 찾아보라, 마음이 나온(生) 곳이 있는지, 따라서 나온 것이 없으므로 죽는 곳도 없다.

분별 시비 놓고 마음에 귀의하자

(사)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각성 스님



모든 행 허깨비임을 요달해 아니
법이 오직 마음임을 보매
마음도 절로 한가하다.
갓 없는 성품의 허공 지혜 달 가득해
다툼도 미움도 없이 우리 모두
삼천대천 번뇌를 태우자
어리석은 듯 선(善)도 닦지 말고 드높은 듯이 악(惡)도 짓지 말며 적적히 하여 보고 들음 없이하고 탕탕히 하여 마음 걸림 없이 예나 이제나 천지가 한 웃음 우리 모두 태평가를 노래하자.

밝은 눈으로 다시 태어나시길

(사)임제불교조계종 종정
지암 스님



생이라 죽음이라 하니 어디로 가는가? 부처님의 생애를 회상하면 바로 위대한 사상의 가르침. 그 공덕을 찬탄하고 공경하고 일찍이 전하는 마음뿐이로세, 물질이 풍요 속에 갈 길을 잃어버리고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밝음을 맞아 우리의 정체성을 되돌아보고 진정한 대 자유의 길을 걸어갑시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한 사망자, 실종자, 유가족들께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고루내리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자비 지혜를 구족하는 봉축되길

대한통일불교조계종 종정
벽암 스님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전 종도와 함께 받들어 봉축합니다. 자비와 지혜로 모든 중생이 부처임을 알아 이웃을 위해 자비의 마음을 함께 합시다.

마음에 형식을 두어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항상 상구보리 하화중생으로 자연의 이치로 수행하며 정진합시다. 부처님은 오늘 오신 것이 아니라 세세생생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불생불멸의 인과법을 알아 눈앞의 현실에 이끌려 죄업을 짓고 고통 받는 중생들을 위해 일심참회로 정진합시다.

세월호 어린 영혼의 법향

대한불교삼보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법장 스님



생사욕탈(生死欲脫)이면
탐욕선단(貪慾先斷)하며
급제애갈(及諸愛渴)이나
진여악성(震如惡聲)이니
소령귀혼(小靈歸魂)이라

생사를 시원히 벗어나려면 탐욕을 먼저 끊어야 하며 사랑에 목메임도 벗어나야 벼락 치는 그 소리 그 귀에 들려서 어린 영혼들 다시 돌아오기를…. 祈願

지계 청정하라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회장
일정 스님



진리를 얻고자 할진대 가장 먼저 갖춰야 함이 지계함이니, 이는 출가대중이든 재가대중이든 모두가 갖춰야 할 수행덕목입니다.

무명을 벗어나는 지름길은 무명의 자리를 확연히 깨닫고 또 다시 업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 청정함을 유지하여 정진함이 으뜸이니, 부처님오신 날에 사부대중의 결계가 분명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 각처에서 각각에게 맞는 훌륭한 안목으로 계율을 잘 갖추어 청정하시기 바랍니다.

희망과 용기 갖고 노력합시다

대한불교염불종 종정 성인 스님



부처님 오신날 이 좋은 날에 마냥 기쁘고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번 불탄일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진정한 '희망'을 만들어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성불하신 부처님 심법을 따라 무명을 벗어나 대광명을 찾는 여래심법을 실천하여야 하겠습니다. 작금의 아픈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내일을 새로이 계획하며 인내와 절제로 현실을 이겨내고 부처님의 따뜻한 보살핌과 가호로써 앞날의 희망과 용기와 행복을 이루도록 모두 다함께 노력합시다. 우리에게 오신 부처님 전에서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진정으로 '나'를 돌아보고 참회합시다.

업장 참회하고 자비 등불 밝히길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누리의 거룩한 빛이요. 아득한 세월동안 업에 저리고 탐 · 진 · 치 삼독과 죄악에 물들어 있는 중생들의 심성에 부처님의 광대무변한 자비광명의 등불을 밝혀 짙은 업장을 참회하고, 이 땅에 밝고 어둠이 없는 평화의 등불을 밝힙시다.

너와 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부처님오신 날을 맞이합시다. 우리 불자들은 다시 한 번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도록 나누어 가지는 마음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앞장섭시다.

행복이 깃들도록 정진합시다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이사장
경보 스님



한 방울의 물이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룹니다. 다시 수증기로 변하여 구름, 비, 눈 이루며 또다시 바다로 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윤회와 인과법을 설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사바세계는 참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세계입니다. 큰 복을 누릴 수 있더라고 인내하고, 여러 일로 고통을 받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세계이기 때문에 깨달음의 접근은 더욱 가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을 거울로 삼고 정진한다면 계, 정, 혜가 밝아져 고에서 벗어나고 청정한 마음이 들어날 것입니다.

본래 진면목 찾기를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송 스님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합니다.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과거에 만든 습관적 종자를 소멸해야 합니다. 즉 번뇌가 있으면 번뇌를 녹여야 하고, 탐습이 있으면 탐습에 대응해야하며, 치습이 있으면 소멸시켜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집중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부처님 공부하는 분들은 반드시 자기의 생리와 심리에 통달해야만 몸과 마음이 하나 되고 몸과 마음의 일체 속에서 도(道)와 상응 할 수 있습니다. 즉 안에서 찾는 것이지요. 온갖 것을 밖에서만 찾다보니 진정으로 중요한 자신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비 광명으로 뭇 생명을 구하소서

부처님 사랑하듯 중생 사랑해야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사부대중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비로우신 분, 깨달으신 분, 존귀하고 거룩한 분이라고 생각하시겠지요.

저는 부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셨던 인간적이신 그런 분이십니다. 부처님은 결코 편하게 사신 적이 없으십니다. 열반의 즐거움보다 중생의 고통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으셨습니다. 요즘 가슴 아픈 소식으로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는 우리들의 마음을 평생 지니신 분이셨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을 기리는 오늘 다시금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곧 부처님' 임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만나는 우리 이웃들을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대하여 봅시다. 저희 불자들은 성불하는 그 날까지 부처님 품에서 당신을 사랑하듯 중생을 사랑하겠습니다. 부처님 사랑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엽시다

한국불교법안조계종 종정
운봉 스님



부처님 오신날, 우주법계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 조사님들과 함께 중생들이 환희에 젖어 기쁨의 탄성이 울려 퍼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에 따라 수행하며 실천한다면, 이 세상은 밝고, 맑고, 희망찬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큰 사람이 됩시다.

마음에는 체가 없어 무한정 크게 생각하면 그대로 커짐이요, 작게 생각하면 바늘구멍도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 됩니다. 큰 사람이야말로 대장부답게 자비로운 대자대비의 마음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구촌사람들이 모두 둘이 아님을 알고 부처님오신 날을 맞이한다면 평화로운 지구촌이 가꾸어질 것입니다.

불기 255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우리 불자들은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법을 되새기며 타인의 고통을 곧 나의 고통으로 여기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아픔을 나누는 적극적인 보살행을 실천합시다.

일체중생의 자성이 본래 부처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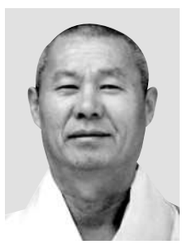


사바세계가 두루 녹색이요, 만천하가 오색의 꽃으로 장엄한 세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항상 부처님이 오셔서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깨우치지 못해 거룩하신 부처님이 오신 것을 모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중생의 자성(自性)이 본래 부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하므로 일체의 중생은 모두 평등하고, 참된 자성은 불생불멸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부처님오신 날을 맞이하여 참된 자성을 깨우쳐 성불할 것을 다짐하여 정진합시다. 그 역시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선을 행하며 선법(善法)을 닦아 지은 업(業)을 맑히고 대철대오의 경계를 증득합시다. 마지막으로 뜻하지 않는 세월호의 사고로 비통에 젖은 유가족의 슬픔을 함께 위로 드리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합니다.

삼세인과법 깨달아야

대한불교선종 총무원장
정관 스님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은 모든 중생이 깨달으면 곧 부처라는 것을 알려주시며 또한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해탈하기를 바라는 대자대비의 원력으로 오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마음의 등불을 켜서 항상심을 가지고 수행하기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보이는 현상계 물질계 집착하고 욕망을 키워 만족되지 않으면 스스로 불행한 사람이라고 고통 아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생불멸의 삼세인과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오신 뜻을 다시 새겨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어 무명에서 벗어납시다. 또한 우리 불자들은 다시 한 번 나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소외되고 억압 받는 많은 이웃을 돌아보며, 황폐하고 삭막해져가는 이사회를 구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가꾸는데 앞장섭시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하오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옵니다.

은혜 아는 것이 참사랑 참불자

(사)대한불교삼계종 총무원장
일초 스님



나는 그 첫 번째로 은혜를 알고 살자, 고마움을 느끼며 살자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즈음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부모와 자식관계, 스승과 제자 관계, 남편과 아내관계, 노사관계, 이웃관계 등 당연히 서로가 사랑을 해야 할 관계인데도 원만한 인간관계조차 이루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한 가지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알고 고마움을 느끼면 참사랑이 되지만 은혜를 모르고 고마움을 느낄 줄 모르면 참 사랑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옛날에 부모자식이 서로 사랑하고, 스승과 제자가 사랑하고, 부부 · 노사 · 이웃이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와 고마움을 담고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진도 앞바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영혼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유족들의 슬픔과 아픔이 치유되기를 기원드립니다.

108주년 동국가족 일심 서원

김희옥 동국대 총장



오늘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산천초목은 더 없이 싱그럽고 몸에 감기는 바람은 선선하고 부드럽습니다. 천지만물 모두가 자연의 성품을 따라 움직이니 저절로 즐거움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면면불조께서는 이런 기쁨의 경지를 두고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모두 부처요 세세생생 처처불상이라 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모두가 부처요, 바늘 구멍 만큼의 작은 틈도 없이 전 우주에 불성이 꽉 들어차 있으니 우리 모두가 충만한 기쁨으로 행복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참 좋은 때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삼라만상 억조창생이 부처임을 스스로 깨달아 행복하고 평등하나니, 모두가 부처임을 알고 매사를 부처님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때가 '이렇게 참 좋은 때' 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참뜻을 미래의 인류와 세계만방에 더욱 널리 전하고자 합니다. 모든 동국가족이 일심으로 서원하노니 제불보살님은 가피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며

정병조 금강대 총장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부처님은 중생계의 생존 방향을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설파했습니다.

나와 남이 하나되는 세상은 우리 불교의 궁극적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또 원효대사가 가르쳤던 화쟁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불교의 목표는 성불을 이루는 것이며, 조화로운 세상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렵고 힘들수록 불자들의 원력을 실현할 도량이 상존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유연무연(有緣無緣)의 모든 생명들이 부처님의 자비안에서 평온한 삶을 누리도록 기원합니다.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



일 년 중 가장 만물이 행복하고 아름답다는 사월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온 세상이 연등 빛으로 환히 빛나고 너도 나도 모두가 행복해야 할 좋은 날에 우리 불자들의 마음은 아직도 먹먹할 뿐입니다.

2500여 년 전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 깨달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신 부처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측은지심(惻隱之心)과 그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이타행(利他行)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우리 사회가 모두가 슬픔에 잠겨 있는 오늘 날, 부처님의 마음을 되새기며 우리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불자들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중생과 세간을 연민히 여기는 자비를 통해, 사회 정의의 실현과 고통 받는 이웃의 아픔을 덜어주는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환한 세상을 위한 등불켜야

최용춘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회장



온 나라 온 국민의 근심 속에 여객선 세월호는 침몰하고 우리 금쪽같은 어린 자식들, 마지막까지 제자를 지킨 선생님이 안타깝게 희생되었습니다.

삼가 명복을 빌고 상처받은 유가족의 조속한 심신 치유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 이런 참사를 당해야 했는지? 크게 재고 하고, 향상의 길을 모색 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여는 희망의 등불을 밝혀야 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날마다 쌓이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경계 하셨고, 바른 견해, 바른 말,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바른 직업, 바른 정진, 바른 마음, 바른 선정을 행하는 것은 탐진치의 독소를 제거하는 덕목이라 하셨습니다. 자칫 일상에서 별것아니다라고 흘러버리기 쉬운 요소입니다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구김없이 올곧게 나를 밝히고, 환한 세계를 이루는 등불을 켜야겠습니다. 부처님오신날에 부처님을 닮고자 원을 세워봅시다

국민을 부처님 같이 모실 것

김상인 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



신록이 대지를 아름답게 수놓고 룸비니 동산에 무우수꽃이 만발한 때, 생명의 존귀함을 일깨워 주시고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무명을 벗어나 불성을 깨우치게 하시고자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희생자 가족은 물론 우리 국민 모두가 너무나도 큰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불자연합회 불자들은, 공직자로서 과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뼈아프게 자성합니다. 우리 불자들의 마음을 모아 모든 희생자의 영전에 삼가 참회와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삼배를 올립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며, 우리 공무원 불자들은 다시 한번 '국민을 부처님같이' 모시겠다는 초심을 되새겨 보고 맡은 바 소임을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좋은 인연을 맺어 세상을 향기롭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참회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권영구 국제포교사회장



오늘은 이 땅에 축복이 넘치는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2500여 년 전 삼계의 드높은 스승이시고 일체중생의 자애로우신 어버이 부처님께서 무엇이 이 세상의 실상인지,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인지, 우리를 일깨워주시려고 오신 참으로 소중한 날입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충만해야할 이아침 우리는 먼저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조아려 참회의 시간부터 가져야겠습니다.

이번 부처님 오신 귀한 날은 또 다른 의미 있는 시발점으로 기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이나마 그 억울한 영령들에게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온 세상에 충만한 부처님의 지혜광명과 자비광명을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 날마다 지혜와 자비가 넘치는 가운데, 평화와 행복이 물결치는 불국정토를 만들어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타인 고통 내 고통으로 여깁시다

정경연 불교여성개발원 원장



고통 받는 중생들의 행복과 안락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무명에 가린 중생들에게 진리의 밝은 빛을 열어 주신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실 속에서 실천하는 거룩한 승가에 귀의합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산과 들에는 아름다운 꽃과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복되고 기쁜 사월초파일이지만 지금 우리는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너무나도 큰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의 죽음 앞에서 어른으로써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8정도 가운데 정명(定命)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부디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생명을 구하시고 극락왕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실종자 가족과 생존자들도 어서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삶의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동체대비 마음으로 사랑합시다

곽명희 포교사단 사단장



우리는 고통의 바다에 승선한 운명공동체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서로서로 사랑합시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이 땅은 진도 앞바다 여객선 침몰로 깊은 시름에 잠겨있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가 3백여명으로 그 중 대부분이 어린 학생이라는 사실에 기성세대들은 슬픔과 함께 크나큰 자책에 빠져있습니다. 모두가 내 아들이요 딸인데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으로 영원히 그 아픔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2천5백년 전 각각의 개인이 모두 존귀하다는 것을 일깨워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天上天下唯我獨尊) 또한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모두를 평안하게 하라고 했습니다.(三界皆苦我當安之) 부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실현하고자 오늘도 포교사들은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도 앞바다 여객선 침몰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대학생 불자 지원에 역량 모으자

백효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통합총동문회장



불기 2558년 부처님오신날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침통함과 참담함을 안고 부처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활짝 피워보지도 못하고 사라져간 어린 생명들의 무수한 희생은 슬픔을 넘어 온 국민의 가슴을 멍들게 하였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아픔 가슴으로 부처님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세상 사람들의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참다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올해에 우리 곁에 오시는 부처님은 너른 대지의 품처럼 이번 참사로 인해 힘들어 하는 이들의 아픔을 감싸줄 자애로운 빛으로 나투소서. 아픔을 딛고 일어나 다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의 빛으로 나투소서. 국민들의 멍든 가슴을 치유하고 슬픔을 달래줄 희망의 빛으로 나투소서.

대불련 모든 동문들의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진정한 불자로 회향하길

신경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



여느 때 보다 빠르게 느껴지는 5월 6일은 2558번째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1년에 한번 뿐인 날을 맞이해 환한 연등을 밝히고, 장엄한 행렬을 하며 기쁘게 춤을 추는 사람들이 즐비해 너도나도 웃음꽃이 가득폈던 지난 부처님 오신 날들이 떠오릅니다.

올해 역시도 나무에서 꽃이 피면 사람들은 외투를 벗고 얼어있던 땅은 기지개를 피며 따뜻한 봄이 왔음을 알립니다. 하지만 이번 봄만큼은 그 따뜻함이 세상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기쁜 날을 맞이해야하는 우리는 조용히 고개를 떨굽니다.

우리 불자들은 '세월호 침몰사고' 를 엄숙히 바라보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스스로가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회를 이끌어 가야합니다. 진정한 불자의 모습으로 회향할 수 있기를 전국의 대학생 불자들과 함께 서원합니다.

시대정신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이수덕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



불법을 수호하여 시대정신의 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삼계를 이끌어 주시고 뭇 중생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하옵고,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여 스스로 자초한 세월호 참사를 깊이 참회하며, 희생된 고귀한 영가들이 부처님의 거룩하신 법음으로 극락왕생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위없이 수승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수호하고 홍포하고 있는지, 스스로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참회를 안 하고 남 탓만 하며 구업을 짓는 일이 없는지를 되돌아보며 정진할 것을 서원합니다.

자타불이의 진리를 체증하여 이 세상의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길 위에서 참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불교가 거듭나서 시대정신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佛紀 2558年 甲午年 Buddha's birthday | 전면광고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 A11

"온갖 상(相)은 모두가 허망하니 상이 상 아닌 줄 알면 바로 여래를 보리라." 〈금강경〉



모든 불보살님의 가피가 저 바다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大韓佛教 佛入宗

宗 正 勉哲
元老院長 正 觀
總務院長 鏡 岩

호법원장 인수 교육원장 지학 종회의장 법진 종회부의장 상운 포교원장 혜련

총무부장 보성 역경부장 혜광 재무부장 묘훈 사회부장 봉산
감찰부장 송광 호법부장 무각 포교부장 서희

서울경기종무원장 지철 부산경남종무원장 대원
법화불교 교육대학 학장 혜광 법화사상연구소 소장 혜광
영남범음범패 교육대학 학장 대원

■ 총본산 : 충북 제천시 봉양읍 옥전길 125 송화사 전화 043)653-4800 / 팩스 043)653-5858
■ 총무원 :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30 안길4 전화 043)653-4848 / 팩스 043)642-6660

불기 2558년

봉 부처님오신날 축

우리 모두 무명을 밝힙시다!

진도 앞바다 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사망자 유가족들과 깊은 슬픔을 함께 하고
아울러 실종자들의 무사생환을 기원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You've Made Me So Very Happy!

대한불교관음종은
세상의 눈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등불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대한불교관음종 사부대중 일동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은
총본산 낙산 묘각사 및 전국 사·암에서
5월 6일 오전 11시에 봉행됩니다.

서울 종로구 종로 63가길 31(숭인동) www.kwanum.or.kr 02)763-0054 / 763-3345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 정 석진 지공
원로의장 학산 혜천
재단이사장 겸 총무원장 경원

원 로 : 무찰. 혜운. 원각. 동봉. 덕봉. 봉암. 혜성. 원각. 해월. 대륜

재단이사회
재단부이사장 일명
재단상임이사 혜광
이 사 혜운
경담
법도화
자비행
감 사 혜천

종회의장 법선
종회부의장 고봉
종회의원 도혜
도정
석경
지연
일명
청호
현암
혜등
혜일

호계원장 법성
교육원장 법해
감사원장 석성
총무부원장 용운
총무부장 승원
교무부장 경담
재무부장 일명
홍보부장 해동
총무국장 원공

교구종무원장
강원동부 보해
강원서부 동청
경기남부 대각
경기북부 도허
경북교구 법경
경남교구 승원
대구교구 고봉
대전교구 경담
부산교구 령산
울산교구 도현
전북교구 지명
제주교구 제법
충남교구 호암

■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세검정로 6길 76-9,일붕선원1층 / 전화 (02)991-8175,8904
전송 02)991-8176 www.ilbung.org

대한불교 삼론종

종 정 김혜승
부 종 정 이 인 봉

승 정 혜공, 향운, 은곡, 진봉, 지운, 지심, 명산, 명재, 해불, 법경

총무원장 지민 종회의장 지경
종회부의장 해산
총무부원장 혜관
총무부장 성우 교무부장 정현
규정부장 혜암 사회부장 무간 재무부장 송광

사정원장 명산 사정부원장 정산
포교원장 명재 포교부원장 보명
문화원장 지향 문화부원장 지학
기획원장 자광 기획부원장 성각
수선원장 지화 수선부원장 성덕
교육원장 남륜

서울경기교구원장 보명 충남교구원장 지향
충북교구원장 지허 경남울산교구원장 해산
전라남북교구원장 명재 대구경북교구원장 어산

중앙종회
종회의원 명재 보명 일선 지향 성현 성각
일천 정연 어산 정산 보광 지화
지연 성우 성덕 무간 혜암 혜인

종도 일동

■ 총본산 : 충북 충주시 대가미 15길 11 우암정사 (2층)
전화 043)857-0108 / 팩스 043)847-0118

(사) 대한불교본조계종

원로의원 용암. 혜암. 지연. 법우
종 정 회암
사서실장 헌화

총무원장 융호 수석부원장 산수 부 원 장 법전
고시원장 혜산 법규원장 혜공 중앙선원장 보륜 문화원장 도인
감사원장 효현 복지원장 대경 호법원장 청암 교육원장 중무
법사원장 마생 포교원장 대안 감찰원장 도문

중앙종회의장 대호 부의장 청오
중앙종회의원 혜철. 반야. 현덕. 정주. 인덕. 대공. 천묵. 현덕. 도일. 경담. 무진
불광. 고운. 지현. 천묵. 법향. 지환. 보호. 명진. 해련. 구달. 성무
명덕. 무심. 도인. 청공. 마월. 독견. 덕용. 덕보

총무부장 도현 재무부장 고운 교무부장 경덕 사회부장 독성
복지부장 덕화 문화부장 자은 조직부장 무진 규정부장 석담
조사부장 광덕 호법부장 법장 포교부장 법묵 교육부장 법향

서울교구원장 무경 경기수원교구원장 진성 대전교구원장 법우 강원교구원장 정일
부산교구원장 도관 대구교구원장 대안 경북교구원장 무진 전남교구원장 법성
충남교구원장 여진 경남교구원장 경덕 전북교구원장 보명 전주교구원장 보현

고문변호사 김창규. 이승민 한국종교예술방송 사장 산수 스님

종 도 일 동

■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서울중랑우체국 사서함 제76호 전화 02)3436-0796~7 팩스 02)2201-1163

(사) 대한불교 금강종

총무원장 겸 종정 권한대행 법산 강영봉
대 승 정 무학 대화상

승정원장 무상 대화상 원로원장 월서 대화상

교육원장 정산 포교원장 덕산
고시원장 혜신 참선원장 법일
복지원장 법영 문화원장 덕일
비구니원장 지명 국제교류원장 정무

중앙종회 의장 일타 중앙종회 부의장 일각. 현우 중앙종회 사무총장 정견

서울특별시교구원장 반야지(서원암) 대전광역시교구원장 정 무(지장암)
대구경북교구원장 세 현(광원사) 울산광역시교구원장 덕 일(도성암)
충청남도교구원장 정 견(백련암) 경상남도교구원장 덕 산(광천사)
전라북도교구원장 월 서(삼불사) 전라남도교구원장 혜 신(남해사)
해외미주교구원 정 화(신화사)

■ 총본산 (총무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 294-4번지(일성사)
전화 042)935-2279, 524-2149 / 팩스 042)526-2149

“화쟁의 ‘통일 불사’로 한반도 새 역사 쓰자”

1. 통일의 지혜 – 불교에서 찾는다



박 세 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유럽 순방중 발표한 ‘드레스덴 선언’이 독트린의 반열에 올라 어느때보다 통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 민족의 숙원이면서 아시아는 물론 지구촌이 주목하는 한반도 통일. 통일을 위한 불교적 가르침과 불자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과거 삼국통일에 공헌한 불교적 교리 속에는 통일에 대한 여러 실천론이 있다.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이 전하는 불교적 지혜를 들어본다. 〈편집자주〉



한반도 통일의 지혜는 삼국통일의 역사에서도 찾을 수 있다. 자장율사는 ‘신라세계 중심사상론’을 제시하며 상징으로 선덕여왕에게 황룡사 9층탑을 세우도록 건의했다. 그림 · 강병호

통일의지와 열정 높여라

원효의 회통·통합 가르침과
자장의 ‘세계 중심사상’ 되새겨
미래 국가 비전 제시에 앞장서자

북한동포의 마음 얻자

한반도 통일의 중요한 열쇠
대내 불사… 조선족과 새터민 지원
대북 불사… 경제 원조 및 인권 관심

통일은 빠르게 오고 있다

통일의 기회가 빠르게 오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받아들여 정상국가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 정부와 국민은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 하려 할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북은 핵을 고집하고 개혁개방을 거부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다.

그러면 경제는 기아경제가 되고 정치는 이번 장성택 숙청사건에서 보았듯이 극도로 비인도적 억압체제가 된다. 결국 김정은 수령 절대체제의 유지가 불가능해진다. 북한에 체제실패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두 가지 가능성이 열린다. 하나는 북한이 중국의 변방속국이 되는 길이다. 체제가 실패할 때, 중국이 북한에 정치적 군사적으로 개입하여 친중 괴뢰정권을 세우고 북한의 중국화를 추진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남한에 의한 북한의 접수이다. 소위 흡수통일의 경우이다. 요컨대 북의 체제가 실패하면 중국에 의한 흡수인가 남한에 의한 흡수인가가 문제가 된다. 물론 우리는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선택하여야 한다.

만약 북한이 중국의 변방속국이 되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통일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38선은 더 이상 휴전선이 아니라 국경선이 되고 동해안에는 중국 군함이 뜰 것이다. 그러면 일본은 당연히 재무장하고 동북아에서는 다시 갈등과 대립이 첨예화하는 제2의 냉전이 시작된다. 동해에 뜬 중국 배가 대한해협을 거쳐 발해만으로 들어가면 대한민국은 중국의 내해에 있는 작은 섬이 된다. 그렇게 되면 과연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번영과 자존을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최근에 일본에서는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도 중국의 변방이 될 때라는 책들이 나오고 있다. 결국 통일에 실패하면 한반도의 역사는 1894년 청일전쟁 이전으로, 즉 중국의 변방 속국의 시대로 되돌아 가게 된다.

중요한 것은 통일이 다가 올 때 미리 통일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고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지도자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단호한 의지와 열정으로 통일을 성공시켜야 한다. 수년전에 독일대통령이 와서 3가지 충고를 하고 갔다. 첫째는 통일은 반드시 온다. 둘째 통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보다 빨리 온다. 셋째 통일에 대한 준비는 미리 하고 많이 할수록 좋다.

통일은 한반도 경제에 큰 축복

통일이 되면 남과 북의 경제, 즉 한반도 경제는 욱일승천할 것이다. 지금 세계와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돈은 넘쳐 나나 투자할 곳이 없어서 저성장이고 실업이다.

통일은 새로운 경제영토의 확장, 즉 엄청나게 큰 투자처의 등장을 의미한다. 북한의 인력과 천연자원이 남한의 자본과 기술 등과 결합하게 되면 남한의 경제는 년 10%씩, 북한의 경제는 년 25%씩 성장할 것이다. 저성장, 양극화 등의 오늘의 대한민국의 경제적 어려움이 일거에 사라질 것이다. 북한 투자의 80%만 남한의 물자로 한다면 그것만으로 남한 경제성장률을 년 5~6% 추가로 증가시킨다는 연구도 있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2050년에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다는 연구도 있다. 일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은 물론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모든 유럽 선진국들 보다 통일한반도가 앞선다는 연구결과이다.

통일비용을 걱정하지만 사실 통일비용은 대부분이 통일투자이다.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이다. 투자는 고용과 소득과 소비를 창출하여 다시 투자를 불러온다. 그것이 경제성장과정이다. 북한개발투자를 위하여 전 세계에서 자본이 몰려올 것이다. 아마 북한 총투자의 55% 정도는 해외에서 올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도 앞장서 들어갈 것이다. 정부의 몫(남한국민의 조세부담)은 총투자의 20% 정도에 불과 할 것이다. 오히려 북한개발로 남한에는 고용과 소득이 크게 오를 것이다. 그래서 외국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을 큰 축복이라고 보는 것이다. 물론 경제만이 다가 아니다. 우리민족에게는 통일이 가져오는 정신적 가치와 의미는 너무나 크다.

통일 위해선 외교강화부터 시작

통일을 하려면 통일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통일외교란 이웃나라들에게 3가지를 주장하는 것이다. 첫째, 통일 하겠다. 둘째, 통일 할 수 있다. 즉 통일준비가 다 되어 있다. 셋째, 통일이 당신나라에게도 좋은 것이다.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반도 통일이 필수이다. 이상 3가지를 주장하고 설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 후 한반도 미래의 모습, 즉 이웃나라들과 잘 지내겠다는 국가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웃나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일본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개발을 본격화한 이후 통일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러시아는 한반도가 통일되어야 시베리아와 극동이 발전될 수 있다고 보아 가장 적극적이다. 미국은 우리주도의 통일을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문제는 중국인데,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이 자신들에게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남한주도의 통일을 수용하고 통일정부와 함께 동북3성을 개발하는 것이 더 이익이 아니냐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들 새로운 미래 세력과 연대하여야 한다. 북한을 중국의 변방속국으로 만들려는 낡은 사고의 과거 세력을 설득하고 제압하여야 한다. 그런데 중국설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단호한 통일의지와 노력이다.

불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통일을 위한 불자의 역할은 두 가지다.

첫째는 국민의 통일의지와 열정을 높이는데 앞장서야 한다. 신라가 3국통일에 성공한 이유는 신라가 고구려보다 군사력이 컸기 때문도 아니고 백제보다 경제력이 컸기 때문도 아니다. 군사와 경제 모두 가장 후진적이었지만 오로지 신라만이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가 되어 통일을 할 꿈과 의지를 키워 왔었다. 원광법사께서 앞장서 청년들에게 호국정신을 가르쳤고 화랑도들에게 세속오계를 만들어 주었다. 스님께서 적과 동지를 구별하라는 살생유택과 싸움에서 물러서지 말라는 임전무퇴의 상무정신을 가르쳤다. 원효성사와 자장율사는 이 호국정신을 삼한일통(三韓一統)의 통일정신으로 발전시켰다.

우선 원효성사께서는 소위 진리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모두 일심에서 나왔다고 하는 일심이문(一心二門)의 사상을 주장하여 성(聖)과 속(俗)을 어느 하나 배제하지 않고 모두 포용하였을 뿐 아니라, 화쟁론 등을 통하여 당시 불교 내의 서로 대립하는 견해들을 하나로 회통해 내게 된다. 그래서 우선 신라내부의 종교적 이념적 대립과 갈등을 통합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한다.

자장율사께서는 선덕여왕에게 건의하여 황룡사 9층탑을 세우도록 하고, 이 탑을 세우면 인국(隣國: 즉 고구려와 백제)이 항복하고 9나라(일본 중화 오월 예맥 등등)가 와서 조공을 바친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통일이 되면 통일신라가 세계중심국가가 된다는 ‘신라세계중심사상’을 제시한다. 한반도에서 나온 최초의 세계중심사상이다. 즉 한반도를 세계중심에 놓고 보는 천하관(天下觀)인 셈이다. 이와 같이 자장율사께서는 통일신라의 미래국가비전을 제시하며서 삼한일통의 의지를 독려했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불자도 당연히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여 나라사랑의 호국정신과 남북일통(南北一統)의 통일정신을 드높이고, 더 나아가 통일 후 한반도가 동북아시대 동아시아 시대를 열어 ‘세계중심국가’가 될 수 있다는 미래국가비전을 제시하는 노력에도 앞 장서야 할 것이다.

둘째는 북한동포들의 마음을 얻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한반도 통일에 가장 중요한 열쇠는 북한 동포들의 마음에 있다. 북한 동포들이 남한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도록 만들지 않고는 통일은 불가능하다. 1982년 성철스님과 법정스님이 대담을 한 적이 있다. 법정스님께서 불교 진리를 묻다가 갑자기 어떻게 하면 한반도 통일이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셨다. 성철스님께서 “내가 무엇을 알아” 하고 답을 피하시었는데 재차 삼차 물으니 성철스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셨다. “북한 동포들이 잠을 자다가도 남한 동포들과 통일하는 꿈을 꾸도록 만들어야, 그런 때가 와야 통일이 되지 않겠는가?” 이 답은 간단하지만 통일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지적한 이야기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북한 동포들이 남한과 하나 되는 꿈을 꾸도록 만들 것인가? 두 가지 불사(佛事)를 하여야 한다. 하나는 대내(對內)불사이다. 즉 현재 대한민국에는 탈북동포 약 2만 6천명과 조선족 동포가 약 50만이 살고 있다. 우리가 이 분들을 그동안 어떻게 대해 왔는가? 크게 반성해야 한다. 지금은 남한에서 돈을 벌어 북한에 보내기도 하고 핸드폰으로 북한에 사는 친척과 통화도 한다. 이 분들이 남한에서 보고 들은 것을 북한 동포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 대한민국이 이분들의 마음을 잡지 못하면 북한 동포들의 마음도 잡지 못한다.

다른 하나는 대북(對北)불사이다. 북한 동포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하여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크게 확대하여야 한다.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소위 투명성만 확보된다면, 교류와 지원은 가능한 확대하는 것이 좋다. 다만 조심할 것은 경제적 교류와 지원은 좋지만 그 돈이 북한의 수령경제(首領經濟)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북한경제의 약 25%는 수령의 통치자금경제이다. 수령경제와 경제교류와 지원을 하면 북한의 비정상 권력을 공고화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과의 경제적 교류와 지원은 북한경제의 약 55% 정도를 차지하는 인민경제(人民經濟)와의 교류와 지원이어야 한다. 그래야 올바른 불사가 된다.

동시에 북한 동포들의 인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서독은 과거 동독에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도,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지원의 대가로 동독에 있는 약 3만4천명의 정치범들을 모두 서독으로 데려왔다. 우리도 10년간 북한에 적지 않은 경제적 지원인 약 8조원을 보냈는데 납북어부 한 사람도 데려 오지 못했다. 아니 데려오겠다고 요구도 하지 않았다. 크게 잘못된 정책이었다.

통일은 새로운 국가와 국민의 탄생

통일은 단순히 분단 이전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재 남한 체제의 북한지역으로의 단순한 지리적 확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주 새로운 국가의 창조, 새로운 국민의 탄생을 의미해야 한다. 21세기 세계모범이 되는 선진통일강국의 등장을, 그리고 세계존경을 받는 선진통일 및 국민의 출현을 의미해야 한다.

21세기는 세계 권력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는 시대이다. 따라서 통일한반도가 동아시아 내지 동북아 시대를 넘어 ‘세계중심국가’로 비상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 고구려가 망하고 시작된 지난 1200~1300년의 중국 변방의 역사를 영원히 끝내고 이제 세계중심에 우뚝 서는 선진통일강국, 세계일등선진국의 새로운 한반도의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통일신라시대 자장율사께서 꿈꾸었던 세계중심국가, 황룡사 9층탑에 깃든 신라인의 염원도 이루어지는 셈이다.

지구촌 세계불교 최고의 지도자와 한국의 350여 종단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불교 지도자들의 법석

世界佛教 指導者 合同 金剛戒壇 & 法王廳 中央政府 閣僚 任命式

주최 : 사단법인 세계 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계속적으로 서류 접수하여 심사 후 6차 금강계단 (일시 추후결정) 지속적으로 봉행함

승가의 탐,진,치,가 넘쳐나고 오만과 무지와 분수를 모르며 먹물 옷을 입었어도 자신을 잃어버린 불쌍한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
오호라!! 이제 고통받는 사바세계를 환하게 밝히는 광명의 해가 솟아 올랐도다.

드디어 세계인의 존경의 대상인 불교 최고의 어른 한분을 법왕으로 모시고 상좌부권과 대승권 각각 승왕 두분을 모시게 되었으며 각 나라 불교대표이신 승가회 회장 큰스님들을 대승정에 모시는 준비가 크게 진행되고 있으며 20개국 종정 및 승왕들의 친필 싸인 서명을 확보한 정통 세계불교 법왕청입니다. 고승 및 각종단의 종정 및 총무원장을 모시고 각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갈래로 찢어져 있는 일부종단의 법납조차 무시한 진흑탕속의 품수체계와 품수를 내세워 후원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고 승가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자 합동 금강계단을 설치하고 대종사, 종사, 대덕, 중덕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품수를 수여하는 의식까지 병행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모 종단의 3급고시니 4급이니 하는 철저한 단계라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수준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정화하고 걸른다는 측면에서 세계불교 지도자 합동 금강계단을 봉행하고자 하며 일체의비용이 없습니다. 이제 각 종단차원의 모든 종도들을 동참시키시어 합동 금강계단의 증명 법사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세계 불교 법왕청 세계 불교 법왕 및 승왕 추대 1080인 위원회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종단 종정 고승단, 종단 대종사 자문단 추진위원장 SANGGALAJA 대승정 목탁 합장

* 대법원에 등기된 허가번호 2013-82 . 고유번호 101-82-23205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이사장 목탁스님)이란 명칭은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단 하나밖에 없으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매인 세계불교법왕청.com입니다. 이외 사용하는 곳은 이유를 불문하고 허가조차 받지 못하고 명칭도용 임의단체이니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로 고유번호를 받았다 해도 세무관계 에서만의 명칭사용은 가능하나 대외활동에서의 명칭사용은 위법입니다.

통일 불사의 키워드… 신뢰회복, 교류 확대

2. 전문가에게 듣는 통일불사 방향

연초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로 박근혜 대통령은 시선을 끌었다.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이산가족 상봉에 이어 지난 3월 독일을 국빈 방문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대북 3대 제안을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통일 분위기가 고조된 바 있다. 북한의 핵실험 등 아직 많은 장애요소들이 있지만 지난 이명박 정권의 냉랭했던 남북관계에 비한다면 청신호가 켜진 것은 분명하다. 이런 가운데 불교계는 어떤 방향으로 대북사업을 지원하고 더나아가 통일을 준비해야 할까? 불교계 통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민족불교 앞세운 신뢰회복 중요

평불협 회장 법타 스님 (동국대 정각원장)



"민족이 하나로 합쳐지는 통일에 어떤 비책이 따로이 있을까요. 오로지 신뢰를 회복하는 것 만이 유일한 통일의 지름길입니다."

1980년대 대북지원에 나선 법타 스님은 불교계가 거시적인 안목으로 남북교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통일에 대해 "무슨 구체적인 정책이나 비책이 있을 수 없다. 오직 신뢰 회복만이 통일을 앞당기는 유일한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를 더욱 많이 해야 한다"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자꾸 베푸는 보살행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MB정부 당시 단절된 남북관계에 아쉬움을 표하고, 박근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지난 5년간 남북관계 단절은 어떤 이유든 간 결과적으로 잘못됐다"며 "과거 10년 동안 남북 교류협력이 활발히 진행되며 이뤄낸 성과가 공염불이 될 처지"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또 "박근혜 정부가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울이는 노력은 부족하다"며 "대북정책에서 최소한의 민간교류는 정권에 관계없이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북한도 결국 정부가 내세우는 것이 흡수통일론이니 강경하게 나올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정권유지 등에 통일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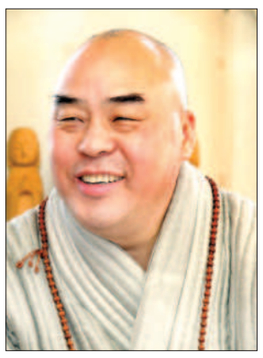
스님은 종교가 인정받지 못한 북한에서 불교가 그나마 민족 · 호국불교로서 북한 주민들에게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다는 장점을 들며 불교계 역할이 중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스님은 불자들에게 "불교는 2000년 동안에 민족을 통합하는 경륜과 경험이 있다"며 "불교가 사회적 영향력이 작아지면 정부 방침에 일방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다. 민족을 보는 큰 관점에서 정부방침과 별도로 불교도들이 앞장서야 한다"며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종교인 남북교류 통일 씨앗 파종

천태종 부산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



지난해 2월 2일 천태종 부산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의 진산식에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축전이 답지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조선불교도연맹 이규룡 서기장 명의로 온 것이다. 그동안 무원 스님이 불교계에서 손꼽히는 '대북통'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해준 단적인 예다.

무원 스님은 삼광사로 내려오기전 총무원장 직무대행, 총무부장, 사회부장 등 천태종 종무행정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중 사회부장 시절 끊어진 남북의 길을 종교의 힘으로 잇는데 가교 역할을 한 일등공신이었다. 그 중심에는 1997년부터 시작한 개성 영통사 복원사업이 있었다. 2003년부터 본격적 진행돼 3년만인 2005년에 완공됐다. 무원스님이 남녘의 물자를 싣고 가 북의 인력들과 함께 이룬 성과다. 붓 한 자루부터 기왓장까지 영통사를 지은 모든 물자가 남으로부터 올라갔다.

"종교인들의 민족 사랑을 바탕으로 한 활발한 남북교류 사업은 머지않은 미래에 다가올 평화통일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동포들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아직 정이 깃든 마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자주 오고 가면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통사를 중심으로 한 개성 사찰 순례를 요청하고 있지만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늦춰지고 있습니다."

무원 스님은 남과 북이 서로 돕는 길을 찾으려면 자주 오가며 길을 넓혀 서로 확인하고 보듬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하나는 북측과의 교류사업 이외에 새터민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꾸준히 전개해야 한다고 스님은 말한다.

무원 스님은 "탈북자 상당수는 중국과 제 3국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국적없는 설움으로 고생했던 분들입니다. 힘들고 괴로움에 빠진 중생들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새터민들을 위한 템플스테이 등 그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원 스님원 7년전 주지로 있던 인천 황룡사서 새터민 템플스테이를 가지는 등 여섯 차례에 걸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주일 기자**

도시 중심의 의료·문화 지원 필요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



"분단체제가 갖고 있는 소모적인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통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군사적 갈등을 하는 과정에서 상호 유지비용이 많이 들죠. 경제적인 면에서도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우리가 통일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동북 3성과 러시아 극동개발 개발 등 동북아 발전을 위해서도 통일은 필요합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불교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통일 포교를 준비해야 할까?

고 교수는 과거 문화 교류에 주력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좀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통일불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동안 불교계는 사찰보수, 유물 발굴 등 활발한 문화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이런 사업은 불교계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불교계는 앞으로 좀더 실질적인 차원에서 북한 주민이 필요로 하는 대북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고 교수는 평양 등 도심 중심에 병원, 문화관 등을 설립해 북한 주민들의 삶에 좀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고 전한다.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의료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병원 건립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 민추본 이사로서 총무원 쪽에 여러 차례 제안을 한 적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불교계는 이런 쪽에 관심이 덜한 거 같습니다. 불교계 단독으로는 힘든 사업일 수 있지만 정부 협력 기관 등과 연계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가 기독교에 비해 대북지원사업이 빈약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고 교수는 사찰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요사찰별로 새터민 프로그램 마련, 사찰과 북한 지역의 개별적으로 지원 협약 등을 맺어 대북사업을 펼쳐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북한 지원 비용은 지출 아닌 투자"

불교계 인사들이 말하는 '통일론'

"통일은 우리의 독립, 성장, 민주화를 완성해주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과거의 100년을 청산하고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는 일이지요. 지금이 통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고 열어가는 일! 이 정도면 인생을 한번 바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통일이라는 재미있는 일을 때마침 우리가 잘 만났다고 생각하면 힘이 돋고 기가 살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해봅시다."

법륜 스님은 2012년 〈새로운 100년-가슴을 뛰게 하는 통일 이야기〉를 출간하면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2014년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적인 통일 의지가 반영되면서 남북관계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렇다면 교계 전문가들은 통일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조계종 민추본) 월례강좌에서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민추본 정책기획위원)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키워드는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갑작스럽게 남북 관계가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지만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취임 전부터 상당히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었다"며 "앞으로 남북관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급진전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필두로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DMZ평화공원 조성은 물론 실크로드횡단철도 등 대북 관련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도 덧붙였다.

불교실천기획단 상임단장 진관 스님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문명사적 의의와 불교' 세미나를 통해 "통일은 경제적 유불리를 넘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다주는데 이는 곧 아미타불이 상주하는 극락의 구현이기도 하다"며 "불교계가 통일운동에 적극 나서야만 잃었던 대중의 신뢰와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고 이는 곧 한국 불교계의 발전을 가져오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법륜 스님은 〈새로운 100년〉을 통해서 통일을 위한 북한 개발 비용은 지출이 아니라 투자라고 봐야 한다고 전한다. "남과 북이 하나의 나라가 되었을 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북한에다 나무 심는 것을 예로 들어보죠. 포스코 같은 기업에서는 어차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부담금을 물어야 하잖아요. 그 돈으로 북한의 민둥산에 심을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어차피 지출해야 할 것들을 현명하게 북한을 개발하는데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분단적 사고를 넘어서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결국 통일 비용은 소모성 소비가 아니라 미래의 이익을 창출하는 투자로 생각해야 함을 스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통일은 도둑처럼 올지 모른다. 통일은 준비된 자에게는 득이 될 것이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낯설고 불편한 혼란의 상황이 될지 모른다. 불교는 통일이 되었을 때 어디에 서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다. **정혜숙 기자**

ACE 잘가르치는대학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파라미타 칼리지에서 참사람 인재를 키운다!



파라미타 칼리지 (PARAMITA College) 란?

- 불교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가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참사람 인재를 양성하는 교양 학부 대학**입니다.
- 신입생들이 대학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여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사지도교수가 전담하여 지도합니다.
- 신입생 **기숙형 대학(레지덴셜 칼리지)을 운영**하여 기숙사 생활에서 개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운영합니다.

* 파라미타는 불교 용어 '바라밀다'의 산스크리트 발음을 음에 따라 옮긴 말입니다.

DONGGUK UNIVERSITY GYEONGJU

http://web.dongguk.ac.kr

佛紀 2558年 甲午年 Buddha's birthday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영산불교 현지사

초대교조 광명 만덕 큰스님
2대교조 자재 만현 큰스님

장로회의 의장 현각 / 교 정 원 장 성광
감 찰 원 장 일도 / 불교대학장 덕산

춘천본사 주지 대원 / 제2본산 주지 혜명
부산분원 주지 도현 / 대전분원 주지 보행
고성분원 주지 성수 / 서울분원 주지 지원
대구분원 주지 일성 / 일본분원 주지 성도

영산불교 현지사 사부대중 일동



춘천본사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 033)243-1787
홈피 http://hyonjisa.com 메일 hyunjigung@hanmail.net

사진 : 불사중인 제주도 제2본산



1998년 평불협의 사리원 금강국수공장 개원식



2006년 민추본 신계사 대웅보전 낙성식



2008년 조계종 대북지원 물품 상차식



2010년 남북경색국면 속 자승 스님 평양 방문.



2014년 북한아동 영양지원 캠페인 '도담도담'

남북불교교류 주요일지(1989~현재)

1989년 법타 스님 분단 후 첫 방북
1997년 천태종 개성 영통사 발굴사업 실시
1998년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황해도 사리원 금강국수공장 완공
1999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금강산 성지순례 '통일기원 남북합동법회'
진각종, 불교계 종단 원장급으로 첫 방북
이후 불교 각 종단 불교교류 전개
2000년 천태종, 방북 후 개성 영통사 복원 논의
북한불교계, 남한불교계와 의식 통일 작업 실시(조국통일기원 합동법회서 삼귀의 · 사홍서원 · 찬불가 부름)
2001년 평양 광법사서 남북공동법회
묘향산 보현사 북한스님들 삭발
부처님오신날 동시법회 개최 및 공동발원문 채택, 신계사 복원불사 논의
2002년 서울에서 열린 8 · 15 기념행사에 박태화 조불련 위원장 참석
2003년 북한 59개 사찰 단청 보수 시작, 불교계에서 지원
서울 봉은사 남북합동법회에 황병대 조불련 부위원장 외 4명 참석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 본격 추진
천태종, 개성 영통사 복원불사 추진
2004년 인천에서 열린 8 · 15 기념행사에 조불련 대표 참석
금강산 신계사 대웅보전 낙성
2005년 개성 영통사 낙성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박태화 조불련 위원장과 회담
조계종 중앙신도회 신례사 첫 합동법회
2006년 광주에서 열린 6 · 15 기념행사에 조불련 대표 참석
2007년 조계종 금강산 순례
2008년 금강산 피살 사건으로 남북 교류 중단
2010년 천안암 피습 사건으로 남북 경색 지속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비롯한 대표단 평양 방문
2014년 민추본 등 조불련 측과 불교경협 논의
임진각에서 도담도담 선포식

남북불교교류 3.0 시대 개막

3. 불교계 대북 통일불사

남북 공생과 화합을 천명한 7 · 4남북공동성명이 42년 지난 지금, 소통의 시기인 1.0시대를 지나 본격적인 교류협력 시기인 2.0시대를 넘어 민족공동체 정신 회복이라는 3.0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0 시대

불교계가 남북 소통 물꼬 트다

1992년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구성

북한 홍수 피해 지원 계기로 단체 창설

그동안 남북 민간교류와 협력 분야에서 불교계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불교계는 종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신뢰와 이해 속에 단순한 교류를 넘어선 동질성 회복의 장을 열기 위해 노력해왔다.

남북불교교류는 1988년부터 기지개를 폈다. 1988년 7월 미국 시민권자인 대원 스님과 1989년 6월 법타 스님, 도안 스님 등이 한국 국적으로 처음 평양을 방문한다. 이후 종교교류는 1990년대 중반 북한이 식량난에 봉착하면서 종교계의 인도적 지원을 계기로 본격화된다.

법타 스님이 1992년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평불협)를 구성하며 대북지원에 앞장선다.

남북한 종교 교류의 건수를 보면, 1990년 2건, 1991년 13건, 1992년 7건, 1993년 1건, 1994년 4건이었으나 1995년 북한의 수재와 관련하여 인도적 지원이 실시되면서 1995년에는 12건으로 늘었다.

특히 1995년 5월 조불련 측이 북한 지역의 홍수피해 상황을 남한불교계에 공식적으로 알려옴에 따라 북한수재민돕기 범종단추진위원회가 발족돼 본격적으로 종교계의 대북 지원이 시작되었다.

남한불교계는 일찍이 북한불교계와 교류를 해왔던 외에 한국JTS,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불교운동본부('좋은 벗들'로 개명), 북녘동포돕기불교추진위원회(민족화합불교추진위로 개명)가 잇달아 창립되어 북한의 인도적 지원에 나섰다.

종단 차원으로는 1999년 진각종 대표단의 방북이 큰 기점이 됐다. 2000년 6 · 15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조계종의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 천태종의 '개성 영통사 복원불사' 등 큰 규모의 교류협력사업이 진행됐다. 조계종도 직접 나서 조불련에 지정 기탁하는 방식으로 식량, 의약품, 생활용품 등 지원사업을 전개했다.

2.0 시대

본격적인 교류… 물질지원 중심

햇볕정책 타고 인도적 식량 지원 활발

신계사 · 영통사 등 전통사찰 조사 · 복원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되면서 종교교류의 횟수도 1998년 35건, 1999년 20건,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던 2000년에는 21건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2001년에는 조지 부시 미 행정부의 등장에 영향을 받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남북 간 종교교류는 9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2002년 하반기 이후 남북교류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종교별로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이 재개되었다. 이 같은 남북종교 간의 교류와 협력은 노무현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불교계에서는 2000년 6월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운동본부(민추본)가 창립돼 본격적인 남북불교 간의 교류와 협력에 나섰다.

2002년 이후 남북불교 간의 교류는 기존의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에 더해 신계사, 영통사 복원불사, 불교문화재 공동 조사 · 발굴 및 복원, 59개 사찰에 대한 단청불사 지원이 진행된다. 그 밖에도 남과 북에서 각각 남북불교도 동시법회를 열거나 서울, 평양에서 남북불교도가 한자리에 모여 합동법회를 개최하고, 금강산 신계사 성지순례를 봉행하기도 하였다.

2003년과 2004년에 시작된 북한사찰의 복원불사는 2005년 10월에 개성 영통사, 2007년 10월에 금강산 신계사의 낙성식을 각각 가졌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남북불교 간의 교류 · 협력사업도 크게 위축되었다.

그런 가운데 2009년 8월 31일 중국 선양에서 남한 7대 종단의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와 조선종교인협의회(KCR)가 남북 종교 간 교류의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논의했다.

여기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방북을 포함해 금강산 평화기도회와 음악회 등이 협의되었으며, 2010년 1월 30일부터 2월 2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단장으로 하는 남한불교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조계종 방문단은 조불련 측과 3개항 합의와 6개 사업에 관해 합의를 이루었다.

하지만 2010년 '5 · 24 조치'로 남북관계가 전면 단절되면서 남북불교계의 합의가 이행되지 못하였다. 그런 가운데도 2011년 9월에는 남한불교대표단 일행이 '5 · 24 조치'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다시금 교류의 물꼬를 텄다.

3.0 시대

국민인식 개선, 공동체 의식 함양해야

모금 · 국민인식 개선운동 전개

교류활성화 컨설팅 기관 설립 추진

이명박 정부 당시 경색된 국면을 뒤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통일은 대박'이란 구호 아래 양측 신뢰를 다시금 구축하겠다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 2월 25일 남북 이산가족상봉 행사 25일 막을 내린 가운데 남북 불교교류도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에 따라 그동안 남북 민간교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불교계의 행보에 기대가 더욱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공생'이라는 확실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서행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원장은 "남북은 한반도 상생이란 배를 함께 타고 있는 운명공동체"라며 "한반도 공존과 통일이 현실적으로 구체화 되려면 먼저 불교계를 비롯한 민간을 위주로 북한을 아우르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통일에 대한 국민인식이다. 미디어리서치가 2013년 2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66.3%가 '내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통일비용 등으로 인해 통일에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공통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불교계는 먼저 국민인식 개선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민추본의 경우 지난 3월 북한아동 영양식과 의약품 지원을 위한 국민 캠페인 '도담도담'을 시작했다. 또 통일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통일불교지도자 과정인 '108인 클럽'을 창설하고 강좌를 매달 열기로 했다.

이밖에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속가능한 불교교류사업의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지역적 · 역사적 · 문화적 연계성을 발굴, 개발해 서울 조계사와 평양 광법사, 속초 신흥사와 금강산 신계사, 해남 대흥사와 묘향산 보현사와 같이 남북사찰간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그 사업성과를 각 단체에 제공하기 위한 컨설팅 기관도 설립한다.

박재산 민추본 사무국장은 "국민과 불자 개개인의 참여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목표"라며 "국민인식을 개선하고 대북사업을 함께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2월 창립된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은 남북한 내에 불자조직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6 · 25한국전쟁 발발일에는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통일기원 법회를 열고 불자들의 인식개선에 나선다. 천태종 또한 하반기 중으로 천태중앙박물관에서 개성 불교문화재 전시전과 전문가 강연 등을 통해 통일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김용현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평화체제를 형성하는 출발점은 국민 개개인이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는데서 출발한다"며 "그동안 경색됐던 남북관계를 풀고 통일로 나아가는 해법은 양측이 통일을 위해 상호신뢰를 쌓아가고 일관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佛紀 2558年 甲午年 Buddha's birthday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단법인 등록번호 234121-0001373]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謹 세월호 침몰 희생자 왕생극락을 발원 합니다 弔

종 도 일 동



석가여래부촉법 제 77세
청봉 석정산 대종사





✲ 부처님 오신날 (5월 6일) 세월호 희생자 위령제 봉행
오후 1시, 천성산 불광사 에서

✲ 5월 24일(일요일) 세월호 침몰 희생자를 위한 수륙천도재를 봉행합니다.
장소 : 천성산 불광사 야외무대 / 시간 : 오전 10시부터

■ 대원불교조계종 총본산 불광사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 TEL 055)364-4747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통일 인재 교육은 한반도 미래 불사”

4. 새터민 대학생 지원하는 통일바라밀숲

새터민 대학생들의 생활은 여러모로 힘들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따라가는 것도 어렵고 또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야되니 늘 시간에 쫓긴다. 이들에게 매달 소정의 생활비가 지급된다면 그들은 좀더 나은 대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것을 우리 불교가 해보면 어떨까?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면 ‘통일 일꾼’이 되니, 이것이 ‘통일불사’가 되는 것이다. 통일바라밀숲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장학금 지원을 넘어 새터민 대학생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있는 통일바라밀숲을 만나보자. **정혜숙 기자**



통일바라밀숲은 새터민 대학생 장학금 및 교양강좌 후원 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국립공원 생태나누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통일바라밀숲 대학생들.



낙산사 사찰순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약수를 마시고 있다.

“통일바라밀숲 활동 전에는 외부 친구들과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사실 아르바이트에 학교 공부만 하기에도 버거웠죠. 남한 친구들 수준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몇 배로 노력해야 하고 생활도 유지를 해야하니 늘 바빴어요. 통일바라밀숲 활동을 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또 멘토링 선생님들로부터 인생의 조언도 들으면서 삶이 많이 변했어요. 새로운 꿈이 생겼죠. 앞으로 능력 있는 사업가가 되어 통일이 되면 북한 동포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통일바라밀숲 회원 서정림 씨(27 · 한국외대)

통일바라밀숲(공동대표 남지심)은 새터민 대학생 장학금 및 사회적 후원을 위해 2013년 5월 결성됐다. 낯선 남한 땅에 정착해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후원하고 가족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진정한 후원자가 되고자 한 것이다.

남지심 작가 · 배광식 前서울대 교수 · 임성수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획위원이 공동대표를 맡으며 새터민 청소년 · 대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통일 이후 남북을 잇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결성된 단체가 통일바라밀숲이다.

통일바라밀숲 남지심 공동대표는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새터민 청년들의 모임이다. 회원들은 새터민 대학생들이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하는 후원자 · 멘토들로 구성되어 있다”며 설립 취지를 설명한다.

통일바라밀숲은 △매월 첫째주 금요일 정기모임 △매월 장학금 지원 △각계 각층 사회 저명인사 멘토링 △1:1 엄마 인연 맺기 △한국 문화재 답사 △한국 속의 한국을 찾는 국내 배낭여행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하는 힐링 프로그램 △한국어 및 글쓰기 교육 △문학창작집단 바띠 수강 기회 제공 등의 프로그램으로 대학생들에게 물적 정신적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20여명의 대학생들이 매월 3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후원단체(후원자)로는 불광사, 천불사, 흥천사 낙산사, 금강선원, 애기꾼, 금강회, 아름다운동행, 김복희 前한양대 교수, 임성수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획위원, 김태교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국내사업본부장, 이연경 금강선원 신도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5월부터 봉은사도 지원에 합류할 예정이다.

현재 20여명 후원, 명상 문화답사도
대학생 33명 장학금 결연 목표
내년 北 친구 연등 달기도 계획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새터민 대학생 신대성(29 · 동국대) 씨는 통일바라밀숲 활동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배웠다고 말한다. “남지심 대표님과 많은 멘토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 안에서 행복해야 밖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현주 (25 · 동국대) 씨는 “작가님과 스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마음공부가 된다. 또 이 모임을 통해 힘들고 우울할 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들이 생겨 너무 좋다”고 전한다.

한 학생은 새터민들이 느끼는 외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어느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라도 좋으니 집에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이들이 느끼는 외로움도 만만치 않은 듯 하다.

이들은 장학금 지원을 통해 생계형 아르바이트에서 벗어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고 낙산사 사찰순례, 국립공원 생태나누리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도 있었다. 이처럼 통일바라밀숲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며 통일을 향한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대표를 맡고 있는 황현우(한국외대) 씨는 앞으로 통일바라밀숲이 통일 이후 한반도를 이끌 수 있는 인재배출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싶다고 의지를 전한다. “꿈을 안고 남한에 오지만 모두가 적응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적 이질감 때문에 혼란을 겪는 친구들도 많죠. 제가 통일바라밀숲을 만난 것은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단체가 통일 한반도를 이끌 수 있는 인재 양성 발굴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싶습니다.”

새터민 대학생들의 희망과 꿈 그리고 그리움을 담은 글

진달래꽃과 어머니

“준호야, 꽃 좀 봐라. 저기 진달래꽃이 참 곱게 폈다야.”

어머니는 다섯 살 된 저를 양지바른 산등성이에 앉혀 놓고 나물을 뜯으시다가 저를 향해 이렇게 소리치셨습니다. 저는 자꾸 감기는 눈을 억지로 뜨며 어머니가 가리키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깎아지른 듯 한 바위절벽에 뿌리를 내리고 아름답게 피어있는 분홍색진달래꽃. 어머니는 그 진달래를 손으로 가리키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금년에도 진달래가 피고 졌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은 한반도 북쪽이니까 지금 진달래가 한창 피고 있을 지도 모르겠군요. 먹이를 쫓아 이산저산을 넘는 짐승처럼 저도 먹을 것을 찾아 중국으로 갔고, 거기서 다시 남한에 가면 대학을 다닐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남한에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북조선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대학생활, 학교에 등교할 때마다 정말 내가 대학생이 된 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해 본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머니는 어떤 모습으로 이 봄을 지내고 계십니까? 이 봄에도 산등성이를 헤매 다니시며 나물을 뜯고 계십니까? 그러시다가 바위절벽에 핀 진달래꽃을 보고 저를 그리워하고 계십니까?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20년 전 어느 봄날, 어머니와 저는 진달래꽃을 보며 서로 굳은 약속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드시 삶을 아름답게 꽃피워야 하고, 어머니는 그런 저를 꼭 지켜보셔야 한다는 약속을 말입니다. 어머니는 제 존재의 전부입니다. 성공해야 하는 것도,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하는 것도 어머니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반드시 살아계시다가 그런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셔야 합니다. 어머니, 제 말 듣고 계시지요? **이준호(동국대)**

내가 변호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제가 변호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통일 후 남한과 북한의 서로 다른 법체계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마찰을 줄여 사회통합의 기초를 다지는데 이바지하고 싶어서입니다. **김금혁(고려대)**

통일 후 치안 책임지는 경찰 되고파

경찰, 어린시절 막연하게 키워오던 꿈이었습니다. 한국에 입국 후 더욱 경찰에 대한 꿈을 키워오게 되었고, 통일 후 가장 걱정이 되는 치안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경찰이라는 직업을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금전적인 이유도 중요하지만 보다 저 자신이 사명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되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주(동국대)**

대한민국은 꿈을 찾아 주었다

저에게는 꿈도 희망도 없이 모든 정신력과 힘을 오직 먹는 것에 전념해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부모님이 피땀 흘려 지은 양식을 국가에서는 군량미라는 명분하에 모두 수탈해가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중국에 가면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두만강을 건넜고, 한국에 가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말에 메콩강을 건넜습니다. 길지 않지만, 짧지도 않은 이 길은 저에게 많은 깨달음과 교훈, 그리고 삶의 방향을 찾아주었습니다. **서정림 (한국외대)**

인터뷰 남지심 통일바라밀숲 공동대표

“통일 포교 불교가 앞장서야 합니다”



“저는 능력 있는 보살이 되고 싶어요. 세상의 어려운 이들을 구하는 관세음보살님 같은 보살 말이죠. 새터민 대학생 지원은 불교가 나서야하는 일이에요. 앞으로 통일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새터민 포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남지심 통일바라밀숲 대표의 통일불사에 대한 열정은 뜨거웠다. (사)우리는 선우 상임대표를 거쳐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문화재청 예비사회적기업 ㈜얘기꾼, 불교문학창작교육원 등의 대표를 통해 문화 포교의 일익을 담당해온 남지심 작가. 고희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새로운 원력을 가지고 시작한 통일바라밀숲에 대한 열정은 20대의 청년을 방불케할 만큼 뜨거웠다.

“통일바라밀숲은 인재 양성을 우선으로 두고 있어요. 새터민 대학생들이 한창 공부해야할 나이인데 생활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해야해요. 이러면 생활적인 면에서나 학업적인 측면에서 모두 어렵게 되죠. 월 30만원만 있으면 이들이 최소한의 생활은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33명을 후원할 수 있는 재정을 마련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불광사 흥천사 금강회 등 사찰 및 불교단체에서 후원을 받고 있는 대학생들은 20여 명. 그들은 하나 같이 남 대표가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 이유는 통일바라밀숲이 지원한 장학금을 받아서만은 아닐 것이다.

매월 첫째주 금요일 정기 모임을 통해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사찰순례, 교양강좌, 자비명상 등 불교 및 교양 프로그램으로 몸과 마음의 양식을 쌓으며 행복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기독교 단체에서 탈북자 지원을 하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계속 가면 나중에 통일이 되어 북한이 기독교에 잠식을 당해도 불교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해놓은 게 없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부터라도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새터민 포교에 나섰으면 합니다.”

통일바라밀숲은 내년 봉축을 목표로 ‘북한 친구들을 위한 연등 달기 캠페인’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남한의 불자 한 명이 북한에 생년월일이 같은 친구를 위해 한 개의 연등을 다는 운동이죠. 이를 통해 북한에 있는 친구의 행복과 안녕을 빌어주고 또 북한에 지원금도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佛紀 2558年 甲午年 Buddha's birthday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봉 축

法 대한불교 법성종

종 정 장허 덕암
총무원장 능허 혜운

중앙종회의장 일허 혜승
교육원장 설허 만원
규정원장 조허 혜운
문화원장 락허 혜운
총무원부원장 도원
교육원부원장 법정
포교원부원장 보안 현철
재무부장 옥천 류옥순
포교부장 보현 조보현
총무부장 백봉 성관
교육부장 일초
종무부장 보현 유옥임
문화부장 문순재



종 정 장허 덕암



총무원장 능허 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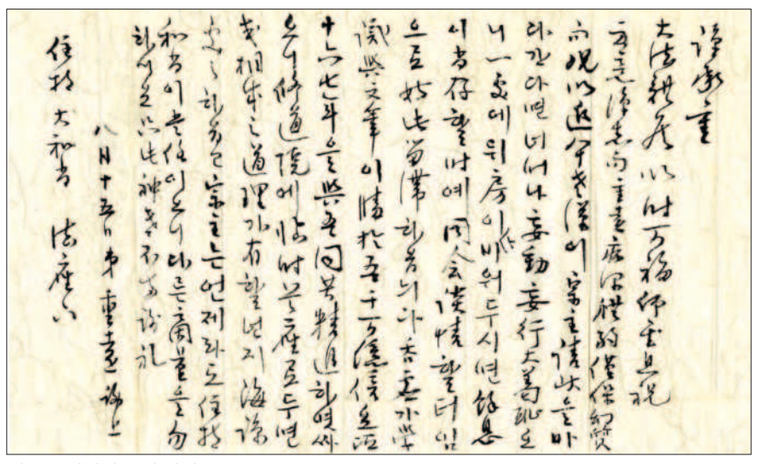
대한불교 법성종 총무원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81-14 TEL 02)747-2202, 02)762-2459



한암(漢岩) 선사의 편지 〈4〉

“80세 노인 宗主는 수치지요”



경봉 스님에게 보낸 답신

경봉(鏡峰)스님에게 답하는 편지 (2)

삼가 서찰을 받고서 법체(法體)가 항상 만복하심을 알았습니다. 우러러 위안이 되고 송축합니다. 통도사 종주(宗主, 조실)로 와 달라고 하신 뜻은 잘 알았습니다만 나는 병이 깊고 몸은 약하여 겨우 허망한 몸을 지탱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팔십에 가까운 늙은 사람이 종주(宗主)로 간다면, 그것은 너무나 망령된 행동이고 큰 수치입니다. 뒷방이나 한 곳 비워 두시면, 남은 목숨이 있을 때에 함께 모여 정담(情談)이나 나눌 터이오니, 우선은 이곳(상원사)에서 머물고자 합니다.

탄허(呑虛)가 학식과 문필이 나보다 천만 억 배나 더 뛰어나고, 또 16,7년 간 나와 함께 고생하며 정진하였사오니, 수도원에 임시로 수좌(首座)로 두면, 혹 서로 도움이 될 듯도 합니다. 해량(海諒)하여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종주(宗主)는 언제라도 주지화상(경봉스님)이 마땅히 맡아야 하오니,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정신이 흐려 이만 줄이옵고 답서의 예를 갖추지 않습니다.

1949년 8월 15일

제(弟) 중원은 답서를 올립니다.

이 편지는 한암선사(漢岩禪師)께서 경봉(鏡峰)스님에게 보낸 편지로 1949년 8월 1일에 보낸 것이다.

편지의 내용은 당시(1949년) 통도사 주지로 있는 경봉스님께서 통도사에 해동수도원을 설립함과 동시에 한암스님을 종주(宗主)로 모시고자 청했다. 실제 당시 통도사에 해동수도원이 설립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에 대하여 한암선사는 80에 가까운 나이로 통도사 종주로 간다는 것은 너무나 망령된 행동이고 큰 수치라는 말로 극구 사양하고 있다. 뒷방이나 한 칸 비워 두면 영생을 함께 모여 정담(情談)이나 나누면서 지내자는 것이다. 당시만 해도 옛 큰스님들은 조실 자리도 한사코 사양했는데, 요즘은 어떤지 알 수 없다.

한암선사는 그 대신 내 제자 탄허(呑虛)가 학식과 문필이 나보다 더 뛰어나니, 수도원의 수좌(首座, 조실 다음 직책)로 두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여 제자 탄허스님을 추천하고 있는데, 제자에 대한 배려가 매우 깊다. 당시 한암선사의 연세(年歲)는 열반(1951년)하기 2년 전으로 74세였고, 경봉스님(1892~1982)은 58세였고, 탄허스님(1913~1983)은 37세였다.

이 편지에는 연도가 없다. 그러나 경봉선사 일기를 고증한 결과 1949년임이 밝혀졌다. 한암선사는 경봉선사보다 16세 연장(年長)임에도 불구하고 ‘사제(舍弟, 師弟)’라고 낮추어 말하고 있다.



윤창화(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989호 제목 중 ‘절친한 도반…’을 ‘제자의 도반…’으로 정정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불교가 국민들에게 감동 주었으면…”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사회공헌기금 마련을 위한 ‘행복바라미’ 캠페인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2013년 4월 28일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기부문화가 탄생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날마다 좋은날이 제정한 ‘행복바라미’ 캠페인이 그것이다. 캠페인은 모금과 기부의 방법이 기존의 것들과는 다른 것으로 기부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새로운 체계의 캠페인은 부처님의 큰 가르침인 ‘자비’를 시대적 흐름에 맞게 실천하기 위한 고민에서 탄생했다. 그 고민의 주인공은 캠페인을 진행하는 날마다 좋은날의 이사장이자 캠페인을 주관하는 조계종중앙신도회의 이기흥(59) 회장이다. 기부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고 그로 인해 포교의 마당을 넓힌 그의 이야기다.

절에서 살아난 소년

4월 21일 신도회 집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느라 분주했다. 바쁘게 살아왔을까. 왠지 웃음도 바빠 보였고, 앉아 있는 모습까지도 바빠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많은 직함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 이 회장의 삶은 어찌 보면 남들보다 좀 더 바쁘게 살아야 하는 운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는 어린 시절에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살아났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어느 날 장티푸스를 앓게 된다. 상황은 심각했다. 병원에서도 더 이상의 방법이 없었고, 백약이 무효했다. 피지도 못한 꽃이었다. 절망의 순간, 이 회장의 어머니는 안타깝게 지켜보던 이웃들로부터 절에 한 번 가볼 것을 권유받는다. 이 회장의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비구니 스님이 계시는 논산의 작은 암자로 간다.

“절에서 이틀을 지냈어요. 지금 생각하니 스님이 구병시식(救病施食)을 해주신 것 같아요.” 죽어가던 소년 이기흥은 이틀 동안 절에 머물고 나서 살아난다. 기적이었다. 그렇게 목숨을 건진 초등학생 이기흥은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그는 하교 길에 암자에 들러 놀기도 하고, 법당에서 숙제도 했다. 그리고 가끔 스님이 주시는 떡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 회장에게 ‘불교’는 그렇게 시작됐다. 암자의 마당에서 뛰어 놀고, 법당에 앉아 숙제를 하고, 절에서 만든 떡을 먹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는 초등학교를 마치고 종립학교인 대전의 보문중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종립학교에 다니게 된 그는 배정된 교과시간을 통해 불교 교리를 배우고 경전을 읽으며 부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회장은 군에서도 군종병으로 복무한다. 이 회장은 입대 당시 약국에 배속됐는데, 어느 날 군종으로 차출되었다고 한다. 훗날 이 회장은 결혼식도 동학사에서 한다. 그는 극적으로 살아난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늘 불가의 울타리에서 살아온 것 같다고 회고했다.

초교 4년, 장티푸스로 죽을 고비
암자 찾아 구병시식으로 넘겨
중고교 종립학교 졸업, 군종병 복무
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 설립

기업인, 체육인 화려한 이력
‘체육인불자연합회’ 창립, 초대 회장
‘스포츠 포교’의 새로운 장 열어
2012년 중앙신도회 25대 회장 취임
새로운 기부문화 ‘행복바라미’ 제정

오래 전에 뿌린 씨, ‘행복바라미’

기부문화의 새로운 장을 연 이 회장의 ‘행복바라미’는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한 것이 아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실천하고 있었다.

“불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팔만대장경을 다 읽었다고 진정한 불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한 줄이라도 실천하는 이가 진정한 불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장은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나와 기업인으로 성공한다.

기업인으로서 꿈을 이룬 그는 2004년 ‘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이하 나눔재단)’을 설립한다. 나눔재단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주)신창산업개발, 흥국산업(주)의 임직원들과 자신이 회사 차원에서 해 오던 사회봉사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립했다. 그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기업인으로서 사회에서 소외되고 사각지대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것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무라는 생각에서 나눔재단을 시작했다고 한다. 설립 당시 치료비가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를 위해 아산병원에 치료비를 지원하면서 나눔재단은 시작됐다.

학자금 지원, 의료 지원, 푸드 지원, 해외 지원, 행복 지원, 봉사활동, ‘서담상’ 시상 등 여러분야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나눔재단은 독특한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들이 또 다른 상황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로써 장학생들에게 학창시절 남을 돕는 일에 보람과 재미를 느끼게 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주변을 생각하는 마음을 기르게 하는 것이다. 2013년 4월 28일 탄생한 이기흥표 ‘행복바라미’는 이미 오래 전에 뿌린 씨가 자라난 것이다.

새로운 포교 ‘스포츠 포교’

이 회장이 불교계에 정식으로 발을 디딘 것은 2007년이다. 10월 18일 불자 체육인들의 신심을 고양하고 스포츠계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모임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체육인불자연합회’가 창립됐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봉행된 창립법회에서 이 회장은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다.

‘대한근대5종연맹 부회장’, ‘대한카누연맹 회장’, ‘대한수영연맹 회장’, ‘대한체육회 수석부회장’ 모두 이 회장의 이름 뒤에 따라 붙는 직함들이다. 직함은 이것만이 아니다. 그는 성공한 기업인이면서 체육인이다. 체육인으로서의 이력 역시 화려한 그는 호주 시드시 올림픽을 비롯해 네 번의 올림픽과 두 번의 아시안 게임에 임원으로 선수단을 이끌고 참여 했다.

체육인불자연합회는 2005년,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법장 스님의 원력과 지원으로 시작됐다. 새로운 포교에 대한 원력을 가지고 있었던 법장 스님은 성공한 기



이기흥 회장은 2007년 체육인불자연합회 초대회장으로 취임했다.



2007년 런던올림픽선수단환영식에서 선수단과 기념촬영



2013년 행복바라미캠페인 선포식

佛紀 2558年 甲午年 Buddha's birthday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대한불교 승가종

종정 월인

원로원장 혜공 종회의장 혜륜 총무원장 법수
재무원장 무착 포교원장 도안 총무부장 도일

범음범패교육원장 법수 승가종법사대학장 원해
비구니범음교육원장 법관 승가종총본산승가사주지 선견
월인문도회문장 법종

서울종무원장 정행 부산종무원장 봉산 대구경북종무원장 지운
대전종무원장 법지 울산종무원장 도성 경남종무원장 월곡
강원종무원장 부루나 전남종무원장 선궁 종도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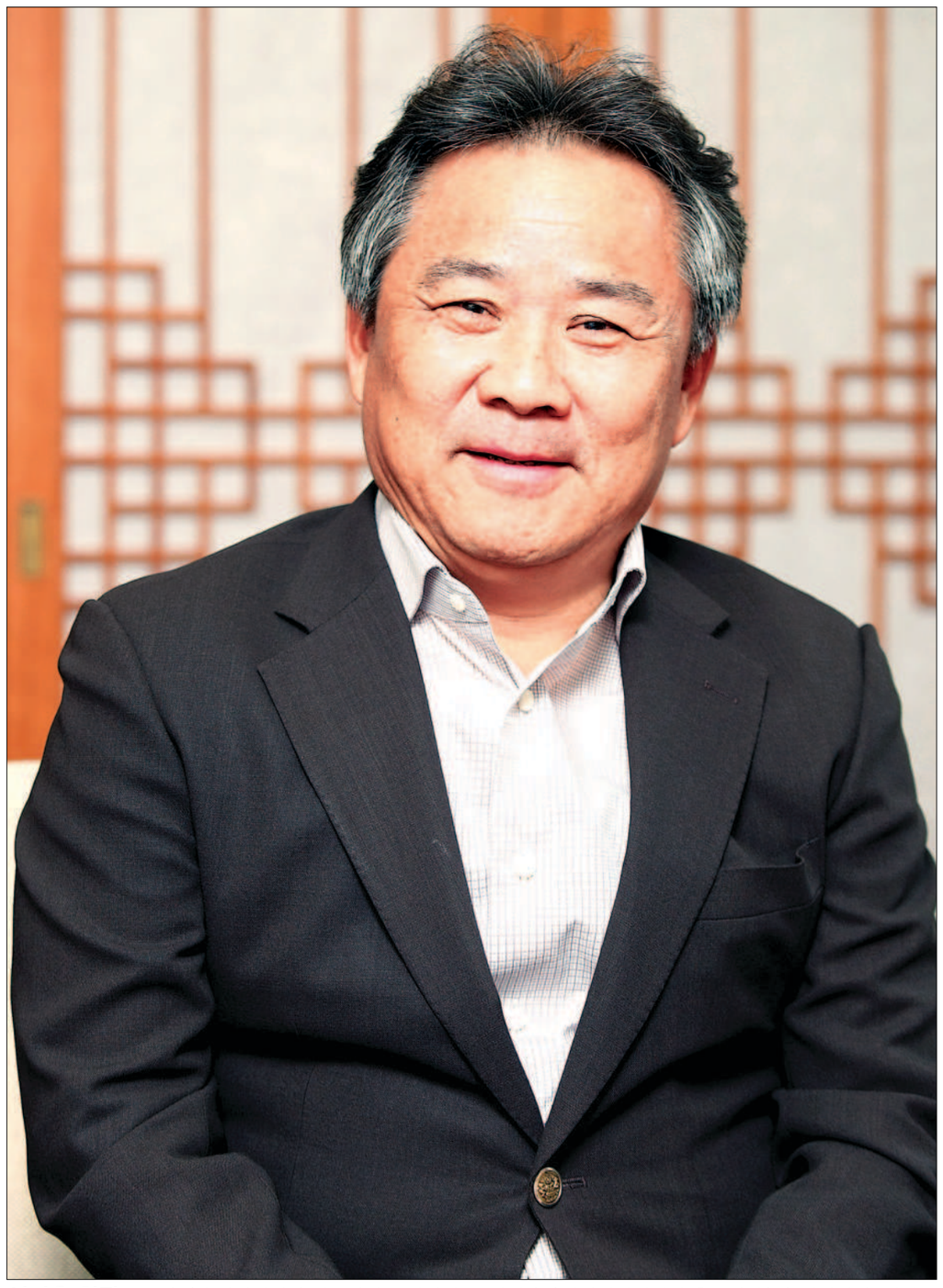
(사)대한불교승가종 총무원장 법수

■ 총무원 : 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177-15번지 ■ 전화 051)552-8554, 556-0278~9 / 팩스 051)556-8551

업인으로서, 체육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 회장을 관심 있게 지켜봤고 새로운 포교의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이 회장은 법장 스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 회장은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불법 홍포의 길을 시작하게 된다.

그는 16개 시도지부를 만들고, 불자 체육인을 발굴, 육성, 지원하고, 국가대표 선수촌 선수들을 위한 법회를 개최하고, 생활여건이 어려운 불자 체육인을 지원하고, 회원 간 단합과 화합 도모, 각국 불자선수들과의 유대 및 연대활동 등을 펼쳐나갔으며, 태릉선수촌에 법당을 세우는 등 체육인들을 위한 새로운 울타리를 만들어 나갔다. 그렇게 만들어진 '체육인불자' 라는 인프라를 통해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넓혀나갔다. 현재 300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체육인불자연합회의 창립은 '스포츠 포교' 라는 또 다른 포교의 확장이었다. 안타깝게도 원력을 세웠던 법장 스님은 연합회의 창립을 보지 못하고 원적에 드셨다.

새로운 포교의 앞줄에 서게 된 그의 노고와 능력은 '2008년 포교대상' 과 '2011년 불자대상' 수상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이기흥 회장은 … (주)우성산업개발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현재 (주)신창산업개발과 흥국산업(주) 회장이다. 대한근대5종연맹 부회장, 대한카누연맹 회장, 대한 올림픽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2004년 '재단법인 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 을 설립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2007년 체육인불자연합회를 창립하고 초대회장으로 취임해 스포츠 포교라는 포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등에 여러 차례 임원진으로 참여 했으며, 2009년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으로 선임됐으며, 2010년부터 대한수영연맹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2012년 대한불교조계종 불교포럼 공동대표와 대한불교조계종중앙신도회 2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2013년부터는 대한체육회 수석부회장으로도 일하고 있다. 2008년과 2011년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과 불자대상을 수상했다.

"실천하는 회장 되고 싶어"

"중앙신도회는 불교인재를 발굴해 육성하고, 교구신도회의 역할을 강화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시행하겠습니다. 중앙신도회가 종단과 불교의 중심이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2012년 10월 13일 이 회장은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25대 회장으로 취임한다. 체육인불자연합회를 이끌며 포교 역량과 신행력을 넓혀 온 그는 2009년부터 조계종중앙신도회의 부회장으로 일해 왔고, 마침내 포교와 신행의 중추인 조계종신도회를 이끌게 됐다.

"신도회가, 신도회장이 해야 할 일은 '장(場)' 을 마련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임 회장에 취임한 그는 중앙신도회의 존재 이유부터 고민했다. 왜 있어야 할까. 신도회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일까. 그는 신도들 상호간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신도들의 역량을 '결집' 시키는 역할이 신도회의 책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결집된 신도들의 역량으로 종단과 불법(佛法)을 외호하고, 불법의 실천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신도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미디어, 봉사, 복지, 전통문화, 노동, 인권, 환경, 남북, 여성 청소년 등 15개 분야에서 400여 명에 이르는 재가불자 전문가들이 임원진으로 참여하는 상설위원회를 만든다. 조직화를 통해 불자들과 '불교' 의 대사회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다. 그리고 더불어 내부 조직도 정비했다. 교구신도회와 직능별 신도단체, NGO단체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노력했다. 그렇게 신도회 안팎을 정비한 그는 신도회의 출발점인 '결집' 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총체적인 실천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 고민 끝에서 탄생한 것이 '행복바라미' 이다. 결국 '행복바라미' 는 이기흥 회장의 포교역량과 신행력의 집약이며 조계종중앙신도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증명하는 실체인 것이다.

기부문화의 새로운 체계를 제시하며 관심을 모은 '행복바라미' 캠페인은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기간 동안 진행되는 캠페인으로 모금과 기부 방법이 다른 것들과 다르다. 우선 디지털 기부시스템을 도입했다. 전국에 설치된 모금함에는 신용카드 단말기가 부착되어 있다. 모금과 기부의 운영 형태도 기존의 다른 모금운동과 다르다. 모금과 기부가 바로 모금 현장의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수혜자의 선정도 모금이 이루어진 해당 지역의 주체에서 선정하고 있어 제도권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대상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중앙신도회는 각 지역에서 모금과 기부를 원할이 진행할 수 있도록 물품과 시스템을 제공하는, 그야말로 '장' 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실질적인 집행은 해당 지역의 주체가 하는 것이다. 때문에 모금과 기부의 집행력이 신속하고 효율적이다. 또한 캠페인은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 등 축제 형식으로 진행된다. 2013년 첫 모금행사에서는 총 1억 1800여 만 원이 모금됐으며, 209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로 2회 째 캠페인을 진행하는 이 회장은 "올해 2년차를 맞이한 캠페인은 더욱 새롭고 발전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며 연등축제를 앞두고 열리는 문화축전을 세계의 유수한 문화축제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 키우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중앙신도회는 "(사)날마다좋은날은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한 전 국민적 슬픔이 하루빨리 해결되고 치유되기를 서원한다." 며 "사회공헌을 위한 전통문화 계승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준비했던 2014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전국 모금캠페인 포함)을 잠정 연기한다." 고 밝혔다.

취임 3년 차를 맞고 있는 이 회장은 "내년부터는 캠페인에 '마케팅' 을 도입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캠페인을 펼치겠다." 며 지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축사만 하는 회장이 아닌 일하는 회장이 되고 싶다." 고 했던 소신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했다. 어린 시절 불가의 인연으로 인해 다시 살게 된 그는 자연스럽게 불가의 울타리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이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불교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전법일기

'이 땅은 우리가 지켜야 할 청정도량'

대한민국 국군에 군목(軍牧)과 군 신부는 있어도 군승(軍僧)은 없던 시절이 있었다. 바로 군포교의 암흑기라 부를 수 있는 1968년까지다. 이 당시 대한민국 국군에는 군승이 파송되지 않았다. 불교가 우리나라 최대 종교임을 감안할 때 이는 누가 보아도 불평등한 일이었다.

미군은 군정을 실시하며 구호품을 교회를 통해 배급했다. 해방 후 민간구호품은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모은 것들이었으며, 이 구호품을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분배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가난이 핑계였던가? 당시 구호품을 받기 위해 불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불자들도 적지 않았다. 스님으로서 그런 상황을 보는 것은 정말 가슴이 아팠다. 우리 불교가 그만큼 그 기능을 못했다는 뜻이기도 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군 요직에도 기독교계 인사들이 대거 배치됐다. 당연히 군대에는 목사와 신부만이 장교로 임용돼 포교를 독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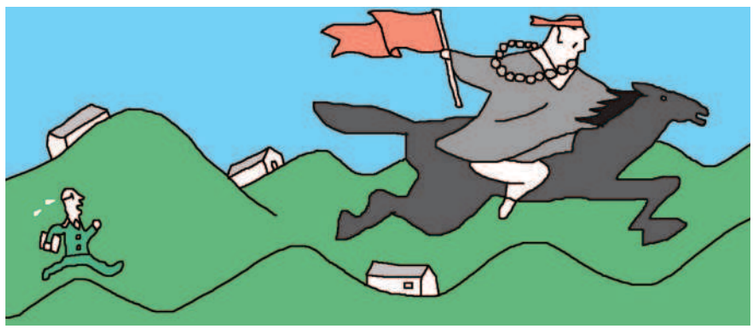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여러 큰 스님들이 나섰다. 1960년대 초 경산 스님, 숭산 스님, 혜정 스님 등이 여러 방면에 애를 써 마침내 군대에 스님들을 파견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게 됐다. 때마침 시기적으로도 베트남 파병이 이뤄지게 됐다. 베트남은 불교국가였기 때문에 군에서는 군승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군승제도가 도입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가장 먼저 기독교계에서는 반발했다. 여기에 불교계에서는 스님이 장교가 돼 군대에 가면 장가를 가지 않겠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불자들의 원력으로 1968년 마침내 군승제도가 현실화됐다. 힘들건 어렵건 군승은 각 부대로 파견돼 포교활동에 나섰다. 그런 중 나는 은사 경산 스님의 명을 받아 군승으로 입대했다. 처음에는 스승의 명이니 거역할 수도 없고 이것저것 생각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막연했을 뿐이었다. 그때 은사 스님께서는 나에게 휴정 스님의 격문을 보여주셨다. 그 격문은 지금 읽어도 가슴이 뛴다.

'사부대중에게 고하노라! 부처님은 살상을 금하여 미천한 생물에 이르기 까지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셨다. 그런데 잔악한 왜구가 이 땅에 범람해 국왕이 몽진하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 이제 불력과 법력이 아니면 구제할 수 없게 됐다. 나라와 중생이 있지 않고는 우리 불교도 있을 수 없다. 비록 조선왕조가 우리 불교의 씨를 말리려 철저히 박해했다 한들 이 땅은 우리가 지켜야 할 청정도량이다.'

임진왜란 당시 휴정 스님의 격문을 보며 나는 군포교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됐다. 임진왜란 당시 칼을 든 스님들은 당신들이 지옥을 가는 대신 후대의 스님들과 대중들이 성불하는데 이바지 하기 위해 거침없이 자신을 내던졌다. 그들은 불살생이라는 계율을 뒤로 칼을 높이 들고 중생구제라는 더 큰 법을 따른 것이었다.

나는 군승제도가 실시된지 2년 후인 1970년 3기로 임관하였다. 이어 1972년 2월 십자성부대 군승으로 이듬해 4월 부대가 철수할 때까지 베트남에서 장병 포교와 현지인들을 위한 봉사에 나섰다. 불모지나 다름 없었던 군포교 현장에서 군승으로 복무하는 내내 나는 휴정 스님의 격문을 떠올렸다. 군대에 있다보면 다른 스님들처럼 선방 안거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여러 군대상황이 겹치면 예불을 지킬 새도 없다. 매일 장병들에게 들려줄 법문과 법회 준비에 밤잠을 설칠 때도 많다. 비록 군대라는 특수환경 때문에 스님으로서의 의식을 완전히 치르지 못했지만 어떤 수행자보다 더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수행하며 실천해야 하는 곳이기에 어깨가 무거웠다. 군승으로 복무하는 것은 수많은 스님들이 마음놓고 수행할 수 있는 길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광 스님
(前 군종교구장 · 용인 반야선원 주지)

봉

- 세계인류평화와 남북통일 기원 -

사단법인 세계불교연합법왕청 설립 기념대법회

축

사단법인 세계불교연합법왕청은 석가세존의 혜명 아래 평화와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인종, 문화, 종교, 사상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한편, 지구촌의 평화로운 공존과 상호협력으로 인류의 안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세계불교도관의 친선도모는 물론 문화교류를 통하여 불교포교 및 세계평화와 자비사상에 기여하며 세계인류평화와 남북평화통일에 이바지 할것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기2558(2014)년 3월 25일자로 경기도 지사로부터 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만천하에 선포합니다.

불기 2558(2014)년 4월

사단법인 세계불교연합법왕청

이사장 청운 박청운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수석부회장, 대한불교원각조계종 종정, 일붕신문사 수석부회장, 민주평통자문위원)

상임이사겸 사무총장 이붕 서병열

(일붕신문사 발행인 겸 회장, 민주평통 고양시협의회지회장, (교단)일붕교 이사장, 대한세정신문사 발행인 겸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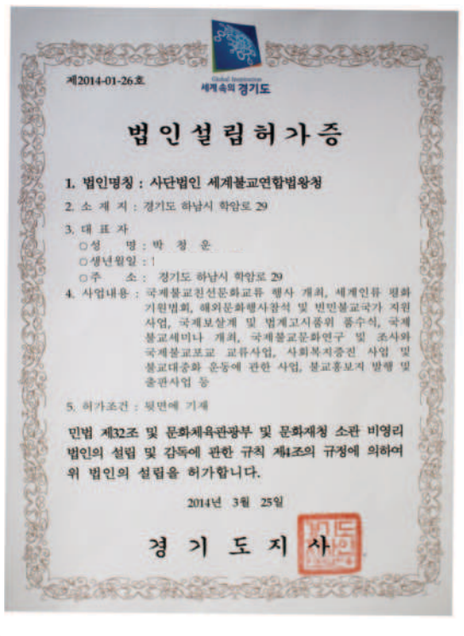
- 설립 기념대법회 일시 및 장소 -

주최 : 同행사봉행위원회

주관 : (사)세계불교연합법왕청

일시 : 불기2558(2014)년 5월23일
(음력4월25일) 금요일 오전11시

장소 :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2층)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0


제2014-01-26호
세계속의 경기도
법인설립허가증
1. 법인명칭 : 사단법인 세계불교연합법왕청
2. 소 재 지 : 경기도 하남시 학암로 29
3. 대 표 자
○성 명 : 박 청 운
○생년월일 :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학암로 29
4. 사업내용 : 국제불교친선문화교류 행사 개최, 세계인류 평화기원법회, 해외문화행사참석 및 빈민불교국가 지원사업, 국제보살계 및 법계고시종위 종수식, 국제불교세미나 개최, 국제불교문화연구 및 조사와 국제불교보교 교류사업, 사회복지증진 사업 및 불교대중화 운동에 관한 사업, 불교홍보지 발행 및 출판사업 등
5. 허가조건 : 뒷면에 기재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2014년 3월 25일
경 기 도 지 사

법인사무처 : 경기도 하남시 학암로 29 (청운사)
서울사무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1 혜명빌딩6층 전관
전화 : (02)3401-9325, 010-6253-4936 전송 : (02)774-1487

佛紀 2558年 甲午年 Buddha's birthday | 전면광고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 A18

"천상에 태어나겠다는 마음으로 보시하지 말고 열반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보시하라.
어리석은 복전(수행자)에 보시하지 말고 수행을 잘 하여 공경할 만한 복전(수행자)에 보시하라." 〈증일아함경〉



모든 불보살님의 가피가 저 바다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불국정토 구현의 선도 교단!
지계청정 지관쌍수 화합대중

한국불교 원융교단

총본산 무문총림 영평사

증명대법주 법원

개산대법주 마 정 부대법주 정 림
본산중앙회 회장 보 당 부 회 장 법 인

조계선림 제1본산 법주 **혜조** 조계선림 제2본산 법주 **보당** 조계선림 제3본산 법주 **법인**
조계선림 제4본산 법주 **소허** 조동선림 본 산 법주 **정림** 임제선림 본 산 법주 **원돈**
정토선림 본 산 법주 **법천** 화엄선림 본 산 법주 **금화**

사무총장 **석초오**

금오선원 원장 **석장현** 용봉학림 강주 **석혜조** 영산율원 율주 **석혜안** 중앙불교대학원

〈사찰등록 입종등록 받습니다〉

■총림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44 / 전화 031)676-3960 / FAX 031)676-2960
■본산협의회 : 서울 중랑구 망우3동 120-7 / 전화 02)496-3952~3 / FAX 02)496-3951

사단법인 대승불교본원종

종 정 **이대화** 사서 김경산
부종정 **김동광. 유법용**

총무원장 **김만혁** 사서 김해인

원로의장 **김대원**
원로의원 **박대월. 이관곤 이대봉. 박보명**

총무부장 **정법성** 교무부장 **안자관**
재무부장 **김성문** 사회부장 **강정오**
감찰부장 **안도일** 포교부장 **김용담**
복지부장 **심지연** 조직부장 **최원광**

교육원장 **손무공** 감찰원장 **정대능**
연수원장 **최대광** 포교원장 **김청운**
문화원장 **김송담** 의전원장 **이두산**
염불원장 **김광수**

부산교구종무원장 **김동광** 대전교구종무원장 **최지천**
경북교구종무원장 **윤자광** 충북교구종무원장 **박대월**
강원교구종무원장 **지진묘**

종회의장 **김대운** 종회부의장 **윤자광. 정지명**
종회의원 **구원각. 안자관. 김용담. 박부용. 황현문. 이심공. 유승준. 유관공. 이수혜 김해인. 신대광. 김성인. 김광덕. 김지선. 지진묘. 배지명. 이혜은. 한혜경 이혜원. 허시원. 이지혜장. 권진광명. 신청연행. 김법륜해. 김한명화. 김광명화. 이대각화**

종 도 일 동

■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17-3 전화 02)391-4376 / 팩스 02)379-2746

봉 불기 2558년 부처님오신날 축

**대한불교조동종 전종도들은 세월호 희생자의
극락왕생과 실종자 전원의 무사귀환을
부처님전에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동종 전종도 일동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145길 103(상계동) ☎ 02)2091-0408 전송 02)952-0408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종 정 **혜봉**
원로원장 **범준**
위 원 **고산. 경호. 대명. 보현**

총무원장 **송산** 총무부원장 **도현. 보성**
총무부장 **덕광** 교무부장 **무연** 재무부장 **도은** 사회부장 **현무**

중앙종회의장 **보장** 부의장 **수운. 호경**
중앙종회의원 **서봉. 삼자. 혜언. 원철. 혜광. 수진. 법우. 지선. 혜가. 혜공. 연각. 지인. 보련. 이타**

중앙사정원원장 **정화** 부원장 **지성** 사정부장 **백파**
중앙포교원원장 **혜일** 부원장 **보단** 포교부장 **법공**
중앙교육원장 **공덕** 교육부장 **무진** 중앙선원장 **현법**
중앙복지봉사원장 **무량** 부원장 **무봉** 복지봉사부장 **지연**

서울교구종무원장 **서봉** 부산교구종무원장 **삼자** 경기인천교구종무원장 **혜언**
경남동교구종무원장 **원철** 경남서교구종무원장 **혜광** 경북대구교구종무원장 **수진**
전북교구종무원장 **법우** 전남교구종무원장 **혜공**

중앙법사단장 **무진** 법사단부단장 **혜등** 법사단총무 **혜련**
비구니회회장 **법인** (사)해동자비원장 **덕광** 국제교화원장 **공덕**
용인소년의집원장 **무봉** (사)해동자비원부산지사장 **장양숙**

종 도 일 동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211-5 / 전화 031)262-1577 / 팩스 031)263-1353

(사)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법인 운남**
종회의장 **법보 일봉**
감찰원장 **법운 성연**

연수원장 **법신 노정** 교육원장 **법기 무여** 고시원장 **법전 법현**
포교원장 **법천 덕일** 기획실장 **법장 원해**

서울종무원장 **교령** 경기종무원장 **무상** 강원종무원장 **탄해**
충청종무원장 **혜능** 전라종무원장 **덕운** 군산종무원장 **덕일**
경북종무원장 **탄영** 경남동부종무원장 **진공** 경남서부종무원장 **일봉**

총무부장 **진공** 사회부장 **진성** 호법부장 **진각** 교육부장 **진산**
재무부장 **혜각** 연화부장 **정혜** 문화부장 **공덕** 교무부장 **원봉**
총무국장 **화련** 사회국장 **화선**

■ 총본산 : 서울시 중구 신당동 333-250번지 흥도사
■ 총무원 : 경남 창원시 회원구 양덕1동 산 30-4번지 천연암 / 전화 055)253-1074

대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청해**

원로의원 **해우 무상**
종회의장 **오봉** 종회부의장 **미산**

교육원장 **진성** 포교원장 **해광** 사정원장 **해능** 문화원장 **보광**
호계원장 **무문** 율원장 **법산** 중앙선원장 **해진** 강원원장(불교대학장) **탄석**
홍법원장 **혜원** 사회복지원장 **고경** 비구니원장 **보성** 비구니부원장 **보현**
법사원장 **청허** 대체의학원장 **고산** 염불원장 **진각** 의전원장 **청원**
기획실장 **진법** 사서실장 **진산**

총무부장 **향천** 재무부장 **담교** 교무부장 **천호** 사회부장 **혜안** 조직부장 **태은**
감찰부장 **무공** 조사부장 **대원** 봉사부장 **향천** 포교부장 **묘광** 사회부장 **법산**
기획실장 **진법** 규정부장 **수광** 경북지역법사원장 **능각**

서울서부종무원장 **무상** 인천남부종무원장 **태은** 경기남부종무원장 **청허**
경기서부종무원장 **진각** 대전중부종무원장 **향천** 대구종무원장 **청호**
대전동부종무원장 **보성** 대전서부종무원장 **진산** 충남서부종무원장 **혜안**
충남남부종무원장 **진우** 충북종무원장 **오봉** 광주전남종무원장 **성산**
전북종무원장 **천호** 경북종무원장 **해능** 강원종무원장 **고경**

■ 총무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옛농고길 8길 11호(원성동 138-12)
전화 041)551-5537 팩스 041)621-5537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수신로26(백자리 산 50)

佛紀 2558年 甲午年 Buddha's birthday | 전면광고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 A19

"진실로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나쁜 짓을 하지 마라. 나쁜 짓을 멀리하고 선행을 쌓으면 그 마음이 항상 편안하다.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국경을 잘 지키듯 자기를 잘 지켜야 한다." 〈잡아함경〉



모든 불보살님의 가피가 저 바다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불법승

(사)대한불교삼보조계종

세월호 희생자 및 무사생환을 삼보대중은 마음에 담아 기원 올립니다

1세종정 멸공 대종사

부 종 정 **회천** 원로원장 **금산** 원로부원장 **정공**
총무원장 **법장** 호법원장 **법천** 종 회 의 장 **정수**

부 원 장 **법경** 고시원장 **해룡** 교육원장 **홍인** 문화원장 **도광**
감찰원장 **법도** 포교원장 **법륜** 복지원장 **지공** 염불원장 **청산**

교구원장 **수산. 법인. 보산. 불광. 각원. 용현. 법융. 지훈. 법송. 지원. 도연. 도륜. 천광. 정륵. 수원. 해국 (16교구)**

총무부장 **평산** 교육부장 **도오** 교무부장 **도월** 재무부장 **법진**
포교부장 **혜수** 호계부장 **청파** 규정부장 **도철** 교화부장 **해운**
총무국장 **지일** 문화국장 **해공** 포교국장 **도원** 교육국장 **도선**
조사국장 **도석** 사회국장 **도암** 홍보국장 **강천** 염불국장 **진각**
전산실장 **진행** 기획국장 **청붕** 사서국장 **도율** 사 무 장 **손은진**

■ 총무원 : 경남 김해시 분성로 455 삼보빌딩 6층
전화 055)334-1122. 338-0089 / 서울사무소 070-7124-3403

(사)대한불교법상종

종 정 : 자 봉 총무원장 : 해 월 원로원장 : 학 암

총무부원장 : **도일** 사정위원 : **지안. 강명** 총무국장 : **관보** 서울종무원장 : **지선** 중앙종회의장 : **대광**
사정원장 : **소운** 교무부장 : **원응** 사회국장 : **관덕** 부산종무원장 : **혜명** 중앙종회부의장 : **대화**
포교원장 : **천광** 사회부장 : **법산** 문화국장 : **법지** 대구종무원장 : **강명**
교육원장 : **성운** 재무부장 : **선혜** 포교국장 : **관지** 인천종무원장 : **원각**
참선원장 : **선담** 호법부장 : **선우** 교육국장 : **수운** 대전종무원장 : **송암**
홍보원장 : **해암** 문화부장 : **법연** 홍보국장 : **법은** 울산종무원장 : **석천**
연구원장 : **보월** 포교부장 : **선명** 연구국장 : **무상** 광주전남종무원장 : **성운**
역경원장 : **현산** 교육부장 : **대명** 역경국장 : **임오** 경기북부종무원장 : **성상**
포교부원장 : **진광** 홍보부장 : **법성** 교무국장 : **해천** 강원종무원장 : **대광** 사무국장 : **이상기**
역경부장 : **법화** 복지국장 : **도법** 충남종무원장 : **원상**
복지부장 : **지공** 충북종무원장 : **강월**
비구니부장 : **대화** 경북종무원장 : **보공**

■ 총 무 원 : 경기 안성시 삼죽면 텃골길 105(기솔리 33-1) / 전화 031)677-9950~1, 팩스 031)677-9953
■ 법상종 홈페이지 : www.bsj.or.kr 총무원 이메일 : bsj99501@naver.com

(재)한국근본불교조계종

명예종정 만운

방 장 **용주** 종 정 **의륜**
부종정 **정담** 장로의장 **지관**

중앙종회의장 **천명** 중앙부의장 **수선**

총 무 원 장 **설송** 교 육 원 장 **등법** 포교원장 **석일** 호계원장 **관도**
감 사 원 장 **무일** 문 화 원 장 **법진** 수선원장 **선각** 연수원장 **무진**
비구니원장 **해인** 사회복지원장 **지공** 염불원장 **법안**

서울교구원장 **지공** 부산교구원장 **자광** 인천교구원장 **범산**
울산교구원장 **원광** 경기북부교구원장 **법진** 강원교구원장 **성암**
충북교구원장 **도일** 충남교구원장 **승의** 경북교구원장 **원각**
경남교구원장 **석보** 광 주 분 원 장 **보문**

종 도 일 동

■ 총무원 : 서울 은평구 녹번동 89-13 / 전화 02)358-6641

허가번호 2008-1-56-호. 등록번호 13467-0002921호

(사)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총 재 **혜 정** (사단법인 대한불교일승종 종정)
부 총 재 **혜 안**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무 송 (사단법인 대한불교화엄선종 종정)
우 담 (중앙조계종 종정)
회 장 **송 산**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총무원장)
부 회 장 **정 림** (사단법인 수미산문조동정종 총무원장)
마 정 (임제선학원종무총리)
사무총장 **법 봉** (사단법인 대한불교승가종 前총무원장)

이 사 **법 인** ((사)대승불교육조조계종 총무원장)
향 운 (대한불교법보조계종 종정대행)
법 천 (대한불교정토조계종 총무원장)
법 성 (국제불교선덕종 총무원장)
일 초 (사)대한불교삼계종 총무원장)
대 명 ((사)대민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무 각 ((사)한국불교정토종 前총무원장)
정 일 (한국불교근본해동종 총무원장)
대 일 (대한불교법륜종 총무원장)
본 자 (한국불교법안조계종 총무원장)
덕 진 (한국불교원각종 종회의장)
지 고 (대한불교법사종 종회의장)

회 원 일 동

■ 총무원 : 경기도 안산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 / 전화 : 사무실 031)676-3960
031)262-1577 FAX 031)262-1353

대한통일불교조계종

종정 **벽 암**

종 도 일 동

귀의 삼보하옵니다.
본 종단은 부처님의 불법을 널리 펼쳐 불국정토를 이루고자 하는 큰 서원으로 참된 교육을 통한 정법 포교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불심을 모아 함께 정진하실 승려, 법사님을 널리 모십니다.

{ 개인사암의 자산과 관리는 일체 주지 권한이며, 총무원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

■ **입종서류** 입종 등록신청서 1부,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부,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도교육** **종도 강원교육, 집체교육, 사미기본교육, 통신강의**
(사미율의, 초발심자경문, 치문, 아함경, 방등경,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外 천수경, 반야경, 금강경오가해, 유식삼십송, 선문촬요, 정토삼부경, 원시불교, 부파불교, 불교계론, 기타 등등)

■ 총본산 : 경남 밀양시 상남면 남산리 444번지 자비선원
■ 전화 055)391-3014(선원장실), 3004.3024(종무소) 팩스 055)391-3016

(사) 대한불교염불종

종 정 **월담성인**

종회의장 **혜안 성묵**
원로의장 **무초 정락**
총무원장 **만공 호조**

미국종무원장 **용월 도황** 경기종무원장 **호암 대인** 경북종무원장 **성묵**
기 획 원 장 **설담 보현** 포 교 원 장 **수미 길상** 문 화 원 장 **정견**
사 서 실 장 **조능**

종 도 일 동

■ 총무원 : 충북 제천시 수산면 봉화재길 5 화엄사
전화 043)652-0331 팩스 043)653-0332

영산불교, 천상천하에 가장 위대하신 부처님의 실체를 사자후하다!!

Ⅰ. 부처님 모르는 기존 세계불교는 정통불교가 아니다
Ⅱ. 부처님께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신다
Ⅲ. 천상천하에 가장 위대하신 부처님의 실체
Ⅳ. 한국땅에 보신불로 오신 부처님 – 영산불교 부처님회상
Ⅴ. 티베트 – 달라이 라마의 우주기원 관련 5대 근원적 의문에 답하다

Ⅰ. 부처님 모르는 기존 세계불교는 정통불교가 아니다!

1. 부처님에 대한 무지로 아라한불교, 심교(心敎)로 전락한 세계불교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인 영산불교에서는 이미 "부처님께서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심"을 세계불교계에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실존을 모르는 지금의 세계불교는, 불교가 부처님의 우주적 구원력을 중핵으로 하는 인류구원의 종교라는 차원 높은 불교의 진면목을 전혀 드러내주지 못하고 있으며, 아라한불교 · 심교(心敎)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부처님의 실존과 위대한 실체를 모르는 불교는 더 이상 불교가 아닙니다.

그 한 가운데에는 "무아론의 왜곡"이라는 불교사에 씻을 수 없는 교리의 왜곡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아론은 "현상계 존재의 실체 없음"을 설한 교설입니다. 그러나 기존불교는 본체계의 존재인 청정무구한 인간 영혼체마저 없다는 의미로 무아론을 왜곡해 버렸습니다. 영혼체는 실존하는 인간의 본체이고 윤회와 해탈의 주체입니다. 왜곡된 무아론은 인간 영혼체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부처님의 존재마저 부정하는 망불적 논리를 제공했습니다.

이제 21세기에, 영산 당시 가섭존자와 아난존자가 한국에서 불과를 이루시고 신불교인 영산불교를 개창하여 2000년 이상 왜곡돼온 무아설을 바로 잡고 부처님의 실존을 만천하에 사자후 하는 것입니다.

◈ 남방불교는 대승경전의 불신관을 인정하지 않아 아라한 불교로 전락

남방불교에서는 불신의 존재나 부처님 실존의 근거가 되는 대승경전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산 당시의 역사적인 부처님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방불교의 불신(佛身)에 대한 불인정 또는 무지는 결과적으로 불교자체를 왜곡 · 왜소화시키는 크나큰 폐해를 불러왔습니다. 단적인 예로, 자력수행에만 의지하는 남방불교는 아라한이 수행목표이자 한계입니다. 부처님의 절대적 가피가 필요한 정토보살이나 붓다가 되는 길이 없습니다. 위대한 부처님의 불교가 아니라 아라한 불교로 격하되어 버린 것입니다. 남방불교는 하루 속히 《열반경》에서 말하는 반자(半字)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만자(滿字)의 가르침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 북방 선불교는 심교차원으로 불교를 왜소화시키고 부처님을 모독

북방불교는 대승경전을 소의경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론이 잘 발달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지만, 전통적인 선불교의 관점에서는 불신(佛身)을 유심화시켜 자성삼신으로 봄으로써 불신론을 심하게 왜곡해 버렸습니다. 자성삼신은 마음에서 삼신불을 찾는 것으로서, 법신을 마음의 참된 성품으로 보고, 보신을 그 성품을 보는 지혜로, 그리고 화신을 마음 속에 지옥 · 극락을 만드는 결정적인 한 생각을 말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선불교의 교의는 이를 한 마디로 마음이 곧 부처, 심즉시불(心卽是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불교의 이러한 불신관은 우주의 본성과 절대계의 적멸세계에 실존하는 부처님의 실체를 구분하지 못한 어처구니없는 망언입니다. 결코 '마음이 부처' 일 수는 없습니다. 불교는 심교(心敎)가 아니며, 부처님은 32상 80종호의 거룩한 몸매를 가진 무량광 빛의 인격체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선불교의 주장은 불교를 왜소화시키고 부처님을 모독하는 망불적인 교설입니다.

◈ 티베트불교의 불신론은 불신을 모독하고 불교를 왜곡시키는 망불적 교설



불사중인 제주도 제2본산

티베트불교 불신관의 가장 큰 특징은 부처님의 법신불인 대일여래(비로자나불) 중심의 일신설(一身說)과 즉신성불(卽身成佛)의 교설에 있다 하겠습니다. 물론 유식학파의 불신론에 따른 자성신 · 수용신 · 변화신의 삼신설의 입장도 있고, 사신설(四身說)도 있습니다.

대일여래 중심의 불신관은 붓다를 포함한 모든 개체적 존재를 대일여래, 즉 비로자나불의 화현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법신불과 우주 본성의 개념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대단히 잘못된 교설입니다. 모든 개체적 존재는 우주 본성에서 나온 것이고, 법신불인 비로자나불은 본성과는 다른 부처님의 우주적 광명지체(光明智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생의 이 몸으로부터 붓다의 삼신을 이룬다는 즉신성불의 원리는 불신을 왜곡하고 불교의 위대한 면모를 손상시키는 망불적 교설입니다. 예를 들면, 밀교수행으로 중음계에서 영혼체가 우주본성의 빛을 받아 얻는다는 보신불은 결코 진정한 보신불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보신불과는 천지차이도 더 됩니다. 불신은 수행자의 지혜와 자비가 우주본성과 합일 될 때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절대계에 만들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중음계나 인간의 몸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 부처님 실존 중심으로 불교 패러다임이 혁신되어야

불교는 실존하는 부처님의 구원력을 중심으로 하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스스로 수행하여 깨달음을 증득하는"깨달음의 종교"가 핵심이 아닙니다. 물론 자력수행을 통한 깨달음이 불교의 한 가지 중요한 특성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보다도 더 본질적인 불교의 핵심은 부처님의 가피(타력)에 의한 "구원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종교와는 질적인 면에서 천지현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하느님은 허구이며, 구원의 논리도 전혀 우주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불교는 부처님 실존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안됩니다. 먼저, 부처님의 실존과 위대하신 실체에 대한 철기둥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겠고, 부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임을 확실히 알고, 실존하는 부처님을 찾는 칭명염불수행에 진력해야 하겠습니다. 지금의 세계불교는 부처님 실존 중심으로 혁신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합니다.



갑오년 초파일 12만 봉축등으로 장엄된 현지사 전경

Ⅱ. 부처님께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신다

1. 불(佛)의 삼신론과 부처님의 실존

부처님은 시공과 유무를 초월한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십니다.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법신 · 보신 · 화신의 삼신론입니다. 불신은 우주에서 가장 깊은 차원의 대적정삼매에 들어야 얻을 수 있으며, 붓다 외에는 어떤 종교의 수장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 영산불교에서 큰스님의 체험적 입장에서 진정한 불신의 실체를 밝혀드립니다.

〈법신불〉 법신불은 붓다의 지혜와 자비의 품성이 우주 본성과 완전히 하나로 계합된 우주적 광명지체(光明智體)를 말합니다. 법신불은 이불(理佛)로서 보신의 모체가 되는 진불입니다. 인격적 형상을 가지지 않고 생각이나 판단하는 역능이 없는, 태산 같은 무량억종광 자체입니다. 법신불은 항상 삼천대천세계를 태양처럼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 본성 자체를 법신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견해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신불을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합니다. 비로자나불은 부처님의 법신불인 동시에 모든 붓다님들의 법신불이 하나로 뭉친 우주적 대광명지체입니다. 여기에 모든 붓다님들의 보신불이 들어가면 하나의 우주적 인격체, 우주적 구원주체가 되어 중생구제와 세계평화를 위하여 상상할 수 없는 불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진정한 구원의 종교입니다.

〈보신불〉 보신불은 삼신불 중의 중심불로서 32상 80종호를 갖추고 영원히 멸도하지 않는 무량광으로 이루어진 빛의 인격체이십니다. 보신불은 다겁생에 걸쳐 수행과 공덕을 완성하였기 때문에 우주이법의 과보로 생기는 지복(至福)의 몸입니다. 보신불은 눈 · 코 · 귀 · 입 등 인간의 형상을 가지시고 생각하고 판단하시며, 중생의 업장을 소멸시켜 주시고 삼매로 이끌어주시며 소원을 들어주시는 중생구제의 본불이십니다. 중생이 믿고 의지하는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의 보신불이신 노사나불은 황금장삼에 108쪽 빨간 가사를 수하시고 머리를 말끔히 깎으신 모습이며, 우윳빛 피부에 향맑고 깔끔하신 얼굴, 눈이 부셔 볼 수 없는 영롱하고 아름다운 빛의 단엄한 상을 하고 계십니다. 사바세계에 오실 때는 8고리 석장이나 지휘봉을 드신 광휘현란한 변화신으로 나투십니다.

〈화신불〉 화신불은 본불인 보신불이 수많은 수행자를 제도하기 위해 삼매력으로 만들어낸 부처님의 몸입니다. 본불인 보신불은 무량의 화신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화신불은 하나의 독립된 부처님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화신이지만 항상 청정하고 밝은 빛을 띠고 있으며 자비의 상, 인욕의 상, 선정의 상, 지혜의 상, 지계의 상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화신불은 주로 열심히 염불하여 선정에 들 정도의 수행인에게 나타나셔서 공부를 지도하고 이끌어주십니다. 일반 사찰에도 이 화신불이 가셔서 중생을 교화하십니다. 그러나 청정하지 못한 절에는 가시지 않습니다. 그런 절에 있는 불상은 그냥 쇳덩어리일 뿐이고 더 이상 절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바세계에 몸을 받아와 처음으로 붓다가 되신 분과 이미 붓다가 되셨지만 중생교화를 위해 사바세계에 몸 받아 오신 분을 화신(응신 또는 응화신)이라고도 합니다.

2. 부처님 실존의 경전적 근거

(1)대승의 4대 경전의 부처님 실존 근거

《법화경》《화엄경》《열반경》《금강경》의 4대 대승경전에는 부처님의 실존에 관한 명백한 근거가 있지만, 이를 부처님의 실존으로 연결시키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법화경》은 구원실성(久遠實成)하신 보신불의 존재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여래수량품〉의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부처님께서는 백천만억 나유타 겁 전에 불과를 이루셨고, 그 때부터 항상 사바세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설법하고 중생들을 교화해 오셨으며, 무량수명을 갖고 멸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은 육신불도, 법신불도 아닌 인격적 보신불임이 분명합니다.

《화엄경》은 전체의 구성이 부처님의 실존을 상징하는 보신불이 대적정삼매에 들어 자유자재로 무량광을 방광하시어 수많은 불국토를 비춰주시고, 천상과 지상을 오가시면서 화신불을 내시고, 보살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법하게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화엄경》은 법신 · 보신 · 화신불의 실존을 모두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열반경》에는 상락아정의 적멸세계를 이야기하면서 본체계의 진아(眞我)의 존재에 대한 많은 근거와 함께 부처님께서 즐거움을 누리시는 것과 항상 계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즐거움을 누리는 주체는 법신불이 아니고 인격적 실체인 보신불을 말합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여래도 보신불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금강경 여래실견분 제5》에 "무릇 존재하는 모든 상은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상(相)이 상(相) 아님을 보면 즉시 여래를 볼 수 있으리라"라는 사구게 중의 여래는 인격적 보신불로 해석이 됩니다. 또한 부처님 실존을 부정하는 분들이 논거로 들고 있는〈법신비상분 제26〉의 사구게 "약이색견아(若以色見我) 이음성구아(以音聲求我) 시인행사도(是人行邪道) 불능견여래(不能見如來)"의 경우도, 현상계의 상(형색, 소리)을 쫓는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자이고, 그 사람은 본체계(절대계)의 부처님(보신불)을 볼 수 없을 것이란 것이 바른 해석으로서, 부처님 실존의 근거가 됩니다.

(2) 경론상의 불신론과 부처님의 실존 근거

경론 상의 불신론은 부처님 실존의 근거가 됩니다. 초기불교의《아함경》에서는 육신(生身)과 법신의 이신설(二身說)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승경전 중에서 직접 불신론을 다루고 있는 경전은《금광명최승왕경》입니다. 이 경에서는 모든 여래에게는 화신(化身) · 응신(應身) · 법신(法身)의 삼신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신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때에 맞게, 행에 맞게, 설하는 법에 맞게 나투시는 몸이고, 응신은 32상과 80종호(種好)를 갖추고 등 뒤에는 둥근 광명을 갖춘다고 적고 있으며. 법신은 화신과 응신의 근본이 되는 몸으로서 여여(如如)와 여여의 지혜만을 가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식학파의 무착과 세친은 섭대승론,대승장엄경론 등에서 삼신설을 이론적으로 정립했습니다. 유식학파의 삼신설은 보통 자성신(自性身) · 수용신(受用身) · 변화신(變化身)을 말하며, 때로는 4신설(四身說)의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경일승보성론(究竟一乘寶性論)에서는 모든 붓다는 법신 · 보신 · 화신의 삼신을 구족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 부처님 실존의 경험적 근거

여기에 부처님의 실존을 믿어야할 보다 결정적인 경험적 근거가 있습니다. 영산불교를 창립하신 광명 만덕, 자재 만현 두 분 큰스님께서는 불과를 이루는 과정에서 부처님을 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십니다.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드시고 천녀들이 갖다 주는 차도 마시고 회의도 주재하십니다. 여러 붓다들로부터 보고도 받으시고 결재도 하십니다. 영산불교의 대법회가 열리는 날에는 부처님께서 현신하시어 무량광으로 참석 불자들의 업장을 씻어주십니다. 공양 · 천도재에 현신하셔서 업장을 씻어주시고 소원도 들어 주십니다. 이토록 부처님께서는 두 분 큰스님과 함께 하시면서 중생구제를 위해 눈 · 코 뜰 새 없이 바삐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처님을 안 계신다고 하면 큰 일 납니다. 그리고 두 분 큰스님께서는 당신의 불신(佛身)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체험적 진실입니다.

Ⅲ. 천상천하에 가장 위대하신 부처님의 실체

최초불이신 우리 부처님의 위대하신 실체, 너무나 거룩하시고 대자대비하시며, 전지하시고 만능자재하시며, 우주의 주(主)이시고 우주법왕이시며, 인격 완성자이시고 인류의 대스승이시며, 영원한 구세주이시고, 철학을 완성하신 최고의 철학자이자 최고의 과학자이시기도 한 우리 부처님의 참모습을 필설로는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대적정삼매에서 나오는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위신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 그 위대하신 면모의 편린이나마 몇 가지 정리해 봅니다.

1. 부처님의 거룩하고 위대하신 위상과 인품

(1) 부처님은 우주의 주(主)가 되신 최초불이시며 붓다 중의 붓다이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무량겁 전에 중생의 몸으로 태어나 육도윤회를 해 오시다가 한량없는 세월 동안 자비이타행, 청정수행을 해오시면서 마침내 그 지혜와 자비가 우주본체와 완전히 하나 되어 우주의 주(主)가 되셨습니다. 부처님은 인류 최초로 붓다가 되셨으며, 모든 붓다님들을 길러내신 아버지요 스승이며, 붓다 중의 붓다이십니다.

(2) 부처님은 우주법계의 법왕이시며 절대자이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우주법계 중 가장 높은 차원인 10차원 절대계를 최초로 찾아 들어가신 우주법왕이십니다. 세부적으로는 보면, 아래로는 지옥 · 아귀 · 축생에서 시작하여 인간 · 아수라를 거쳐 6하늘 54품, 성중 3하늘 27품, 극락정토 27품, 약사정토 27품, 불격보살 3품, 그리고 최상위 절대계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의 법계가 있습니다. 세계 유수종교의 수장들은 하늘왕의 지위를 갖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에 비해 부처님은 외도를 포함한 수많은 우주법계의 총사령관격인 우주법왕의 지위를 갖고 계십니다.

(3) 부처님은 인간 진화의 최정점에 계신 인격 완성자이십니다.

부처님은 인간이 갖추어야할 지혜와 복덕과 자비를 완전히 구비하신 가장 이상적인 인격의 완성자이십니다. 철학자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을 원용하자면 부처님은 바로 인간 이데아입니다. 절대계에 빛의 몸으로 계시는 부처님은 진(眞)의 이데아, 선(善)의 이데아, 미(美)의 이데아 자체입니다. 인간이 갈 수 있는 진화의 최정점에 계시며, 우주의 본성과 똑같이 지혜자체이고 자비자체이고 복덕자체입니다.

(4) 부처님께서는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시고 구원성자이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최초로 붓다가 되신 이후 극락 중의 극락을 마다하고 여러 차례 사바세계에 몸 받아오셔서 고통에 빠진 중생을 교화하고 구제해 오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붓다님들과 항하사 수의 보살과 아라한 성자를 길러내신 인류의 대스승이시며, 진정한 인류의 구원성자이십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없는 인류에의 공헌과 대자비는 억만겁을 두고 설해도 오히려 부족할 지경입니다.

(5) 부처님께서는 미래제가 다하도록 남섬부주(지구) 교주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은 육신을 가진 인간이 살고 있는 우주에서 유일한 곳입니다. 다만, 이차원(異次元)의 별천지에는 인간의 조상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지구라는 불국토에는 악도로부터 구제해야할 수많은 중생이 있고, 불신을 가지는 붓다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수행코스이며, 마장들이 득세하여 수행의 최적지가 되므로 부처님께서 교주로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구촌의 영원한 구세주이며, 미래제가 다하도록 남섬부주 교주로 계실 것입니다.

2. 부처님은 불가능이 없을 정도로 창조주적 위신력을 구족

부처님은 전지하시고 만능자재하십니다. 우주본체인 공(空)과 완전히 합일되어 우주의 주(主)가 되신 부처님께서는 공이 가진 무한한 질료와 정보와 에너지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창조주적 능력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우주본체와 합일된 증거는 바로 절대계에 무량광의 자기 불신을 둔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무한한 능력은 대적정삼매의 힘이고 불신의 무량광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무량광 한 줄기 마다 특별한 역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종의 무량광이 갖고 있는 능력은 무한하며 불가능이 없을 정도입니다. 무량광은 한량없이 방사해도 끝이 없고 일체의 지혜와 복덕, 자재한 위신력과 신통력을 지닌 불가사의한 빛입니다. 붓다 중의 붓다이신 우리 부처님은 다른 붓다들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능력도 갖고 계십니다.

(1) 부처님의 전지 만능자재한 위신력은 필설로는 일만분의 1도 표현 못해

기존불교에서는 아라한이나 보살성자도 갖추지 못하는 부처님만이 가진 열여덟 가지 정신상의 위대한 위덕인 십팔불공법(十八不共法)을 말하고 있고, 어떤 경계에도 걸림 없는 21가지 지혜인 21무루지(無漏智)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산불교의 큰스님께서 본 부처님의 능력은 이를 백천만배 능가하여 전지하고 만능자재하시고 무한합니다. 정말로 필설로는 그 일만분의 일도 표현하지 못하지만 여기서는 몇 가지만 예시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2) 업장소멸로 중생을 악도에서 구해 주시고 평화를 유지시켜주는 능력

▶ 부처님은 중생들의 질병을 치유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큰 복을 줄 수 있습니다.

▶ 부처님은 업장소멸을 통해 지옥, 아귀, 축생으로 갈 중생을 구원하여 악도에 가지 않게 할 수도 있고, 악도에 떨어진 중생을 천도시켜 하늘로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 중생들 몸 속의 원결영가를 떼어내어 비명횡사 등의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지사 부산분원

21세기 한국 땅에 인격적 불신(佛身)으로 오신 부처님!
부처님은 32상 80종호의 상모 단엄한 무량광 빛의 인격체!
부처님의 전지 만능자재하신 위신력은 필설로 만분의 1도 표현 못해!
붓다들의 보신불이 합일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우주주 구원주체!

▶ 부처님은 천백억 화신을 나투어 모든 불국토의 중생을 교화할 수 있습니다.
▶ 부처님은 대적정삼매와 백천삼매에 자재하시며 수행자를 삼매로 이끌 수 있습니다.
▶ 전쟁을 일으키려는 지도자와 그 세력을 응징하여 전쟁을 막을 수 있고, 무주고혼을 정리하여 사건 · 사고를 막고 국가사회의 안정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3) 붓다를 만들고 적멸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
▶ 부처님은 붓다를 만들고 보살 등 해탈성자를 길러낼 수 있는 위신력이 있습니다.
▶ 부처님은 극락세계 등 어떤 적멸세계도 자유자재로 창조할 수 있습니다.

(4) 초광속 이동, 초천문학적인 힘, 불가사의한 위신력을 자유자재로 구사
▶ 부처님은 광속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속(思速)의 초광속으로 우주의 이 편에서 저 편으로 오가실 수 있습니다.
▶ 삼천대천세계를 들어 우주 저쪽까지 던져버릴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 손바닥만 한 공간에 사바세계보다 더 큰 세계를 건설하실 수 있습니다.
▶ 부처님은 몸을 우주만큼 크게도 할 수 있고 무한히 작게도 할 수 있습니다.

(5) 모든 외도를 일시에 제압할 수 있는 신통자재한 위신력 보유
▶ 부처님은 모든 외도수장과 권속들을 순식간에 빛으로 포위하여 수억도까지 온도를 올려서 조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은 오직 부처님만 갖고 계십니다.
▶ 부처님께서는 극악한 사람이나 외도의 못된 천마들을 찰나에 쇠줄로 백천만명을 동시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동여매어 영원히 못 풀게 할 수 있습니다.

3. 부처님께서 길러내신 삼천대천세계의 여러 부처님

(1) 오여래부처님 – 석가모니불, 다보불, 약사여래불, 아미타불, 보명불
① **석가모니부처님**은 우주법계 최초불로서 우주법왕이시고 붓다 중의 붓다이십니다.
② **다보부처님**은 불세존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삼계지존이시고, 다보탑 안에서 수많은 본화보살들을 교화하고 계시며, 모든 붓다들의 사리를 1과씩 보관하고 계십니다.
③ **약사여래부처님**은 약사정토에서 보살들에게 의술을 가르치면서 교화하고 계시는 의중대왕이시며, 12대원 중에서 병고



현지사 고성분원

소멸을 가장 큰 본원력으로 세웠습니다.
④ **아미타부처님**은 서방극락세계에서 정토보살들을 교화하고 계시며, 48원 중에서도 염불행자를 극락세계로 인도하려는 강한 본원력을 갖고 계십니다.
⑤ **보명부처님**은 법보를 관장하시고, 용왕대신을 총괄하시며, 최초불 이래 모든 붓다들의 말씀을 경전으로 편집한 설법집을 1질씩 용궁에 보관하고 계십니다.
칠구지불모왕불 대준제보살님은 3번째로 붓다 되셨으나, 모든 붓다의 어머니 역할을 담당하시므로 오여래에서 제외됩니다.

(2) 사바세계에서 보살행하시는 4대 부처님 –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① **문수보살님**은 부처님의 좌보처로서 지혜와 변재가 뛰어나시고, 모든 붓다들의 스승 역할을 하시며, 4중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위신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② **보현보살님**은 부처님의 우보처로서 실천행원의 상징인 부처님이시며, 보현 10대행원으로 보살들을 붓다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③ **관세음보살님**은 아미타부처님의 좌보처로서, 사바세계에 상주하시면서 중생들의 고통과 고난을 해결해 주시며, 극락정토로 인도하시는 대비를 상징하는 부처님이십니다.
④ **지장보살님**은 명부를 관장하시며 지옥중생을 교화하시는 대원본존 부처님으로서, 효행을 가장 중히 여기시며, 조상님을 천도하려면 지장보살님의 가피를 받아야 합니다.

(3) 인간의 길흉화복을 관장하는 3대부처님 – 보명불, 수미산정산왕불, 치성광여래불
① **보명불**은 5여래부처님으로서 앞에서 본대로 법보와 용왕들을 관장하십니다.
② **수미산정산왕불**은 큰 산의 산왕대신을 총괄 지휘하는 붓다님이십니다.
③ **치성광여래불**은 수많은 별들의 왕인 칠원성군을 통솔하시는 붓다님이십니다.

(4) 미륵불, 광명불, 자재통왕불


현지사의 대적광전과 석가탑, 다보탑

① **미륵불**은 불기 3천년경 한국 땅에 육신을 받아 오실 것입니다.
② **광명불**은 부처님의 태자로서 오여래급이며 부처님을 대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③ **자재통왕불**은 문수보살 법왕자로서 불국토의 설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Ⅳ. 불신으로 한국땅에 오신 부처님 –영산불교 부처님회상

1. 인도 땅에서 반열반 하신 후의 부처님 소식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실 경우, 직접 육신을 받아 오시는 경우와 무량광 빛의 몸인 불신(보신불)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2600년전 부처님께서 인도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육신으로 오신 경우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뜻은 정법의 씨앗을 뿌리고 중생을 교화하여 붓다를 만드는 일대사 인연을 지어주기 위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도 땅에서 45년간 중생을 교화하시다가 반열반에 드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신 후 어디로 가셨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우주본성(空)으로 돌아가 공과 완전히 하나 되면서 무화(無化)되어 버린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열반에 드신 후 절대계에 계신 당신의 불신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육신에서 벗어난 부처님의 네 개 빛 덩어리 영혼체는 절대계의 불신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32상 80종호의 보신불로 금의환향하신 것입니다. 이 때 부처님세계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2. 불신(佛身)으로 한국 땅에 오신 부처님 – 신불교 정법시대 열어

부처님께서 불신으로 사바세계에 오시는 경우는 당대에 불과 이룰 제자가 몸 받아올 때입니다. 이번에 부처님의 본불(보신불)께서 두 애제자인 가섭존자 광명 만덕 큰스님과 아난존자 자재 만현 큰스님을 붓다 만들어 데려가시기 위해 한국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삼신을 가진 세 분의 붓다가 출현한다는 《열반경》의 이자삼점(伊字三點 ∴)의 비밀장을 실현시키고 새로운 정법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두 분 큰스님께서는 부처님의 지도로 불과를 이루셨고, 부처님의 법통을 이어받아 신불교인 영산불교를 개창하였습니다.

영산불교 현지사는 부처님 이후 실로 2600여년 만에 다시 부처님회상이 열리는 세계불교의 중심이고, 부처님께서 와계신 성지중의 성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오시니까 오여래부처님을 비롯하여 열여섯 분의 기라성 같은 붓다님들께서 불신으로 와서 상주하고 계십니다. 세계의 성지가 된 한국은 국운 융창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영산불교 사상은 한류(韓流)의 선봉장이 되어 세계를 누비게 될 것입니다. 세계는 큰 전쟁 없이 비교적 평화시대를 유지할 것입니다.

지금 영산불교에서는 영산 당시 뿌린 정법의 씨앗이 결실을 맺어 몇백 년에 한 분 나오기도 힘든 정토보살이 10년도 채 못된 기간 동안 이미 수십 명이 나왔고, 앞으로도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께서는 천만 생을 가도 한 번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 회상과 인연을 맺어 금생도 잘 살고 세세생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Ⅴ. 티베트 – 달라이 라마의 우주기원 관련 5대 근원적의문에 답하다.

티베트불교의 지도자이신 달라이 라마(Dalai-Lama XIV, 1935.7.6~, 극락세계 상품보살)의 저서인 "한 원자 속의 우주" 에서는 우주기원과 관련하여 다섯 가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나?
2. 그 빅뱅은 어디서 왔는가?
3. 빅뱅의 원인은 무엇인가?
4. 왜 우리의 행성이 생명체를 가질 수 있게 진화했는가?
5. 우주와 그 안에서 진화한 존재들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제 영산불교에서 불과 이루신 큰스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답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산불교의 우주론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영산불교의 우주론 – 유아성기론(唯我性起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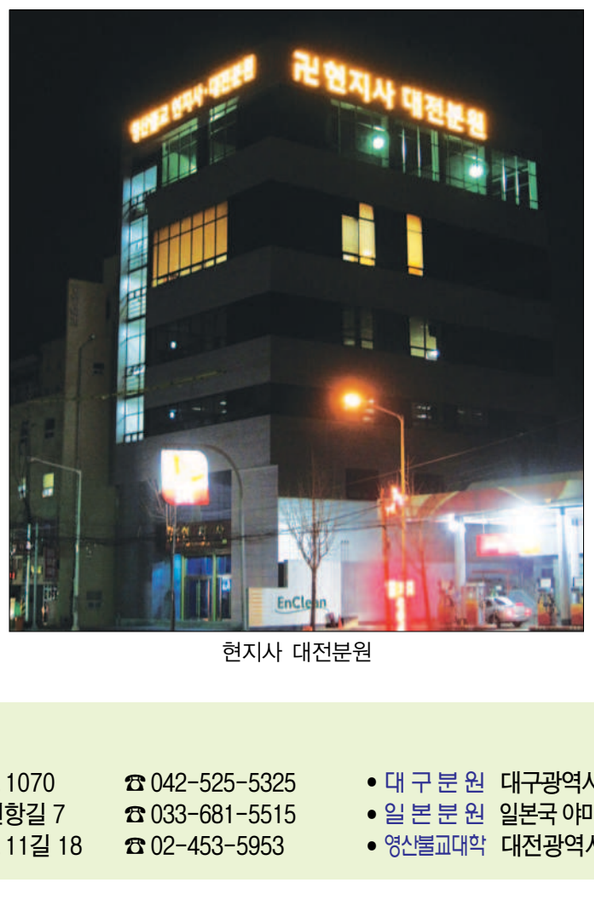
◈ 영체인간과 우주만물의 탄생 비밀

인간과 우주만물은 우주본체인 공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법계에는 수많은 우주가 있으며, 우주는 성 · 주 · 괴 · 공(成 · 住 · 壞 · 空), 즉 탄생(성겁) · 존속(주겁) · 파괴(괴겁) · 공화(空化–공겁)라는 네 주기의 순환을 무한히 반복합니다. 각 단계마다 20겁, 총 80겁이 걸립니다. 우주만물이 생성되는 성겁이 되면 공의 창조원리와 힘에 의해 물질의 씨종자인 질료인(質料因)과 인간 씨종자인 공아자(空我子)가 영적으로 드러납니다. 이와 함께 질료인과 공아자는 상호 중중무진연기를 하여 좀 더 진전된 영적 실체를 형성합니다. 이 영적 단계의 인간 실체를 영혼체(영체)라고 합니다. 공아자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인간본체인 1번 영체입니다. 곧이어 2번 영체와 3번 영체가 갖추어지면서 업이 달라 붙습니다. 이렇게 하여 1 · 2 · 3번 영체를 가진 영체인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영체인간은 '나(我), 주인공(主人空)' 으로서 나의 본체이며, 내 몸뚱이와 얼굴과 나의 환경을 창조한 불멸의 창조주체이자 연기주체이며 윤회주체입니다. 이는 유아성기론(唯我性起論)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의 창조원리와 힘에 중생의 공업력(共業力)이 가세하면 연기법에 의해 빅뱅(대폭발)이 일어나면서 물질세계의 창조가 시작됩니다. 현대과학에서 보면 빅뱅은 크기 10^{-33}cm의 초극미입자가 온도와 밀도가 무한대인 특이점에서 생겨나 10^{-43}초만에 가열 대폭발한 현상을 말합니다. 현대물리학에서 주장하는 빅뱅/인플레이션 이론은 물질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 무(無)에서 미시(微視)의 우주가 탄생한 이후, 1 · 2차의 상전이(相轉移)와 급팽창(인플레이션)이 끝나자 빛과 물질이 태어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주탄생으로부터 약 1만분의 1초(10^{-4}초) 후에는 수소의 원자핵인 '양성자' 와 '중성자' 가, 3분 후에는 '핵융합 반응' 에 의한 헬륨의 원자핵이, 38만년이 지난 후 원자가 탄생했고, 2~3억년이 지나면서 최초의 별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주가 생긴지 137억년, 지구는 45억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산불교의 연기법 우주론인 성기론(性起論)은 현대물리학에서 제창한 빅뱅/인플레이션 이론을 인정함과 동시에, 현대물리학에서 밝히지 못하고 있는 5차원세계(6차원 시공)와 4차원세계(5차원 시공), 그리고 중음계(중간계)를 포함한 3차원세계(4차원 시공–현대물리학에서 많은 부분을 밝히고 있음)가 언제 · 어떻게 생성되었으며, 각 상전이(相轉移)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이 왜 그렇게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지와 이들 각 차원에서의 서로 다른 힘과 입자의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에 미치는 힘은 4대 힘(중력 · 강력 · 전자기력 · 약력) 외에 유정(有情)의 업력인 원초력(原超力)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면서 우주탄생의 최종이론(Final Theory)은 초통일이론(superunified theory)을 넘어서 원초력까지 포함한 5대 힘(원초력 · 중력 · 강력 · 전자기력 · 약력) 의 등가(等價)를 제시하여야만 우아하고 아름다운 최종이론의 방정식이 도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지사 대전분원

◈ 육체인간의 탄생 비밀– 영체인간이 별천지에서 온 시조인간을 부모로 하여 탄생

이렇게 탄생한 영체인간은 과거 괴겁 당시 자기가 살았던 세계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지옥에 있었다면 지옥으로, 하늘에 있었다면 하늘세계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괴겁 당시 육체인간으로 있었던 영체인간은 바로 육체인간으로 갈 수 없고, 부부가 결합할 때 모태로 들어가 수정이 되어야 육체를 갖고 세상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구에는 모든 인간이 파괴되어 한 사람의 육체인간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 영체인간의 부모가 될 사람들이 바로 이차원(異次元)의 별천지에 사는 시조인간(始祖人間)들입니다. 이 별천지는 인간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과거 괴겁 시에 인연에 의해 선택된 지구인간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우주 밖에 있는 인간들의 낙원, 무릉도원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들은 나중에 성겁이 되어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지구로 귀환하여 인류의 시조가 됩니다. 따라서 영체인간들은 이 별천지에서 온 시조인간들과 부모의 인연을 맺고 모태 속으로 들어가 수정이 되고, 10개월간 자란 후 인간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 모태에서 네 번째의 영체(4번)가 생기면서 인간은 네 개의 영체와 하나의 육체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2. 달라이 라마의 우주기원 관련 5대 의문에 대한 답변

(1)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나?

①자연법칙(공과 창조원리, 연기법)은 항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빅뱅 이전은 전반적으로 공으로부터 나온 공아자와 질료인의 영적 상전이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②우주본체와 합일된 부처님의 불신(佛身)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과 원만보신 노사나불, 그리고 모든 붓다님들의 법신과 보신은 성주괴공과 관계없이 절대계에 여여히 계십니다. ③괴겁 시 파괴되지 않는 해탈성자와 그들의 적멸세계, 성중 2하늘 이상의 천인도 있습니다. ④성겁시 빅뱅보다 먼저 드러난 인간 영혼체와 업이 있습니다. ⑤순환시기가 다른 여러 우주들이 있습니다. ⑥이차원(異次元)의 별천지와 거기 사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2) 그 빅뱅은 어디서 왔는가?

빅뱅은 하느님의 뜻에 의한 창조행위가 아니고 자연법칙(공)으로부터 옵니다. 빅뱅의 모태는 공이고, 공이 가지고 있는 무한의 자비와 사랑으로서의 성덕(性德)이 발현되어, 공에 내재된 인적 · 물적 씨종자가 빅뱅에 의해 현상세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3) 빅뱅의 원인은 무엇인가?

빅뱅의 원인은 공의 힘과 연기법칙과 중생의 공업력(共業力)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주의 순환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공의 힘과 창조원리(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공에 내재된 인간과 우주만물의 씨앗종자들이 연기법칙과 중생의 공업력에 의해 현상세계로 드러나는 결정적 단계가 빅뱅인 것입니다.

(4) 왜 우리의 행성이 생명체를 가질 수 있게 진화했는가?

공은 자존하는 우주본체로서의 대생명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가 우주본체인 공의 성덕(性德)으로 발현된 것임을 이해한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그 생명체들이 진화를 하고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생태계)이 만들어 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환경은 특히 중생의 공업력이 스스로 만들어낸 연기적 결과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빅뱅이 일어나면서 시공간이 펼쳐지고, 지수화풍(地 · 水 · 火 · 風)의 4대 요소와 5경(色 · 聲 · 香 · 味 · 觸)이 상호작용하면서 장구한 세월에 걸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지구환경이 조성되도록 진화 · 발전을 한 것입니다.

(5) 우주와 그 안에서 진화한 존재들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가?

우리 현상세계는 우주본체인 공에서 드러난 연기적 세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연기의 주체는 영혼체가 있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삼라만상은 연기의 주체인 인간을 중심으로 시공간 속에서 서로가 인(因)이 되고 연(緣)이 되어 상호 의지하고, 화합하며, 인과관계를 맺는 중중무진의 연기적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서로 돕고 사랑해야하는 관계임을 의미합니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진화한 생명체들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곤충 같이 영혼체가 없는 동물들은 자연생, 자연사하며 윤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체를 가진 인간과 동물(12띠류 동물 등)은 윤회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진화란 영혼체의 진화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인격의 완성을 향한 진화입니다. 그 진화의 종점은 우주본성과 동일한 자비와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화의 최정점에 계신 분이 바로 우주의 주(主)이신 부처님이십니다. 진화는 크게 보면 윤회세계에서 해탈세계로의 진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화를 향해 서로 돕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함께 가야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진화의 최정점에서서 대자대비를 베푸시어 최하단계(지옥,아귀,축생)에 있는 수많은 중생을 구제하시는 것입니다.

▪ 현 지 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메일 hyunjigung@hanmail.net
• 춘천본사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033-243-1787
• 제2본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11 ☎064-783-5355
• 부산분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325 이센타워 ☎051-554-5150
• 대전분원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042-525-5325
• 고성분원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길 7 ☎033-681-5515
• 서울분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길 18 ☎02-453-5953
• 대 구 분 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5동 중앙대로 29길 20 ☎053-654-5557
• 일 본 분 원 일본국 야마구찌켄 이와쿠니시 오츠죠 3-3-10 ☎81-827-31-1661
• 영산불교대학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042-525-5325

“미륵도량 금산사, 유식종찰 전통 살려야”

‘금산사와 한국의 유식사상’ 4월 18일 학술세미나에서

중앙승가대 불교학연구원 개최
조선시대 선교양종 통합되며 퇴색
유가서적 간행 등 중심 역할 맡아





미륵사 방등계단(사진 위). 이 계단은 수계법회를 거행하던 장소로, 방등이란 계율의 정신이 모든 이에게 평등하다는 의미이다. 4월 18일 열린 세미나에서는 5명의 학자들이 유식사상과 금산사의 관계를 고찰했다.

미륵신앙의 중심지였던 금산사가 유식사상을 펼친 유가종찰이었으며 이를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김제 금산사(주지 성우)와 중앙승가대(총장 원행)가 4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연 ‘금산사와 한국의 유식사상’ 학술세미나에서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는 금산사와 유식사상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는 ‘고려시대 금산사 역사와 유가종찰로서의 사격’ 발표를 통해 “금산사는 7세기 후반부터 유식학을 연찬하는 도량으로 역사를 지니고 있다. 7세기 후반 동아시아 대표 유식학승인 의적 스님이 주석했으며 14세기에는 해원과 그 문도들이 유식학을 연찬했다”며 “한국 사찰 역사에 특정 불교학을 오랫동안 전승 유지시킨 곳은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금산사는 학문만을 연찬한 도량이 아니라 종찰로서 역할을 했다”며 “금산사는 11세기 유가종단의 종통을 확립해 이를 신앙과 경배의 대상으로 삼기 위한 대규모 중창불사가 일어났다. 또 광교원을 설치해 총 32부 353권에 달하는 광범위한 유식전적을 간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금산사의 방등계단은 유가종찰로서 위상을 상징하는 시설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금산사의 유가종 종찰로서의 역할이 현재 퇴색된 이유가 조선 후기의 선교양종 양립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1424년 조선은 강제적으로 불교종파를 통폐합시켜 선교양종 두 개의 종파만 남겨놓았으며 이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결국 조선 후기에는 불교계는 공식적인 종단을 보유할 수 없었다”며 “이를 두고 통불교로 운운하는 것은 역사를 기망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금산사의 유가종 전통을 되살리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금산사에는 참회, 계율, 미륵, 유식이라는 상징이 뚜렷히 빛난다. 유식학을 연찬하는 연구기관을 만들고, 금산사 대중이 유식 전적을 간행하며, 유가종 스님들의 높은 계행을 계승해 새로운 불교윤리를 전파하는 일은 잊혀진 훌륭한 전통을 되살리는 ‘복원’의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최연식 동국대 교수가 ‘의적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모로 시게키 日 하나조노대 교수가 ‘의적과 신라유식사상’을, 박광연 동국대 교수가 ‘〈무량수경술기〉를 통해 본 의적의 사상경향’을, 황인규 동국대 교수가 ‘금산사 광교원과 유식계 교장의 간행’을 각각 발표했다.

최연식 동국대 교수는 “금산사에서 활발히 활동한 의적 스님의 유식사상 연구가 본격진행돼야 한다”며 “국내 유식사상과 후대 신라유식사상에 미친 그의 영향 등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공동체 의식 확산 통해 자살 방지 가능”

중앙승가대 불교사회복지연구소 춘계토론회서 주장

연기세계관으로 인식 전환
생명존중 주제 법회 등 강조



“자살의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타인의 생명도 경시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불교계가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고 자살을 막기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서야 합니다.”

박수호 덕성여대 지식문화연구소 연구교수(중앙승가대 강사)〈사진〉는 “최근 늘어나는 자살에 대해 불교계의 대응은 개인적 차원의 수행과 상담활동에 집중돼 있다”며 “보다 근원적인 자살예방을 위해 불교계가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대응 마련을 주문했다.

박 교수는 ‘생과사의 갈림길과 불교계의 대응’를 주제로 진행된 발표에서 “먼저 불교사상의 자살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화과학적 한계를 불교의 연기세계관과 공업, 불이, 자비 등의 사상이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이를 통해 개개인과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자살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 인식 전환을 유도 할 수 있다”며 “불교계에서 자살예방과 관련된 수행결사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각종 법회 설법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예방 인식 전환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인 ‘김포지역 자살 현황과 대책’을 진행한 청아 스님(중앙승가대 박사과정)은 “중앙승가대가 위치한 김포시를 대상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자살 시도자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비롯해 유가족 자조모임 등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자살자 이외에도 모방자살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보도 자율규정 등 미디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장 도현 스님, 최종남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부 교수, 최훈동 김포 한별정신병원장, 강희숙 김포시 보건소보건사업과장 등이 나서 활발한 토론을 전개했다.

노덕현 기자

정토학회 〈정토학연구〉 제 21집 원고 모집

한국정토학회(회장 신규탁)는 5월 12일까지 〈정토학연구〉 제21집 원고를 모집한다. 원고 모집 분야는 정토, 신앙, 의례, 문화 중심의 불교관련으로 A4용지 15~18매에 영문초록과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10개, 영문 키워드 10개, 참고문헌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학회지 수록여부는 학회의 편집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게재 여부는 추후에 통보된다. 제출된 원고와 디스켓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논문의 분량 및 투고요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정토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국정토학회는 〈정토학연구〉를 내년 2월과 7월 내고 있다. 제21집은 7월 경 나올 예정이다. 한국정토학회는 “신진학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02)581-3137

노덕현 기자

‘남 인도 불교의 역사와 현황’ 심포지엄

동국대 선연구소, 4월 24일 존 사뮤엘 아시아연구소장 초청



동국대 경주캠퍼스 선연구소(소장 진월)는 4월 24일 동국대 백주년기념관 세미나실에서 존 사뮤엘 인도 첸나이 아시아연구소장을 초청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동국대 선연구소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석존의 나라 인도의 학자와 함께 학문적 자축의 기회를 갖고자 마련한 것이다.

심포지엄에서는 존 사뮤엘 소장의 ‘남 인도 불교의 역사와 현황 : 칸치포람(보리달마의 고향)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와 함께 진월 스님의 ‘도의와 달마의 시원적 선사상 비교’ 논찬 발표가 진행됐다.

동국대 선 연구소장 진월 스님은 “칸치포람은 보리달마의 고향으로 알려진 곳으로, 선을 중시하는 한국불교인들에게도 중요한 인연지”라며 “한국에 전해진 선법의 원류와 경로를 검토해 보는 일은 역사를 되새기며 문화유산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동국대 선연구소와 인도 첸나이 아시아연구소는 이번 심포지엄에 앞서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노덕현 기자

불광硏 세미나 ‘중국 전법정신과 전법론’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5월 10일 오후 2시 서울 불광사 교육원에서 ‘중국불교의 전법정신과 전법론’을 주제로 봉축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국불교 전법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논문이 대거 발표된다.

먼저 △최은영 금강대HK교수는 ‘역경과 찬술을 통한 전법’을 통해 인도와 서역의 다양한 경론을 1000년에 걸쳐 번역하고, 논소를 찬술한 중국불교의 전법과정을 살펴본다.

이어 △석길암 금강대HK교수의 ‘변문을 통한 대중전법’ △이병욱 고려대 외래교수의 ‘종파불교의 전법정신과 전법론’ △김성순 금강대HK연구교수의 ‘수행결사를 통한 전법’ △이기운 동국대 불문연 교수의 ‘위의경과 전법’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울진 불영사의 역사와 문화’ 학술대회

울진 불영사(주지 일운)는 5월 2일 울진 엑스포공원 회의실에서 ‘울진 천축산 불영사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여서 스님의 ‘불영사의 역사와 성보’, △오세덕 동국대 경주박물관 학예연구원의 ‘불영사의 건축’, 정명희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사의 ‘불영사의 회화’, 송은석 동국대 교수의 ‘불영사의 조각’, 최응천 동국대 교수의 ‘불영사의 공예’를 발표한다.

노덕현 기자

불교영문학술지 IJBTC 원고 모집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 ‘한국불교 정토신앙과 관음사상’ 주제로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회장 송석구)는 영문불교학술지인 IJBTC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 제23집에 실릴 원고를 모집한다. 모집 원고 주제는 ‘한국불교의 정토신앙과 관음사상’으로 투고 마감은 7월 5일까지다. 원어민이 아닌 투고자의 경우 원어민의 감수 확인서가 필요하다.

접수 및 문의는 이메일(iabtc@dreamwiz.com)로 가능하며 23집은 9월에 발행될 예정이다.

한편 학회 창립1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IJBTC vol.22에는 ‘타력신앙과 불교신행’을 주제로 3편의 기획논문 등 총 8편의 논문이 수록됐다. 학술지는 세계 150여개의 주요 대학 도서관과 학술기관, 그리고 국내 도서관과 주요 연구소에 보내지고 있다. 인도, 미국, 태국, 대 만, 일본, 호주, 노르웨이, 영국, 덴마크. 스리랑카 등 11개국 학자가 편집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는 불교문화사상사와 관련된 연구 활동과 발표회 및 강연회, 영문학술지 발간을 전개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佛紀 2558年 甲午年 Buddha's birthday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떡전고을로 114-1, 1층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佛紀 2558年 甲午年 Buddha's birthday | 전면광고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 A23

"마땅히 배움에 뜻의 등불을 켜고 스스로 익히면서 지혜를 구하며 때를 떠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등불을 잡고 도(道)의 땅을 자세히 살피리라." 〈수행본기경〉



모든 불보살님의 가피가 저 바다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사)임제불교조계종

종 정 **적진 지암**
부종정 **석혜안**
부종정 **적공 자은**

원 로 원 장 **석진도** 원로위원 **석지언. 석법성** 비구니회장 **석자은**

총 무 부 원 장 **제현** 포 교 원 장 **행화** 문 화 원 장 **지훈**
복 지 원 장 **보원** 사 회 원 장 **경오** 조 직 원 장 **묘화**

서울종무원장 **재현** 경기남부종무원장 **보국** 경북종무원장 **법인**
인천종무원장 **적심** 경기북부종무원장 **도광** 경남종무원장 **자공**
부산종무원장 **혜주** 광 주 종 무 원 장 **범산** 충북종무원장 **보진**
전북종무원장 **법공** 전 남 종 무 원 장 **혜관** 충남종무원장 **보공**

전국신도회총회장 **나용수(원만)**
지 역 신 도 회 장 **장순자(극락화)** 문화사회복지원장 **박봉근(해산)**
지역신도부회장 **김정순(묘연화)** 건 설 사 회 원 장 **김동만(성덕)**
지 역 신 도 총 무 **김도연(덕화행)**

■ 총본산 : 전남 여수시 돌산읍 강남1길 26번지 청암사
전화 051)644-7273. 010-3807-8428

세월호 사고 관련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그 가족들에게 불보살의 대자대비 가피로 하루속히
안정과 평온이 찾아 오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천하태평케 하옵소서

현대불교조계종

종 정 **벽운 해광**

총 무 원 장 **동화 영락**

종 도 일 동

■ 총무원 : 대전광역시 동구 은어송로 86-100 / 보광사 042)284-3929

社團法人 大韓佛教三界宗

종정 **서 허 석 법 수**

총무원장 **박 일 초** 종회의장 **우 원 경**

법인이사 **유수만. 박치훈. 우덕환. 김혜옥. 우요찬. 이자원. 이거희**

■ 산하단체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사단법인 인해전통문화예술원
한국불교예술대학. 삼계종 의료법인 정광병원

http:www.samgyeoijong.org
http:www.bumpae.org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997 (부평동) 인해빌딩
총무원 : 자원사 TEL 032) 529-5191 FAX 032) 529-6709 | 문화원 TEL 032) 529-6708 FAX 032) 529-6709
한국불교예술대학 TEL 032) 529-5190

■ 총본산 연화사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후평1리 산 9-2호 TEL: 031) 988-3531 FAX: 031) 988-1876

〔등록번호 206-82-65359〕

사단법인 대한불교 종단진흥총연합회

대 표 회 장 **회 암** (대한불교본조계종 정토불교 종정)
수석부회장 **향 운** (대한불교조승종 종정)
운영위원장 **산 수** (대현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운영부위원장 **월 광** (대한불교국제중도선 총무원장)

이 사 **고 산** (세계불교법사종 총무원장) **남 혜** (대한불교법보종 총무원장) **상 호**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법 광 (세계불교법륜종 총무원장) **일 원** (대한불교법화여래종 총무원장) **정 산** (세계불교해동원효종 총무원장)
탄 공 (대한불교법륜종 총무원장) **혜 남** (법화종 종정) **도 선**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청 호 (대한불교연화종 총무원장) **윤 식** (한국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 철** (대한불교대승연화종 총무원장)
법 성 (대한미타조계종 총무원장) **윤 서** (정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 장** (한국불교선조계종 총무원장)
태 춘 (대한불교용화종 총무원장) **허 범** (대한불교교화선종 총무원장) **회 례** (대한불교불승종 총무원장)
법 전 (대한불교미타조계종 총무원장) **혜 종** (대한불교선교종 총무원장) **동 범** (대한불교약사여래종 총무원장)
춘 서 (세계불교평화종 총무원장) **학 량** (불교영산법화종 총무원장) **숙 회** (불교용화세계미륵종 총무원장)
영 국 (대한불교일광종 총무원장) **청 열** (대한불교조계선종 총무원장) **대 월** (대한불교지음종 총무원장)
성 기 (대한불교해동평화종 총무원장) **우 열** (한국불교세계종 총무원장) **청 암** (호국불교정토종 총무원장)
관 봉 (불교도솔천유마종 총무원장) **묘 일** (불교실상연화종 총무원장) **혜 각** (세계불교복지종 총무원장)
한 영 (세계불교달마종 총무원장) **황 정** (세계불교일화종 총무원장) **중 규** (일체불교유법종 총무원장)
총 태 (진언불교지송종 총무원장) **정 자** (한국불교달마종 총무원장) **지 일** (한국불교대승법사종 총무원장)
용 환 (한국불교법성종 총무원장) **법 민** (한국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영 호** (한국불교조동선종 총무원장)
동 암 (한국무교교단 총무원장) **혜 상**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총무원장)

감 사 **영 도** (한국불교천일종 총무원장) **법 우** (대한불교조계종정토교 총무원장)
정 민 (한국신불교정토진종 총무원장)

고문변호사 김창규. 이승민 **한국종교예술방송국** 사장 **산 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서울중랑우체국 사서함 76호 / 전화 02)3436-0796 / 팩스 02)2201-1163

해동불교임제조계종

총무원장 **혜륜 동진**

종 회 의 장 **벽송** 서울 교구원장 **보현**
장 로 의 장 **설암** 울산 교구원장 **혜운**
감 사 원 장 **벽송** 경남 교구원장 **명각**
총 무 부 장 **벽산** 강원 교구원장 **원광**
교 육 원 장 **도현** 광주 교구원장 **정인**
문 화 원 장 **약왕보살** 부산 교구원장 **지익**
사 서 실 장 **금서** 충북 교구원장 **무운**
전국비구니회장 **무운** 충남 교구원장 **봉정**
대 외 섭 력 원 장 **보현** 대전 교구원장 **천장**

종 도 일 동

■ 해동불교임제조계종 총본산 극락사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172-1번지 / 전화 055)855-0191

세계승가회
World Sangha Association

"세계승가회"는 각 국가 간 불교문화를 전승 교류하며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인 차별 없는 평등과 자비를 실천하여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비영리 승가단체입니다.

■ **세계승가회 임원**

마하상가라잔(대승왕) **뿐냐산또** 사바빠띠(회장) **아신 수완나**

코리아-위나야까(한국리더) **아신 수밋따** 차이나-위나야까(중국리더) **보함**
타이-위나야까(태국리더) **아비자나띠** 미얀마-위나야까(미얀마리더) **벤 오사라**
레카까-두라가라(비서장) **싯달라** 사야나-두라가라(의전장) **소바나**

세계승가회 홈페이지 : http://www.worldsangha.org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누리는 하나, 허공도 하나

듯하다 ③

그러나 자기의 망심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경계에 닿질려서 일어나는 망심 이건 전부 헛것입니다. 그럼 내 꾀에 내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본래의 그 청정심, 이거 믿을 수밖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단지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은 자기 밖에 없습니다. 물론 내외간에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 그건 문제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믿는 거와 내가 금시 말하는 믿는 것과는 문제가 다른 겁니다. 그건 듯 속에서 노는 거예요. 듯 속에서.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그리 하는 것이지 참말로 생사문제를 근본으로 파헤쳐서 나가는데는 말이지 나 밖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허공은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종교를 믿는 세상 사람들은 말이지 엉뚱한 것, 자기는 그만 포기해 놓고 말이지 가장 믿어야 될 자기는 제쳐두고 말이지. 자기의 성품, 자기 부처, 자기의 마음, 자기의 기미, 자기의 소식 이건 까맣게 망각해 놓고 말이지 다른 걸 갖다 믿으려 하니 될 턱이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이만큼 알았으니 어떻든지 말 이죠. 듯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부산이나 서울에서 다 유행된 지 오랩니다. 절대성 상대성 유행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유행되어 있습니다. 대전도 그렇고 천안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제 듯 이 말이 유행될 겁니다. 전부 여러분이 회사에 나가서 사무를 본다면 사무를 보는 듯입니다. 점심을 먹는 듯 집으로 가는 듯 직장으로 가는 듯 어느 것 하나 듯 빼 놓은 것이 없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일체 처에 머물지 마시라는 말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다른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 한 마디만 가지고도 궁리를 하실 수 있다면 듯을 굴리기를 누가 굴리느냐. 내가 굴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굴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굴리는 그것이 진짜 그것이 여러분이거든. 이거 여러분들 여기서 파악이 되신다면 설법 들어서 뭐하실 겁니까? 그만 인생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듯을 누가 굴리느냐. 가는 듯 오는 듯 우는 듯 웃는 듯 잠을 자는 듯 밥을 하는 듯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 듯 누가 굴리느냐 말이야. 여러분이 굴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굴려 봤든 찾아내지 못해요. 모습이 없으니 허공성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여러분이 파악을 한다면 설법 더 들어서 뭐 하실 겁니까? 그만 인생문제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죽는 듯 사는 듯. 죽는 듯이에요. 죽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수억 천만 번 항하수 모래수의 몸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과거에는 어떻게 됐느냐 전생에는 어떻게 됐느냐. 경계에 닿질리는 그 마음 씀씀이를 했기 때문에 전생에 가졌던 안이비설신의, 이것이 뭉개어지면서 의식이 뭉개졌기 때문에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아, 전생에 무슨 몸을 가졌다 이걸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어요. 잊어버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별현상은 전부 듯임을
철두철미하게 실감이 가면
내 행동도 듯임을 깨달아

누리 · 허공은 하나
허공에서 숱한 차별 현상
일어나는 것만은 사실
차별 현상 일어나는 것 당연

왜 그러느냐. 눈 귀 코 혀 몸, 이것. 이것이 경계하고, 눈 심부름 코 심부름 입 심부름. 전부 이 심부름만 했거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단 말이지. 그것이 전부 뭉개어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것이 아무 생각이 없어. 눈을 떠도 잘 안 보여. 귀가 있어도 잘 안 들려. 평상시에는 잘 들리는데. 그 기관이 완전히 마비돼서 활동을 제지해 놓으니 거기서 일어나는 알음알이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거든. 완전히 없어져 버리니 알음알이로 알았던 내 전생사가 완전히 녹아나 버리는 거라. 그러니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청정본심을 전생에 그대로 썼더라면 말이죠. 알음알이가 아니라 이거 다 뭉개어진다 하더라도 청정본심은 그대로 살아 있거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전생에 이렇구나 과거에 이렇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거 과학적 아닙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루어진 사실 태양이니 지구니 전부 듯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일상생활 전부 듯이야. 듯. 우리말로. 전부 듯인데 이 듯에 여러분들 들어앉지 마세요. 듯을 굴리긴 굴리세요. 여러분들이. 굴리긴 굴려야 돼. 그래야 재미가 있지 않아요? 사는 듯, 어디 놀러 가는 듯, 친구를 만나는 듯.

여러분이 이 세상에 몸을 나툰 것은 이 말 한 마디 들으려고 몸을 나贕다고 해도 과언 아니라요. 이 설법이란 것은 여러분의 슬기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듯을 여러분이 단십 원으로 받아들이는 수도 있을 것이고 천 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억 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슬기의 차이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말에 실감이 가. 야, 이거 참 온 누리가 그렇구나. 차별현상 전부 듯이로구나. 내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 이것도 듯이로구나. 이거 여러분들이 이것이 철두철미하게 실감이 간다면은...

이 공부하는 데는 이겁니다. 깨치겠다 뭐하겠다 이거 다 소용없습니다. 미했다 그런 생각도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실로 미했더라면 미한 듯 한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깨쳤다면 깨친 듯 한 겁니다. 그 까짓 거 미한 듯 깨친 듯 그 까짓 거 듯에 들어앉을 필요가 우리가 뭐 있습니까? 그만 그대로에요. 그만 그대로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서 달려드는 것이 그대로 입지 성불하는 소식입니다. 참말로 이 공부는 참 이상한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이 소리하고(탁자 치는 소리) 손바닥 치는 소리하고 둘입니까? 하납니까? 물론 이건 쇠고 이건 손바닥이니까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도 소리는 소리 아니라요? 만약 우리가 이걸 쓴다 하면 소리 성자 하나 밖에 쓸 거 더 있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허공이 하나니 진리가 하나다 하고 그 성품을 인식하면 경계 따로 없는 거이. 그렇게 써봤지? 이것은 어느 것이 앞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 경계를 인식하면 성품 따로 있을 손가?

그러하니 이걸 내가 이 정도만 말합니다. 누리는 하나라 말이야. 허공은 하나라 말이야. 허공은 하나이니. 물론 하나인 허공에서 숱한 차별 현상이 일어나는 것만은 사실이라. 차별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미타불 이름 열 번 되뇌이면…

8-1 십념(十念)

대사회의 모든 중생을 위하고, 전인류를 위할 뿐만 아니라, 꼼지락거리는 목숨붙은 모든 생물에 대하여서도 사랑과 자애를 베풀어야 된다. 이와같은 사랑을 베푼 은덕(恩德)있는 이에게 우리가 귀의 해야 되고 그를 경순(敬順)해야 되고 우리의 목숨을 온통 바쳐 그를 받들어야 된다.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여섯자를 뇌이는데는 칭념(稱念)과 칭명(稱名)이라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칭념은 아미타불을 일컬어 생각한다는 것, 칭명은 아미타불의 명호를 일컫는 것으로 조금 다른다. 그러나 일컬어 생각한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생각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실지로 소리를 내어야 되는데, 소리를 안 낸다면 그것은 우리의 뜻과는 아주 다른 것이 된다. 삼밀가지(三密加持)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몸과 입과 의식작용이 음성으로 통일되는 것인즉 나무아미타불 역시 생각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명호를 부르고 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다.

어린 아이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아미타불도 아이가 엄마를 불러 소리를 질러야 비로소 어머니가 아이를 보듬고 젖을 주며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과 같다. 죄악이 많은 우리로서는 늘상 나무아미타불이라고 명호를 불러야만 자비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사회는 각 기관마다 구호를 내걸고 뇌이고 있어 이것이 즉 캐치프레이즈가 무슨 일을 추진하는데 매우 요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무아미타불도 이와 마찬가지다. 보은(報恩)한다. 왜냐하면 감사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정녕코 결초 보은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품고 늘상 입버릇처럼 뇌이는 사람과 그런 것 아랑곳없다는 투로 망각한 사람과는 벌써 하는 식이 판연히 다른 것이다.

인간은 허약한 것이다. 빠스깔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 라고 하였는데 어떤 면으로는 갈대 보다도 더 연약한 것이 우리 인간의 생명이다. 퍽이나 허망된 것. 그것이 생명일는지도 알 수 없다.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우리는 아침 인사를 한다. 하룻밤 사이에 혹시 무슨 생명에 변동은 없었을까 하는 의구심의 발로가 이런 인사말을 만들어 놓았다. 여기에서는 생명에 대한 허망의 뜻이 짙게 풍긴다. 인간의 생명이란 실상 허망한 것이지마는 그러나 한번 지성이 움직이는 날에는 기어코 천지가 다 감동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 삼을 것은 생명 자체에 있지 않고, 지성을 다하여 믿음직한 일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성실의 미덕을 닦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하는 것이 된다.

생명 그것은 허망한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 한 분이 전 인류와 무릇 생명 있는 모든 중생을 위하여 크게 걱정을 하고 이들을 건지겠다는 커다란 목적으로 대비원(大悲願)을 세우셨다. 그는 아미타불이 인행(因行)한 때의 수행자(修行者)였던 법장(法藏)이라는 분이다. 만일 중생이 내 이름 즉 아미타불을 불러서 해탈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끝내 부처가 되지 않으리라,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그것을 막론하고 마지막 임종시에 내 이름을 열 번만 불러준다면 나는 정녕 그를 내가 사는

나무아미타불 명호 부르면
자비와 사랑 받는다
감사한 마음을 내면
결초보은의 생각 품게 돼

전인류는 대자비에 포섭되고
어떠한 사람이건 모두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리라, 만일 내 이름을 열 번 불러 내 나라로 오지 못하게 된다면 나는 결단코 성불을 안 할 것이다. 이러한 대원력, 대비원을 세웠다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미타불의 대비원력(大悲願力)에 힘입어 무연(無緣)의 대비(大悲), 인연이 있건 없건 간에 전인류는 이 대자비에 포섭되고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건 모두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미타불의 이름을 열 번 뇌인다고 십념(十念)이라고 하는데 하필이면 무슨 뜻으로 열 번으로 지정한 것이냐하는 의문이 있을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십은 무량지의(無量之義)를 나타내어, 열을 열제곱한다치면 무한대의 수를 가리키는 것이되므로서, 이를 즉 무량(無量)을 뜻하는 데서 그런 것이다.

나무아미타불을 열 번 부르고 난 다음 우리는 아미타불의 본원(本願)이 무척 위대하다는 게송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9. 본원게(本願偈)

其佛本願力 聞名欲往生
皆悉到彼國 自致不退轉

아미타불의 원력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면 그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나 다 극낙세계로 갈 수 있다. 극낙 세계란 다시 말하거니와 아미타불이 대 왕생(大往生)한 곳이며, 대 사회성을 깨친, 그리고 그 대사회 의식을 실천하여 건설하는 세계를 이른다. 또 그러한 사람, 즉 아미타불을 뇌고 극낙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스스로 쓰러져 구른다. 해도 퇴전(退轉)하지 않는다. 그릇된 짓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하다가 중단하면 퇴만심(怠慢心)이 생겨서 끝을 못맺고 마는 것이 일쑤다. 흔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일컫는 불톡신심이라는 것이 그런 경우인데 작심삼일(作心三日)이라고 언뜻 무슨 생각이 나서 일을 벌려 놓고는 뒷감당을 못하여 망설이다가 일을 망쳐버린다. 이것이 다 퇴만심의 소치다. 발심이 사흘도 못가서 식어지고 뒤로 물러나 게을러져 버리는 것과 같다.

그러나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를라치면 그 공덕으로 하여 오직 한결같은 정진이 있을 뿐이지 결코 물러나는 일이라곤 없다. 이를 불퇴전(不退轉) '아비발치' 라고 하는 것이다. 뒤로 물러나는 일 없이 근면 · 노력 · 정진이 있을 따름이다. 이를 확인한 뒤에는 우리는 커다란 기원을 간직하고 오직 한 길로 실행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실행하는 일이란 다름 아니라 이 행원례(行願禮)를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그 실행은 커다란 비원(悲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매 겸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그러한 태도로써 일상 생활에 임한 때 이를 예(禮)라고 표현하게 된다. 즉 예의라는 뜻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삼탄인 **대승불교조계종**

종 정 예 하 은 파 원로원장 **현 각** 원로부원장 **정 원**

총무원장 : **혜 암** 중앙종회의장 : **만 송** 부의장 : **명 현** 사무처장 : **현담**
부 원 장 : **근 파** 중앙종회의원 : **만송 혜암 화산 경월 정암 법승 선우 근파 명현 대전 법광 한파 종원 선산 정혜 법공 법인 유초 무애 연지 도일 성각 인각 혜원 현담 만법**

총무부장 : **도 일** 재무부장 : **묵 암** 포교부장 : **법 광** 규정부장 : **인 각** 교육부장 : **성 각** 사회부장 : **혜 원**
부산교구종무원장 : **유 초** 경남동부교구 종무원장 : **법 우** 경남서부교구 종무원장 : **만 법** 중 부 교 구 종무원장 : **직무대행 도 혜**

◆ **입종을 환영합니다.**
본 종단은 사단법인 등록 제184721-0000861호로 등록되어 있는 종단입니다. 유사 종단에 유의하십시오.

◆ **입종 구비서류**
· 본종 입종 신청서(총무원 비치, 홈페이지 출력가능) 요청시 우편 발송 · 주민등록등본 1부 · 타 종단 승려증 사본 1부
·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1부, 증명사진 2장 · 사찰 전경사진(내, 외부) 각1장씩

◆ **문의 및 접수처 :** (사)대승불교 조계종 총무원 주소 :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195번가길 50. 301호 전화 : 051)527-7733 / 5431 Fax : 051)527-5432

부 산 교 구 종무원 051)468-6790 휴대폰 : 010-4133-0333 **경남서부교구 종무원** 055)884-1017 휴대폰 : 010-9099-5859
경남동부교구 종무원 055)251-7542 휴대폰 : 010-9814-7542 **중 부 교 구 종무원** 031)671-0522 휴대폰 : 019-241-0702

佛紀 2558年 甲午年 Buddha's birthday | 전면광고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 A25

"믿음이 참사람의 최상이 되고, 바른 법을 생각하면 편안히 머무르며,
진실하면 그 뜻이 뛰어나게 되고, 수명중에 지혜 수명이 제일이니라." 〈출요경〉



모든 불보살님의 가피가 저 바다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社團法人 대한불교 대원종
社團法人 정통불교 조계종

종 정 정허당 신풍 총무원장 **비상 대광**

원로원장 정봉 부원장 청량 범왕
원로위원 법교 대경 지성
연수원장 혜도 부원장 범수
감찰원장 민재 부원장 법조
포교원장 경덕 부원장 원효
호법원장 법경 부원장 대안
불교예술원원장 소연 부원장 도이
비구니회장 대광 비구니부회장 연아
대원신풍불교(승가)대학학장 신풍 부학장 민재 대광
사무처장 성원 종정사서실장 법수 종정큰스님시봉 소원 법수

부산교구종무원장 민재 경북교구종무원장 혜정
대구교구종무원장 대각 경남서부교구종무원장 경덕
포항교구종무원장 조향 목포교구종무원장 법주
전남광주교구종무원장 법정 인천교구종무원장
충남교구종무원장 거제교구종무원장 도언
강원교구종무원장 각오 경남서부교구부원장 원효
대원종법사단장 청량범왕 창녕지회장 연아
대원종전국신도회장 신우연 부산법사단장 수안
신풍사 신도회장 이정민(청암)

중앙종회의장 대오 부의장 성화
중앙종회의원 민재 대광 연아 혜정 도언 경덕 범수 혜인 혜도 대오 도하 혜성 원효
총무부장 법조
규정부장 혜정 교육부장 민재 재무부장 연아
사회부장 도하 홍보부장 도언 기획실장 대각



▸신규사암 등록하실 스님 항상 환영합니다. 행자승 모집합니다.
무료 숙식제공, 역학(철학, 사주관상, 성명학, 풍수지리)
대원승가(불교)대학 및 불교의식 교육생 모집합니다.
▸지역교구 종무원장 하실 분 초빙 환영합니다.
▸역학 철학 풍수지리 속성 개인지도.
▸신규사찰 등록 환영 사찰이나 포교당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 총무원 :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994 대한불교대원종 총무원 신풍사 (원적사) / 사단법인정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신풍사
한국 역술철학 협회 회장 시인 철학박사 종정(총무원장) 정허당 신풍
총무원 055)346-2908 / 무료전화 080-3030-5959 / 팩스 055)346-2909 / 큰스님 直 010-8548-8608
휴대폰 011-869-8608 / 대한불교 대원종 홈페이지 DW108.com / E메일 asp8990@naver.com

※본 종단은 승려증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려제명 및 종단에서 발행한 제반증서 무효처리(폐기소각처리)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종 정 혜강당 능인대종사
총무원장 동담

종도일동
신도총연합회

■ 총본산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 5길 197 각황사 / 053)325-0400
■ 총무원 :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노탑리 192-7번지 극락사 / 031) 641-4772
■ 신도총연합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0-22 영풍빌딩 5층 / 02)3452-0919

한국불교 법안조계종

종 정 운봉
총무원장 **본 자**
총무부원장 **원 광**

종정사서실장 **도현**

승정원장 **영암** 승정부원장 **성암** 승 정 위 원 **대현**
종회의장 **승법** 종 회 의 원 **혜초, 홍운, 석문, 도영, 혜진, 도문, 제법, 설운, 갑태**
감사원장 **동선** 교육원장 **각초** 호법원장 **법안** 규정원장 **광월**
사무총장 **법창** 교무부장 **금정** 재무부장 **혜월** 문화사회부장 **현공**

종도모집 안내
종도 한분한분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본 종단에
법연으로 함께 하실 종도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 총무원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500-1번지 / 전화 031)323-1325

대한불교 선종

종 정 효담
총무원장 **정 관**

재무부장 행우 포교부장 효은 사회부장 인호
홍보부장 행수 호계부장 심인 감 사 무구

경주교구 중앙종회의원
종회의장 무초
의 원 용현 무구 행우 효은 심인 행수

포항교구 중앙종회의원
의 원 혜문 일우 일웅

울산교구 중앙종회의원
의 원 무초 행삼

직할교구 중앙종회의원
의 원 인호 효웅

영천포교원 중앙종회의원
의 원 법인성

경주교구임원
종무원장 용현
교육국장 법운
재무·사회국장 행수

포항교구임원
종무원장 혜문
재무국장 일웅
사회국장 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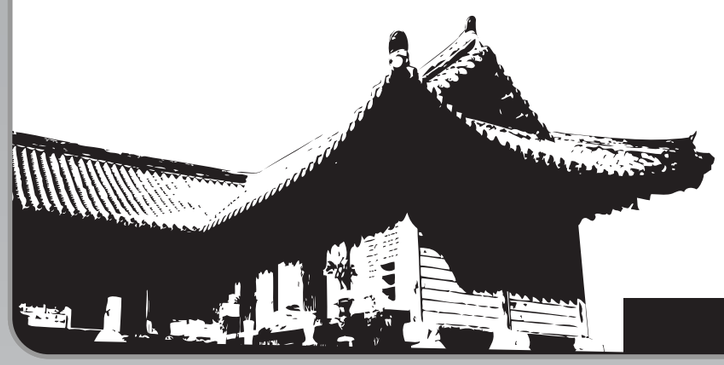
울산교구임원

영천포교원
포교원장 법인성

■ 총무원 : 경상북도 경주시 동방동 831-99번지 / 054)701-0505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 정 홍산 현불
총무원장 **자 명**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H.P 010-6478-1569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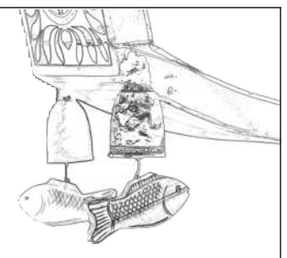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남의 잘못을 보고는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그것을 되씹고 있는 사람은
번뇌의 쓰레기만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그는 결코 그 번뇌의 늪으로부터 길이 벗어날 수 없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삼일단기 교육생 모집
수맥탐사 이론실기
* 교육과정 이수 후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대웅전 불사 원만 성취 발원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백발백중 귀장술
초보자 환영
쉽게보는 원판제공
다음. 네이버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외울 필요 없음
010-8558-2345



정확한 방편술 (비법)을 출판하였습니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않습니다
•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공양주 구함
대구 팔공산에 있는
조계종사찰로 직장인,
청소년에게 자신감 , 집중력
명상을 하는 현대적인 사찰
45세~60세 신심있는분
4대보험과
해외성지순례 기회제공
010-8221-4900

60대 신심깊은
독신자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울진)
011-9571-6559

인로왕보살은
스님들입니다
춤으로 인도 하십시오
승무 · 관음춤 · 지전춤 · 살풀이 · 오행춤
반야용선춤 · 길배춤 외 기타 의식춤
스님 직강
010-8510-0108 보성 합장

아름다운 인연
소승은 70세 된 시각장애자
심안으로 달마상과
황금용주도를 남은여생
나누어 드리려 합니다
무소유, 머무를 곳을
보시하실 인연을 찾습니다
010-9003-7783

빙의 기치유 한방쑥뜸
대구 심향사(약사도량 : 법화경)
전통사경,사불,현대사경,작품사경
사주 · 인생상담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도량
다음카페 : 심향사 사경원
053)244-9995
010-3677-3845 보성 합장

자성 천도
사십구재
제사 전문도량
바라, 회심곡
02)483-1566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051)633-844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북한산)
010-2748-300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애기있어도 됨
(진주 근교)
017-587-1011

제주도 사찰
청정도량 적멸보궁에서
몸과 마음을 가꾸실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스님 한분, 사무장, 상주인원
두사람, 보시금 전화상담
주지스님 010-3696-8500

스님이 안계신 절이나
어렵고 가난한 절을
무보시로 도와 드립니다
불사를 헌신적으로
도와드립니다
010-4882-3838

사찰을 책임지고 운영할
능력있는 스님을 찾습니다
보시금은 없습니다
이외 비용문제 상담
출가 남녀 행자도 찾습니다
(강원지역)
010-9421-0730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립
신토불이 천연 약초로 약을 짓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기도의 달인 대주스님
•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해드립니다.
• 배우실 분은 한번만 오시면 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1-772-4606 제행 합장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 출구

바닷가 전경이 아름다운 절에
여(女)행자님을 모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016-562-6677

빈 암자나 빈 토굴
혹은 빈 외딴 시골집
관리하여 드립니다
50대 후반의 선방 수좌
(토굴에서 함께 용맹정진할
도반을 찾습니다)
010-2897-6144

적중운세 적중사주
사주팔자,사업운,사주,운세,
토정비결,궁합,결혼운,
재물운,진학운,취직운,택일,
건강운,부부운,애정운,
진급운,꿈해몽,오늘운세
핸드폰(집전화)으로
060-900-8425 건후
안내멘트 듣고
1번 누르면 바로 상담됩니다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강력한 삶의 변화 원네스 치유명상
① 가족세우기 지도자 과정(참관가능)
* 일시 : 매달 2일간, 토, 일 진행 합니다.
* 부모,자녀,부부관계와 조상, 무의식 치유
② 원네스 깨어남 힐링명상(무료체험하기)
* 세계적인 치유명상, 강력한 삶의 변화
* 성공 풍요,건강,관계개선, 최상의 깨달음 코스
네이버카페 - 원네스 행복한 가족세우기
신청문의 : 니르바나 혜산스님 010-4114-6600

적천수 명리 강의
수년을 공부해도 실전감정을 못하는 분
(용신 잡는법, 통변, 실전위주, 책임지도)
○ 사복결 1:1 강의
- 모든 (시험, 국가고시) (결혼, 재혼, 이혼) 되는가? 안되는가?
- 모든 (사업, 매매)가 잘 되는가? 그만둬야 하는가?
- 돈 (받는가, 떼이는가, 구해지는가?)
(한눈에 신당을 내리고 단기간에 도인이 되는 사복결 강의)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2001 아울렛' 옆 2층
"적천수 명리 연구원" 031)465-3738

천상을 여는 지장대사
원력으로 조상천도,
빙의퇴마,천병,신병,
우울증,틱장애,
가정우환, 병명없이
치유못한 환자 치유
(극락암)
010-5152-1222

행자님
모십니다
(경남 함양 전통사찰)
011-9723-0505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화요일 저녁반, 목 · 금요일 오전반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명상과 힐링상담자 모집
명상, 불교심리치료, 서양심리치료, 명상치료법을
무료로 지도하오니 많은 동참있으시길 바랍니다.
(지도자 과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2동 1259-20 고산골 해룡사 지도법사 화성 스님
☎ 053)471-7769. 010-2866-4860

영 가 찾는법 강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운영자 등)
○ 강의내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야양교역 2번출구)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불교문화시설 가입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시설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연화사
• 주 지 : 운주(이종숙)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리 1047번지 (연화사길 28-1)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 합니다.

2014년 4월 30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풍수계 최초 밝혀낸 명당의 실체와 신통발복력!
태극혈맥풍수
반드시 발복흥성 유지되는 혈맥음양터!
• 명당은 반드시 땅속혈맥 갖춰야 진터
• 맥과 혈 짚어내는 비술득통
• 도승들이 펼친 산수혈맥주술법 도통
흥망성쇠 좌우하는 양택 음택!!
• 길터, 흉터 출장감정
• 명당점지, 묘이장 화장 상담
▶절암자 사업장(공장,매장) 점포 사무실
주택 묘지 납골터 수목장 등
※우리터문화는 자연과학이자
생명공학이다.
※태극혈맥터에서 인물나고
부자되고 가문이 흥성한다.
덕숭산승 지천공
010-4600-7399
충남 예산군 덕산면 광천동막길 83-7 절로암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법당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힘차고 장엄한 소리에
놀라실 것입니다!!
(소리가 마음에 안들 경우 대금은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절 설치비 : 1,800,000원
• 법당전용 스피커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CD기기 1대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어떤 오래된 앰프에
사용해도 뛰어난
소리가 납니다!!
■ 멋진 모양의 마이크로
법당의 품위를
높여줍니다.

불자님들께서
주지스님께 올리는
최고의 보시품
(구입하시는 불자님들께는 보시자의 이름을 하단에 넣어드림)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접수일 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가 격 : 1회 - 기본규격 50,000원 / 가로 7cm 70,000원 / 가로 10cm 100,000원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계(戒)의 연못은 청량하고 깨끗하고 더러 움이 없어
중생의 뜨거운 번뇌를 청량하게 해 주나니, 만약 지혜 있는
이가 이 연못에 들면 무명의 어둠과 장애가 영원히 멸해 없 어지리라."

- 마등가경 -

사 찰 안 내

- 아름다운 토굴 -
(생수공장, 황토공장)
- 위치 : 구례군 지리산 온천 부근
- 총부지 : 1150평, 도로 8m 접
- 건물 : 42평, 남향(별장 및 전원주택)
- 지하 200m 암반수 : 일일 취수량 500톤
- 양도금액 : 평당 20만원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 사 찰 -
- 위치 : 부산 바다 전망 좋은 사찰
- 대지 : 2,700평
- 건물 : 4동(법당 50평,요사채40평,산신각,주지실)
- 텃밭 : 300평
- 가액 : 6억 8천만원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사무소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직통 051)863-6622

사찰(급)안내

- 원주시 사찰 양도
- 목조법당 50㎡, 요사채 100㎡
- 산신각 10㎡, 토지1,400㎡
- 시내근접한 아늑한사찰.주변은 산
- 주차장과 연못, 오래된사찰
- 양도금액 : 3억원 조정불가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이규철)
010-7347-1010 (사찰전문)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청학동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계곡접 해발 700미터)
- 대지 1,815평, 부지조성완료, 정동향
- 법당 목조30평, 산신각 목조7평, 요사채25평, 창고1동, 해우소 1동
- 심야전기 및 전기판넬사용.
- 노인복지, 요양원, 연수원, 선원 등 최적임
- 가액 : 13억

010-3403-335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도천동 도리1길 부근
- 종교부지 800평, 산 812평, 전 350평,
- 법당 21.8평, 요사채 21.5평, 삼성각 2평
- 가액 : 6억

055)645-9171

포교원안내

- 위치 :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 전용면적 : 90평(법당40평, 방3, 다용도실 세면실2개, 다실1개, 주방, 접수실)
- 시설 : 환경, 위치, 특 A급, 바로 법회 가능
- 가액 : 4억 5천만원, 시설비 4천만원 (답사후 절충)

010-9270-8634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수도권 신도시
- 부지 : 500평
- 법당 : 50평
- 요사 : 40평, 차량진입
- 양도가 : 20억 8천
- 위치 : 경남 진주
- 부지 : 1300평
- 법당 : 20평,목조기와
- 요사 : 60평, 2채
- 양도가 : 6억 8천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운영,구하는사찰 있습니다.
※전국 사찰 양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 김용각)
02)723-4082 / 010-4586-4525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401호) (탑골공원길 21)

< 사찰안내 : 전문가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양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인연을 찾아드립니다.(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사찰부지, 매매임대전문중개사

010-7347-1010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대표:이규철)
010-3426-9393 이박사공인중개사(대표: 이현종)
주소: 강원도 원주시 모래내길 50(성일아파트 상가 108호)
■ 전국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서대문구(북한산 밑)
- 평수 : 77평
- 법당, 삼성각, 방5개, 화장실 2개
- 텃밭, 창고 2개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 (대폭인하)

010-7466-7701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 남쪽 산자락
- 1층 본요사채 45평, 황토벽돌로 조성, 2층 법당 25평
- 주차장 완비 총 171평 외 토지 80평과 별요사채 1,2층 30평, 저온창고 2.5평
- 가액 : 4억 5천 직접거래

010-3743-9943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옥천읍에서 5분거리, 대전에서 10분거리
- 대지 505평, 1층 요사채40평, 2층 와가법당 20평(단청필)
- 옥외건물 20평(창고), 화장실, 샤워실, 창고 6평
- 수려한 금잔디 및 조경, 6층석탑 주변 팬션 및 별장있음
- 대전 영동간 4차선 국도 300M 접
- 가액 : 3억9천5백

011-645-136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 유곡면
- 대지 약 800평, 산 임야 2,300평
- 대웅전 20평, 산신각 7평, 용왕전, 요사채 50평
- 가액 : 2억 9천(절충가능)

010-9395-6675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창녕군 부곡온천 및 화왕산, 군립공원대로변, 교통요지
- 목조단청, 전통토기와, 대웅전30평, 종교부지 600여평
- 요사채(60평), 화장실, 석탑, 주차장, 창고(산신각, 칠성각)
- 산밑에 위치, 도로인접, 심야보일러, CCTV설치, 집기일체
- 가액 : 3억5천만원(답사후 조정, 평당70만원시세)

010-8664-8259
(답사하실분만 전화주세요)

사찰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시 반송동 소재
- 5층 중 3층, 33평, 법당 20평,
- 삼존불, 칠성, 산신, 신중 관음소불 100불, 방1, 주방, 실내화장실
- 집기일체 준비되어있음
- 가액 : 1. 500만원 30만원
  2. 1,000만원 25만원
  시설비 1,300만원(조절가능)

010-5541-2378

문경 토굴터 안내

- 위치: 경북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산 154-4
- 문경 IC에서 10분, 문경온천에서 5분거리
- 면적 225평
- 소나무숲 전원주택 부지로 현재 10여동이 입주한 상태
- 가액 : 4천5백만원(평당 20만원)

010-8555-4480

포교원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
- 대지 110평, 건물80평, 인법당 10평,
- 포교원 요양 수행 힐링처
- 별장식 별궁으로 용도 가능한곳
- 가액 : 2억 3천만원

011-9917-7039

사 찰 안 내

- 춘천 3,600평 3억 6천 주변시세 반값 요양원 사찰건축 가능
- 경북 영주 2,500평 18억 복지원 요양원 현재사찰운영중 모든조건 완비
- 서울상계30평 2층 포교원 8천만원 35년운영중
- 수락산역 200M

010-4880-7890

포교원안내

- 위치 : 1층 경남 김해시
- 법당 : 오존불, 48평
- 시설 : 쑥뜸찜질방 1개
- 주차 : 3대 가능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가액 : 전세 8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800만원

010-9376-7242

사찰 터 안내

- 좌청룡 우백호가 살아있는 소쿠리터
- 갓바위뒷편 영천신령면 1066번지의 5필지
- 논 약3천평 내외 성토작업 완료. 가옥 60평
- 마당앞에 계곡물이 흐르고 마당까지 대형차 진입
- 가액 : 4억 5천만원
- 위치: 경북 청도군 각남면 화리 산48
- 임야 8,250평 • 가액 : 7천만원

010-6253-3107
(철호스님 합장)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양산.아파트 주거 밀집지역
- 포교하기 좋은곳
- 주차가능, 신도분들 오시기 편안함
- 시설 깨끗한 약 10년가량된 사찰
- 대지 708㎡ • 건평 250㎡
- 법당, 공양간, 종무소
- 가액 : 5억5천만

(주)금호부동산
051)861-2233
010-5346-4138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수익성 건물 안내

- 부산 동래도시 철도역세권
- 대지 106평, 건물350평
- 주거밀집지역
- 월수익 900만원 받고
- 가액:5억 6천만원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주)금호부동산
051)861-2233
010-8676-2278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화원읍에 위치 (지하철 도보 10분 이내)
- 대지 112평, 건물 67평 (고풍스런한옥, 도심지역)
- 시설일체 양도 가능(살림도 가능)
- 가액:4억 6천만원(융자 2억포함)

053)523-7777
010-8732-3353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 구포동
- 평수: 대지 47평, 3층 슬라브
- 3층법당 1, 2층 요사채
- 삼존불, 신중, 산신, 칠성탱화, 소불
- 가액: 1억 7천 5백만원 (절충가능)
- 사정상 시세 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사찰(전세)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장
- 대지 210평, 건평 80평
- 법당완비, 시설완벽
- 7대 주차가능
- 가액 : 전세 1천만원
- 월세 120만원, 시설비 6천만원 (가격절충가능)

010-3193-3689

포교원안내

- 위치 : 1층 경남 김해시
- 법당 : 오존불, 48평
- 시설 : 쑥뜸찜질방 1개
- 주차 : 3대 가능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가액 : 전세 8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800만원

010-9376-7242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진구 전포동 (놀이터시장 입구)
- 2층 건물 2층 법당, 방 2개, 20평, 시설 완벽
- 위치 좋음,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보증금 6백만원, 월 25만원
- 답사후 절충

010-8872-132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 IC 5분거리
- 지장전, 산신각, 노천지장보살
- 석탑, 요사채3동, 방10개,(고찰) 토지 6필지 약 1,450평 (종교 414평, 대지 355평, 전 359평, 답536평
- 노인복지시설, 연수원, 선원, 기타개발 최적지
- 가액 : 10억

010-9465-1915

포교원안내

- 위치 : 김해 장유 신도시 위치최고
- 3층 건물 2층 약40평
- 삼존불, 신중, 소불 연등설치
- 법당, 공양실, 방2개 실내 화장실 사용하기 아주 편리함. 철학 및 포교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22만원 시설일체 2천300만원

010-4017-0993

사찰안내(신축)

- 위치 : 경남 합천
- 면적 : 413평 (계곡물 사철 흐름)
- 법당 : 25평(동남간, 목조, 기와)
- 사채 : 25평(방2, 화장실2, 컨1동)
- 가액 : 융자3천안고, 2억 2500만원

010-8517-8526

천년부처님의 터

- 위치 : 충남 안산시 영인면 소재
- 대지(전) 600평
- 고려시대 석불, 석탑 각1기
- 꼭 불사하실 능력 있으신분만 전화
- 가액 2억 2천

010-7127-3325

사찰 터 안내

- 위치 : 밀양시 상동면 신곡리 982번지
- 답 320평 건축허가 되있음
- 삼면이 소나무 울창하고 앞쪽 시원한 물이 보이는 아주 좋은 터입니다
- 사찰 전원주택 팬션 적합
- 정남향 좌청룡 우 백호가 잘 어우러져 있음
- 가액 : 7,500만원

010-3544-9777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 법당 : 30평 목조 건물 문화재급 보유
- 요사채 및 식당 40평, 대지총면적 450평
- 즉시법회가능
- 가액 : 4억 7천만원

010-4725-5907

사찰(급)안내

- 위치 : 진주 IC에서 10분 거리로 접근성이 좋은 사찰
- 평수 종교용지 600평, 법당20평과 영험스런 약사굴법당 있음
- 요사채 및 건물 5동, 70년된 사찰
- 가액 : 4억 8천만원

010-4021-85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 IC 5분거리
- 지장전, 산신각, 노천지장보살
- 석탑, 요사채3동, 방10개,(고찰) 토지 6필지 약 1,450평 (종교 414평, 대지 355평, 전 359평, 답536평
- 노인복지시설, 연수원, 선원, 기타개발 최적지
- 가액 : 10억

010-9465-1915

창원 명당 포교원

- 위치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주상복합3층 단독 약40평 재래시장 입구
- 유동인구 최다 (현성업중, 확장이전)
- 가액 : 전세 1,5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3118-1174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에 위치
- 지하철에서 도보로 5분거리
- 시설일체 완비(몸만오시면 됨)
- 평수 : 43평
- 보증금 4,0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2,200만원

010-8505-0101

포교원안내

- 위치 : 진주시 상대동 현대아파트 인근
- 3층 중 2층 33평
- 큰방 2개, 화장실, 샤워실 법당 시설완벽
- 가액 : 전세 1천만 월40만 시설비 1백만원

010-3001-5297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마산 3층 건물에 3층 (160평)
- 포교원 10년 한 자리
- 삼존불,후불탱화,법당, 종무소, 방4
- 화장실(실내 1, 실외 2), 법당과 모든 방에는 난방필름 되어 있음
- 시설완비, 불사소임관계 부득이 양도
- 옥상사용 주차장완비 일체민원없고 조용함
- 보증금 : 천만원, 월80만원/시설비 협의
- 바로 법회가능

055)221-5182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지하철 남산역2분거리
- 4층 건물 중 2층, 약 50평 정남향 주차장 최고급시설, 냉난방, 바닥전체 필름난방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3,000만원

010-9317-9199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 큰 도로변 아파트 상가 2층 약 60평
-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큰 공양간, 큰방 1, 작은방 2, 욕실
- 시설환경, 위치 특 A급
- 월 1,000만원 45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5173-3355

토굴(암자)안내

- 위치 : 대구 달성군 가창면 소재
- ㄷ자건물 주택 3칸 39평 (텃밭 400평)
- 주변경관수려, 도심인접, 교통편리, 도시 포교 용이
- 보증금 1천만원에 월40만원

010-3811-992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시 유성구 상대동 예술 고등학교 부근
- 5층 건물에 5층 50평
- 아미타 삼존불 후불탱화
- 오피스텔 최신식형 법당
- 가액 : 보증금 1,000만 월 100만 시설비 3,500만원

010-2485-8799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 총대지 : 156평
- 법당, 요사채 3
- 가액 : 2억(절충가능)

011-540-6549
010-7169-1399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8505-203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병곡면 각리리
- 대지 300평, 전 450평
- 대웅전 법당 25평
- 요사채 40평
- 급한사정상 알림
- 가액 : 3억 7천만원

010-4747-316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 동남구 동면 천안 목천톨게이트에서 10분거리 진천에서 10분거리
- 대지80평, 텃밭 330평 정원도 완벽함
- 2층 법당30평, 아래 요사채 별장으로도 적합
- 가액 : 2억 6천만원

010-3723-6640

포교원안내

- 부산 가야초등학교 정문앞
- 4층건물에 2층, 20평 철학관도 호조건
- 삼존불, 후불탱화, 방2, 주방완비
-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3천 3백만원 월세없음 시설비 5백만원

011-9308-0857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지하철 남산역2분거리
- 4층 건물 중 2층, 약 50평 정남향 주차장 최고급시설, 냉난방, 바닥전체 필름난방
- 가액 : 보증금 1,5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3,000만원

010-9317-9199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에 위치
- 지하철에서 도보로 5분거리
- 시설일체 완비(몸만오시면 됨)
- 평수 : 43평
- 보증금 4,0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2,200만원

010-8505-0101

토굴(암자)안내

- 위치 : 대구 달성군 가창면 소재
- ㄷ자건물 주택 3칸 39평 (텃밭 400평)
- 주변경관수려, 도심인접, 교통편리, 도시 포교 용이
- 보증금 1천만원에 월40만원

010-3811-992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시 유성구 상대동 예술 고등학교 부근
- 5층 건물에 5층 50평
- 아미타 삼존불 후불탱화
- 오피스텔 최신식형 법당
- 가액 : 보증금 1,000만 월 100만 시설비 3,500만원

010-2485-8799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 총대지 : 156평
- 법당, 요사채 3
- 가액 : 2억(절충가능)

011-540-6549
010-7169-1399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8505-203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병곡면 각리리
- 대지 300평, 전 450평
- 대웅전 법당 25평
- 요사채 40평
- 급한사정상 알림
- 가액 : 3억 7천만원

010-4747-3164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 동남구 동면 천안 목천톨게이트에서 10분거리 진천에서 10분거리
- 대지80평, 텃밭 330평 정원도 완벽함
- 2층 법당30평, 아래 요사채 별장으로도 적합
- 가액 : 2억 6천만원

010-3723-6640

포교원안내

- 부산 가야초등학교 정문앞
- 4층건물에 2층, 20평 철학관도 호조건
- 삼존불, 후불탱화, 방2, 주방완비
-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3천 3백만원 월세없음 시설비 5백만원

011-9308-0857

도심사찰, 포교원안내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로타리)육거리 근처
- 넓은 면적, 5층 94평(7층, 지하주차장 지분 별도15평 있음)
- 방3, 공양간(약10평), 실내화장실, 실외남녀 별도 화장실
- 경전철 역 가까워 도보 이용(대중교통편리함) 대단지 아파트 인근으로 불교신자 많음 근처 교회는 많으나 절이 없음
- 임대(시설금 없음)및 양도(현 시세에 비교 매우저렴)
- 도심 사찰하기에 내부 구조가 매우 편리함

010-6570-1000
055)247-7000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버스정류장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5,5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사 찰 안 내

- 위치 : 청주중심도시
- 대지 60평, 건물 2동, 요사채35평, 법당1동
- 삼존185대불계금, 대형후불탱화, 1자 원불108불
- 방 4개, 욕실 2개, 2층동 18나한 네팔에서 모시고옴
- 방송스튜디오 녹음실, 차고
- 가액 : 3억 5천만원, 보시고결정, 절충
- 불교포교원 90평, 전세5,000만원 최고집기시설

010-9546-2255
010-5236-7310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 수산
- 약 90년된 고찰, 도사바위, 약물 폭포수 있음
- 대웅전, 미타전, 칠성각, 산신각, 요사채
- 뒷산 시부지 10만평 사용가능
- 스님 건강상 급 안내
- 가액 : 6억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33)762-6347
010-6399-4285

절터 및 납골터 안내

1.납골터
- 위치 : 연천군 연천읍 상리 산47번지
- 가액 : 평당 6만원(3,937평)

2.절터
- 위치: 구인사 뒷산 (충북 단양군 가곡면 보발리 산13-1번지)
- 임야 18,356㎡ 14-1번지 53,411㎡
- 가액 : 평당 2만원 (두필지 총 23,000평)

010-3893-1749

포교원(급) 임대

- 위치 : 경기 부천시 부천역에서 7분거리 최고의 요지
- 5층건물 중 5층 100평(옥상도 사용가능)
- 주지실, 상담실, 종무소, 공양간, 큰방3개
- 법당 단청되어 있음
- 소임관계로 급하게 임대함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초파일 법회도 가능함)
-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50만원(조절가능)
- 시설비 : 600만원(최의시설 깨끗함)
- 법당 50평

010-6216-4133
032)655-4133~4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전철역세권, 노선버스 최다
- 재벌을 길러낸 터, 포교 최적지
- 100M 전방재개발확정, 아파트 2천세대
- 법당 30평, 부처님 5분, 천불전불사중 현재 약300분
  1층 : 차고, 창고, 일주문
  2층 : 법당, 방3개, 공양간, 화장실2개
  3층 : 방3개, 산신당, 빈공간 20평, 화장실 1개
- 대지 140평, 건평 107평
- 가액 : 12억(융자4억포함) 시세가 이하
- 학업관계로 부득이 안내(절충가능)

010-8634-7851 (부동산 사절, 꼭 하실분만)



• 주 지 김 무 원 스님
• 총 무 박거홍 스님 • 교 무 손형선 스님
• 재 무 손무성 스님 • 노 전 박대거 스님
• 고 문 김길두, 홍영표, 김석조, 김형대, 이종화, 전무수, 조임순, 홍경표, 이종수, 장석근, 문학실
• 신도회장 이 헌 승 • 신도부회장 최주덕 • 총무위원 권길용 • 교무위원 정일태
• 재무위원 윤태용, 안승진, 신명옥 • 사업위원 김성춘 • 복지위원 이정복
• 홍보위원 김규옥 • 문화위원 김영수 • 교육위원 정재위 • 부녀위원 정옥순

'세월호' 침몰 실종자 무사귀환, 상해자 조속쾌유, 희생자 왕생극락 기원
불기 2558년 봉축행사 일정

봉축전야점등대법회 5월 5일 오후 6시 30분 대웅보전
봉 축 법 요 식 5월 6일 오전 11시 대웅보전

대한불교 천태종 힐링사찰 삼광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천로 43번길 77
TEL.(051)808-7111~6 FAX.(051)803-1332
홈페이지 http://www.samkwangsa.or.kr

(재)대한불교조계종
안 국 선 원
사부대중일동



■ 부산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단로 124(남산동) (지하철 1호선 두실역 8번출구)
TEL 051)583-0993.0994 FAX 051)583-0991
■ 서울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70(가회동) (지하철 3호선 안국역 3번출구)
TEL 02)732-0772. 744-0772 FAX 02)744-0779
www.angukzen.org

대한불교조계종
운 문 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명성
운문사승가대학 학장 흥륜
운문사승가대학 주지 일진
대중일동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TEL 054)372-8800 팩스 054)371-0359 www.unmunsa.or.kr

자연에서 함께하는 부처님 도량
고 당 사 (구, 천국사)
주지 혜정
사부대중일동



납골당 6천기 봉안도량
(어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불자님을 모십니다)
www.cheonguksa.co.kr
(인터넷 천국사효자당)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옥계폭포 입구) 전화 043)742-4414. 010-4115-7960



대한불교천태종
동해 관음성지
울릉 성인사·삼도사
주 지 정비룡

성 인 사 신도회장 도영국 外
주소 : 경북 울릉읍 서면 남서리 19 TEL 054)791-5011

삼 도 사 신도회장 김도근 外
주소 : 경북 울릉읍 서면 태하리 562 TEL 054)791-5457

관 음 성 지
휴 휴 암
사부대중일동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1번지 TEL 033)671-0093~5 FAX 033)671-0525



대행 스님

아주 중심에다 활을 꽂을 수 있다면 아니 되는 게 없어요

내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문)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만 어떤 문제들에 부딪치면 어느 새 상대 탓을 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마음공부의 길이 왜 이리 멀게 느껴지는지요?

답) 왜 자기를 자기가 못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용광로에 넣듯이 작업을 그렇게 하라고, 안되는 것도 찰나, 되는 것도 찰나라면 여러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죠?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가고 오는 것.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그러니 공했단 얘기죠. 현실로써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널리. 나와 상대 이 모두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지구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고 무엇으로 뭉쳐서 찰나찰나 돌아가고 있나? 한 번쯤은 이런 거 생각해 볼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지혜가 생기죠.

마음은 체가 없어서 가깝고 멀고가 없습니다. 저 우주 전체를 한 찰나에 탐험할 수도 있는 그런 심안의 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 내가 용광로에 놓듯이 전자의, 과거의 업을, 얽히고설킨 인과를, 악업·선업 지은 것을 다 오는 대로 놓아야 합니다. 전자에 한 것이 현실에 나타나서 여러분이 지금 현실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악업을 지었으면 악업, 선업을 지었으면 선업이 번갈아 가면서 닥치는 겁니다, 용도에 따라서. 그리고 안에서 솟아나오고 바깥에서 오고.

그러니 여러분이 이 도리를 배우지 않는다면, 기복으로만 자꾸 나간다면 공덕도 없거니와 이익도 없고 세세생생에 나를 건질 수 없기 때문에 일체를 다 건질 수 없는 겁니다. 용도에 따라서 내 앞에, 가정에서 살림하고 사회에 나가서 일하고 그럴 때, 용도에 따라서 내 앞에 큰 문제가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고 외로움이 생기고 또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놈 또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인과로 인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의식만 없으면 송장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속에서 수십억 마리가 돌아가면서 선업·악업 지은 데서 자꾸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일이 말할 게 아니라, 고렇게 놓고, 모든 게 안되는 거, 그렇게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거, 이런 것을 아, 잘돼서 좋은 생각이 나면 '아유, 참 감사하구나.' 이러는 게 그냥 놓는 겁니다. '아 참! 내 주인공, 참 감사하구나.' 하는 게 놓는 겁니다. 또 안됐으면은 '아, 내 주인공밖에 해결할 수 없구나.' 이게 바로 놓는 겁니다, 또. 그런데 뭐가 어렵습니까? 왜 놓을 수가 없다고 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으로 자꾸 창살 없는 감옥에 다 자길 넣고 옹쳐매니까, 내가 되풀이하는 겁니다, 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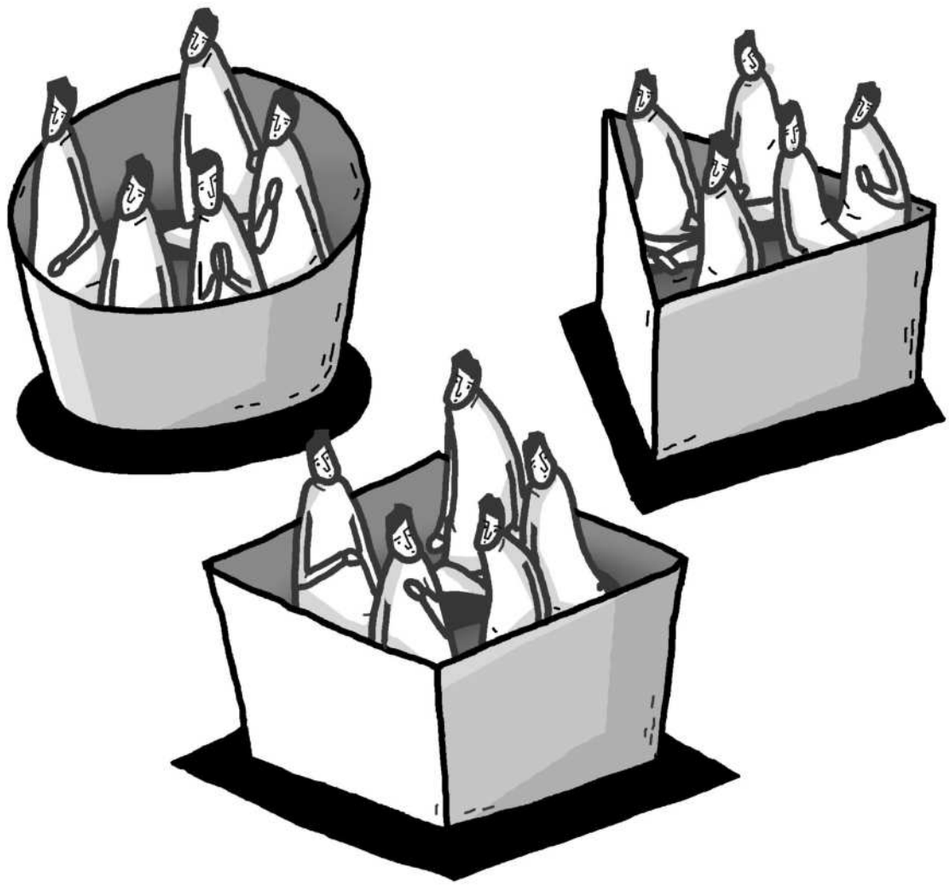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이 체가 없어서 우주 전체를 탐험할 수도 있다고 해도 믿지 않는 겁니다. 또 당신 마음으로서 옹쳐매고, 바로 창살 없는 감옥에 뭉쳐 놓고 고게 바로 지옥이라 해도 믿지 않는 겁니다. 왜들 그렇게 믿지 않기를 좋아합니까? 자기를 자기가 믿지 못한다면 누구를 믿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왔다 혼자 가요. 내가 얘기 했죠? 다섯 가지는 대신 못해 준다고. 똥누는 거하고 먹는 거, 자는 거, 죽는 거, 아픈 거, 이런 거 대신 못해 줘요.

그러니 여러분이 생활에서 생활선, 그냥 행선입니다. 화두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 몸뚱이를 화두로 생각하십시오. 화두는 따로 없는 것입니다. 화두를 남한테서 받는 것도 다 화두가 아니요, 내가 그냥 저절로 생겨 있는 이 몸뚱이가 난 것이 태초요 바로 화두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 집도 되고 화두도 되고, 내가 바로 이 세상에 그 인과응보, 악업·선업이 한데 뭉쳐서 났으니 고덩어리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 고덩어리를 녹여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부부지간에 살든지, 자식과 부모와 모두 형제와 살든지, 또는 회사의 직원으로 살든지 사장으로 살든지, 회장으로 살든지 학생으로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를 막론하고, 각자 여러분의 탓이지 누구의 탓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모든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고,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놈이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집안이 어수선하고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죠? 자식이 나가서 학생으로서 잘못해서 부모가 성가시면 아이고, 저놈의 자식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왜? 그놈의 자식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일체가 다 남으로 인해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저 상점에 가 보십시오. 깡통은 깡통대로 깡통전에 깡통끼리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과거로부터, 자기가 지은 대로, 차원대로 만납니다. 자식들의 인연이 바로 그런 것이고 부부지간 인연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깡통끼리 만나야 깡통끼리 그렇게 얼그덩덜그덩 하죠? 소리가 납니다. 넝마는 넝마전에 모여 있고, 그 차원끼리 또 모입니다. 그러니 서로 고생을 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그냥 욕하고 때리고 온통 이년 저년, 이놈 저놈,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온통 이 야단입니다. 왜 그런가. 그게 아수라장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세상에 이 몸뚱이로 태어나 가지고 철모를 때 지내 놓고 잘 때 빼놓고 그래 사는 거, 늙었을 때 빼 놓고 몇 푼어치나 산다고 그렇게 얼그렁덜그렁거리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즐겁고 패기 있고 자유스럽게야! 좋으면 껄껄 웃어 보고…. 그런데 아이, 그거 뭐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도 싸우거든요. 참 이상해요. 내가 가만히 보면요, 조그맣고 아무것도 아닌데 오만상을 찌푸리거든요. 난 우스워 죽겠어요. 아니, 정말 그래요. 어떤 때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요. 어떤 때는 그냥 웃음이 나고요.

오늘도 차타고 오는데 차마다 노랫소리가 흘러나와요. 저게 바로 부처님의 소리가 저렇게 퍼져나오지 않느냐 이겁니다. 부처님의 소리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의 도량이 아닌 데가 하나도 없고, 도인이 없는 데가 하나도 없고. 오는데도 애가 차에 치여 죽지 않으려고 빨리 뛰어가더라고요, 네 살 먹은 게. 아, 이것도 도인이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글쎄. 아니, 개새끼도 불성이 있는 겁니다. 없다고 해도 없는 것이고 있다고 해도 있는 거고. 사람에 따라, 차원에 따라 그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겠죠. 그 왜? 여러분이 부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개도 보니까 저기서 차가 오는가 안 오는가 요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선 차가 오니깐 탁 서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지나가니까 쏜살같이 건너가요. 개도 도인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고렇게 하고 있으니. 아이, 그런데 여러분이 부처가 아니라고요?

☞ A30면으로 계속

佛紀 2558年 甲午年 Buddha's birthday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세계불교법왕청

이 사 장 의륜 서주범 (재단법인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종정)

상임부회장 용주 권용운 (재단법인 한국근본불교조계종 방장)
수석부회장 만주 조성수 (한국불교대불종 총무원장)
정암 마승이 (대한불교선각종 총무원장)
보현 서만득 (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부 회 장 해광 전충열 (한국불교자비종 총무원장)
지법 한재환 (한국불교반야종 총무원장)
법장 최재호 (한국불교구산선문회 총무원장)
일웅 김철우 (한국불교전법조계종 총무원장)
청산 김규섭 (대한불교법계종 총무원장)
정림 석정림 (사단법인 대한불교수미산문조동정종 총무원장)
청학 송원진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총무원장)
청암 도한수 (총남불교조계종 종정)
지일 박상갑 (한국불교대승법사종 종정)
법진 신승도 (호국불교효예종 총무원장)
법혜 박수종 (회천법계천일종 총무원장)
도천 박갑수 (불교단체극락선원 선원장)
범부 홍정표 (한국건강진흥원 대표)
현불 이창수 (우리불교조계종 대종사)

실무의장 법천 유일수 (국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사무총장 설송 석혜운 (재단법인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사서실장 해안 조현종 (재단법인 한국근본불교조계종 대종사)

전 회원 일동

사무실 : 서울 은평구 녹번동 89-13 전화 02)358-6642

나 하나 버리면 그뿐인데 뭐 거기에 붙을게 있습니까

☞ A29면에서 계속

그러니 부처 노릇을 하시려면요, 오늘부터라도 그 개의치 않은 거 가지고 남의 탓을 하고 성내지 말고, 부부지간에 살면서도 들어오면 "여보! 오늘 당신 얼마나 노고가 많소?" 하고 웃어 주고 그러면 아유, 그냥 죄송하고, 그냥 "당신은 얼마나 그 일하시느라고 저거 했느냐."고 이렇게 좋게 나오거든요. "당신 뭐, 하루 종일 뭐 했어?" 이러고 들어오면 "아니!" 이렇게 나오죠. "아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거 가지고 실랑이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법을 못 배워요. 그리고 이렇게 좋게 자유스럽게 못 살아요. 먹는 것도 착을 두지 않으니깐 먹을 게 들어와요. 착을 두고 요걸 가지려고 애를 쓰면 자꾸 달아나가요. 돈도 그렇고. 병고도 탁 놓고 '아이고, 네가 모두 업보로 인해서, 인과응보로 인해서 뭉친 거니까, 너한테서 나온 거니까 너 알아서 해라.' 이러고 탁 놓으니까 심심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고! 난 내 그릇이나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러고 달아나가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좀 내버리세요. 죽고 사는게 뭐 그리 원통합니까? 예? 내일 죽은들 어떻고, 모래 죽은들 어떠리. 좀 더 살면 어떻고 덜 살면 어떠리. 이렇게 좀 하면 어때요? 아, 그러면은 좋은 밥에 좋은 옷에 화목한 가정에, 자유스런 마음에서 일로 가도 좋고 절로가도 좋고 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이 공부하는 데는 미쳤다는 소리 한마디 듣지 않고는, 이 공분 못합니다. 넘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진심으로서, 자기한테 자기가 미쳐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길잡이한테는 지혜를 구하고자 하고 따르는 거고. 자기를 발견하는 거는 자기를 믿어야만이 합니다. 기복으로 자꾸 끄달린다면 만날 여러분들이 귀신 짓을 하기 때문에 귀신이 되는 거지, 여러분이 귀신 짓을 하지 않는데 어찌 귀신이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진짜로 아주 중심에다 활을 꽂을 수 있다면 진짜로 아니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아니 되는 거 없어요.

팔자 운명을 뛰어넘고 싶어요

문) 팔자 운명도 붙을 게 없다 하시지만 어떤 난관에 부닥치면 스스로 내 팔자가 그러려니 하고 체념하게 됩니다. 내 운명을 뛰어넘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채찍을 좀 가해 주십시오.

답)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과거에 살던 것이 입력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자동적인 컴퓨터에. 그래서 지금 현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나는 나쁜 일도 안 하고 그랬는데 지금 내 팔자가 왜 이렇느냐고 하죠. 내 운명이 왜 이렇느냐고. 과거에 그렇게 입력된 거는 모르고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팔자 운명이 붙을 자리도 없고 병고도 붙을 자리 없고, 그냥 공해 버려서 아무것도 붙을 자리가 없다고 그러는 건 주인공에다 되놓는다면 그 입력이 됐던 것이 다 녹아버리고 없다. 시간과 공간이 초월돼서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듯 하는 건데, 진리가 그런 건데 거기 먼지 앉을 자리가 어디 있으며 죄 붙을 자리가 어디 있겠는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들이 말입니다, 의식 자체가 있다 없다 이것이 하상 뒤범벅이 돼 돌아가거든요. 그것이 바로 날 끌고 다니는 지배인이에요, 그 마음이. 그럼 속에 있는 그 수없는 생명체들도 의식이 다 그 지배인의 마음에 의해서 다 움죽거리게 되죠. 그것이 과거에 인으로 인해서 현재로 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나오는 대로 놓는다면 무슨 병 붙을 자리가 어디 있겠느냐 이겁니다. 언젠가 어느 분이 그렇게 아프다 그래서 병 있다면 내놔 봐라 그랬습니다, 고쳐줄 테니까. 그 소리를 듣고선 뚱하니 갔습니다. 지금 말짱하게 그냥 건강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고 말입니다.

>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겨서 해결을 하도록 하십시오.
> 죽는 것도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으니까요.
> 절실히 믿고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서 하신다면
> 어떠한 거든지 풀리지 않을 게 없고
> 자유스럽지 않을 게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마음이라는 것이 모든 게 이 구조를 변경시킬 수도 있고 몸의 상태의 모든 것을, 체질을 바꿀 수도 있고 기를 넣을 수도 있고 기를 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자기죠. 지금 이 오장육부 안에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자기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장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사장이나 회장의 말 한마디면 공장장은 다 듣죠.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는 게 마음내기 이전은 힘이요, 마음을 내는 거는 법이고, 움죽거리는 것은 바로 우리 생활입니다. 모두가 이 행이죠. 그래서 삼합이 한데 합쳐서 일체가 돌아가죠. 그래서 주인공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도리를 알면 그저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삽니다. 강당에만 들어가야 하나님이 있고 예수가 있고, 또 법당에만 들어가야 부처가 있고 법신이 있습니까? 자기가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부터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저 먹을게 없든 있든 다 먹고 살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걱정을 해서 병이 들고 그러면 외려 식구들한테 고난을 주는 거죠. 그래서 편리하게 생각하고 '네 몸에서 병이 났으니까 네 몸에서 고쳐야지 누가 고치는가.' 의학적으로 지금 내가 볼 때는 70% 부족된다고 봅니다. 70%는 누가 그럼 보충합니까? 모두 각자 마음들이죠.

앞으로 점점 인제 발전이 돼서 이렇게 나간다 해도 인간들에게 인제 체내의 기가 점점 약해지지 더 늘어 나간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자기가 자신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인간들에게는 뭐든지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합쳐서 주인공이라고, 한마음이라고 하는 것이니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겨서 해결을 하도록 하십시오. 죽는 것도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으니까요. 절실히 믿고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서 하신다면 어떠한 거든지 물러설 게 없고, 낫지 않는 게 없고, 또는 풀리지 않을 게 없고 자유스럽지 않을 게 없다고 봅니다.

한꺼번에 어려움이 몰아닥치니…

문) 관하는 공부를 하다 보니 잘되는 듯했는데 한꺼번에 어려움이 몰아닥치니 관할 생각조차 나지 않아요. 몸은 아픈데 병원비는 감당할 수 없고 건사해야 할 식구들은 많고요.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관하고 믿고 놓아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고 관이 잘 안되네요. 제가 바르게 공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답) 사람이 착잡하고 괴롭고 고독하고 가난하고 이런다면 별의별 생각이 다 나지만 그렇게 됐을 때에 오히려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을 모조리 그냥 놓는 거죠. 일체 만법을 확보해 돌아갈 수 있는 그 근원에다가. 근원에서 나오는 거니까 근원에다 다 놓는 거예요. 맡겨 놓는 거예요. 아주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 벽을 뚫고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요렇게 아주 급박할 때에 내가 공부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 급박하게 만들어 놓는 것도 바로, 어떻게 빠져 나갈 구멍이 없이 만들어 놓는 것도 자기 주인공이거든. 자기가 자기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자기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몸도 만들었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또 공부를 시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하나 이거죠.

그러면은 이 색으로만 생각하고 사량으로 생각한다면 당장 죽겠으니까 내가 어떡하든지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죠.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벌써 자기가 어떻게 빠져나가나 그걸 보느라고 그럭하고 있는 거거든. 사량으로 빠져나가려면 저 창문이 문인 줄 알고, 그냥 나가려고 앨 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급박할 때 모든 걸 다 맡겨 놓는 그것이 바로 이 벽 봇장이 다 없이 그냥 확 뚫어 버리는 그러한 공부 하는 그 과정이에요, 옴패부득 못하게 됐을 때. 사람이 가난치 않고 돈 있고 말이에요, 친구들 많고 아, 내가 그냥 모든 게 풍족한데 내가 뭐 그렇게 답답해서 고놈의 거 그럭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쪼아서 요렇게 옴패부득 못하게 해 놨을 때, 진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 앞에는 그냥 요렇게 딱 조이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홀랑 껍데기를 벗고서 우주 바깥으로 벗고 나가나, 그렇지 않으면 그 껍데기를 쓰고 껍데기가 빠져나가려고 애를쓰나 그걸 보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 참 묘하죠, 모두가 다.

그렇게 되면 언제나 자기 자신이 너무나 참, 모든 생활에 짓밟힌 것 같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고 그렇지마는 이 나의 주인은 떳떳하고 도도하기에 그 자기를 그렇게, 유의 법이나 무의 법이나 같이 도도하게 흐르기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체득을 못하면 '아하! 이건 내가 이렇게 되니깐 아이고,아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아하! 여기서 그러는구나. 그건 당신이 다 알아서 해. 내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죽든 나가서 죽든, 병이 들어 죽든 가난해서 죽든 나한텐 아랑곳없다. 네가 끌고 다니는 거니까 알아서 해라.' 하고 놨을 때에 비로소 주인이자 나를 끌고 다니는 시자가 되니, 이 몸뚱이는 시자라 그랬는데 고만 마음이 주인이자 시자거든. 시자이자 주인이고. 하, 이게 둘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배울 때 주인공이라고 했는데, 주인공이 바로 자기 시자이자 주인공이자 부처자 자유인이죠.

언젠가 원주에서도 그냥 이렇게 미쳐 가지고 날뛰는데 벌거벗고선 그냥 팔을 쩍 벌리고 그냥 온통…. 그거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자체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잃는 거죠, 다. 자기가 자기 몸뚱이를 뺏긴 거예요, 남한테. 그리고 전자에 그 마음이 미치광이처럼 돌아다니던 거기 때문에 남의 집을 뺏어 가지고도 미치광이 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처님 도법은 자유자재 할 줄 아는, 어느 보이지 않는 사람을 들여다가 내가 써 먹었으면, 부려 먹었으면 그걸 제자리에다 다시 갖다 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아무 일이 없잖아요. 쓰고는 제자리에 갖다 놓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물건 하나를 내가 갖다가 썼어도 그 자리에 도로 갖다 놔야 돼요. 그랬을 때에 내가 급할 때는 그 자리에서 빨리 집어다가 쓸 수 있죠. 그와 똑같은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떠한, 지금 의사가 필요할 때에 내가 얼른 집어다 쓸 수 있게끔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이 주인공에다 모든 거를 일임해서 그렇게 되면 그 주인공에서 다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주인공에서 다 수술도 하고, 거기서 다 벌써 자동적으로 의사가 나오고 간호원이 나오고 거기서 그냥 다 돼요, 자동적으로. 부처님 법은 손도 안 대고 하는 거고, 한계가 있는 것은 손을 대고 하는 것이에요. 손을 대기 이전이에요, 이 부처님 법이. 그렇게 빠른 것인데 왜 걱정을 하느냐 이겁니다. 아직도 착이 떨어지지 못해서 그러죠.

나 하나 버리면 그뿐인데 뭐 거기에 더 붙을 게 있습니까. 욕심도 삶도 아무것도 거기 붙을 게 없어요, 내 몸 하나 던지면. 이따가 죽는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가다 죽는다 해도 상관없다. 거기서 알아서 해라. 있다 가다 죽이든지 집에 가서 죽이든지, 조금 더 살다 죽이든지 아주 살려 놓든지, 금방 이 자리에서 죽여 주든지, 죽이고 살리는 건 너한테 달렸다 하고 탁 놔 버려라 합니다.

佛紀 2558年 甲午年 Buddha's birthday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문화체육관광부 허가 141호

회장 일정 스님 사무총장 수완나 스님

이사 범홍 스님 금강성 스님 보덕 스님

회원종단

대한불교삼학종(대표:일정스님)
세계불교세심종(대표:범홍스님)
대한불교해인상조(대표:일정스님)
미륵불교조계종(대표:보덕스님)
한국불교석가종(대표:파안스님)
전통사찰정법사(대표:서운스님)
세계승가회(대표:뿐냐산또)
용화세계미륵종(대표:금강성스님)
대한불교불이종(대표:도우스님)
법신불교찰해종(대표:범해스님)
적멸보궁동화사(대표:설원스님)
연화불교진일선종(대표:진일스님)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 : http://www.omnana.net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중앙사무국 (전화 : 031-753-7377)

부처님오신날
불자 세상보기

아픔 딛고 대한민국을 다시 설계하자



송석구
前 동국대 총장,
前 사회통합위원장

"웃고 나가더니 왜 이렇게 돌아왔니. 추웠지? 무서웠지? 엄마한테 와"

엄마의 이 한마디가 우리 모두의 말이다. 아이는 여행을 떠나면서 얼마나 가슴 설레고 기뻐 했을까. 그런데 이제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온 아이를 보았을 때 엄마는 그저 가슴에 안고 싶은 모정뿐이었다. 이제 눈물도 말라서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 내 자식의 일이요 나의 일이다. 이렇게 가슴이 메어지고 한숨만 쉬어지는 것은 그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만 먹은 사람의 미안함일까? 정말 너희들에게 미안하다. 이러한 나라를 만들어 준 것이 정만 미안하다.

천재라면 모르지만 일정한 인재가 있지 않는가? 우선 바다를 잘 알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선장과 선박직 선원들이 승객을 남겨두고 그들만이 제일 먼저 구명보트에 타고 생존에 필사적이었다는 것에, 같은 나이먹은 어른으로서 마치 내가 저지른 일 같이 가슴이 미어지는 참괴감을 느낀다. 우리세대의 사람들이 겨우 이 정도의 도덕의식과 책임감 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가? 너무나 나 자신이 비굴해 진다.

우리세대는 2차전쟁을 겪었고 6.25를 경험했다. 그리고 월남전쟁도 참전했다. 그리고 산업화 민주화를 거쳐 100% 행복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국가도 세계 10대 무역국가의 하나가 되었고 G20에 드는 나라다. 국민 일인당 소득도 15,000달러를 넘어 30,000불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IT 강국이요 자동차 수출 세계에서 다섯번재의 나라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선진국이라면 무엇보다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가치와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가도 존립하고 국가, 사회 모든 제도와 안전망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무늬만 선진국형이지 내용은 너무 공허하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참담과 자책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고칠 것인지 반성해야 한다.

그저 국가를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이웃을 탓할것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하여 내가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곰곰히 절실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민족은 역사적으로 900회 이상의 외침을 받아 왔지만 그 외침을 극복하고 살아난 민족이다. 근세만 하더라도 일제식민지를 이겨내고, 냉전의 이념의 울타리에서 남 · 북이 갈라지고 외세에 의한 북한의 남침에 의해 아직도 전쟁중인 휴전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4.19, 5.16을 통해 민주화와 산업화의 과정을 거쳤다. 5.16이후 민족 중흥이라는 기치하에 보릿고개를 없애기 위해 산업화를 시작했다. 그 산업화기에 전 국민이 열심이 일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민주화가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고, 민주화 열망세력과 산업화 세력간에 부단한 갈등이 이어져 왔다. 민족자본이 없었던 우리는 산업화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이루어 졌고, 그 가운데 부정부패와 배금주의 사상이 뿌리 내렸고 핵가족으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주의가 일부 상실되기도 하였다. 산업화 세력은 독제세력과 결탁되고 민주화 세력은 민중과 인권 세력으로 통일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깊어졌다. 계층, 이념, 세대, 지역의 갈등은 국가발전의 큰 장애가 되기도 하였다.

산업화로 금권만능주의 팽배
세월호 선주, 산업독재 수혜자
무너진 가치관 바로 세워야

우리국민은 무엇을 보고 살았던가? 산업화 독재 시대에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만연을 보았다. 민주화가 되면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재벌들을 처벌하였으나, 경제발전의 기여를 참작하여 국가에 재산 일부를 헌납하고 모두 풀려 나왔다. 이때부터 국민들은 돈이면 모든죄도 용서 받는다는 배금주의가 싹텄고 그 배금주의는 금권만능주의로 전환되었다. 국민 의식의 주체가 민주화에서 가장 필요한 인간중심 인간가치의 인격과 자존심이 망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인간의 기본 가치인 생명존엄과 평등, 자기자존은 금력앞에 무력해 진 것이다. 이러한 의식이 바로 오늘과 같은 참사를 초래했다. 세월호의 실질적인 선주가 바로 산업화 독재 시대의 대표적인 금권주의 대부로서 다시 태어나 그러한 의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다 결국 이러한 참사가 일어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제 산업화시대의 모든 부정적 잔재가 사라지고 진정한 대한민국의 모습이 보여진다.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 양은 22살의 나이로 어린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자기는 마지막까지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채 희생하였다.

또 16일 사고당일 진도군 조도면 청년회장 정순모 씨는 청년회원들에 전화와 문자를 날려 어민 100여명과 40여척의 배로 바다에 떠 있는 학생들을 구했다. 또 단원고 2학년 담임 남윤철 교사는 기우는 선실 비상구에서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던져주고 선실 밑으로 내려가 제자를 데려오다가 결국 빠져나오지 못했다. 박호진 군은 쓰러진 자판기에 끼여 있던 다섯살 여자아이를 안고 나와 아이부터 구명보트에 던졌다. 그것뿐이랴. 희생자 또래들은 전국적으로 위문품과 위문편지를 보내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이 10,000명도 넘게 모여 희생자 및 그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우리는 이 차제에 대한민국의 룰을 다시 짜는 기회로 삼고, 국민들도 자책과 망연자실만 할것이 아니라 무너진 가치관 기본의식을 바로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고 그 법을 훈련하는 국민으로, 법 앞에 바보가 되는 국민으로서 다시 탄생해야 한다.

구조자들의 쾌유와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빈다. 나무아미타불

社說

세월호 슬픔 나눈 '동체대비' 연등회

지난 4월 26 · 27일 양일간 열린 연등축제는 과거와 달리 경건하고 엄숙하게 진행됐다. 지난 4월 16일 진도 앞바다서 일어난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때문이었다. 이웃의 아픔을 껴안으라는 동체대비의 부처님 가르침처럼 세월호 여객선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실종자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발원도 담겨졌다.

서울 동국대운동장서 4월 26일 열린 어울림마당(연등법회) 식전행사는 희생자들을 위한 천수경 독경과 석가모니불 정근, 실종자들의 생환을 기원하는 축원의식 등으로 진행됐다.

연등법회에서는 국민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무관심과 이기주의를 버리며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를 위해 모두가 함께 기원하자는 발원문도 발표됐다.

연등법회의 하일라이트였던 동대문서 종각사거리까지 행진하는 연등행진 역시 추모 분위기 일색이었다.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커다란 흰색 장엄등과 실종자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적색 장엄등을 필두로 300여 스님들이 백색등을 들고 행진했다.

매년 보였던 흥겨운 풍물과 화려한 음악 사용은 금지됐다. 장엄등에도 추모의 상징으로 백색등을 추가 했다. 참가자들은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희생자와 실종자들을 위해 기도 행진을 했다. 희생자를 위한 성금 모금과 가슴에 추모리본도 착용했다.

봉축위 관계자에 따르면 연등회가 중요무형문화재 제 122호 전통문화 행사이지만 불자와 국민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기원의 장으로서 슬픔에 빠진 국민들을 위한 연등회로 진행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것이 이 사바세계에 부처님이 오신 동체대비의 구현인 것이다. 우리 불교계도 이번 부처님오신날 표어인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처럼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상생의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길 기대한다. 그것이 바로 동체대비다.

비리의혹 종교집단은 '성역' 아니다

세월호 사건과 더불어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前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부실 경영과 부정 축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 前 회장 일가의 재산은 국내 계열사와 해외 법인, 부동산을 포함해 약 2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前 회장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이하 구원파)의 목사로 '오대양 자살 사건' 배후로 지목받았던 인물이다. 유씨 일가는 지금도 구원파에게서 물심양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구원파 교회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말하면서 특정인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교회를 압수수색했다"며 "이는 있을 수 없는 종교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유 前 회장이 이끄는 구원파를 개신교 측은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다. 물론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구원파는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 前 회장은 교회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건강 식품을 강매하고 유령 회사를 통해 공금을 유용했다. 종교를 사업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믿음을 이용해 혹세무민하는 사례는 역사적으로 비일비재하다. 1900년 평안남도 영변에서 전정운이 세운 백백교는 "동해에 신선의 땅이 새로 생기고 그곳에서 불로장생하게 해주겠다"고 설교하며 신도를 모았다. 하지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고 반대 신도들을 살해한 후 숨었고 여인 60명을 거느리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 병으로 죽었다. 교주와 측근들에게 살해당한 사람만 450여 명이 넘는 희대의 살인 집단이다.

유 前 회장은 "나의 사업이 곧 하나님의 사업이다"며 신도들의 돈을 모아 거액을 갈취한 전과가 있다. 국어사전은 사이비를 '비슷한 듯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주 다른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민을 비통하게 한 세월호 참사. 그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이 유회장 일가와 종교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종교집단이라도 성역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SNS는 지금
세월호 아픔 함께 하는 연등회

불기 2558년 연등회 연등축제가 숙연하고 경건하게 회향됐다. 올해 연등회는 축제보다는 애도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많은 국민들이 이에 동참했다. 트위터에 올라 온 네티즌들의 반응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하얀 연등, 노란 리본… 국민의 마음입니다

행진하는 분들의 연등엔 극락왕생, 무사기환 등의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대부분이다. 또한 노란 리본을 달고 있다.
〈트위터 @179HUNee〉

어머니와 저녁 먹고 나왔는데 연등행사해요. 이번 세월호 사건 추모와 함께 해서 대부분이 흰색 연등과 노란색 연등, 노란리본. 〈트위터 @akabebeyj〉

연등회 보세요. 눈물납니다.
〈트위터 @kumazaki48〉

하얀 연등, 손에는 노란 리본. 순간 울음이 울컥 나왔다.
〈트위터 @lie_feeling〉

끝없는 추모 인파. 이것이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트위터 @kgy72〉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오늘 오후 열린 연등회는 세월호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천도의식과 추모재를 중심으로 경건하게 치러졌습니다.
〈트위터 @Godblf〉

오늘이 연등행렬이었구나. 축제같던 예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아아…
〈트위터 @k_aquinas〉

연등회. 깃발마다 글귀가 적혀있었다. '어른들이 미안하다', '보고싶다' 무심코 읽다가 너무 아렸다. 연등에는 노란 리본이 달려있었다.
〈트위터 @dalcomsweet00〉

연등회. 순간순간 괜히 눈가가 시큰했다. 연등도 사람도 아름다웠다.
〈트위터 @luxiayue〉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대한불교원효종

佛紀 2558年 甲午年 Buddha's birthday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원 로 원 장 **성해** 고 시 원 장 **태 운**
중앙종회법규위원장 **지호** 법규위원 **상경. 도명. 해천. 상우**
원로위원 **금봉. 법성. 진덕. 옥운. 운영**

총무부장 **능인** 규정부장 **상도** 사회부장 **상천** 재무부장 **상화**
총무국장 **상일** 교육부장 **선법**

서울종무원장 **진산** 충북종무원장 **대원** 전북종무원장 **운학**
부산종무원장 **상도** 전남광주종무원장 **선법** 경기인천종무원장 **진성**
대전종무원장 **일륜** 경남종무원장 **상정** 울산종무원장 **각초**
제주종무원장 **법운** 강원종무원장 **능인**

비 구 니 회 장 **명관** 부회장 **상진. 해진**

임시종정 겸 총무원장 **향운** 종정 **무진 대종사**

외 임원 및 종도 일동

봉 축 사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종정 겸 총무원장
향운

스스로 존재의 의미도 모르고 삶의 지향도 찾을 수 없었던 중생들은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궁극적인 삶의 지향이자 목표인 세상 삼라만상이 서로 밀접한 연관 속에서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고, 늘 주변에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이웃들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열고, 또한 서로 시기, 질투하지 않고 먼저 남을 배려하는 커다란 양보의 미덕을 기르는 불자님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세월호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하옵고,
실종자 전원 무사생환을 기원합니다.**

울산사무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선필로 122 대한불교원효종
전화 052)262-6857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2558

BUDDHA'S BIRTHDAY

부처님 오신날

만가지 꽃이 피고 만가지 열매 익어
온 세상 두루두루 부처님 향기 가득하네

주지 혜 원

사부대중 일동

국내지원

- 광명선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4구 산5-2
  TEL(043)877-5000 FAX(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1500
  TEL(064)727-3100 FAX(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522-1
  TEL(051)403-7077 FAX(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201-5
  TEL(062)373-8801 FAX(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TEL(052)295-2335 FAX(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TEL(053)767-3100 FAX(053)765-1600
- 중부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하계로 35
  TEL(055)345-9900 FAX(055)346-2179
-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055)746-8163 FAX(055)746-7825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신영3리 152-3
  TEL(041)852-9100 FAX(041)852-9105
-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현동 13-1
  TEL(054)232-3163 FAX(054)241-3503
- 청주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95-7
  TEL(043)259-5599 FAX(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04
  TEL(033)651-3003 FAX(033)652-0281
- 통영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도천동 113-3
  TEL(055)643-0643 FAX(055)643-0642
- 목포지원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952-19
  TEL(061)284-1771 FAX(061)284-1770
- 문경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 449번지
  TEL(054)555-8871 FAX(054)556-1989

국외지원

- 미국 뉴욕 플러싱지원(NewYork)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1-718)460-2019 FAX:(1-718)939-3974
- 미국 워싱톤지원(Washington D.C.)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1-703)560-5166 FAX:(1-703)560-5166
- 미국 로스엔젤레스지원(Los Angeles)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1-323)766-1316 FAX:(1-323)766-1316
- 미국 시카고지원(Chicago)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1-847)674-0811
- 캐나다 토론토지원(Toronto)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1-416)750-7943 FAX:(1-416)981-7815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Buenos Aires)
  Miró 1575, CABA, C1406CVE, República Argentina
  TEL:(54-11)4921-9286 FAX:(54-11)4921-9286
-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Tucumán)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ucumán,
  T4107CHN, República Argentina
  TEL:(54-381)425-1400
- 독일지원(GERMANY)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49-2131)969551 FAX:(49-2131)969552
- 태국지원(THAILAND)
  86-1 soi 4 Ekkama,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인터넷전화:(070)8258-2391 TEL:(66-2)391-0091
- 브라질 상파울로지원(Brasil)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
  01127-000 - Brasil TEL:(55-11)3337-5291

자성의 불을 밝히는 생활 속의 참선수행도량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T)031-470-3100 F)031-470-3116

www.hanmaum.org

불교, 포교만이 살 길… "전도선언 상기하자"



그림 · 박구원

포교, 사부대중의 의무

"조선불교가 유린된 원인은 세력이 부진한 탓이며, 세력의 부진은 가르침이 포교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 〈중략〉 조선불교 중에 소위 설법이라는 것이 약간 포교의 성질을 띠고 있다 할 수 있으나, 그 설법하는 바가 절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취지가 천박하고 잡박하여 하나도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가치가 없는 형편이다. 그나마 이 외에는 따로 포교라는 것이 존재치 않는다. 〈중략〉 교리가 불교의 1만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종교도 악착스레 활약하여 그 뜻을 펴고 있는데, 현묘광대(玄妙廣大)한 불교 같은 종교로서 어깨가 처지고 머리가 움츠러져 기를 펴지 못하고 있으니 누구 탓인가."

이상은 만해 한용운 스님의 명논저 〈조선불교유신론〉 중 당시 불교 포교 상황을 비판하는 부분이다. 100년이 지난 이야기이지만 오늘의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정도다. 어느 때보다 재화가 풍부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지만 한국불교의 포교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토로도 적지않다.

현재 한국불교의 위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신도 현황이다. 정부가 10년 주기로 조사하는 종교부문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1985~1995년 종교 인구가 8.1% 증가한 상황에서 불교, 가톨릭, 개신교 모두 고르게 신도를 늘렸다. 하지만 1995~2005년에는 종교 인구가 2.6%가 느는데 그쳤으며, 가톨릭만이 신도 수와 비율이 증가했다. 개신교는 인구 대비 비율과 신도가 모두 감소했고, 불교는 신도 수는 증가했지만, 비율 소폭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불교는 정체, 개신교는 침체, 가톨릭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표1 참조〉**

실제 가톨릭은 2003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 자체 통계로 544만여 명이 신자로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1.5%의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부실한 불교 내부 '결속력'

꾸준한 신도 유입은 종교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위의 통계를 감안했을 때 불교의 상황은 '청신호'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이 같은 외부 상황보다 문제인 것은 내부 환경이다. 불자들의 가지는 소속감과 신앙적 만족도가 저조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2011년 발표한 '한국의 사회문화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신앙생활의 만족도를 질문에 불자의 38.5%만이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가톨릭은 53.5%, 개신교는 58.1%가 만족함을 나타냈다.

자기 종교의 소속감에 대해서는 개신교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유했다. 개신교는 57%, 가톨릭은 37.2%가 "소속감이 강하다"고 밝혔으나 불교는 16.3%만이 강한 소속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소속감이 약하다"는 답변은 불교(25.8%), 가톨릭(18.6%), 개신교(11.4%) 순으로 높게 나왔다. **〈표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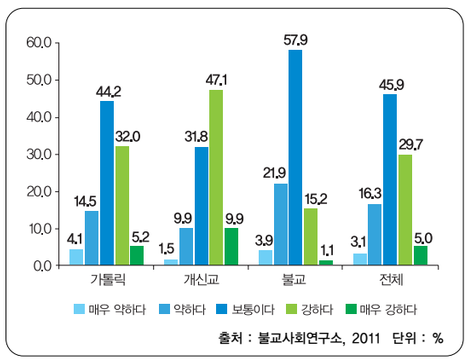
신앙생활의 만족도가 낮고, 자기 종교에 대한 소속감이 낮다보니 포교 활동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평소 전법활동을 묻는 질문에 개신교는 21.5%, 가톨릭은 4.7%가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반면, 불교는 0.8%만이 포교를 시도했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통계에 대해 박수호 덕성여대 지식문화연구소 교수는 "종교생활에 대한 낮은 몰입도는 신앙심이나 불교에 대한 소속감, 신앙생활에 대한 만족도 등을 낮추는 데도 깊이 연관된다"면서 "종교생활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불교의 주관적 종교 경험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표1〉 인구센서스에 따른 종교인구 변화

	1985		1995		2005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인구	비율(%)
전체	17,203,296	42.6	22,597,824	50.7	24,970,766	53.3
불교	8,059,624	19.9	10,321,012	23.2	10,726,463	22.9
개신교	6,489,282	16.1	8,760,336	19.7	8,616,438	18.3
천주교	1,865,397	4.6	2,950,730	6.6	5,146,147	11.0
기타	788,993	2.0	565,746	1.3	481,718	1.0

〈표2〉 종교에 대한 소속감



출처 : 불교사회연구소, 2011 단위 : %

불교, 신자 소속감 최하 수준
재가자 '포교 시도' 응답 0.8%
불교 인구 정체… 가톨릭 상승

한국불교 포교, 일부 원력 의존
재가불자는 '스님 할 일'로 치부
스님은 '수직적 관계 맺기' 일관

사부대중 나서야 포교 미래 밝아

의지부재 · 안일함, 포교 걸림돌

신도 수는 정체이고, 내부 결속력도 낮은 불교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은 포교 시스템을 본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불교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것 바로 '포교'다. 이는 20세기 초 만해 스님 당시에도 지적돼 온 것들이다.

적지 않는 전문가들은 한국불교 포교의 문제점은 외부적 요인보다 내부적 환경에 기인하다고 지적한다. 아직도 일부 스님의 원력으로 한국불교 포교가 운영되고 있고, 사찰만 세우면 저절로 포교가 될 것이라는 안일함도 팽배해 있다.

이에 대해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는 〈전법학 연구〉에 기고한 논문에서 "열심히 수행하다보면 포교는 원하지 않아도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아직도 적지 않다"면서 "다수의 스님들은 적극적인 포교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포교 인력과 전문가들을 길러내지 못했고, 포교 의지는 낮아졌다. 재가불자들 역시 포교는 "스님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여기에 재가불자들과 스님들의 관계 설정이 상하 수직적 관계로 유지되는 것도 간극을 벌이지게 하는 요인이다. 재가불자들의 포교 경험에 대한 응답률이 0.8%에 그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일선 활동가는 "한국불교의 포교 상황과 문제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알면서도 해결하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포교 의지가 부재한 것이 한국불교의 최대 난제"라고 비판했다.

불교 포교의 근본 '전도 선언'

불교 포교의 당위성과 방법, 방향을 총체적으로 집약한 것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도 선언'이다.

"비구들아, 전도를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전도선언은 전법의 주체, 목적, 이념과 대상, 포교사의 자세, 단계까지 자세히 이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포교의 주체는 비구이고, 궁극적 목적은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며, 그 정신은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데'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해서 불교의 전법의 목적은 단순히 신도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상구보리를 통해 하화중생을 하는 것이며, 타인을 고통에서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깨달음의 법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법의 주체가 누구냐가 가장 중요하다. 부처님은 45년간 인도 전역 걸으며 전법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그 전법활동에는 아라한 경지에 오른 부처님 제자인 '비구'가 함께 있었다.

여기서 '비구'를 지칭함은 '사부대중'을 대표하는 것으로 비구만이 전법의 주체로 보는 것은 아니다. 교단을 이끈 중요한 주체로 비구 승가가 중요한 것은 두루 사실이나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가 포교의 의무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며, 중생교화라는 불교의 목적은 사부대중에게 부촉된 것이라는 것이다.

백도수 능인선원 불교연구소 연구위원은 '전법의 이념과 현대적 전개' 제하의 논문에서 "부처님의 전법과 역사적 과정을 통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출가자를 위한 전법"이라며 "이와 함께 재가자에는 불교수행과 실천을 통해 진정한 전법에 이를 수 있도록 질 높은 전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응철 교수는 "전도 선언의 내용 속에는 현대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교육, 조직, 복지, 문화, 수행 포교 등의 원리가 함축돼 있다"면서 "매우 짧은 내용이지만 과거, 현재, 미래의 포교 이념과 방법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의지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가 여러분의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가족처럼 템플스테이는 항상 여러분 곁에서
행복의 등불이 되겠습니다

facebook facebook.com/templestay | blog blog.templestay.com | TEL 02. 2031. 2000~2 | www.templestay.com

포교 제언 6題

한국불교는 정체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는 것은 포교와 전법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포교 전략과 종책 개발은 시급하다. 본지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시대에 맞는 포교 제언에 대해 분석했다. 〈편집자 주〉

계층 분화·트렌드 변화 등 대응 필요… 대책 수립 시급

① 한국불교 포교 계층을 개발하자

일반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계층'은 재산·지위·신분 등 객관적 조건이 동일한 사람들의 집단화 한 것으로 사회적 성층(成層) 등과 함께 사회구성을 밝히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이다.

한국불교도 동일한 조건의 사람들을 계층으로 묶어내 포교를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계층 포교는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계층을 비롯해 △경찰, 군대, 교정 교화 등 특수층 △ 직장을 중심으로 한 직장 직능 등으로 나뉜다. 최근에는 조계종 포교원에서 각 계층별 전법단을 구성해 포교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불교가 계층 포교에 역점을 두고 체계적인 전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족한 부분도 존재한다. 계층 분화 등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를 읽어내고 연구해 포교에 적용하는 연계 작업이 잘 보이지 않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1인 가구'이다. 2013년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5.3%에 달했다. 4가구 중 1가구가 1인 가구라는 뜻이다. 이는 전체 가구에서도 가장 큰 비중이다. 1인 가구로 인한 소비 패턴 변화 등은 이미 마케팅에 적용되고 있는 수준이다. 실제 부동산에서는 오피스텔 등 도시형 생활 주택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소형 세탁기 밥솥과 같은 미니 가전, 낱개로 포장된 과일과 채소 등을 이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자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 다인(多人) 가구보다 소비 규모가 크고 특히 정서적 안정을 중시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시 말해 1인 가구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줄 수 있는 포교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계층의 요구들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포교 전략과 조직들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이 한국불교의 직면한 관제 중 하나다.

이런 부분에 가장 기민하게 대처하고 있는 종교는 개신교이다. 이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1월 13일 개최한 '타겟(Target) 2030-한국 선교 미래 25년 계획' 3차년도 발표를 보면 알 수 있다.

'타겟 2030'은 지난 2006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를 5년씩 구분하고, 각 5년마다의 구체적 계획을 6개의 전문 선교 영역으로 나눠 수립한 것이다.

현재 이들은 △이론 연구: '타겟 2030'에 적합한 이론 개발, 한국선교학 개발 △훈련 파송: 세대별, 계층별 다양한 훈련 시

1인 가구 급증 등 사회 변화
대비 미흡… 사각지대 생겨

스템 개발, △선교 행정: 효율적인 선교 시스템 개발 및 적용 △전략: 전방개척 전략 개발 활성화, 문화선교 콘텐츠 개발 △동원 홍보: 지역교회 선교 체질화, 세대별 다양한 계층 선교사 자원 개발 △지원 분야: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강화, 지원 분야 선교사 발굴 등을 계획으로 삼고 활동하고 있다.

당시 발표를 맡았던 선교사는 진행 상황에 대해 "목표를 위한 영역별 전문가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포교도 끊임없이 대상 계층을 세분화하고 개발해야 하며, 트렌드에 맞는 니즈들을 찾아내 적용해야 한다. 그것이 포교 성공의 초석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12년 조계종 전법단 출범 2주년 기념 세미나 및 기념법회 모습. 계층 포교를 위한 포교 자원 개발은 꾸준히 이뤄져야 할 숙제이다.

'도심 포교 공동화 줄이기' 힘쓸 때

② 한국불교, '도시 변화'에 주목하자

현재 한국 사회의 '도시화'는 분명히 현상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신도시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세종시로 대표되는 지방 신도시들도 관심을 받고 있다. 기존 도시 내에도 재개발 사업으로 새로운 용도 지구들이 만들어진다. 도시는 꾸준히 변화한다.

하지만 한국불교는 도심에 취약점을 보인다. 인구 절반 가량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도심 포교는 꼭 선취해야할 황금 어장이다.

이에 괄목할 성과를 보이는 곳이 가톨릭이다. 가톨릭 사목연구소가 내놓은 2013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서울대교구의 신자수가 한국 가톨릭의 27.1%를 자치하며, 수도권 교구를 모두 합치면 전체 신자의 56.1%로 그 수는 300만 명에 달한다.

또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종교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가톨릭은 1985년 6.3%에 불과했던 신자가 1995년에는 8.4%로, 2005년에는 13.4%로 증가했다. 반면 불교와 개신교 모두 2~3% 정도 수도권 지역 신자가 줄어들었다.

현재까지는 불교의 종교인구 점유율이 한국 종교 가운데 가장 높지만 수도권에서는 역전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년 간 개신교와는 8%가량 격차가 벌어졌고, 가톨릭은 2% 밑으로 쫓아왔다.

이 같은 열세는 서울의 중산층 이상 밀집 거주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양천구를 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거주자의 자산규모와 교육 및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이들 지역

수도권 거점 사찰 지정 시급
현실에 맞는 교구 분구 필요
신도시 종교용지 확보 노력도

에서 불교는 3대 종교 중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문제점은 현재 불교계가 분명 인식하고 있는 사실들이다. 그나마 최근 조계종?천태종 등이 세종신도시에 종교 용지를 매입해 사찰 건립을 잇달아 추진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조계종의 경우 위례 신도시에도 종교 용지를 마련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이충재 세종시 건설청장 등이 세종시 종교부지 매입 계약이 확정된 뒤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조계종이 매입한 종교용지 전경. 신도시 포교를 위한 종교용지 매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도시 종교용지를 확보해 사찰과 포교당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는 2012년 발표한 '수도권불교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수도권 불교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1994년 개혁 이후 조계종이 수립한 수도권 포교정책, 넓게는 종단 전체의 포교정책, 근본적으로는 지역 특성을 잘 반영하기 위한 교구자치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수도권 사찰들은 하나의 단위로 묶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지 못한 채 파편화한 사찰들이 각자도생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사실 '도시 변화'에 따른 불교의 포교 전략은 이미 선행 연구들과 이에 따른 제안들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의 경우 수도권 불교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백 지역 최소화를 위한 명확한 교구 획정 △직할교구 세분화 △직할교구 행정조직체계 확립 △교구종회 활성화 등을 내놨다. 특히 연구소가 제시한 직할교구를 강남과 강북, 인천으로 분구하는 방안은 심도 있게 고민해볼 문제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불교미래사회연구소도 2011년 발표한 '수도권 포교 공동화의 현황과 대처방안'에서 △중앙과 교구본사 차원의 포교 거점 사찰 건립 △수도권 사찰 지역연합회 구성 △현행 직할교구 재편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불교 공동체 정신 복원 지역사회와 소통 나서야

③ 사찰, 마을 공동체 중심으로 거듭나자

물질만능주의와 과다경쟁으로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이러한 시대 상황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적인 삶으로 공동체 운동이 주목받고 있다.

사실 한국불교는 공동체적인 모습을 많이 갖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신라시대 이후 신앙공동체인 향도(香徒)와 고려시대 승도(僧徒)에서 공동체적 전통을 찾아볼 수 있으며, 사찰은 오래 전부터 사하촌을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산업화 이후 이런 전통이 사라지면서 공동체의 복원을 통해 한국불교가 내외적으로 건실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의 지역공동체 사업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대표적으로 △백담사 마을기업 △'아시아밝음공동체' △마을기업(주) 행원 등이 있다.

설악산 백담사 아래 위치한 용대 2리는 사찰의 지역공동체 확산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마을기업이 생기기전, 주민들의 살림살이는 인근마을보다 좋지 않은 편이었다. 백담사는 어려운 마을의 공동체 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버스 사업권을 넘

사회적 기업·협동 조합 등
현대 공동체 설립 주도 필요
백담사 등 괄목할 성과 보여

겨주었고, 주민들은 2011년 '용대2리 주민백담마을 영농조합법인'(백담마을기업)과 '용대향토기업' 등 2개의 마을기업을 출자 해 만들었다. 그 결과 백담마을기업은 2013년부터 지역특산물인 황태와 마가목



백담사는 어려운 마을의 공동체 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버스 사업권을 넘겨 2013년 1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판매장을 운영해 매출 4억원을 올렸으며, 용대향토기업은 백담사와 마을간 버스를 운영해 2013년 1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처럼 백담마을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백담사 주지 스님과 지역주민의 상호 헌신적인 역할과 함께 마을총회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나누었기 때문이다.

(주)행원은 광명시 금강정사에서 운영하는 복지법인에 속한 마을기업이다. 행원은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전통적인 방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일반시민들에게 밑반찬 및 김치, 장류, 웰빙 도시락 등을 판매하는데, 이러한 일들을 통해 경력 단절여성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 밝음 공동체'는 2008년 비영리 민간단체로 시작해 2012년 광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단체로, 지역의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했던 광주 길상사 도제 스님의 역할이 컸다. 주로 '다문화 컨텐츠'를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다문화가족을 위해 중국, 베트남, 일본, 몽골 등 이주민전래동화책을 매년 출판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초중등학교에 다문화교육 및 동화구연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2세들과 광주시 거주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오색종이 합창단은 난타공연으로 노인관 및 요양원에 무료공연을 펼치고 있다. 이나은 기자

佛紀 2558年 甲午年 Buddha's birthday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대한불교 통합선교종

총무원장 삼주 이사장 성각

원로의장 용암
원로부의장 명종
원로간사 법운
원로위원 법헌. 화엄

종회의장 해동
종회부의장 보각
경기남부종회의원 도원. 일성
경기북부종회의원 지산
경북종회의원 법연. 일운
전남종회의원 자각. 지산. 지현
충북종회의원 도천
충남종회의원 상원
제주종회의원 동해. 혜공
부산종회의원 재성
대전종회의원 정원
전북종회의원 성각

교육원장 보월
포교원장 지현
감사원장 성일
선거관리위원장 재성
총무부원장 상원

총무부장 광은
교무부장 법광
재무부장 정원
포교부장 동해
사회부장 진성
홍보부장 보적
규정부장 혜명
비구니회회장 보현
비구니회부장 연수
자비실천나눔회장 광명심
봉사위원장 청정심
봉사부장 수연
조직위원장 문상철
문화부장 연화

총무국장 도천
교무국장 송암
재무국장 보성
교육국장 혜공
포교국장 삼규
사회국장 정수
홍보국장 도화

경기남부종무원장 일성
경기북부종무원장 지산
경북교구종무원장 법연
전남교구종무원장 지현
전북교구종무원장 성각
충남교구종무원장 상원
충북교구종무원장 도천
제주교구종무원장 동해
대전교구종무원장 정원
부산교구종무원장 재성
대구교구종무원장 보각

■ 총무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세종로 4928번지 2층 전 화 041)566-2277. 566-2278 팩 스 041)566-6141

포교 제언 6題

도·농 양극화 해소하고 지역 발전 중심으로 발돋움

④ 도-농 사찰 상생해야 한국불교가 산다

전문가들은 도-농 사찰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사찰은 도심사찰과 접근방식이 달라야 한다고 말한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숲을 활용한 체험교육, 전통문화체험 등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전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찰은 직접 농어촌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주민으로서의 역할을 해내야 하고, 그러한 역할 속에서 사찰 주지 스님이 마을 주민들의 리더가 돼 지역주민과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농촌 포교활성화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사찰로는 오대산 월정사, 공주 영평사, 당진 정토사, 봉화 관음사, 강화 선원사, 구례 화엄사, 지리산 실상사, 남원 귀정사 등을 들 수 있다.

각 사찰들의 역할 유형으로 보면, 일반적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복지사업 외에 도농교류형으로는 친환경공양미운동, 불교생협운동, 귀농운동 등에 동참하는 사찰이 있고, 대중적인 명상 · 수행 프로그램과 마을활동가 양성 등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는 사찰도 있다.

당진 정토사는 도농교류와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찰이다. 기독교 · 천주교 성지인 당진에서 10여 년간 지역 어르신을 위한 효도잔치를 열어 사찰 인지도를 쌓은 정토사는 당진시립요양원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보수적인 사상이 강한 충청도 시골마을에서 요양원 개원 1년 만에 입소자 정원 100명

지방 사찰, 지역주민 역할해야
친환경 농산물 생산 협약 맺고
도시 사찰이 소비 '윈-윈 전략'

을 채울 수 있었던 것은 정토사가 10여 년간 노인포교에 주력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정토사 주지 선오 스님은 "타종교의 세가 강한 당진에서 지역민들의 조소와 외면 등으로 많은 서글픔이 있었지만 10년간 효도잔치를 해온 덕분에 주위 많은 어르신들이 정토사와 불교에 대해 좋게 생각해주셨다"고 설명했다.



2006년 도선사에 진행된 친환경 공양미 협약식. 도농 간의 상생을 도모하는 좋은 방안 중 하나다.

또한 정토사는 사찰 인근의 땅에 백련(白蓮)을 심고 연구를 시작해 백련냉면, 연근가루, 연씨, 연잎차 등 백련을 이용한 음식을 개발해 지역특산물로 판매하고 있다. 이를 통한 일거리 창출도 발생해 종사자 30명 중 절반이 불교로 개종하는 성과도 얻었다.

지리산 실상사도 농촌 포교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실상사 스님들의 결사운동으로 출발한 '선우도량'은 출재가를 아우르는 인드라망생명공동체로 발전해 실상사귀농학교, 실상사작은학교, (사)한생명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발판을 만들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담당하는 한생명은 초기 생태농업센터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친환경농업교육을 하면서 친환경 농업을 보급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사찰과 친환경 농장을 연결시켜주는 '친환경 공양미 올리기' 운동을 2004년부터 펼치고 있다. 친환경 공양미 운동은 사찰 신자들이 비료나 농약, 제초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무농약 또는 유기농 쌀을 공양미로 부처님 전에 올리면 사찰은 이를 대중공양이나 복지시설, 저소득층 지원 등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밖에 108산사순례기도회는 농 · 어촌 포교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농촌사랑 운동을 펼치는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다.

순례단은 도시와 농 · 어촌 간 사랑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지역으로 순례를 갈 때마다 지역민들이 직접 재배한 농 · 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밖에 다문화 가정 108인연 맺기를 실천해 다문화 포교에도 전념할 뿐 아니라 농어촌 자녀들에게 108효행상을 시상하고 108선묵장학금 등을 통해 청소년 포교에도 힘쓰고 있다. 이나은 기자

포교 종책 이해 부족… 홍보에 주력해야

⑤ 포교 부서를 지원 · 개발 조직으로

한국불교의 대표 종단인 조계종의 포교종책을 담당하는 곳은 바로 포교원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소속된 종단 중 포교를 별원 조직으로 운영하는 종단은 조계종이 유일하다. 사실상 조계종 포교원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포교 종책 행정 기구이자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포교원을 보는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이는 지난해 11월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정무보고에서 중앙종회의원들의 지적을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중앙종회의원 법안 스님은 "포교원은 팔다리가 없고 머리만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벤트성 행사와 법회도 많다"면서 "위에서 종책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아무리해도 안되는 것은 교구를 살피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들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충고했다.

이제는 봉은사 주지로 임명된 원학 스님도 "일선 사찰 스님들의 포교 마인드가 변화할 수 있도록 포교원 스스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종법 장치를 종회에 올려야 한다. 현재 포교원은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봉합되기는 했지만 신도단체 등록을 놓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 일부 포교단체와 마찰을 빚었고, 신도 조직화 부문에서는 중앙신도회 현 집행부와도 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했다.

사실 포교는 당장 성과가 나는 부분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포교원도 지난해에만 전법단 2곳을 늘렸고, '사찰의 지역친화 포교방안 수립 연구보고서, 한글의례의식집(CD)을 완료해 보급했다. '응답하라 아바로' 어린이 유아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포교원 M-Library'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여기에 방대한 일상 포교 행정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같은 불만이 표출되는 것은 종단 포교 종책에 대한 이해와 홍보가 부족하고 현장에 대한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수렴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계종 포교원에서 지난해 개발한 포교 교재들. 상당한 양을 자랑한다. 이제는 종책 홍보에도 신경써야 할 시점이다.

다양한 포교콘텐츠 개발하고도
인식 미비… 일선 보급 방안 필요
포교원, '내실 다지기' 추진 중

포교위원이기도 한 중앙승가대 교수 본각 스님은 "포교원의 매뉴얼이나 포교 콘텐츠가 일선 사찰에 적용되기가 어렵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파악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래도 변화의 움직임은 포착되고 있다. 당장 올해 조계종 포교원은 '지역전법 중심토대 구축'을 기치로 포교 종책을 차분히 운영 중이다.

포교원은 올해 6가지 전략과제로 '지역별 포교역량 네트워크 구축 강화', '지역의 분야별 전법자원 발굴과 전문성 강화', '사회변화와 수요자 중심의 전법프로그램 개발 · 보급', '신도교육 내용 개선과 신도수행프로그램 개발', '신도품계별 신행활동 체계 개선과 품계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개발', '사찰 · 교구신도회 활성화를 통한 신도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대형 사업 대신 포교 내실화를 다지겠다는 것이다.

실제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불교는 사회적으로 갈등 해소와 국민화합의 조정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대변화에 맞춰 새로운 방향의 전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가장 우선적인 사업으로 지역중심 전법토대 구축을 모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관리보다는 종책 개발 · 지원 조직으로 내실을 다지는 포교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신도 교육·조직화 통해 불교 소속감 확대 필요

⑥ 한국불교 '열성 신도'를 늘리자

불교의 포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처님 법을 통해 중생을 교화하고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의 종교로 신도 수를 유지 ·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한 포교 목적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필요한 것은 기존 신도들의 '충성도'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고려될 문제다.

앞서 지적한대로 재가불자들의 소속감은 매우 미약하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의 2011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종교에 대한 소속감을 묻는 질문에 불자들은 16.3%만이 소속감이 있음을 밝혔다. 개신교의 57%, 가톨릭의 37%가 강한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신도들이 사찰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불사에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만드는 것은 소속감을 높이는 것이고, 이는 교육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대표적인 대형 도심 사찰들은 활발한 교육과 이를 통한 신도 조직화를 이루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찰은 소수가 참여하는 신도회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관태 경영컨설팅 산림(山林)대표는 '한국불교 신도교육의 역사와 지향' 제하의 논문에서 신도 교육의 첫 단추는 '불교학'이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한 '행복학'을 가르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대표는 "각 사찰의 불교대학은 대학 스타일의 교육을 벤치마킹해 운영하다 보니 불교학자를 양성하는 것인지, 바람직한 불자를 양성하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됐다"면서 "교육은 특정한 인간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며, 특정한 조직과 구성원으로 '소속'해 그 조직에서 부여하는 사명을 '실천'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도 교육은 한국불교와 종단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신도 교육과정이 성공하려면 '포교-교육-조직-실천'이라는 선순환구조 안에서 신도교육이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육된 신도들이 포교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유도해 불교계와 사찰의 '일꾼'으로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사찰과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보살행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 포교하는 선순환 구조 역시 선행될 과제로 꼽았다.

조계종 포교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도품계 제도는 교육된 신도들에게 일정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의미가 있지만, 이에 대한 성패도 이 같은 순환구조가 선행될 때 가능하다.

3대 종교 중 불교 소속감 최하
제대로 교육해 포교 인력 양성

김 대표는 "교육과정을 마친 신도들에게 사찰과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상장례 봉사나 청소년 지도 등 '일과 역할'을 부여하도록 해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교육을 통해 인재를 조직으로 묶어 실천 활동에 나서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게 성공적인 신도교육에 이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도 교육된 신도와 재가 포교사 양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강 스님은 2010년 발표한 '21세기 한국불교유신론을 제창한다'는 제하의 글에서 "고령의 출가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승려만이 포교를 한다는 생각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이 같은 고정관념을 버리고 일선에서 포교하고 있는 재가 포교사 양성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경산도량에서 공부 중인 불자들. 교육된 신도들을 포교 인력으로 활용해야 한다.

佛紀 2558年 甲午年 Buddha's birthday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
효찰대본산 龍 珠 寺
주 지 정 호
특 보 성 로
총 무 성 무
사 회 본 각
박물관장 보 승
기 획 인 해
포 교 중 원
연 수 대 현
재 무 응 진
호 법 성 유
신도회장 해인화


■부설■
효행교육원
템플스테이
효행박물관
용주사불교대학
www.yongjoosa.or.kr
경기도 화성시 용주로 136 (구. 송산동 188번지) 전화 031)234-0040 / 팩스 031)234-2818

佛紀 2558年 甲午年 Buddha's birthday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총림 동 화 사
총림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동화사
TEL : 053)982-0101~2 / FAX : 053)985-4405
www.donghwasa.net
〈 사회복지재단 〉
동화사자비원, 동원어린이집, 선우어린이집,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자비의 집

佛紀 2558年 甲午年 Buddha's birthday | 전면광고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 B4

"분별하여 이 몸을 살펴보라. 이 가운데 무엇이 '나' 인가?
만일 능히 이렇게 이해한다면 '나'가 없음을 통달하리라." 〈화엄경〉



모든 불보살님의 가피가 저 바다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아차산 영화사

(사)지구촌공생회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복지법인 나눔의 집
위 단체는 영화사에서 후원합니다

조실 송월주 스님
사부대중 일동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9번지
TEL 02)444-4321, 7215

대한불교조계종
청 계 사

회 주 대궁종상
주 지 성 행
신도회장 자비화
사부대중일동

- 청계사 부설 -
지적장애인생활시설 녹향원
의왕시립희망나래종합복지관

■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11번지
TEL 031)426-2348, 2221 / FAX 031)426-3666
http://www.chungkeisa.com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무형문화 유산
영산재 보존도량
한국불교태고종 총본산
봉 원 사

회 주 조석봉
주 지 마일운
부주지 최원허
총 무 조고담
교 무 전지암
재 무 김미산
사 회 박처명
기 획 이동훈
봉원사 대중일동

■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길 1번지
전화 02)392-3007~8
전송 02)393-9450
www.bongwonsa.or.kr

독성기도영험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삼성암

주 지 수봉 세민
사부대중일동

음력 초하루 신중기도
초 3일 독송기도
음력 16일 산신기도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산164-5번지
전화 02)988-9300,1996
www.samsungam.org

公益法人 大韓佛教華嚴宗
大本山 藥 師 寺

(약사 추모관 운영中)
회 주 화 담
주 지 화 응
부주지 대 휴
신도일동

財團法人 華嚴僧伽奬學財團
公益法人 大韓佛教華嚴宗奬學會
이사장 한상호(화응)

■ 인천광역시 남동구 풀무로 48
전화 032)429-4441

서울사무소 소장 양 위 찬

■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32-5(청진동,삼선빌딩406호)
전화 02)730-0798 / 전송 02)730-0799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회 주 진 관
주 지 계 호
사부대중일동

[부설] 보현정사 포교원 , 코끼리 유치원,
사회복지법인 진관무위원,
진관지역아동센터
불광노인복지관 · 불광데이케어센터
(사)진관사국행수륙재보존회,
진관사 산사음식연구소,
구파발 어린이집

■ 서울시 은평구 진관길 73
TEL 02)359-8410 / www.jinkwansa.org

대한불교조계종
승 가 사

주지 정호
신도회 일동

■ 서울시 종로구 비봉4길 213(구기동)
TEL 02)379-2996 / FAX 02)391-9975

부처님 오신 날
대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 미륵정토종
미륵정토사

사부대중 일동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389번지
TEL 041)855-3566~7

대한불교조계종
영 국 사

조실 월서
주지 청원
사부대중 일동

■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영국동길 225-35
TEL 043)743-8843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산 불암사

주 지 일 관
총 무 법 륜
신도회장 최상균

■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산로 190
TEL 031)527-8345

[불암사 부설]
송산노인종합복지관
관 장 법 일

■ TEL 031)852-2595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도량
신흥사 청소년수련원

부처님 교화공원
템플스테이사찰
신흥사 불교대학

주지 오성일
대중일동
신도일동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신흥사길 17-34
TEL 031)357-2695, 357-3916

대한불교조계종
신 해 사

회주 무 공
사부대중 일동

■ 경남 사천시 곤명면 경서대로 2821-46
TEL 055)855-1772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지 석경보
(대한불교승가회
총본산 이사장 주석사찰)
사부대중 일동

■ 경남 창원시 어창구 대산면
제동리 321-2번지
TEL 055)295-5100

불기 2558년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합니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황일면

이 사 : 자광스님, 종호스님, 남정스님,
혜공스님, 법현스님, 일진스님,
경륜스님, 혜수스님, 무원스님,
정묵스님, 정념스님, 현조스님,
미수스님, 정 인 악, 윤 근 향,
이 원 기, 유 성 자, 서 영 석,
박 완 순

감 사 : 현암스님, 이 기 화

"장기기증 희망등록으로
마음기부 하세요"

■ TEL : 02)734-8050 / www.lisa.or.kr
농협 : 053-17-001346 / ARS : 060-703-1133

부처님의 가르침 붓끝에 담아

02.733.0730

선아트스페이스 www.sunarts.kr
space academy 선그림 studio 선불화공방

“포교는 ‘소 같이 우직하게’… 사부대중 함께 할 의무”

포교 전문가들에게 듣는다
한국불교 포교 현황과 과제



조계종 포교부장 송묵 스님

“포교사 중심 ‘1인 5교화’ 운동 수행의 열매 나눌 때 행복해져”



중앙승가대 교수 본각 스님

“새로운 포교 콘텐츠 개발하고 현장에서 끊임없이 실험해야”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제대로 된 신도 교육통해 재가자를 ‘포교일꾼’으로”

‘포교가 어렵다’는 분석은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설문조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2011년 조사에는 자신의 종교에 대한 소속감과 신행생활 만족도가 3대 종교 중 최하위로 조사됐다. 또한 신앙심의 척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도 가톨릭의 20.3%, 개신교의 39.4%가 ‘높다’고 밝힌 반면, 불교는 3%만이 ‘높다’고 답했다. 신앙심의 가치 척도가 동·서양 종교에서 차이가 있다고 감안해도 그 수준 차는 현저하다.

선교학은 있는데 ‘포교학’은 없다

포교(선교)와 출가자(성직자) 교육은 종교를 유지시키는 양 날개이다. 종교 지도자가 없으면 종교의 가르침을 전할 수 없고, 신도가 없으면 종교의 소중한 가르침을 전달받을 사람들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불교는 ‘정체’ 상황이다. 제도권 종교 중 제일 아래였던 가톨릭은 소리 없이 약진하고 있고, 실제 수도권 안에서 불교는 가톨릭과 별 차이가 없다. 이런 현상이 가속화된다면 더 이상 불교는 한국사회에서 ‘제1종교’로 불리울 수 없다. 정체를 끊어내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포교의 활성화다.

현재 조계종 포교원은 전법단 등을 조직해 포교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조계종 포교부장 송묵 스님은 “어렵고 힘든 것이 포교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포교 일선에 있는 스님들을 중심으로 분야별 전법단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고, 전법중심도량과 같은 조직화도 이뤄지고 있다. 전법단과 중심도량 등이 장기적으로 포교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포교 상황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의견도 많다. 특히 김응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는 ‘부재’라는 키워드로 현재 포교 상황을 분석했다.

김 교수는 “신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일부 사찰에서 포교 효과가 나타나고 있을 뿐 대부분 정체되거나 신도가 감소되는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도심포교 부재, 전문 포교인력 부재, 종단의 포교의지 부재, 신도들의 포교 역량 결집 부재 등 부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심 포교 정책은 불교계가 인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심 포교가 미비하고 어린이 청소년 계층 법회가 잘 안된다’는 지적이 있다면 해결 방법을 세워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지만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승가대 교수이자 고양시 금륜사 주지인 본각 스님도 “현장에 포교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면서 “그러다보니 포교원에서 지도하는 매뉴얼들이 적용이 안된다. 우선 포교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지원과 독려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교가 어렵다’는 분석은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설문조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2011년 조사에는 자신의 종교에 대한 소속감과 신행생활 만족도가 3대 종교 중 최하위로 조사됐다. 또한 신앙심의 척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도 가톨릭의 20.3%, 개신교의 39.4%가 ‘높다’고 밝힌 반면, 불교는 3%만이 ‘높다’고 답했다. 신앙심의 가치 척도가 동·서양 종교에서 차이가 있다고 감안해도 그 수준 차는 현저하다.

사회 변화에 둔감해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도 한국불교 포교를 어렵게 만들었다. 실제 계층은 다변화되고 있고 라이프 스타일이 급변하고 있지만 한국불교가 다루는 포교계층은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와 군, 경찰, 교도소, 직장직능 등 특수계층정도다. 계층 자원 개발이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응철 교수는 “불교계는 기본적으로 불교 관련 대학이 없다.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포교방법을 연구하는 전문 인력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교학은 있으나 포교, 설법 등의 전문 연구는 전무하다.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 3명이 전국 사찰을 책임진다. 포교 관련 응용 학문영역이 없는 것이 한국불교의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신교 신학대학과 관련 성향 대학이 100여 개가 넘는다. 한 대학에 교수 요원이 20여 명이 있고 목회학, 선교학 등 전문 전공을 가르치고 인력을 양성한다”면서 “사회 변화를 포교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각 교구본사와 주요 수말사가 연구팀을 만들어 연구하고 장기적으로는 포교 관련 대학 등을 설립해 전문 교수 인력을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각 스님은 재가자들이 함께 포교 의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길 바랐다. 스님은 “일선에서 활동하는 스님들에게 연구와 콘텐츠 개발을 모두 맞길 수 없다”면서 “계층별 포교 인력 양성과 자원 개발은 종단과 재가불자들이 나서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송묵 스님은 “사회변화에 따라 당연히 포교도 다양화 돼야 하고 노력하고 있다. 통일문제에 대비한 새터민 포교를 위해서 홈스테이를 연간 전국 사찰에서 진행하고 있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포교를 위해서 국제전법단을 창립하고 다양한 지원과 전법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법자원을 네트워크화해서 포교 극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도시 전법단 · 거점사찰 등 대책 마련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현재 초미의 관심 의제인 ‘도심 포교’에 과제와 대안들을 내놨다. 특히 조계종이 행정 수도 세종시의 종단 차원 사찰을 설립하기 위해 종교용지를 매입한 만큼 포교원도 기존의 성남시 전법단을 ‘신도시 포교 전법단’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인 포교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송묵 스님은 “성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해오던 성남시 전법단을 신도시 전법단으로 재편하여 운영코자 준비하고 있다”면서 “올해 목표인 지역별 전법 자원 네트워크를 충실히 수행 중이다. 인천 아시안게임을 맞아 포교 서포터즈 구성 등을 통해서 포교사단을 중심으로 각 신행단체들을 결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각 스님은 “신도시 사찰을 일일이 건립할 수 없다면 인근 지역 사찰들을 거점 사찰로 지정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김응철 교수는 “도심포교는 종단과 교구본사들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주요 신도시 지역에 거점사찰 건립과 함께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을 함께 개원하면 도심포교 문제를 빠른 속도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포교 사찰 건립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에 있어서 신도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노력과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면서 “비용이 없을 경우에는 천태종 전략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먼저 신행활동 조직을 만들고 그들이 일정한 수의 신도를 모으면 건물을 임대하여 신행활동을 하다가 더 많아지고 포교 성과가 나타나면 땅을 매입하고, 이후 사찰을 건립하는 것이다. 도심포교 사찰은 공찰로 운영하면서 능력 있는 스님들이 평생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편일률적 법회 지향해야

사부대중이 포교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포교 인력이 필요하고, 신도 교육과 조직화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본각 스님은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육된 신도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며 “현재 불자들은 가족도 못 데리고 온다. ‘우리 절에 가면 뭐든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 있는 말을 주위 사람들에게 할 수 있어야 한지만 그런 불자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편일률적인 법회는 이제 지향해야 한다. 사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강구해야 한다. 당장 금륜사는 사찰 토지를 이용해 신도 주말 농장을 운영하면서 가족 신도가 늘었다”면서 “새로운 포교 콘텐츠를 포교원에서 만들고 현장에 끊임없이 적용해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응철 교수는 “교육받은 신도가 필요하다”며 “신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나서 신행활동을 하도록 이끌어 주면 더 많은 불자들이 포교 활동에 나서게 된다. 핵심신도 교육이 없다 보니, 핵심적인 포교 인력이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신도 조직에 대해서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김응철 교수는 주장했다. 10명을 이끌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포교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응철 교수는 “사찰 신도조직은 리더십과 추종력을 갖춘 평신도를 육성하는 과정”이라며 “신도조직은 10명의 신도를 묶는 것이 아니라 신도들 중 임원을 선발해 10명을 포교하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법등장을 취득하도록 촉진하고 지역사회에서 법륜장과 법회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숭묵 스님은 포교사를 중심으로 한 신행운동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스님은 “재가수행의 모델은 불자로서의 삶을 실천해가는 일상생활”이라며 “특히 포교사는 교학 공부를 통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살고자 서원했고, 봉사와 수행을 통해서 자신과 사회를 완성해가고 있는 불자”라고 말했다.

이어 “포교사를 중심으로 신행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포교원은 ‘1인 5교화 운동’도 전개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의 수행뿐만 아니라 교화 운동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법을 만나 자비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가자는 ‘파트너’… 함께 중생교화

전문가들은 이제 ‘포교는 사부대중의 의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포교와 전법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된 재가불자들을 양성해 사찰과 종단에서 포교 일꾼으로 활용하고, 종단과 일선 사찰 역시 재가불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본각 스님은 “사회 영역은 점차 방대해지고 아쉽지만 출가자는 줄고, 고령화 되고 있다. 모든 영역을 스님이 책임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면서 “이제 재가불자들을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함께 중생 교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은 제대로 된 신도 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통해 불교와 사찰의 소속감을 높여야 하며, 조직화해 자발적으로 불교를 포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불교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응철 교수는 다시 부처님의 ‘전도선언’을 상기하고 스스로 포교 의지를 다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응철 교수는 “포교는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가 함께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전도선언을 분석하면 어떻게 포교해야 하는 지가 나온다. 포교에는 왕도가 없고 소 같이 우직이 걸어가야 하는 것이다. 지금 한국불교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살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묵 스님 역시 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자들이 ‘포교는 의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지듯이 스님과 재가불자의 의무는 전법이다. 스스로 수행하고 수행의 열매를 나누고 함께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 이나은 기자

佛紀 2558年 甲午年 Buddha's birthday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銀 海 寺

조 실 포산 혜인
교구장 운곡 돈관

사부대중일동

♣ 지역의 전통 명문사학
학교법인 동곡학원
영천 선화여자고등학교
054)333-3431

♣ 자연과 함께하는 장례문화
은해사 수림장
054)335-0566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951(치일리 479)
전화 054)335-3318, www.eunhae-sa.org

佛紀 2558年 甲午年 Buddha's birthday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大韓佛教 曹溪宗 第14教區 本寺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방 장 지유 대종사
주 지 수불

수 좌 인각
부 주 지 범산
재무국장 무관
호법국장 강하
신도회장 이윤희

율학승가대학원장 수진
총무국장 혜성
사회국장 보산
연수국장 오산

승가대학장 용학
기획국장 원걸
문화국장 성공
사서국장 법성

박물관장 경선
교무국장 승련
포교국장 지장
원 주 석산

총림대중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 (청룡동 546번지) www.beomeo.kr 종무소 ☎ 051)508-3122

佛紀 2558年 甲午年 Buddha's birthday | 전면광고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 B6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홀로 숲 속에 사는 것은 진정한 은둔이 아니다.
진정한 은둔이란 좋고 싫음의 분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반야경〉



모든 불보살님의 가피가 저 바다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내 원 정 사

주지 도 가

사부대중 일동

■ 서울 동작구 상도1동 788번지
TEL 02)814-5502

대한불교조계종
전 등 사

주지 동 명

사부대중 일동

■ 서울 성북구 성북동 46-3
TEL 02)762-0643

(사)대한불교무량종 인천지원
비 룡 정 사

주지 박보산

신도 일동

■ 인천시 중구 선린동 57-7

수 효 사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호
TEL 02)313-5047

백 천 사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율석리 369번지
TEL 031)577-6433

주지 무 구

대중 일동

기도 교육 행복 복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정 각 사

주지 정엄 외

화엄불교대학생회

사부대중일동

운영시설

· 군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 군포시 장애인보호작업장
· 군포시립 노인요양센터
· 우리요양원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38-1 거성 3차
TEL 031)398-8001
www.junggaksa.com

대한불교조계종
수 안 사

회주 세 민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68길 30
TEL 02)587-4677 / FAX 02)522-5666

대한불교조계종
염 불 사

회주 성직 스님

사부대중일동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245길 150
TEL 031)471-2300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지 진산 종하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관악구 승방1길 109-80(남현동)
TEL 02)582-8609
www.kwaneumsa.net

대한불교조계종
등명낙가사

주지 청 우

신도일동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 1리
TEL 033)644-5337, 5475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경 국 사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성북구 보국문로 113-10(정릉동)
TEL 02)914-5447, 2828
FAX 02)914-4326

대한불교조계종
(재)선학원·인과선원

주지 정 덕

사부대중일동

■ 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2길 97-1(월계동)
TEL 02)907-3706

대한불교조계종
법명사(부루나포교원)

주지 미광 선일

사부대중일동

[부설기관] 인천불교대학 부루나 선행회

■ 인천시 서구 원적로 163-22(가좌3동)
TEL 032)577-5108 / FAX 032)577-8454

남북통일 기원청도대불봉안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각 원 사 각원사불교대학

조실 경해 법인

주지 및 학장 대원

각원사불교대학총동문회 일동

신도일동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각원사길 217(안서동)
TEL 041)561-3545 / FAX 041)556-1425

대한불교일승종
약 천 사

주지 자 운

신도일동

■ 서울 노원구 중계4동 450번지 4층
TEL 02)3391-8523

대한불교조계종
노 적 사

주지 종 후

■ 경기도 덕양구 대서문길 311-35 (북한동 331)
TEL 02)353-5016

대한불교조계종
영 평 사
(조계종 템플스테이 지정사찰)

주지 광원 환성

영평사 대전포교원 / 영평불교대학

신도일동

■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영평사길 124
TEL 044)857-1854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서산 부 석 사

소원성취 기도 영험도량 템플스테이 상시운영

주지 주 경

사부대중일동

■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부석사길 243
TEL 041)662-3824, 010-7734-3824
www.busuksa.com

안성 백 련 사

주지 태 함

사단법인복지법인 둥지마을

신도일동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한운리 산 171번지
TEL 031)674-1861 031)674-1860

세계불교달마종 진불선원 태양의집
유불선 십경신 도통회

종정 태일대사

신도회장 이경재

발전위원장 고범규

사무총장 박규민

■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360-188호
TEL 02)821-6622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학 장 법산 경일

이사장 이상우

봉축위원장 안동일

동산가족일동

www.dongsanbud.net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 /FAX 02)732-1207

佛紀 2558年 甲午年 Buddha's birthday | 전면광고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 B7

"연잎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즉시 굴러 떨어뜨리듯이 욕망이 일어나면 잠시라도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쫓아버려야 한다. 그러자면 언제나 사색과 명상에 힘써야만 할 것이다." 〈본생경〉



모든 불보살님의 가피가 저 바다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정혜결사도량 오백나한기도도량
팔공산 거조사(암)

주지 태관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622
TEL 054)335-1369
FAX 054)335-2609

대한불교조계종
관 운 사

주지 지산

■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526
TEL 054)931-7777
TEL 054)933-0808

대한불교조계종
최정산 광덕사

주지 운성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190-2
TEL 053)763-0068

대한불교조계종
법 륜 사

주지 법성

■ 경북 영덕군 영덕읍 덕곡1리 171
TEL 054)734-1258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천년고찰 팔공산 불굴사

주지 덕조

신도일동

■ 경북 경산시 와촌면 강학리 5
TEL 053)854-0440
http://cafe.daum.net/bulgulsa.ok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팔공총림
동화사 직할포교당 보현사

주지 지우

모든 존재들이 안락하고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적대감에서 벗어나기를
탐욕에서 벗어나기를
성냄에서 벗어나기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근심걱정에서 벗어나기를
항상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 대구광역시 중구 문우관길 65
TEL 053)431-5400
Email : bohyunsa5400hanmail.net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태실기도도량 선석사

주지 법인

사부대중 일동

템플스테이 / 사찰음식 강좌

■ 경북 성주군 월향면 인촌2리 217
TEL 054)933-9800
www.seonseoksa.org

송 림 사

사부대중 일동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61-6
TEL 054)976-8116
FAX 054)976-6802

대한불교조계종
문 수 사

주지 덕화

(포항불교 사암연합회장)

사부대중 일동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인두리 151
TEL 054)258-8516

대한불교조계종
월 인 사

주지 포전 혜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로 85길 52
TEL 053)767-3971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비슬산 은적사

은적사 부설 룸비니 유치원

주 지 허 주
신도회장 권 정행성
합창단장 도 법화심
봉사단장 권 성덕월

부설] 룸비니유치원 원장 이 수련화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3동 1572
TEL 053)653-1572
FAX 053)653-2765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화요일 저녁반, 목 · 금요일 오전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지원장 혜문

사부대중

■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13-1
TEL 054)232-3163
FAX 054)241-3503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지원장 혜안

사부대중

■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TEL 052)295-2335
FAX 052)295-2336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산 통천사

주지 선지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3-1(아양교옆)
TEL 053)941-3503, 053)953-4481

佛紀 2558年 甲午年 Buddha's birthday | 전면광고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 B8

"괴로움은 성현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까닭 없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괴로움은 늘 바뀌고 변하는 것이니 지혜로운 사람은 괴로움을 끊어 없애야 하느니라." 〈대본경〉



모든 불보살님의 가피가 저 바다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파 계 사

주지 남명허운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7번지
TEL 053)984-4550

재단법인 선학원

기 원 정 사

주지 우록

■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1152-5
TEL 053)982-9329
FAX 053)983-1698

한국불교태고종

지 안 사

주지 지안

■ 경북 성주군 벽진면 매수리 775
TEL 054)932-8443

"생활불교 실천불교"

대한불교진각종 대구교구청

교구청장 정효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 3동 584-1
TEL 053)255-1450,1411
FAX 053)252-9703
홈페이지 www.jingak.or.kr

대한불교천태종

대 성 사

주지 류화산

〈부설〉
· 동해유치원
053)652-5760
· 대구금강불교대학
053)624-0133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520-3
TEL 053)624-0542 / FAX 053)623-0265
홈페이지 www.daesungsa.or.kr

대한불교천태종

대구 동 대 사

주 지 김도산
신도회장 임응호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모동 667-1
TEL 053)795-1357,795-1733
FAX 053)795-1731

대한불교법화종

무우소 가람 수 참 사

주지 영암

신도회원 · 관음회원 일동

고통의 삶에 기적은 일어난다.
한가지 소원만 말하세요.
'30년 전통 맞춤형
방편 전문도량'

■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137-1
(평리6동 640-5)
TEL 053)561-3129

한국불교 염불선종

어림산 복 원 사

총무원장 영운 합창

■ 총본사 총무원 :
경북 경주시 현곡면 내태리 58
TEL 054)745-3646

대한불교원효종 부산교구

자 비 원

총무원장 석불

■ 부산광역시 동구 조천4동 883-8
TEL 051)644-8361
FAX 051)642-8361

하늘이 내려준 복을 누리는 도량!

월산 안 향 사

주지 조향

■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산서리 289번지
TEL 054)232-9988
FAX 054)261-8000

대한불교조계종

보 경 사

회주 법달
주지 철산
재무 지범

사부대중 일동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2
TEL 054)262-1117 FAX 054)262-0149

나한기도도량

봉황산 백 운 사

주지 각안

■ 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혀리 440-1
TEL 054)534-5892
054)531-9022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대구광역시 신도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법인
동화복지재단 부설

'무료급식소 자비의 집'

회장 류병선

**장학사업 및 무료급식소
자비의 집 운영**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932-35 (보현사 별관 3층)
전화 053)253-2886, 팩스 053)252-2886(신도회)
053)253-1082 (자비의 집 봉사부장 장춘강)

■ 장학후원계좌
대구 043-10-010486
국민 028201-01-013886
우리 1005-901-797252
외환 630-007485-229
농협 301-0075-8540-01

•무료급식소
후원계좌 대구은행 096-04-000193-7
(복지재단 무료급식소)

※ 입금후 연락바랍니다.

보건복지부지정

(사)생명나눔실천본부 대구지역본부

'자원봉사자,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본부장 박종명

**장기기증 / 헌혈지원사업
환우지원사업 / 결연사업**

■ 후원계좌 안내
대구은행 188-13-073651
농 협 301-0031-1553-61
국민은행 805501-01-375024
예금주:생명나눔실천본부 대구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324 (구.신암동)
TEL 053)945-0007 / FAX 053)945-0008

■ 산하기관 :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
TEL 053)944-0007

합동석물 (주)

석재가공 석공사
전문건설업체

대표 탁희열

■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 714-10
TEL 054)955-8200~1
FAX 054)955-8202

30대 불자 '문화 사업가'들이 뜬다

30대 초중반 불자 문화 사업가들의 활약이 눈부시다. 이들은 연기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새로운 문화트렌드로 상생과 공존의 문화를 우리 사회에 전하고 있다. 카페 운영, 불교디자인 제품 개발, 환경제품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생과 상생의 기업문화를 펼치고 있는 이들의 활약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주목받는다. 청년 일자리 창출, 미래 지향적 기업 모델 제시, 전통문화의 현대화 등 소신 있는 기업 정신으로 똘똘 뭉친 30대 대표들을 만나봤다.

글=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상생과 나눔으로 젊은 기업 만들어 가요"

수행공동체 정신 기업 문화에 접목

전통문화콘텐츠기업 마인드디자인 김민지 대표



"아직은 실험단계지만 수행공동체를 기업문화에 접목시키고자 해요. 자기변화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는 게 불교잖아요. 기업 조직문화에 수행공동체 정신을 불어 넣고자 최근 다양한 실천 사항들을 만들었어요. 또한 사업적으로는 전통문화콘텐츠로 진정한 한류의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목표죠. 더 나아가서는 제 3세계 국가의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문화지원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디자인 액세서리 상품의 개발과 판매로 시작해 전통 · 불교문화 기획, 브랜딩 및 컨설팅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마인드디자인 김민지 대표(31). 최근에는 3년 연속 불교박람회 기획 및 시행 업체로 선정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정토회 대학생 인도봉사 프로그램인 선재수련에서 만났던 친구들과 회사를 창업하게 됐어요. 서로 뜻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하다보니 밤새며 일해도 너무 재미있고 신나죠. 대표인 저나 사원들 모두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있어요. 박람회 운영 역시 교계 분들이 저희 열정을 믿고 맡겨주신 면이 커요. 앞으로도 불교와 전통을 알리는 기업이라는 본연 목표를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수행공동체를 조직문화에 불어넣고자 하는 마인드디자인은 최근 이와 관련한 조직문화 실천사항을 마련했다. 연 2회 수련휴가 및 휴가비 제공, 교육지원제도 등을 신설하고 절대퇴근시간 지정, 탄력 근무제 도입, 해외탐방제공, 108배 명상 특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승가의 자자와 포살에 해당하는 장단점 말하기(6개월에 한번), 대중공사에 해당하는 반성의 시간(매주), 회의전 명상 등을 도입해 실천하고 있다.

사찰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지역 문화 행사 콘텐츠 개발을 목표로 하는 김 대표는 불교콘텐츠는 블루오션과 같다고 말한다. "전통문화도 체험하고 문화재도 관람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지역브랜딩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사실 전통을 낡은 것이라 여기지만 현대인들이 필요로 하는 무한한 문화 콘텐츠가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앞으로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많은 청년 불자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불교문화를 기업문화에 적용하고 있는 마인드디자인은 매년 전년대비 두 배의 매출 신장을 기록하며 성장하고 있다. 직원들이 제품을 선보이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현수막 패션가방 등 자원재활용

터치포굿 박미현 대표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NGO 단체에서 일을 했어요. 당시 행사 담당이었는데 행사가 끝나고 보면 매주 엄청난 현수막이 나왔어요. 1년 동안 쌓아두니 그 양이 엄청 났죠.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다 가방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 공부하고 있던 사회적기업과 연계시켜 친구들과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미현 대표(30)는 2008년 터치포굿을 창업 현재 10여명의 직원과 함께 패션사업, 환경교육사업, 도시환경교육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그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현재 폐현수막을 활용한 가방은 25가지이며 이밖에도 파우치, 문구류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 · 판매하고 있다. 터치포굿은 폐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업사이클링을 지향한다. "업사이클링이라는 단어를 국내에서 처음 활용했다고 할 수 있어요. 현수막을 재활용한 패션상품에서 시작해 피티병에서 뽑아낸 실로 제작한 담요, 지하철 광고판을 활용한 컵받침 등의 제품은 재활용의 범위를 넘어 버려진 것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상품입니다."

터치포굿은 제품생산을 장애인 작업장 등에 의뢰, 공생의 삶을 신천하는 데에도 일조하고 있다. 터치포굿의 또다른 사업은 그린솔루션으로 이는 다양한 각도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다. "공장에서는 재고, 불량 혹은 공정상의 문제로 버려지는 재료가 많아요. 저희 회사는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기업과 함께 찾아주고 있어요."

이밖에도 박 대표는 도시 환경 교육의 개발 및 운영 등을 위한 '도시형 환경교육' 도 진행하고 있다.

"결국 자원을 재활용하고 재생산한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 해를 덜 끼치고 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 터치포굿은 친환경 컨설팅 전문업체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체험활동과 독특한 제품 아이디어를 세상과 나누며 대중들이 터치포굿의 정신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재능과 물질 나누며 일자리도 창출

오공카페 조정훈 매니저



서초구 서초동 지하에 위치한 오공카페는 나눔 문화 공간으로 세간에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집밥' 모임, 재능나눔 프로그램, 심야식당, 프리마켓 등 매주 특별한 프로그램이 열리면서 나눔과 공생을 실천하는 카페로 운영되고 있다. 50명의 주인장이 100만원 씩 투자해 조합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오공카페는 재능과 물질을 나누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미 각종 일간지와 방송매체에 소개되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오공카페는 지난해 불광점 오픈에 이어 올 6월 영등포 하자센터 3호점 오픈을 앞두고 있다.

카페 매니저 조정훈 씨(35)는 다니던 투자회자를 그만 두고, 2012년 정토회 청년부 친구들과 조합 형태의 오공카페를 열었다. "불교를 공부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재능과 물질을 나누는 동시에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 오공카페는 청년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현재 2호점인 불광동의 청년허브 오공카페 운영에 주력하고 있다. 요즘 불광점이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세대간 화합을 도모하는 텃밭가꾸기다. "청년 10여 명과 이모작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시는 어르신 20여 명이 함께 카페 근처의 공터를 텃밭으로 만들어 가꾸는 사업이에요. 지난해에는 텃밭에서 수확한 배추 2천포기로 만든 김장김치를 1인 청년가구들에 나누어 주었죠. 세대간 소통과 화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도 이 프로그램은 매우 의미있습니다."

오공카페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설립취지에 맞게 6월경 영등포구 하자센터에 3호점을 개업을 앞두고 있다. "카페 오공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창구 역할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8명이 도우미로 일하고 있어요. 이번에 청년들의 일자리 요구로 3호점도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나눔을 통한 공생의 문화를 전파하는데 오공카페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불보살 캐릭터 대중과 친숙하게 표현

부다아티스트 정기란 대표



"달마대사, 지장보살, 사천왕 등 절에서 볼 수 있는 사찰의 인물과 보살들은 근엄하고 딱딱하잖아요. 이런 편견에서 벗어나 캐릭터를 좀더 재미있게 표현해 문구제품에 적용해 봤어요. 제가 만든 상품들을 통해 대중들이 불교를 좀더 쉽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부다아티스트 정기란 대표(31)는 절집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보살과 인물들을 다양한 캐릭터 상품으로 제작해 판매하고 있다. 1인 기업으로 부산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정 대표는 스케치북과 엽서 등의 문구류와 휴대전화 고리, 배지, 전자파 차단 스티커 등 다양한 상품들을 제작 판매하고 있다.

제 6회 불교문화상품공모전 대상 수상자기이도 한 그는 동국대에서 불교미술을 전공하고 문구디자인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부다아티스트를 창업하게 되었다.

"불교를 접목시켜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보면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에 제품을 만들어 봤어요. 처음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사업까지 연결이 되었네요."

물론 정 대표의 제품들이 처음부터 환영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 근엄한 불보살들이 웃고 있으니 낯설어 하는 이들도 많았다고. "1인 기업이다 보니 제가 직접 디자인과 판매를 하고 제품 생산은 외주에 맡기고 있어요. 제품을 들고 사찰에 찾아가면 불보살님을 너무 희화화한 거 아니냐고 우려하는 스님들도 계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린이법회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물론 스님들도 신도들 선물용으로 많이 구입을 해주세요."

앞으로 정 씨는 디자인의 범위를 넓혀 좀 더 동양적인 디자인으로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 "24절기와 관련된 행사 제품을 구상 중에 있어요. 그리고 좀더 모던한 느낌의 캐릭터로 현대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또 직원들도 2명 정도 채용해 사업규모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佛紀 2558年 甲午年 Buddha' s birthday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지종
수좌 중봉 성파
주지 원산 도명

유나 천진 보탑
율주 중산 혜남
강주 현진 지형
율원장 우설 덕문
박물관장 무애 무애
도감 용담 현기

부주지 일해 재원
기획국장 영랑
재무국장 문수
포교국장 선본
원주 마벽

총무국장 동진
교무국장 진응
사회국장 보원
호법국장 현중
농감 도훈

총림대중일동

•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 583) 전화 055) 382-7182 / 팩스 055) 382-7196
• 홈페이지 www.tongdosa.or.kr

佛紀 2558年 甲午年 Buddha' s birthday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조실 혜광 종산 대종사
문장 금성 명선 대종사

주지 영관

선원장 각초 강주 원오 부주지 덕문 총무 효광
기획 효진 사회 우경 교육 묵산 도감 덕제
재무 우범 교무 상국 포교 우문 연수 종호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12
종무소 061)783-7600 팩스 061)782-7601
템플스테이사무국 061)782-7600

불교미술 3대 변천사 한자리에

흥천사 '정통의 맥' 전
4월 30~5월 10일

흥천사(주지 정념)가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기능보유자 故월주 원덕문 스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고 제자 소운 김용우 선생의 불교미술입문 5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를 연다. '정통의 맥' 전이 4월 30~5월 10일 한국문화재보호재단 3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흥천사불화소와 월주고전미술전수원이 주관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덕문 스님 유품 및 유작(단청, 불화 등) 약20점과 김용우 선생의 단청 및 불화 40점 등을 만나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덕문 스님의 글씨와 선화, 단청문양 작품, 금박산수병풍, 불화작품 등 스님의 다양한 작품세계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스님의 화풍을 잇는 김용우 선생의 불화와 달마도도 만날 수 있다. 이밖에도 김용우 선생의 제자 작품 12점도 함께 전시된다.

초대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기능보유자인 덕문 스님은 서울 흥천사에서 월주고전미술전수원을 개원 많은 불교미술작가를 양성했다. 또한 (사)단청문양보존연구회 창립, (사)한국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전통미술분야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했다.


원문 스님 作 금니지장시왕도


김용우 作 비로자나후불도

덕문 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전
김용우 작가와 제자 작품도

흥천사는 "월주 원덕문 스님의 활동과 작품세계를 기리기 위해 흥천사(주지 정념)는 올 해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를 준비하게 되었다. 더불어 스님의 수제자인 소운 김용우 선생이 월주 스님께 사사받기 시작하여 올 해 입문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이를 기념해 월주 스님이 주석하였던 흥천사 불화소와 월주고전미술전수원이 함께 대규모의 불교미술전시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3대를 이어온 단청, 불교회화, 불교조각 등 불교미술의 의 변천사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02)913-2451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이제부턴 나도 좀 즐기며 살아야지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⑱ 월정사 (上)




월정사의 중심공간인 적광전과 팔각구층석탑(국보제48호) 그리고 석조보살좌상

명산 중의 명산 오대산

'국내의 명산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이고 불법(佛法)이 길이 번창할 곳이다.'

일연 스님은 〈삼국유사〉에 오대산 월정사를 이렇게 표현했다. 신라의 자장율사(慈藏律師)가 643년(선덕왕 12)에 창건한 월정사는 우리나라 문수신앙의 성지(聖地)이기도 하다. 많은 고승대덕들이 머물며 수행과 전법을 이어 온 월정사는 한국전쟁으로 가장 크게 훼손 되었다. 1.4후퇴 때 아군에 의해 10여동의 건물이 전소되었고 양양의 선림원지에서 발굴된 신라시대 범종마저 불타버렸다. 이 종은 신라 성덕대왕신종보다 주조연대가 앞선 것이어서 매우 귀중한 성보였기에 안타까움이 더한다.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월정사는 1964년 탄허(呑虛 1913~1983)스님이 적광전을 중건하면서 중창이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불사를 진행해 큰 가람의 면모를 갖추었다.

대관령을 넘기 전 진부에서 왼쪽으로 드높게 펼쳐진 오대산의 산록들은 철철이 그 기묘한 아름다움을 뽐낸다. 월정사 가는 길의 전나무 숲길 또한 일품이어서 절에 가는 길이 곧 극락에 이르는 길인 듯하다.

상원사로 가기 위해서는 월정사를 거쳐야 한다. 오대산 전체를 배경으로 하는 문수신앙이 월정사와 상원사 그리고 적멸보궁을 바탕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굳이 오대산과 그 품안의 절들을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산과 절이 둘이 아니게 지켜온 불심은 천년 숲길의 맑은 공기가 되어 찾아오는 중생을 반긴다.

깨끗한 도량과 견성한 스님

맑은 도량과 수행하는 스님 그리고 유람에 나선 선비의 마음이 잘 어우러진 시 한 수를 보자.

월정유절처(月精幽絕處)
원각도량청(圓覺道場淸)
일조당번영(日照幢幡影)
풍전종경성(風傳鐘磬聲)
타응능견성(他應能見性)
아상미망정(我尙未忘情)
파필제시파(把筆題詩罷)
회두망옥경(回頭望玉京)

월정사가 아늑하게 들어선 곳
원각도량이 맑고 깨끗하네.
햇살 비쳐 당번에 그림자 지고
바람 불어 풍경 소리 들리네.
저 스님은 벌써 견성을 했을 텐데
나는 아직도 속세의 정을 못 잊고 있네.
붓 잡아 시를 짓고 나서
고개 돌려 서울 땅을 바라보노라.

고려 후기의 문신 이종학(李鍾學 1361~1392)의 시다. 이종학은 가정 이곡의 손자이고 목은 이색의 아들이니 고려 말의 대학자이자요 충절 높은 선비 집안의 명현이라 하겠다. 이 시의 제목은 '오대산(五臺山)' 인데 그가 관동지방을 유람하며 읊은 시들을 모은 '관동록(關東錄)' 에 수록되어 있고 '관동록' 은 그의 문집 〈인재유고(麟齋遺稿)〉에 들어 있다.

시인은 월정사에 이르러 가장 먼저 맑고 깨끗한 도량에 마음을 빼앗긴다. 그래서 '원각도량' 이라는 말로 절을 찬탄하지 않을 수 없다. 둘러보니 햇살과 그림자가 절의 풍경을 더욱 아름답게 장엄하고 있으니, 당과 번이 햇살에 비치고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이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시각과 청각이 총동원되어 맑고 깨끗한 절 풍경을 묘사하는 것이다.

보이는 것만으로 월정사를 묘사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 도량에서 수행하여 성불을 했을 스님을 부러워하는 심정과 속세의 정을 잊지 못하는 자신을 극적으로 대비 시켰으니 이 대목이 이 시의 절정일 수밖에. 그리고 절 풍경을 한 수의 시로 읊었지만, 여전히 속세로 달려가는 자신의 마음을 어쩔 수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인생은 꿈만 같은데

'속세의 정을 못 잊는' 것은 이종학도 그의 부친인 이색과 조부인 이곡의 경우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유학을 하는 선비로서, 정치인으로서, 관료라는 위치에서 맑은 도량은 언제나 객관적 대상일 뿐이었나 보다.

강릉귀로직(江陵歸路直)
행객독장음(行客獨長吟)
마영청산정(馬影靑山靜)
인성녹수심(人聲綠樹深)
부생혼사몽(浮生渾似夢)
세사매상심(世事每傷心)
종차당행락(從此當行樂)
나지득지금(那知得至今)

강릉 가는 곧은길에서
길손이 홀로 긴 시를 읊노라.
말 그림자 푸른 산에 고요하고
인기척은 푸른 숲 깊숙한 데서 들려오네.
뜬구름 같은 인생은 온통 꿈만 같아
세상일에 매번 마음이 상하곤 하네.
이제부턴 나도 좀 즐기며 살아야지
오늘 여기에 이를 줄 어찌 알았으랴.

이종학이 월정사를 들렀다가 며칠을 머물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절을 떠나며 남긴 시다. 역시 '관동록' 에 수록되어 있고 제목은 '20일에 월정사를 떠나며(二十日出月精寺)' 로 되어 있다.

앞의 시에서 견성한 스님을 부러워하는 심정을 드러내 보인 이종학은 월정사에서 인생의 덧없음을 절절하게 느낀 모양이다. 시의 앞부분은 오대산의 푸른 숲을 그리고 있지만 뒤에서는 온통 인생에 대한 관조로 이어진다. 특히 '이제부턴 나도 좀 즐기며 살아야지' 라는 대목은 시적으로 절창이라기보다 인생의 참맛을 토해낸 진실한 고백이라 할 만하다.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 쯤 깊이 토해냈을 말이기에 말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를 줄 어찌 알았으랴' 라는 마지막 구절은 그의 삶과 연관해 묘한 탄식으로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 시를 지을 당시에는 월정사를 떠나며 다시 속세로 가야하는 아득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던 해에 정몽주의 살해에 뒤이어 이숭인 등과 함께 탄핵을 받아 함창으로 유배되었고, 다시 유배지를 옮기는 도중 한 마을에서 살해당했다. 나라는 망하여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고, 선비로서의 곧은 절개를 지키는 길은 목숨을 내놓는 것이었다. 어쩌면 그는 유배지에서 하늘을 우러러 소리치지 않았을까? '오늘 여기에 이를 줄 어찌 알았으랴!'

불교방송 상담·명상 프로그램 강화

4월 21일부터 봄 개편

불교방송이 4월 21일부터 봄 개편에 들어갔다. 이번 개편에서 불교방송은 상담 · 명상 프로그램 강화, 라디오 불교드라마 부활 등을 편성 불교방송 본연의 면목을 찾고자 했다.

불교방송은 "불교방송, BBS TV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청취자들의 재시청 및 자료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법문, 법회, 경전공부 등의 TV 프로그램을 라디오를 통해 재구성, 방송함으로써 TV와 라디오 두 개의 매체를 통해 공부하는 불자, 신행하는 불자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편성을 1순위로 두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행복을 찾는 108배' 는 BBS TV에서 방송 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라디오에 접목시켜 불자들의 신행활동을 돕고자 했다. 매일 오전 4시 40분부터 20분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행복을 찾는 108가지 마음을 선정, 명상음악과 나레이션을 통해 천천히 108배를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행복한 두시' 는 남녀노소 모두의 고민을 상담하는 신세대 수행자 원빈 스님과 박근혜 아나운서가 함께 긍정의 에너지를 전달한다. 불교의 기본교리와 신행, 다양한 교계 소식은 물론 가정문제, 자녀교육, 학교생활 등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들을 청취자들과 직접 마주하고, 불교적 관점에서 쉽고 명쾌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했다. 방송은 월~금 오후 2시.

라디오 불교 드라마 '고승열전' 도 부활된다. 과거에 방송되었던 라디오 드라마를 새롭게 편집해 청담, 효봉, 동산, 금오, 만공, 용성 스님 등 고승의 일대기를 들려준다.

이밖에도 사색과 포교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불교방송은 "치유와 명상이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점을 방송에 적극 반영해 관련 스님들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사색과 포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지눌 스님의 원불 특별 전시

송광사, 국보 제42호 목조삼존불감 공개


송광사, 목조삼존불감

순천 송광사(주지 무상)는 부처님을 오신날을 맞아 '국보 제42호 순천 송광사 목조삼존불감(이하 목조삼존불감)' 을 특별 전시한다. 송광사는 보조국사 지눌 스님의 원불인 목조삼존불을 국사전에서 5월 6일까지 일반에게 공개한다.

이 목조삼존불감은 보조국사 지눌 스님이 중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모셔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감은 모두 3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운데 방을 중심으로 양쪽에 작은 방이 문짝처럼 달려 있으며, 문을 닫으면 윗부분이 둥근 팔각기둥 모양이 되는데, 전체 높이는 13㎝이고, 문을 열었을 때 너비 17㎝가 된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세부묘사가 정확하고 정교하여 우수한 조각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세부의 장식과 얼굴 표현 등에서는 인도의 영향을 받은 듯 이국적인 면이 보이며, 불감의 양식이나 구조에서는 중국 당나라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국내에 남아 있는 불감류 가운데 매우 희귀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인 1935년 2월 21일에 보물 제217호로 지정되었고, 이후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수난을 겪었던 목조삼존불감은 1962년 12월 20일에 국보 제42호로 승격 지정 되었다. 2000년부터 1년여간 재일교포였던 고준영 선생의 보존수리 끝에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송광사는 16국사 관련 많은 유물들을 전시할 계획이다. (061)755-0407 정혜숙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佛紀 2558年 甲午年 Buddha's birthday | 전면광고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 B11

"법의 깊은 뜻을 관찰하는 사람 가운데도 이웃과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법의 깊은 뜻을 관찰하면서도 자신과 이웃, 사회와 인류를 생각하고 기여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하다." 〈선법경〉



모든 불보살님의 가피가 저 바다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구룡사
주지 효재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 2리 328
TEL 054)975-9045, H·P 010에 9045 또 9045

대한불교조계종
금 용 사
(금용복지회관)
주지 혜선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 1동 172
TEL 053)628-5404

대한불교조계종
최정산 남지장사
주지 원범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 2리 865
TEL 053)768-9920

다함께 만드는 부처님 나라
대한불교 조계종 다 복 사
회주 현근
주지 선공
■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 16길 (대경 3동 2563-18)
TEL 053)623-3736

대한불교조계종
대 덕 암
주지 혜송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250
TEL 053)763-7164

대한불교조계종
대 승 사
주지 석지형
신도일동
■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458-1
TEL 052)298-5865 · 6623

대한불교조계종
대 운 암
주지 지자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유호리 산1번지
TEL 054)372-1433

대한불교조계종
망 월 사
주지 동진
사부대중 일동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달서1리 421-4
TEL 054)972-2700

대한불교조계종
문수포교당
주지 효신
대구·경북지역전법단
(경찰·교정포교)
「매월 셋째 토요일-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점심무료급식」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470-5
TEL 053)637-0900

대한불교조계종
보 리 사 보리불교대학
학장 증악
대중일동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신묘장군대다라니독송법회
(문화강좌안내) 선체조/다도/어린이 천자문 교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958-10
TEL 053)522-7611 FAX 053)522-7612

대한불교조계종
대방산 보 림 사
주지 선주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본리 산 67
TEL 053)614-4526, 7169

대한불교조계종
법 성 사
주지 부용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 6동 386-3
TEL 053)553-5371

대한불교조계종
법 왕 사
주지 실상
경율론 삼장 백고좌 대법회
「해오름 요양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 산 116
TEL 053)766-3747 9088
FAX 053)767-6095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경북불교대학
"나와 이웃과 자연이 함께하는 삶"
학장 운곡 돈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 444
TEL 053)792-1353, 1181 FAX 053)791-4951

마음청정·국토청정
대한불교 조계종 보 현 암
하루헌·영남불교문화원
보현회신도회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257
TEL 053)767-0274 FAX 053)762-8950
휴대폰 010-3534-8950

대한불교조계종
석 가 사
주지 경암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97-3
TEL 053)791-8137
FAX 053)792-0784

대한불교조계종
성 화 사
주지 진공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 1동 521
TEL 053)625-9030

대한불교조계종
아 미 사
주지 덕현
신도일동
■ 대구시 동구 지묘동 팔곡로 91길 14(지묘236)
TEL 053)983-1816

대한불교조계종
포항 옥 천 사
회주 법조
주지 혜주
신도회장 최중훈
■ 경북 포항시 북구 방장산길 5(득량동)
TEL 054)272-4633

대한불교조계종
용 암 사
주지 보일
신도일동
■ 경북 포항시 대송면 홍계리 177-1
TEL 054)285-0308

대한불교조계종
원 만 사
약사여래대불
주지 법홍
원만사 부설 유치원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708
TEL 053)257-1914

대한불교조계종
화악산 적 천 사
주지 정광
신도회장 변숙현
반야회장 정광심
구도회장 양해성
신도일동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리 981
TEL 054)373-0307

대한불교조계종
청 량 선 원
[부설] 아헹가 요가센터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1-17
대구본원 053)981-3553
대구범어동센터 053)753-3550
서울센터 02)599-8150

대한불교조계종
청 수 사
[부설] 청수어린이집
청수유치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 4동 117-36
TEL 053)741-2562
[청수어린이집] TEL 053)753-2561
[청수유치원] TEL 053)753-2563

대한불교조계종
성주 취 운 향 당
주지 능혜
■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845
TEL 054)933-6371~2/FAX 054)933-6373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환 성 사
"흥덕왕 10년(835년)에 심지 왕사가 창건"
주지 성담
■ 경북 경산시 하양읍 사기리 150
TEL 053) 852-6561

대한불교조계종
향 림 사
주지 정관
사부대중 일동
천수경 에세이집
「마음을 주는 손」 - 저자 정관스님 -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산1번지
TEL 053)767-7504

개원사심녕총림
개 원 사
주지 문공
■ 대구광역시 동구 봉무동 196
TEL 053)981-0995

관음보살원만성취 지장보살업장소멸 기도도량
까치산 길 조 암
주지 보현
■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본리 3리 471
TEL 054)931-5204

대한불교조계종
대 각 사
주지 일각혜동
■ 경북 청도군 이서면 칠곡리 165번지
TEL 054)373-5830, 010-6786-5830

佛紀 2558年 甲午年 Buddha's birthday | 전면광고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 B12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삼독 번뇌를 제거하는 방법을 말씀한 부처님의 법문은
구원의 가르침이니 이를 따르는 이는 선하고 복된 삶을 누린다." 〈별역잡아함경〉



모든 불보살님의 가피가 저 바다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무 학 사
주지 법 등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 511-1
TEL 054)243-1751

우리불교 우리절
용암산 미륵사
주지 석청송
■ TEL 053)981-1199
FAX 053)982-0683

불 종 사
주지 현 진
■ 경북 경산시 남방동 276-2번지
TEL 053)802-4043

관음기도도량
수 국 사
주지 지 원
■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236
TEL 053)983-1816

염 불 선 원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1동 578
TEL 053)782-0120

지장불교 복지문화재단
지 장 선 원
선원장 지 공
■ 대구광역시 동구 진인동 234
TEL 053)986-0151

대한불교법화종
천 불 사
주지 법 원
■ 경북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32-1
TEL 054)933-7881

해 운 정 사
주지 청 명
관음회 신도일동
청명노인복지센터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2동 1928-13
TEL 053)621-6237

운불련 호출택시
회장 성승길
■ 053)766-7777,053)323-7777
053)566-7777,053)744-8888
053)764-0763~4
FAX 053)764-0766

'큰사람을 키우는 민족사학'
자비와 지혜를 배우는 전법도량
학교법인 능인중·고등학교 능인학원 상 아 유 치 원
이 사 장 자 헌
능인중학교장 아 용
능인고학교장 조상승
상아유치원장 정인애
■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7(지산동 800)
TEL 053)764-0807 / FAX 053)763-1807

운 주 사
주지 약 천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 1동 74-9
TEL 053)951-0002~3

대한불교 법화종
용 화 사
주지 혜 각
■ 경북 영천시 신녕면 화석리 740
TEL 054)332-0235

지 묘 사
주지 도 상
보이차, 전통차, 차탁,
차 도구 일체
야행화, 산야초
■ 대구광역시 중구 지묘동 756
TEL 053)983-8032

한국불교 태고종
태 봉 사
주지 영 산
사부대중 일동
■ 전북 익산시 삼기면 연동리 150번지
TEL 063)858-77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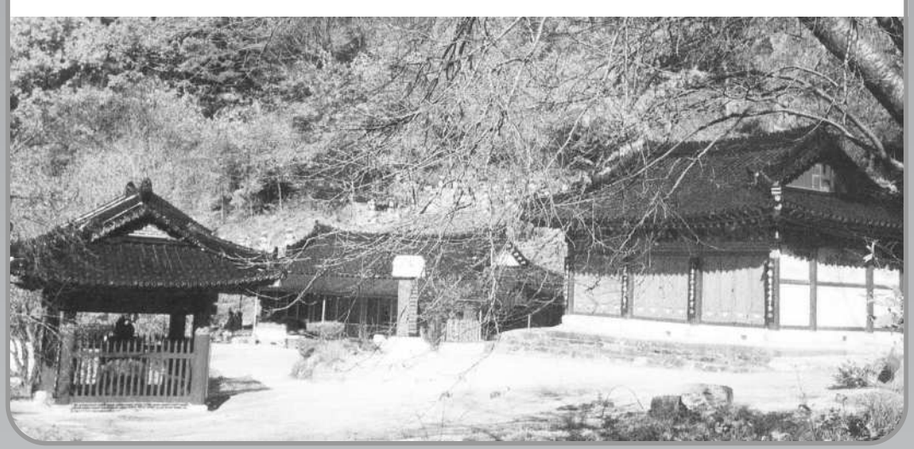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
정 각 사
주지 일 행
사부대중 일동
■ 전북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65-5
TEL 063)857-6533

대한불교조계종
용 연 사
주지 활 중
비슬산 천년고찰
부처님 사리모신 적멸보궁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882
TEL 053)616-8846
TEL 053)616-0408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직지사말사
주흘산 혜 국 사
주지 보 천
사부대중일동
꿈나무아동센터 운영
• 문경읍 상초리 주흘산에있는 사찰로 부속암자.안적암.은선암.용화암이있다.
• 신라말에 보조국사 가창건. 임진왜란 때 이절에서 의승이 많이나와 나라를 구하는데 크게 공헌하여 절 이름을 혜국사로 지었다.
■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13
TEL 054)571-0341

영농법인 풍기정품
인삼제조창 풍삼정
• 직접재배 가공하여 양심을 속이지않고 만든 100ml X 60포(한달분) 홍삼액기스 산삼배양근추출액. 홍삼편. 홍삼청국장. 홍미삼. 백미삼. 홍삼먹은 사과즙. 풍삼정쥬니어홍삼액.홍삼환.홍삼진액. 직접 재배하는 수삼
• 홍삼의 샤포닌은 성분과 향기를 보유하기 위하여 저온에서 72시간 이상을 숙성발효시켜만든 홍삼액기스입니다.
영농법인 풍기정품인삼제조창
풍 삼 정
■ TEL 054)636-2174

한국불교 화엄종
구이 정 각 사
주지 벽 송
사부대중일동
■ 전북 완주군 구이면 불제로 824-35 (덕현리 산176)
TEL 063)222-2555~6



캐나다 무신론·불가지론자 '불교' 호감

〈밴쿠버 선〉지, 1백7십만명 대상 종교 설문조사
응답자 58% '불교, 달라이 라마' 선호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는 어떤 종교에 호감을 가지고 있을까?

〈밴쿠버 선(The Vancouver Sun)〉지가 21일 '브리티쉬 컬럼비안(British Columbians)'으로 불리는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의 종교별 호감도를 설문 조사한 결과, 이들이 불교와 가톨릭을 선호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밴쿠버 선〉지가 '인사이트 웨스트(Insights West) 여론조사'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설문 조사는 무신론자 5십5만명, 불가지론자 5십5만명, 다종교주의자 6십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는 종교지도자, 종교철학, 종교수행, 동양종교 등에 대해 응답자의 관점을 선택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

선호하는 종교와 종교지도자를 묻는 설문에서 응답자의 58%는 '불교와 티베트 망명 지도자 제14대 달라이 라마'라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불교는 다른 종교와 '창조자(혹은 신)'의 존재를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동양종교 관련 문항에서 응답자 대부분 "윤리적인 행동에 따라 오는 보상이란 개념에 적극 호응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밴쿠버 선〉지는 밝혔다. "이는 '카르마를 믿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5%가 '그렇다'고 응답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밴쿠버 선〉지는 "응답자의 63%는 '죽음 이후에도 환생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고, 78%의 응답자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특별한 경우에 '불교, 가톨릭, 유대교, 시크교의 종교 시설에 갈 수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 **과반수이상 불교 선호 이유는?**
> **타종교 · 절대자 강요 없어**
>
> **기독교에 대해선 47%가 부정적**
> **향후 캐나다 내 불교 성장 전망**



캐나다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밴쿠버 선(The Vancouver Sun)〉의 홈페이지.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인사이트 웨스트(Insights West) 여론조사' 관계자는 "〈밴쿠버 선〉지의 의뢰로 진행된 이번 설문조사 결과, 동양의 종교와 철학 특히 불교가 캐나다의 정신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캐나다에서 불교 교세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차고 건물'이 '불교문화복합단지'로

美 웨스트 벨리 시티, 첫 캄보디아 불교사원 들어선다
지역 캄보디아 불교계 20년 숙원사업

솔트레이크 카운티의 위성도시 웨스트 벨리 시티(West Valley city)에서 캄보디아 불교계의 오랜 서원이 실현되고 있다.

〈솔트레이크 트리뷴(The Salt Lake Tribune)〉지는 21일 "유타(Utah) 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웨스트 벨리 시티에서 캄보디아 불교계의 첫 귀의처가 될 사라 첸(Sala Chhan) 사원이 건축되고 있다"며 "이는 웨스트 벨리 시티 캄보디아 불교계의 20년 숙원 사원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사리뜨(Sarith) 스님은 "살라 찬 사원은 부처님 도량일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문화를 보존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라고 의의를 평가했다. 이어 "300여 명이 함께 법회를 봉행할 수 있는 규모로 건축되고 있는 사라 첸 사원은 이제 캄보디아인만의 성전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귀의처로서도 부족함이 없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0년대 초 미국으로 이주한 사리뜨 스님은 웨스트 벨리 시티에 정착한 후 이 지역의 차고 건물을 임대, 부디카르암(Buddhikaram) 사원이라는 편액을 걸고 캄보디아 이주민들의 신심을 달래 왔다.

〈솔트레이크 트리뷴〉에 따르면, 웨스트 벨리 시티 캄보디아 불교계의 첫 사원이 될 사라 첸 사원은 '부디카르암'이라는 편액을 내걸었던 차고 건물을 지난해 말 매입하면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차고 건물 매입비용은 법회와 축제 때마다 마련한 바자회의 수익금과 캄보디아 이민 2세대의 적극적인 희사금으로 충당했다.

"사라 첸 법당에서 법회를 봉행하는 날이 기다려진다"는 베니 느헴(Vanny Nhem · 44 · 이민 2세)씨는 "캄보디아 전통무용을 배우고 선보이며 캄보디아어를 배우는 문화학교의 역할까지도 수행할 '캄보디아 불교문화 복합단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보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美 유타(Utah) 주 웨스트 벨리 시티의 첫 번째 캄보디아 불교사원인 '사라 첸(Sala Chhan)' 사원의 건축 현장.

"인도, 불교문화재 관리 허술하다"

인도 문화단체, 정부에 소송 제기할 계획

인타치(인도예술문화유산신탁, INTACH:Indian Trust for art and Cultural Heritage) 회원들이 토틀라콘다와 바비콘다 지역에 위치한 세계적 불교유적지에 대한 당국의 관리 소홀을 문제삼았다.

두 곳에 위치한 부조 유적지에서는 관광객들이 숙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바비콘다 유적지 일부는 주택사업 용지로 전용되기도 했다.

인타치 회원들은 "2월 토틀라콘다와 바비콘다 지역을 여행하던 관광객들이 유물국에 숙박요청을 했다"며 "당국은 간청에 못 이겨 이를 수락했다 하지만 유적지 관리보다 관광객 요구가 중요한 것"이냐며 맹공을 폈다.

이와 더불어 인타크 회원인 라니 사르마씨는 2009년 당시 수상과 의회 부의장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편지에서 "문화재청이 ASI(인도 고고학연구소,The Archaeological Survey of India) 기준에 따라 유적을 관리할 기술이나 인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ASI가 유적지를 인수받아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관리들이 편지를 받은 후 유적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며 "그들 역시 2300년 역사를 지닌 유적지를 ASI가 직접 관리해야한다는 것에 대해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인도 정부가 불교 유적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광개발을 추진하며 수년 동안 유적을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화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인도 토틀라콘다에 위치한 불교유적지 입구(사진 왼쪽)와 내부(사진 오른쪽).

美 불광사, 환경 지키고, 화합 다진다

제3회 지구의 날' 기념법회 봉행… 타종교계도 참여 눈길

미국 웨이크 카운티(Wake County)의 불교계가 환경 운동에 적극 나서는 한편 종교 화합도 꾀하고 있어 주목된다.

〈뉴스옵져버(Newsobserver)〉지는 "노스캐롤라이나 주 북동쪽 중앙에 있는 웨이크 카운티의 불광사에서 4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제3회 지구의 날' 행사를 개최됐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 '지구의 날'을 맞아 자연보호주의자들이 전역에서 자연의 보호와 관리,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벌이고 있다"고 소개한 〈뉴스옵져버〉지는 "웨이크 카운티의 불교계는 올해로 세 번째 '지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며 "특히 올해 불광사의 '지구의 날' 행사에는 웨이크 카운티의 기독교, 가톨릭, 유대교, 이슬람교 등 다른 종교계 인사 50여 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고 전했다.

이번 불광사 '지구의 날' 기념법회에 참석한 린다 채플린(Linda Chaplin · 가톨릭)씨는 "자연을 지키는 일에 종교의 벽은 있을 수 없다"며 "부활절 기간이지만, 불광사에서 열린 '제3회 지구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종교인으로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념법회 진행을 맡은 질 첸(Jill Chen) 법사는 "부처님의 가르침 하나하나는 환경의 경구 그 자체"라며 "무소유의 삶을 지향하는 불교의 덕목은 현대인들이 지구를 지키는 가장 큰 덕목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범종교 행사를 위해 올해 초부터 웨이크 카운티의 각 종교 지도를 만나 '지구의 날' 행사를 공동 주최하자는 데 공의를 모았다.

〈뉴스옵져버〉지는 "모든 종교는 인간, 나아가 생명을 존중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캐롤리나 라모스(Carolina Ramos · 유대교)씨의 말을 인용하고, "이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재정한 '지구의 날' 행사에 각 종교계가 한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라며 "불광사의 '지구의 날' 기념행사는 웨이크 카운티의 종교간 소통의 길도 열어주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한 해상기름 유출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 미국 상원의원 게이로드 넬슨이 주창하고, 당시 하버드대에 재학 중이던 데니스 헤이즈가 발벗고 나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재정됐다.

오종욱 편집위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웨이크 카운티(Wake County)의 불광사에서 '제3회 지구의 날' 기념법회가 봉행됐다. 이번 기념법회에는 웨이크 카운티의 기독교, 가톨릭, 유대교, 이슬람교 등 다른 종교계 인사 50여 명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佛紀 2558年 甲午年 Buddha's birthday |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잘 길들인 말처럼 모든 감각이 잔잔하고 자만과 번뇌를 끊어 버린 사람은 신들까지도 그를 부러워한다. 법구경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인사 원당암
"혜암 큰스님께서 주석하시던 도량"
감원 원각
사부대중일동

경남 합천구 가야면 치인리 10(해인사) 전화 055)932-7308

참선과 자비도량 참법 기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안흥사
주지 대웅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를 위한 기도와 연등을 올립니다.

경북 경산시 상방동 71번지 전화 053)815-4030 FAX 053)814-5142

불기 2558년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대구교구
교구원장 고봉(달마선원)
총무 무경(세명정사)
사회 법광(법성사) 도정(송학사) 석경(무상사) 지공(혜각사) 도법(도성사) 무상(영통사) 석월(성주사) 정암(천월사)
교구종회의장 혜일(문수사)
감사 무상심(보국사) 법성(도광사) 만성(정수사) 보훈(평등사) 법인(법화선원) 무상(보현암) 지현(법천사) 동호(죽림사) 명신(제왕사)
경덕 성수 금용 지명 도선 보리심 무법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 정진을 함께하실 도반 여러분의 입종을 환영합니다.
대구교구 종무소 : 대구광역시 동구 용수동 439번지
달마선원 053)986-7134

연등법회·회향·전통문화마당 (4월 26~27일)



올해 연등회 회향한마당은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하는 장'으로 마무리됐다. 행사에 참여한 사부대중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석가모니 정근을 하고 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동국에서 진행된 연등법회에서 참가자들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정근을 하고 있다.



인묵 스님의 집전으로 천도재를 진행했다.



기원의 장에 참석한 불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성신여대 박선연 양이 발원문을 낭송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주요 종단 지도자들이 백등을 들고 연등행렬에 동참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관불의식 모습.





불교문화마당에 참가한 외국인이 등 만들기체험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진관 스님의 달마도시연.

佛紀 2558年 甲午年 Buddha' s birthday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 운 사

조실 현봉근일
회주 송암혜승
서당 원남각성
주지 조전호
부주지 운

총무국장 도륜 기획국장 용담
교무국장 성공 재무국장 승봉
사회국장 등안 호법국장 정우
포교국장 동우 연수국장 지담

사부대중일동

고운노인요양원 원장 석우
의성노인복지관 관장 탄하
영주장애인복지관 관장 도선
안동청소년문화센터 관장 등운
연화마을관장 구견
안동장애인복지관 관장 이호걸

◆사찰음식체험관 :
사찰음식강의,청국장,두부만들기체험
템플스테이 둘째 · 넷째주 토 ~ 일 (1박 2일)
신묘장구대다라니철야정진 매월 첫째주 토요일



•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415 (구계리116) ☎ 054)833-2324
• 사찰음식체험관 ☎ 054)834-2324 템플스테이 833-6933 / 전송 834-6935 (www.gounsa.net)

佛紀 2558年 甲午年 Buddha' s birthday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며,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유가종찰·미륵성지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모악산 금산사

조실 태공월주
회주 금산도영
주지 자산성우

총무 원혜
기획 화평
교무 원융
재무 혜곡
사회 덕림
호법 원성
포교 지월
원감 석초
신도회장 청광 김백호 외 사부대중 일동



부설
전북불교회관 전북 김제시 금산면 모악 15길 1
서원노인복지관 전화 063)548-4440~2 / 팩스 063)548-1390
룸비니 어린이집 홈페이지 www.geumsansa.org 이메일 geumsansa@hanmail.net

연등행렬(4월 26일)

불기 2558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4월 26일 전국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연등축제가 열렸다. 서울 종로에서는 동국대에서 열린 연등법회에 이어 10만의 연등이 길을 밝힌 연등행렬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번 연등축제는 축제일 수 없다. 지난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참사 중의 참사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나라 전체가 슬프기 때문이다. 26일 연등행렬에 앞서 동국대에서 진행된 연등법회도 매년 선보였던 율동과 노래를 행사에서 지웠으며, 연등행렬에서는 화려한 장엄등을 자제하고, '보고 싶다', '아이들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엄마 사랑해요' 등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250여 장의 만장을 준비했다. 또한 행렬에 참가한 불자들은 화려한 연등 대신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백등을 들었다.

연등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던 대동한마당도 천도의식과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하는 국민 기원의 장'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어둡고 차가운 바다에서 생을 마감한 우리의 부모님, 형제, 아이들이 다시 밝은 세상에 태어나길 바란다."는 성신여대 박선연 양의 발원문으로 마무리 됐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250여 만장에 쓰여진 '어른들이 미안하다', '보고싶다', '아이들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 등의 글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아기부처님의 탄생을 기리는 장엄물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장엄물



불자들이 손수 만든 연등이 종로의 밤거리를 수 놓았다.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기 위해 연등행렬에 참가한 사부대중



오색연등 대신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연등.



연등행렬에 동참한 외국인들.

佛紀 2558年 甲午年 Buddha's birthday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강학과 수선, 문화와 복지공동체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도솔산 선운사

주 지 법 만
사부대중 일동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 복지재단
선운사 초기불교승가대학원
백 파 사 상 연 구 소
고 창 군 노 인 복 지 회 관
선운사 승려노후수행마을
선 운 사 성 보 박 물 관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고창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평생 수행과 교화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24교구 승려노후 수행마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 ☎ 063)561-1422 Http://www.seonunsa.org/



2558년 부처님오신날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선묵 혜자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
www.108sansa.com
TEL:(02) 900-0193 FAX:(02) 900-0195

佛紀 2558年 甲午年 Buddha's birthday | 전면광고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 B16

"병든 사람을 문안하는 것은 나(부처님)를 문안하는 것이요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사람은 나를 간호하는 사람이다." 〈증일아함경〉



모든 불보살님의 가피가 저 바다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불교태고종
보은산 금곡사
주지 보각스님
■ 전남 강진군 군동면 파산리 1012-2번지
전화 061)433-3407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96번지
전화 062)222-2202

대한불교조계종
보승사
주지 영도
신도일동
■ 전남 순천시 연향동 1442-4번지
전화 061)723-3161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사
주지 명신
[부설]
연화유치원, 어린이집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2동 448-2번지
TEL 062)227-7295 / 유치원 227-0173

한국불교태고종
법륜사
주지 월인
신도일동
■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206-5
전화 062)655-7444

대한불교조계종
비전사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 489-22번지
TEL 062)951-3562

대한불교조계종
법림사
대해노인복지센터
주지 무진
■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649-1번지
TEL 062)234-2207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절
유유암
주지 아도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 489-22번지
TEL 062)951-3562

대한불교조계종
광덕사
주지 효진
■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31-5
TEL 062)652-6050

대한불교조계종
무등산 원효사
주지 현지
신도회 일동
■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846
TEL 062)266-0326

대한불교조계종
완도 신흥사
주지 법일
완도 행복한 생협
청소년교육문화단체
장보고아카데미
■ 신흥사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성내리 168번지
전화 061)554-2634
신흥사 www.sinheungsa.net
완도행복한생협 www.wondocoop.com

대한불교조계종
동원사
회주 지각
주지 지장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1-6
TEL 062)227-3516

대한불교조계종
도갑사
주지 설도
■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8번지
TEL 061)473-5122

한국불교태고종
만덕사
주지 시각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1로 74-11
TEL 062)652-4920

대한불교조계종
만경사
주지 증현
■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산49-4
TEL 062)263-3180

佛紀 2558年 甲午年 Buddha's birthday | 전면광고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 B17

"물은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되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된다.
하지만 물 그 자체는 모양이 없는 것이다." 〈수능엄경〉



모든 불보살님의 가피가 저 바다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백양실버타운

원장 김영학

내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전남 나주시 봉황면 송현리 649-62
TEL 061)333-5622

지장도량 미륵사

사찰음식 전문점 수 자 타

주지 혜법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469-3
TEL 062)222-1145

무등산 두암동

꽃 피 움 절

선각불교문화원

회주 자공

주지 목언

■ 광주광역시 동구 두암2동 7번지
전화 062)263-0108

아주미디어

대표 오태준

콘서트. 체육대회,
대학축제, 지역축제
음향, 무대, 조명, 의자

■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42-6
TEL 062)381-8052
팩스 062)381-8056
010-3624-2321

현수막 제작 · 인쇄물 기획제작

부다기획

도서출판

수미등

현수막, 도서출판, 사보, 법요집
신문, 달력, 포스터, 카다로그
리플렛, 초대장, 봉투, 상장
상패, 수첩, 수료증, 명함, 스티커

광주시 동구 산수동 570-1
TEL 062)225-8825
FAX 062)225-8826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 광주포교당

길 상 사

주지 도제

새벽예불	매일 오전 5시
기본교리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일요가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중고등부법회	매월 2 · 4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목련합창단 연습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로 5번길 7 전화 062)955-4407
www.kilsang.kr

대한불교조계종 · 무등산

證心寺

주지 연광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56번지
전화 062)226-0108 / 전송 062)222-5997
www.jeungsimsa.org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죽 림 사

주지 법룡

■ 전남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산 1
전화 061)337-3620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광주포교당

성 거 사

주지 혜공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남구 서2동 143-2
전화 062)676-1080



도심 속 전통의 멋스러움이 숨쉬는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 광주포교당

원 각 사

주지 도요

- 원각사 지장전 만년위패 봉안
- 신묘장구대다라니 108독 정진기도
매월 첫째주, 셋째주 금요일 오후 7시 봉행 [지도법사 : 도요스님]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4가 51번지
전화 062)223-3168 / FAX 062)224-5280
www.wongaksa.org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법일, 무등,
시각, 행법,
이성기, 정범도

[부설] 어린이청소년공동체 나무숲 대표 지장

■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96-1
전화 062)223-3623

부처님오신날 특집

부처님 전기를 읽읍시다

부처님오신날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이고, 부처님의 삶은 곧 그 사상을 나타낸다. 부처님의 삶 자체를 알고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교를 공부하는 것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또 한 번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처님의 생애를 그린 좋은 책 11권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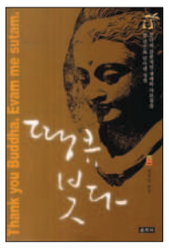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16 ~ 4/22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삶은 환타지다	월호	민족사
3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4	비울수록 가득하네	정목	쌤앤파커스
5	치유하는 유식 읽기	서광	공간
6	선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향적	조계종출판사
7	흠모 (우리 시대 수행자 스물한 분의 소승 이야기)	유철주	민족사
8	대방광불화엄경 강설 1(세주묘엄품 1)	무비	담앤북스
9	선정과 지혜 수행입문	남회근	마하연
10	아들에게 남기는 어머니의 마음공부	최혜자	운주사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신비' 벗겨낸 부처님의 생애



신간

땡큐 붓다

장종천 편역

운주사 펴냄

33,000원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한 권으로 담아낸 성전이다. 목숨을 건 고행과 마음통찰, 삶에 대한 깊은 자애와 연민, 제자들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자상하고 체계적인 가르침, 한 사람에게라도 더 진리를 전하려는 쉼 없는 전법의 노력 등 부처님의 모습과 일생을 연대기 방식으로 구성했다.

부처님은 신화 속의 가공인물이 아니다. 2,600년 전 이 세상에 태어나 온갖 제도의 불평등과 고통을 해결하고자 노력한 위대한 선각자이다. 부처님은 평생 현실적인 주제를 통한 가르침을 전했으며, 세상과 동떨어진 초월신, 기적, 구원 응징 등의 감언이설 대신 오직 내 앞에 겪고 있는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 한 권에
평생 지킨 일과 최대한 반영
초기경전에 근거해 실존적 인물 부각
원전에 충실하면서 난해한 서술 탈피

고통에 관한 가르침을 펼치셨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열반에 들 때까지 평생 동안, 하루를 정해진 일과에 따라 규칙적으로 사셨다. 이러한 일과는 35세에 성도한 이후 80세 입멸할 때가지 계속되었는데, 책은 그러한 부처님의 일상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책은 빠알리 다섯 니까야와 한글 번역본, 한역 아함경에서 삶의 의미를 일깨우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420경을 발췌하고, 다시 연대기적 연속성을 가진 경장, 율장의 전기파편과 마하바스뚜, 릴리따비스따라 등 2차 전기 자료와 볼 만한 전기 단행본 등을 두루 절충하여 요약한 성전이다. 기본적으로 니까야와 율장 등에 근거하되, 부처님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가감 없이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쉬운 일상적 언어와 구어체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누구나 쉽게 부처님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했다.

다음으로, 주제 혹은 형식에 따른 니까야의 구성을 해체하고 붓다의 일생과 가르침을 연대기적 순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독자들이 부처님 일평생을 따라가며 그 가르침들을 만날 수 있게했다.

내용적으로는, 난해한 이론이나 교리의 나열보다는 핵심적인 가르침과 수행에 도움이 되는 명료한 가르침, 그리고 삶의 의미를 일깨우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내용들을 간추렸다. 즉 무상, 고, 무아의 삼특상과 사성제, 삼법인, 팔정도, 연기 등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과 위빠사나 통찰명상에 대한 가르침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아울러, 단순히 부처님의 생애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들도 함께 다루어 부처님의 삶과 사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나아가 부처님을 둘러싼 사람들, 즉 제자들을 비롯해서 재가신도, 타종교인, 다른 종교사상가 등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폭넓게 수록함으로써 당시의 시대상 및 부처님과 승가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풍부하게 엿볼 수 있게 했다.

저자는 니까야의 해체와 새로운 구성을 통해 초인적, 신화적 존재로서의 부처님의 모습이 아니라, 역사적 현실 속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인간으로서의 부처님 모습을 소박하지만 감동적으로 복원해냈다. 또한 난해하고 번삽한 이론과 교리의 나열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생활 속에서, 수행과정에서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야말로 살아 있는 가르침들을 담아내고 있다. 바로 지금 눈앞에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중생들을 안락으로 이끌기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생하게 전해진다. 오랜 세월 부처님은 문화콘텐츠의 매력적인 원형이었다. 또한 그의 가르침은 종교를 넘어 철학, 사상, 과학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2,600여 년 동안 숱한 상상력과 이론적 천착들이 더해지면서 본래의 모습은 다양하게 각색되고 발전(변형?)되어 왔으며, 현대를 사는 우리는 대부분 그 프리즘을 통해 부처님을 만나고 있다. 그렇다면, 모든 신비와 덧칠을 벗겨낸 붓다의 민낯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모든 각색과 주관을 걷어낸 다르마(법)의 맨살은 어떤 것일까? 책을 통해 부처님의 각색되지 않은 원형의 순수한 모습, 가공되지 않은 그대로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법정 스님의 번역으로 읽는 부처님 일대기



불타석가모니 2판

와타나베 쇼코 지음 | 법정 옮김

문학의 숲 펴냄 | 1만6천8백원

법정 스님이 옮긴 부처님 전기로 일본의 저명한 불교학자인 와타나베 쇼코의 저술이다. 역사적 사실과 신화적 요소가 적절히 잘 어우러진 책은 법정 스님이 1975년에 처음 번역했으며 2010년에 재출간 됐다. 2판에는 법정 스님이 입적 2주 전에 병실에서 구술하여 완성한 서문을 싣고 있다. 기존의 부처님 전기 중에서 탁월한 작품으로 꼽히는 책은 방대한 자료들을 토대로 중요한 사건들을 종교적이면서 실증적이고 객관화된 시선으로 섬세하게 기록했다.

시인 고은이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부처님



우리 곁에 오신 부처님

고은 지음 | 한태희 지음 | 지형 펴냄

노벨상 후보에 오르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인 고은이 아이들을 위해 쓴 부처님 전기다. 책은 고은 시인이 〈법화경〉, 〈화엄경〉, 〈법구경〉 등에서 어린이에게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 스물일곱 편을 뽑아 간결하면서도 아름다운 문장으로 풀어냈다.

책에 담긴 스물일곱 편의 이야기는 짧으면서도 강한 여운을 남기고, 현실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직접적인 해답을 준다. 불교적인 색깔을 띠지만 우화처럼 편하게 읽을 수 있다.

부처님 가르침은 관념 아닌 '구체적' 가르침



붓다 그 삶과 사상

나카무라 하지메 지음

이미령 옮김 | 무우수 펴냄

일본 NHK방송의 TV 프로그램 '마음의 시대'에서 1년 동안 '붓다의 삶과 사상' 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나카무라 하지메의 불교강좌를 연출자인 타나베 쇼우지가 정리하여 엮은 책으로, 종교의 창시자로서가 아닌 인류의 스승으로서 붓다의 생애를 원시불교의 경전 구절들을 인용하여 보여주고 있다.

책은 관념이나 형이상학으로서의 깨달음과 열반을 추구하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문서와 안내서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하고있다.

부처님의 출가동기 '사문유출' 아니다



붓다의 가르침

B.R.암베드카르 | 박희준 · 김기은 옮김

민족사 펴냄 | 7천원

인도의 암베드카르 박사의 저서를 번역한 것이다. 책의 주제는 부처님의 다르마(법)에 관한 것으로, 부처님의 생애를 간명하고도 위엄 있는 언어로 서술함으로써 그 다르마를 드러내고 있다. 책에는 새로운 사실이 한 가지 있다. 기존 자료들은 부처님의 출가동기를 사문출유(사문유관)에 두었고, 거기에 이의를 단 다른 자료는 없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출가의 동기가 정치적인 문제에 있었던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을 바꾼다!



내 인생의 멘토 붓다

이중석 지음 | 불광출판사 펴냄

1만8천원

책은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멘토' 로서의 부처님에 초점을 맞춰 육신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의 붓다가 어떻게 삶을 이끌어가면서 가르침을 펼쳤는지를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경전과 율장, 수많은 참고자료에 근거하여 붓다에 대한 신화적이고 전설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인간 붓다의 모습을 실감나게 재현했다. 우리와 동떨어진 부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삶과 함께하는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부처님의 발자취를 집대성한 불교 입문서



부처님의 생애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지음

조계종출판사 펴냄 | 2만4천원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부처님의 생애 편찬위원회가 지은 것으로, 부처님의 생애를 올바르게 전승하기 위해 빨리본, 산쓰끄리뜨본, 한문본 경전 등을 근본자료로 하고 인도고대사를 참조하여 검증된 학술적 내용을 바탕으로 한 불교입문서이다. 부처님의 삶에 관한 책들은 많이 있다. 관련 학자 일곱 명을 편찬위원으로 위촉하여 종단본〈부처님의 생애〉를 편찬했다. 책은 부처님의 삶을 생생히 표현한 불전도를 곳곳에 수록하여 사실성을 더하고 본문의 이해를 높였다.

풍부한 사진과 지도, 도형을 곁들인 수작



불타의 세계

나나까무라 하지메(中村 元) 지음

김지견 옮김 | 김영사 펴냄

불교의 발생과 성장, 개화의 자취를 더듬어 그 근본과 현주소를 생생하게 기술했다. 세계적인 불교학계의 거장들이 불교성립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과 부처님의 생애, 불교의 기본교리 및 불교학, 인도철학의 연구 성과를 집성하여 간결하게 서술했다. 인도에서 불교가 발생 · 발달 · 쇠망하기까지의 배경과 참모습을 풍부한 사진과 지도, 도형을 곁들여 전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이론적 교리만이 아니라 부처님 재세시의 육성과 그 후 불교도들의 숨결을 생생히 느끼게 한다.

부처님의 삶을 인간의 역사로 조명



인간 붓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

법륜 지음 | 정토출판 펴냄 | 1만4천5백원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실현하는 평화운동가 법륜 스님의 부처님 전기로, 2,600여 년 전 다녀가신 부처님의 삶을 인간의 역사로 재조명했다. 부처님의 위대함을 찬탄하기 보다는 부처님의 삶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부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어떻게 살아가실까?' 라는 물음에 답을 던진다. 부처님이 걸어가신 삶이 지닌 본질적 의미를 찾아내, 우리 삶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역사적 존재로서의 부처님을 만난다



고따마 붓다

성열 지음 | 문화문고 펴냄

2만2천원

책은 역사의 기록과 설화의 기록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역사와 설화' 라는 부제를 붙인 것은 부처님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설화를 구분하여 보다 더 사실적인 모습을 들여다보자는 뜻이다.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룸으로써, 자신의 시대가 안고 있는 모순과 불합리를 통찰하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역사적 존재로서의 부처님을 만나게 해준다.

열반하셨을 때의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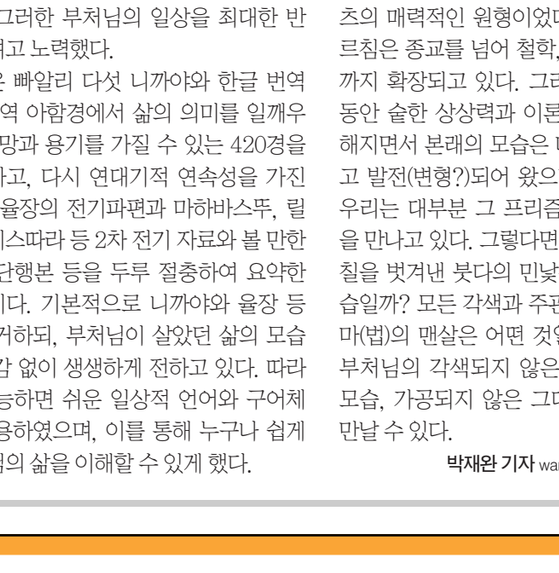
대반열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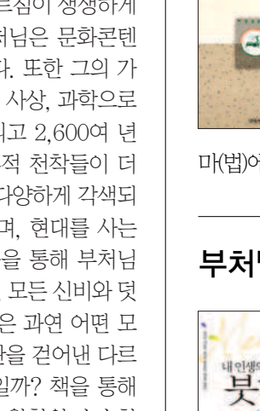
불전간경회 편 | 강기희 역

민족사 펴냄 | 1만원

〈대반열반경〉은 부처님의 열반을 중심으로 설한 경전으로 부처님의 생애를 볼 수 있다. 부처님이 열반하셨을 때의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된 이 경은 불신(佛身)의 상주, 열반의 상락아정(常樂我淨), 그리고 일체의 중생은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 〈대반열반경〉은 빨리경장 계통과 한역 경장 계통이 있다. 한자의 특수성 때문에 빨리 계통의 〈대반열반경〉과 한역 계통의 〈대반열반경〉에는 내용상 차이가 있다.

인등 불사와 법당 장엄을 한 번에...
면 자체 발광 성불원 LED 인등
기존에 없는 특허기술이 접목된 면 자체 발광 인등으로
법당 전체가 황금색 조명으로 장엄됩니다.





발명특허
발명특허번호 제10-135004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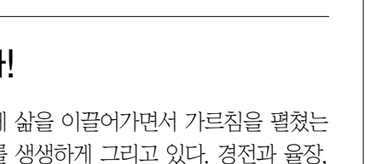
•성불원 인등 확대 모습
•법당 크기에 따라 2가지 크기 선택 가능합니다. 불화 자체가 장엄하게 빛을 발합니다.

성불원 LED 인등의 특징
1 기존의 인등과 달리 월등한 밝기로 법당 전체가 장엄됩니다.
2 LED만의 저렴한 전기료와 긴 수명으로 누구나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원하시는 어떠한 배경 불화로도 제작 가능합니다.

불은 30년 정진으로, 스님들의 장엄 불사에 함께 하겠습니다.
성 불 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전화 011-276-5251. 010-6857-0108
無碍 양학모 합장 인사 올립니다

목각단청운각 (간편조립)
법당장엄 5층 목탑
전통적인 연꽃 단청과 문창살문양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보다 장엄하게 설치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대웅전, 산신각, 포교당, 소법당 등의 천장에 누구나 간편하게 직접 조립할 수 있게 제작



▣ 3자 : 1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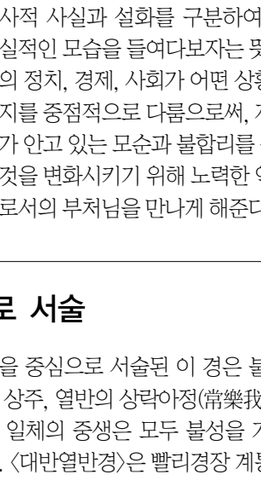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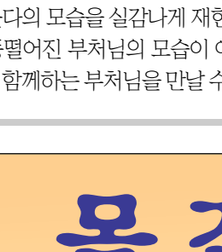
▣ 2자 : 4판



▣ 1자 : 4판

※ 단청운각 1세트 17자 (5m, 10cm), 가격 : 90만원





• 크리스탈사리탑
높이 45cm / 가로, 세로 20cm
가격 : 35만원

• 크 기 : 높이 120cm / 하단 가로 45cm
보급가 : 900,000원 (배송비 포함)
*내부 조명등 있습니다.

주문문의 고전상사
전화 : 031)442-3168 / 010-5599-3165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18-185번지
계좌번호 : 농협 302-0519-1995-01 (예금주 : 장돈희)
모든 제품은 입금 후 우편 배송하여 드리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하여 드립니다.

삶과 세상 바꾸는 첫 단계… '마음'을 가꿔라

마음의 정원을 거닐다

지안 스님 지음 | 불광출판사 펴냄 | 1만2천원



조계종립 승가대학원장으로 주로 스님들을 가르치며 '스님들의 스승'으로 불리는 지안 스님에게 어느 날 문득 한 생각이 들었다.

"산속 생활에 만족하며 지내던 어느 날, 생존 경기를 벌이는 현대인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문득 들었다. 그 무엇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제삼자의 입장을 분명히 지키면서, 누군가의 승리나 패배를 바라는 대신 경기를 벌이는 양쪽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며 응원하고 싶어진 것이다."

산중과 도시를 오가며 생활해온 스님은 산속과 도시 풍경, 내면을 탐구하는 생활과 세속적 가치를 쫓아가는 생활의 뚜렷한 대비 속에서, 마치 외계인 인류학자가 지구인을 관찰하듯 현대 도시인들의 생활을 지켜봐왔다. 그 덕에 요즘 사람들을 가두는 생각의 감옥, 다시 말해 우리 시대의 정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건 바로 '행복하려면 내면을 외면하고 바깥을 좇아라'이다. 하지만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이 구호는 도리어 행복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 그것이 초래한 사람들의 황량해진 내면 풍경과 인간적 가치들의 몰락이 물질적 풍요를 간단하게 무효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끝모를 결핍감으로 잠식된 마음과, 인간적 사회를 지탱하는 토대가 붕괴된 현실은 현대인이 겪는 고통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

스님은 이 책에서 현대인을 향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내비치며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그러다가도 어느 대목에 가서는 단호한 사자후를 던진다. 왜 바깥 풍경에만 온통 주의를 쏟고 자기 내면 풍경을 황량하게 방치하냐고 말이다.

달콤한 위로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는다. 현실을 바로 보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꿋꿋해져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음을 스님은 이 책을 통해 전한다. 수동적으로 치유 받는데서 벗어나 자신이 주체가 되는 능동적 삶을 원하는 이들에게 이 책은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책은 마음의 일들에 대한 단상들을 '1장 일구기, 2장 기르기, 3장 거두기, 4장 나누기'라는 네 개의 카테고리에 따라 정리해 소개한다. 순서에서 짐작되듯, 마음을 가꾸는 최종 목적은 나누는데 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운명이지만,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이 정도이기에 타인의 행복 없이 내 행복도 없다는 것이다.

"현대인은 마음이 차가운 냉장고 인간" "인심이 메마른 사회" "바야흐로 도덕 불감증 시대의 도래, 순수한 인간애의 실종" "모방만 하며 살아가려는 이 서글픈 현실" 등등, 스님은 이 책에서 현대 사회와 사람들을 거리낌 없이 비판하고 그 현실을 돌파할 처방을 내린다. 오직 사실만을 말하기를 통해 사람의 의식을 일깨우고 마음을 바꾸며, 바뀐 마음이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이 다시 사람을 계속 살 수 있게 해주는 메커니즘은 지안 스님이 선택한 독특한 응원 방식이다.



마음 가꾸기는 정원 가꾸기와 흡사

내면 변화없이는 외면 못 바꿔

스님이 보기에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첫 단계는 바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다. 내면이 바뀌지 않고서는 외면을 바꾸는 '행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을 가꾸는 일은 정원을 가꾸는 일과 흡사하다. 마음을 찬찬히 관찰하고 잘 일궈내어 좋은 씨앗이 마음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뿌리를 내린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도 주고 거름도 뿌리며,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가끔 잡초도 매주며 곁에서 느긋하게 지켜보고, 싹이 잘 자라 열매 맺으면 거둬서 이웃과 나누는 일까지 모두 닮았다. 손에 흙 묻히고 땀흘리며 한 10년쯤 보내야 완성되는 정원의 아날로그적 감성 역시 마음 가꾸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지안 스님은?

통도사 강원 강주를 비롯해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고시위원 및 역경위원장을 역임했다. 35년간 교학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현재는 조계종 종립 승가대학원장으로 승가 교육에 매진중이다. 반야불교학당과 반야경전교실을 개설해 많은 재가불자를 위한 교학 교육에 관심이 많다. 저서로는 〈기신론 강의〉 〈신심명 강의〉 〈기초경전해설〉 〈보현행원품 강의〉 〈학의 다리는 길고 오리 다리는 짧다〉 등과 역서로는 〈대반니원경〉 〈대승기신론강해〉 등이 있다.

천년 비바람 맞으신 부처님 모습은?

마애불을 찾아가는 여행

유동후 지음 | 토파즈 펴냄 | 1만8천원



원효가 손톱으로 그렸다는 구례 사성암 마애불, 학이 부리로 쪼았다는 천안 성불사와 만일사 마애불, 베틀바위의 슬픈 사연을 간직한 감리마애불, 대통령으로 환생했던 봉화산마애불, 1년에 딱 하루만 친견할 수 있는 봉암사 마애불 등등. 우리나라에는 암벽에 새겨진 부처님들이 곳곳에 많다.

이 책은 지난 5년 간 저자가 둘러본 우리나라 마애불(磨崖佛)에 대한 종합 보고서이자 답사기다. 불교문화재에 관심 있는 사람도 쉽게 파악하기 힘든 총 152기의 마애불을 직접 답사해 사진을 찍고 찾아가는 법 등을 꼼꼼히 정리해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게 소개한다.

마애불은 오래된 석불 가운데서도 조성 당시의 원형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자연스럽고 아름다우며, 규모면에서도 압도적인 예술품이다. 마애불이란 '암벽에 새긴 불상'을 말한다. 이는 주로 깎아지른 절벽 등에 부조(浮彫)나 선각(線刻)으로 조성됐다. 기원전 2~3세기에 만들어진 인도의 아잔타, 엘로라 석굴사원 등이 시초로 알려졌으며, 4세기 중엽 중국 둔황의 텐포동(千佛洞)을 비롯하여 텐티산(天梯山)·마이지산(麥積山)·윈강(雲崗)·룽먼(龍門) 등의 마애석불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런 불상 조성양식이 우리나라에 처음 전해진 것은 7세기 전후 충청도 지역이고,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백제의 미소'로 알려진 서산마애삼존불이다.

이 책은 불상에 대한 학술연구 관점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우리 불교문화재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안내하는 가이드북이다. 그래서 불상에 얽힌 흥미로운 전설과 설화도 덧붙였고, 초심자도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내비게이션 정보와 이동 경로 등을 꼼꼼히 일러준다.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뿐만 아니라 우리 곁 가까이 숨어 있는 미지정 문화재까지, 불자들은 물론 국내 불교문화재에 관심 있는 이들이 즐겨 찾는 불상까지 모두 답사해 편견 없이 알려준다. 그리고 책 말미에는 초심자를 위한 용어해설도 곁들였다. 광배와 법의 형태, 수인은 물론 헷갈리기 쉬운 비로자나·아미타여래·약사불 등 부처님의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마애불은 그 자체로 박진감 넘치는 예술품이다. 사진은 우리나라 3대 관음도량인 강화 보문사 마애불.

대개 절을 찾는 이들은 자신이 다니는 법당 안 부처님에 대해서는 잘안다. 하지만 법당 밖 부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중국이나 태국 등이라도 여행하게 되면 거기서 만나는 불상의 규모에 압도당하고 만다. 정작 그런 불상들 못지않은 훌륭한 부처님들이 우리 곁 곳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말이다. 이 책의 저자는 아웃도어의 일상화 시대, 물질만능을 벗어나 나를 회복하고 건강을 위해 걷기와 등산 등의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이즈음 '오래된 석불 순례여행'을 제안하는 마음으로 책을 엮었다고 한다. 절 밖의 돌부처들, 천년 세월 비바람을 맞아왔지만 정작 우리가 무관심했던 불상들, 가까운 들녘에, 혹은 깊은 산속에 숨어서 누군가의 마음공양을 기다리고 있을 부처님을 방문해볼 것을 권한다.

문화재에 관심있는 사람이든 간절한 염원을 안은 기도 객이든 상관없다. 부처님은 누구라도 따스한 염화미소로 맞아주실 것이다. 경외감에 엎드려 절을 올려도 좋고, 무심한 세월에 상처 입은 돌을 가만히 어루만져도 좋다. 마애불 앞에 서면 천 년 전 바로 그 자리서 동아줄 하나에 목숨을 의지한 채 그 숱한 시간 단단한 화강암을 쪼아댔을 석공의 땀방울과 숨소리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김주일 기자

인터뷰 파아옥 명상센터 수행후 '열반…' 책 펴낸 정명 스님

열반증득은 마음반조로 탐욕과 성냄의 소멸여부에 따라 판단



열반 닙바나 니르바나

레디 사야도 · 마하시 사야도 지음 | 정명 스님 편역
푸른향기 펴냄 | 2만5천원

한양대 산업공학과를 나와 다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드렉셀 대학 경영자 과정까지 수료한 젊은 엘리트. 대기업 인사팀장으로 승승장구하던 그가 돌연 2005년 태고종으로출가하고, 짐을 꾸려 2006년 3월 미얀마 파아옥 명상센터로 들어갔다.

주인공은 김천 성전사 주지 정명 스님이다. 스님은 13개월 동안의 수행을 통해 간화선보다는 위빠사나 수행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 따라서 정명 스님의 수행 체험은 남방불교 수행의 핵심에 닿아있고 그만큼 체험 기록은 생생하다. 숨과 날숨에 마음을 챙기는 명상법, 즉 아나파나 사띠의 궁극도 열반이다. 수행성취의 조건을 충족시키며 정진하는 수행자가 도달해야 할 마지막 목표인 것이다.

이번에 출간한 〈열반 닙바나 니르바나〉는 괴로움이 소멸된 열반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경전과 주석서, 그리고 아비담마 내용을 모두 뽑아 정리했다. 그리고 마야시 사야도와 레디 사야도의 열반론을 옮겨 묶어서 수행자가 참고토록 했다. 저자는 "불교가 한국에 전래된 이래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수행자들과 대화 하다보면 열반에 대한 개념이 확립돼 있지 않음에 놀란다"며 "부처님 가르침은 하나인데 왜 가장 중요한 열반이란 개념이 아직까지도 일치되지 않아 서로를 불편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됐다"고 출간 취지를 서두에서 밝힌다.

열반 증득은 생사 문제를 극복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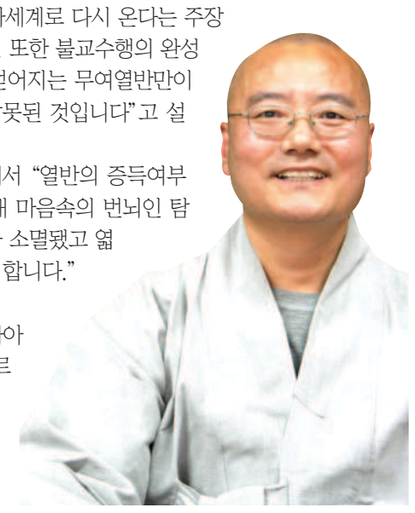
5부 니까야 열반 관련 경전 모두 뽑아

책은 다소 어렵다. 저자가 대중성보다는 수행자들을 위해 썼기 때문이다. 이 책은 열반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5부 니까야(빠알리)에 나오는 열반과 관련 경전들을 모두 뽑아 한 곳으로 모은 후 해당 경전들에 대한 주석서의 설명도 함께 보도록 구성됐다. 또한 수행 언어인 아비담마와 남방불교 수행 매뉴얼인 〈청정도론〉에 나오는 열반에 관한 설명도 함께 소개했다. 무엇보다 이 책이 전문서로서 돋보이는 것은 열반에 대한 부처님의 원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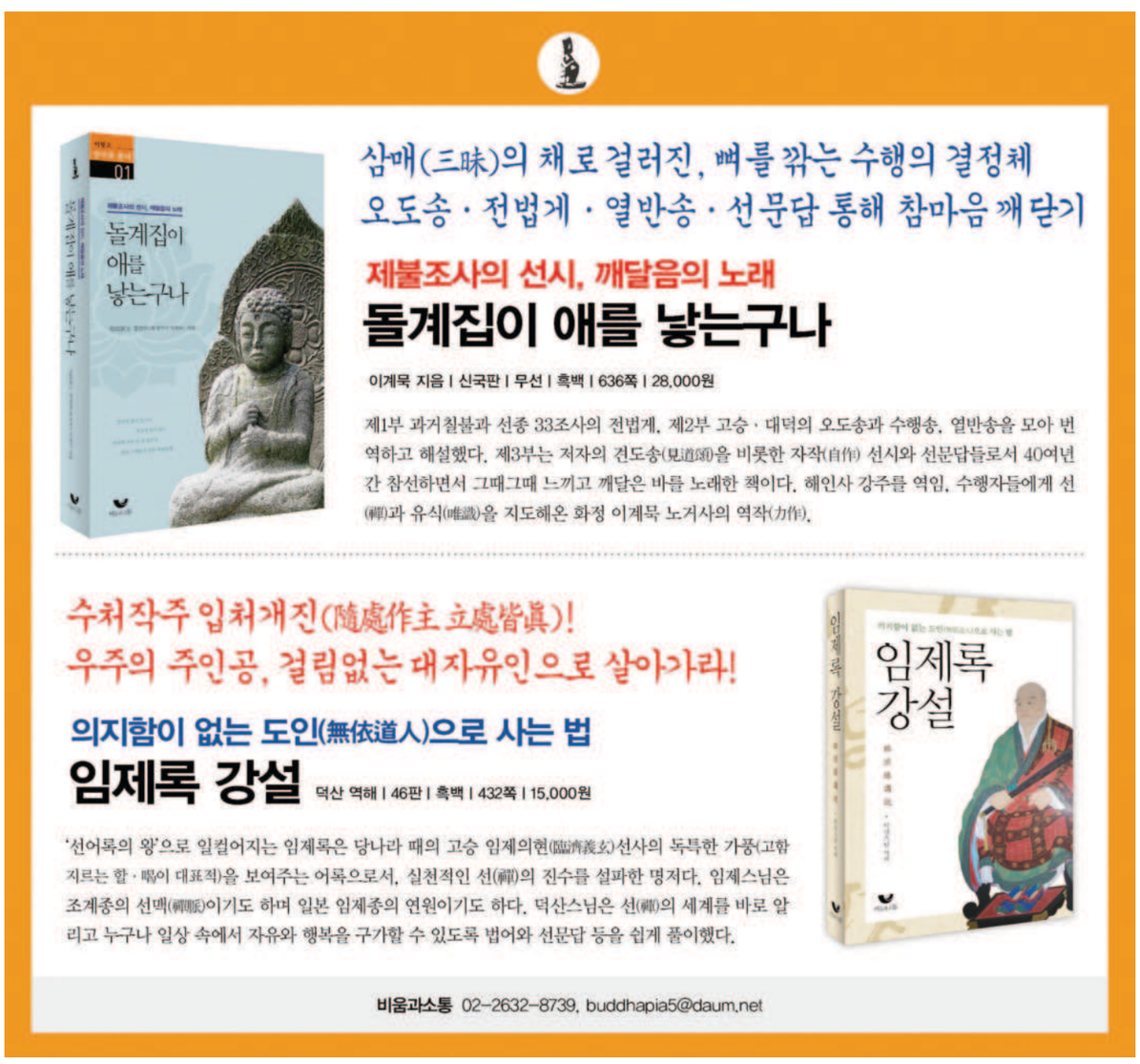
저자는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 괴로움의 지멸, 다시 태어남이 없는 상태, 윤회로부터의 벗어남, 혹은 죽음에서 벗어남인 열반(닙바나)은 그래서 불교의 목적이고 최후의 도착지가 됩니다. 이것은 궁극적 실재로써 조건지어진 것이 아니며,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가 소멸하고 죽음을 맞는 것이 진리인데, 이 열반은 형성된 것이 아니므로 열반을 증득한다는 것은 생사문제를 극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면 환생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올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열반에 대한 생각을 설명한다. 이어 저자는 "따라서 완전한 열반을 증득하신 분이 닙바나라는 특별한 장소에 머물다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이 사바세계로 다시 온다는 주장은 불교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또한 불교수행의 완성자인 아라한의 죽음 이후에 얻어지는 무여열반만이 진정한 열반이라는 견해는 잘못된 것입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 책에서 "열반의 증득여부는 스스로의 마음을 반조해 내 마음속의 번뇌인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 얼마나 소멸됐고 엷어졌는가에 따라서 판단돼야 합니다."고 열반의 생각을 밝혔다.

한편 이 책에는 부록으로 파아옥 사야도의 〈해탈열반에 이르는 길〉을 첨부해 국내에서 출간된 수행법들간에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주일 기자







지혜 · 믿음 · 실천 연계 '三道會通' 가르침 전해

불교로 읽는 古典

힌두 경전 〈바가바드기타〉 ㊦



김호성
동국대 불교대학 교수

힌두교의 성전인 〈바가바드기타(이하 기타)〉에 대한 나의 사색은 1992년 이래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직 그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 거기에 나의 '주제' 가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나' 라고 할 때, '나' 는 어떤 존재일까? 이 물음은 나라는 존재의 본질을 묻는 물음이 아니다. 존재의 양식을 묻는 물음인데, 이에 대한 나의 대답은 두 가지 차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vs 나" 라는 차원과 "나 vs 다른 존재" 의 차원이다.

지혜와 행위의 조화

"나 vs 나" 의 차원에서 요구되는 과제는 깨달음이다.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론은 선(禪)이다. 그런 까닭에 불교는 자리(自利)의 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나 vs 다른 존재" 의 차원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자만 있고 후자가 없다면, 자리만 있고 이타(利他)는 없게 되리라. 그것은 바로 소승(小乘)이 아닌가.

자리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론이 선이라면, 이타의 차원에서 최선의 방법론은 대승불교의 보살행이다. 그러므로 내게 과제는, 어떻게 하면 이 양자를 잘 조화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었다. 이러한 나의 문제의식에 해답을 제시해준 분이 바로 보조지눌(普照 知訥, 1158~1210)스님이었다. 돈오(頓悟)는 자리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점수(漸修)는 〈절요(節要)〉에서 말해지는 대로 화엄의 보살행이라는 차원이 있었다.

〈기타〉에 대한 첫 논문 '바가바드기타에 보이는 카르마요가의 윤리적 조명' (〈인도철학〉 제2집)을 발표한 1992년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석사과정 학생이었던 1987년부터 1992년까지 6년간, 송광사에서 설립한 '보조사상연구원' 의 간사로 일하면서 보조지눌스님을 읽은 덕분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기타〉를 읽어보니, 〈기타〉야말로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자리적 차원에서는 깨달음(〈기타〉의 용어로는 지혜/jñāna)을 말하고 있으면서, 이타적 차원에서는 보살행(〈기타〉의 용어로는 행위/karma)을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도 양자의 결합과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이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지혜와 행위의 회통(知行會通)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회통은 서로 다른 양자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 양자가 함께 어우러질 때 쓰는 말이다. '모일 회(會)' 라는 글자는, '수도 서울' 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회통은 "수도인 서울에 가기만 하면 어떤 곳에서 온 사람이라도 다 만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이고, "수도 서울에 가기만 하면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타고 온 교통편의 차이나 행로(行路)의 차이는 문제되지 않는다" 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회통' 이라는 말은 동아시아의 불교에서 쓰이는 말이었지만, 그러한 사고방식 자체는 인도의 힌두교에서도 존재한다. 지행회통에 해당하는 산스크리트 'jñāna-karma-samuccaya' 를 그 제목으로 쓴 〈기타〉 주석서가 있음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인도의 힌두교 경전인 〈기타〉에서 말하는 지혜는 "내가 곧 아트만이다" 는 사실을 아는 것을 말한다. (산스크리트에서 '깨닫다' 는 말과 '안다' 는 말은 공히 'budh' 라는 말을 어근으로 갖는다.) 아트만(ātman)은 궁극적으로 참된 나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브라만(brahman)과 같기에 범아일여(梵我一如)라 말해진다. "내가 곧 브라만이다", "내가 곧 아트만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불교도들은 "내가 곧 부처다" 라는 말이 생각날 것이다.

그렇다. '아트만/브라만' 과 '부처' 라는 말 사이에는 개념적인 차이가 없지 않으나, 그 형식에서 볼 때는 궁극적 존재 내지 궁극적 깨달음을 내 안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내가 아트만이다" 라거나 "내가 브라만이다" 라는 말은 힌두교에서 하는 말이고, "내가 부처다" 라는 말은 불교, 특히 대승불교나 선에서 강조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는 〈기타〉에 와서 처음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미 그보다 앞서 성립한 우파니샤드 문헌들에서 폭 넓고도 깊이 설해졌던 것이다. 그러므로 〈기타〉의 새로움은 지혜를 말한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행위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는 점에 있으며, 지혜는 지혜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점을 말한 데 있었다. 우파니샤드에도 그러한 흔적을 찾을 수는 있지만, 〈기타〉에서의 강조와 역설을 생각하면 그 밀도는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자신이 '아트만' 임을 아는 것이
'바가바드기타' 가 전하는 깨달음
지혜와 행위의 회통 방법 전해
"내 자신이 곧 부처" 불성론과
보조 지눌 '돈오점수' 와도 맞닿아
정토신앙과 연계 연구 '내 과제'





갠지스 강에서 목욕재계하며 신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힌두교도〈사진 위〉와 동안거 수행 중인 월정사 만월선원 수행자들.〈사진 아래〉 자신을 불성을 찾아가는 불교의 수행과 자신이 '아트만' 임을 알라가는 힌두교는 닮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기타〉를 펼쳐놓고 지행회통의 입장을 살펴보는 것은, 바로 보조 지눌 스님의 가르침에서 배웠던 선과 행의 회통이라는 문제를 한번 더 살펴보고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지혜와 행위의 조화라는 문제를 불교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으며, 힌두교에서는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共觀), 함께 공부하는(共學) 것은 하나의 새로운 방법론이라 해도 좋으리라.

세 가지 길의 조화

지행회통을 설명하는 데, 나는 지혜로부터 시작하였다. 그것이 개념 설명의 순서상 편리해서였다. 그러나 사실 1992년의 논문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행위를 중심으로 했던 것이다. 지혜라고 하더라도 행위의 전제라는 위상을 갖는 것으로 말해졌을 뿐이다. 이는 어떻게 보면, 지혜와 행위의 회통을 말하고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기타〉와 나 자신 공히 행위에 중심을 두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왜 그랬을까? 그렇게 행위의 문제를 중심으로 〈기타〉를 읽었던 것은, 아마도 내 자신이 7080세대여서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 시대의 화두는 지혜보다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행위의 입장에서 지혜에만 안주하는 풍토를 비판적으로 생각했던 것 아닌가. 우리의 현대불교에도 그러한 행위중심의 관점이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으리라.

이러한 경향은 7080세대인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다. 인도에서도 그랬다. 〈기타〉는 바로 그러한 컨텍스트를 의식하면서 〈기타〉를 읽는 사람들에게 영감과 힘, 그리고 용기를 제공해주는 텍스트였던 셈이다. 인도가 영국 제국주의의 지배 아래 놓여있었다는 컨텍스트 속에서 근대의 선각자들(=힌두교 부흥운동 지도자들)은 다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기타〉를 재해석하고자 했다.

그를 통해서, 인도 민중들에게 "일어나라, 영국에 대항하여 싸워라" 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대표적으로 틸락(1856~1920), 간디(1869~1948), 오로빈도(1872~1950), 비베카난다(1863~1902), 비노바 바베(1895~1982)와 같은 해석자들이 다 그러하였다. 모두 "〈기타〉로 돌아가자" 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기타〉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행위하자는 메시지에 다름 아니었다.

나는 지금도 이러한 행위 중심의 〈기타〉 해석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 글을 쓰고 있다. 특히 틸락과 간디에 대해서 주로 생각해 오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 20여년 동안 내 생각도 조금은 변하였다. 나이가 들어가는 소식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전보다 훨씬 더 '믿음(bhakti)' 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믿음은 지혜, 그리고 행위와 함께 〈기타〉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길의 하나이다.

〈기타〉의 믿음은 신에 대한 믿음이다.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지혜의 길과 행위의 길에 더하여 믿음의 길 역시 제시되어 있다는 것은 〈기타〉의 또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행위 역시 우파니샤드에서 그다지 강조되지 않았지만, 믿음은 더욱더 비중이 없었다. 그만큼 믿음의 길이 설해져 있다는 것은 〈기타〉가 성립되던 시대(기원전 2세기~기원 후 4세기)의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대중들에게 믿음을 쉬운 길(易行道)로서 제시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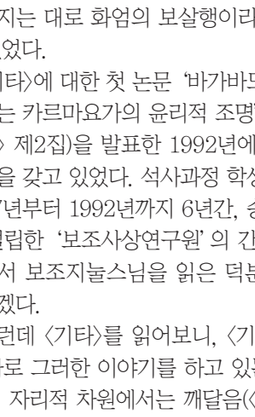
지혜와 행위를 회통한 것처럼, 〈기타〉는 이번에도 여지없이 그 실력을 발휘한다. 지혜는 믿음의 전제가 된다고 말하며, 또 믿음을 전제로 해서 행위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렇게 세 가지 길은 서로 서로 의지하면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삼도회통(三道會通)이라 할 만한다. 마하트마 간디 같은 해석자는, 행위에 강조점을 두면서도 삼도회통의 맥락에서 〈기타〉를 바라보고 있다 해도 좋다.

〈천수경〉이나 〈백화도량발원문(의상 스님 지음)〉을 중심으로 관음신앙을 해오던 나 자신,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나무아미타불' 의 정토신앙에 잠심(潛心)하고 있다. 그에 비례해서 〈기타〉의 세 가지 길 중에서 '믿음의 길' 에 더욱 마음이 가게 되었으니, 그 출발점은 2006년에 쓴 '바가바드기타와 관련해서 본 한암의 염불참선무이론' (〈한암사상연구〉 제1집)이라는 논문이었다. 행위에 초점을 둔 해석자들(틸락과 간디)의 관점을 살펴보는 일 역시 아직 미완성이지만, 앞으로는 〈기타〉의 믿음과 우리 불교의 정토신앙을 함께 살펴보는 방향으로 더욱 더 나아가야 할 것같다.

이렇게 〈기타〉를 읽는 것은, 〈기타〉 안에서 불교와도 상통할 수 있는 점을 찾아가는 길이다. 나는 그 상통하는 측면을 텍스트라 불러서, 비판하고서 내다버려야 할 부분을 컨텍스트라고 부른 것과 구별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나는 우리 불교를 좀 더 풍요롭게 하고 싶고 새롭게 보고 싶다. 그것이 〈기타〉를 읽고 또 읽는 까닭이다.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

종 정 명진 석법운 대종사



종 정
명진 석법운 대종사

귀의 삼보하옵고…
새로운 불교, 혁신적인 종지종풍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석가세존으로부터 법맥을 이어온 저희 종단은 구태불교를 개혁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불교세계를 염원하는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은 본 종단과 함께하실 제방의 청정승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원로의장 보 운
원로총무 수 덕 원로위원 해 산
원로위원 월 각 원로위원 혜 담
원로위원 홍 원

총무원장(대행)
행정원장 도 경 사정원장 법 륜 문화원장 진 송
교육원장 청 담 포교원장 동 화
비구니원장 법화 청명 비구니부원장 설 봉

총 무 원
총무부장 (대행) 재무부장 월 산
교무부장 선 각 문화부장 한 담
규정부장 혜 오 법규위원장 설 산
환경위원장 혜 득 신도회장 조태흠
사업부장 이재철

종 무 원
경북1종무원장 월 정 경북2종무원장 성 덕
경북4종무원장 해 산 대구2종무원장 해 산
대구1종무원장 광 덕 경기1종무원장 원 담
충청1종무원장 계 현 전라1종무원장 법 도

법계고시 공고
◆일 시 : 불기 2558년 5월 25일(일)(음 4월 27일) 오전 11시
◆장 소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호 ☎054)974-2605
◆법계고시 위원장 : 법운 / 위 원 : 수덕, 동화, 도견, 진송, 법화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

- 입종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 반 명함판 사진 3매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호 동명사 ☎ 054)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4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 (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佛紀 2558年 甲午年 Buddha's birthday | 전면광고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 B21

"버려진 쓰레기처럼 눈먼 중생들 속에 있으면서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의 제자는 지혜로써 찬란히 빛나리라." 〈법구경〉



모든 불보살님의 가피가 저 바다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금 강 암
주지 정 만
사부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
TEL 051)508-4509
FAX 051)051)508-4870

대한불교조계종
자비실천도량 원오사
꿈나무가꾸기 명정 장학재단
회 주 고원 명정
주 지 정관
신도회장 박대건
신도일동
■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2동 528번지
TEL 051)542-7949, 545-7949

대한불교조계종 직할포교당
진여원불교대학 (사)진여사회복지원
회 주 혜 총
주 지 무 성
원 장 남보타월
봉사단장 정보덕심
사부대중일동
■ 부산 광역시 북구 구포2동 930-8
TEL 051)338-1008. 337-1080

대한불교조계종
청 량 사
주지 운암 현엽
신도일동
■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445
TEL 051)271-2774

대한불교원효종
총본산 금 수 사
주지대행 상 천
사부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6동 843번지
종무소 051)467-3316
팩 스 051)467-3338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절
대한불교 조계종 길 상 사
주지 만제 혜수
[부설] 삼계선원 · 불교대학
경전반 · 우담바라합창단
성현덕회
사부대중
■ 경남 김해시 삼계동 1511-10번지 대명빌딩 2층
TEL 055)333-8202 / FAX 055)333-8203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지원장 혜 도
사부대중 일동
www.hanmaum.org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TEL 051)403-7077 FAX 403-1077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
정토사·불교대학
주지 산하 덕진
사부대중일동
조상님을 부처님 품 안에 영구히 모시는
정토사 극락원 (납골당)
■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803-5
TEL 052)258-9944 / 극락원 212-7000

부산여성불자회
회 장 왕선자
자문위원 백명숙 양은순 천양자
부 회 장 정정자 양외금
총 무 박정림 김선미
재 무 서점례 손하영
이사 · 회원 일동
■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1동 393-12(불교회관4층)
TEL 051)817-3166, 3168

지장불교 근본도량
공덕원
주지 능후 효선
사부대중일동
http ://www.gongdukwon.net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1동 370-5 부산은행 5층
TEL 051)625-2253 / FAX 051)625-3886

문화포교도량
동 림 사
주지 효산 성타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한국화 · 문인화 · 채색화 그림교실
■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석산리 102-4
TEL 051)508-2917 / H · P 010-6609-8011

사)부산파라미타
청 소 년 협 회
총 재 수 불
부 총 재 원허, 진효
사 무 총 장 지장
협 회 장 백명숙
중등부지회장 김정락
고등부지회장 김영일
사 무 처 장 김진화
■ 부산시 연제구 연산 5동 1330-9번지 부산불교신도회관 4층
TEL 051)513-4306 / FAX 513-4307

사회봉사단체
부산불교 보현회 보 현 정 사
회 장 안성이
재 무 조영희 총 무 전영자 윤점자
감 사 김선언 홍보부장 유기선
청년회회장 정진호
회원일동
■ 부산시 동구 좌천동 532-1
TEL 051)636-4531

대한불교조계종 고려선찰
만 덕 사
지원장 금산 박혜명
사부대중 혜능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1동 32-2
TEL (051)334-3009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천성산 용주사
주지 성 남
신도회 회장 이강백
거사림회 회장 변제덕
선우봉사회 회장 김현자
다라니기도회 회장 김분남
천용불교대학 학생장 김옥선
사부대중일동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양산대로 1800-44 (석계리 5-13)
TEL 055)587-9110

선대한불교조계종 분원
금 산 선 원
선원장 도 경
사부대중일동
■ 부산 사상구 감전동 122-39번지

달빛고운절
월 봉 사
울산 불교방송 사장
울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장
주지 오 심
■ 울산시 동구 화정동 산 60번지
TEL 052)251-4602

대한불교조계종
화엄도량 부석사
주지 근 일
사부대중일동
■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TEL 054)633-3464

한국불교태고종
능 하 사
주지 성 련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마포구 공덕1동 105-95 4층
TEL 02)701-7488

아메리카국제불교대학교& 미국모던대학교
연각사 회주
ph.D 철학박사.교수
총장 방 일 봉
사부대중일동
■ 경남 양산시 서일동로 25(중부동)
TEL 070-8844-2030

대 한 불 교 조 계 종
대광명사
대광명불교대학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불교법당
주 지 목 종
신도회장 신익철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로데오아울렛 3층)
TEL 051)742-7610 / FAX 051)742-7606
www.daekangmung.com

대한불교조동종 남해교구원장 주석사찰
금산 미 륵 암
주지 청 운
신도일동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3
TEL 055)867-0776

현대불교신문 경남남부지사
지사장 청 운
발로 뛰는 남부지사..
기사제보, 광고, 신문
구독신청은 남부지사로
■ 무료전화 080-913-0108

전 통 불 교 조 각 미 술 원
불상조각
칠보개금
개금
탱화전문
■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
교동리 504
TEL 055)271-8414. 011-9546-8414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산 축 서 사
주지 무 여
문수선원 · 불교대학.대학원
축서사바라밀 합창단
사부대중일동
* 축서사 극락원(수목장)자연과함께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장묘문화
■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1
TEL 054)672-7579

대한불교조계종
용 문 사
주지 청 안
사부대중일동
예천용문사에는 국내유일한보물 대장전의
윤장대와 목조삼존불.목각탱보물이있다.
- 대장전안에 설치되어있는것으로 내부에 불교경전을 넣고 손잡이를 돌리면서 극락정토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돌리는데 윤장대는 유일한중요한문화재이다. 회전식장경각이다.
- 성보박물관에는 탱화와 영정.불상 등 많은 불교유물이 전시되어있다.
- 사찰문화를 체험 할 수있는 템플스테이도 운영

■ 경북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길 285-30
TEL 054)655-1011

佛紀 2558年 甲午年 Buddha's birthday | 전면광고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 B22

"세간의 진리는 무상한지라 헷갈려서 어둠 속에 떨어지지 말지로다." 〈수행본기경〉



모든 불보살님의 가피가 저 바다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正法弘布를 위하여
進一步 登一段하는

釜山佛教實業人會
妙 光 禪 院

회 장 김윤환
고 문 강병중, 서춘석, 최 찰
이상태, 하문원, 박수복
부 회 장 조재원, 이근철, 이달수
황인관
감 사 지호경, 이광재
총무이사 이환길
재정이사 송우근
사업이사 이종환
관리이사 이규인

회원 및 마야부인회 회원일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37 부산불교실업인회관 4층
TEL 070-8133-9917 / FAX 051)818-9916

사상구불교연합회

고 문 청강(옥천사) 혜지(낙은사) 종학(불광사)
법공(칠보정사) 성비(영수암)
자문위원장 종선(해경사)
자 문 위 원 무학(성학사) 청암(관음사) 만오(도원사)

사상경찰서 경승
고 문 청강(옥천사) 유정(운수사)
실 장 성문(선광사)
대둔(용운사) 성관(백운사) 성림(관음사)
혜산(봉덕사) 지관(약수암) 법경(광명사)

회 장 유정(운수사)
수석부회장 성문(선광사)
부 회 장 성관(백운사) 만용(성불사) 대둔(용운사)
총 무 국 장 혜산(봉덕사) 포 교 국 장 은적(관음사)
의 전 국 장 성림(관음사) 사 회 국 장 자륜(낙은사)
문 화 국 장 지관(약수암)
감 사 진각(흥덕암) 법경(광명사)

회 원 일 동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5번지 운수사
TEL 051)313-3300 팩스 051)317-5672

사상구불교연합신도회

회 장 홍법 이상갑
수석부회장 전수덕
상임부회장 자광 장병주
상 임 감 사 김명조
자문위원장 심인택
각 사찰 운영위원 자문위원 일동

■ 사무국 010-8581-2045 팩스 051)862-1024

무료급식(점심)단체
지정사찰 창원시 1호

樹山慈悲禪院

선원장 법 상

사부대중일동

· 자비요양원 : 치매,중풍,노인성질환 치료
노인전문병원
문의 : 055)288-6300
· 자비마을(보건복지부 인가시설) :
요양급여 1.2.3등급 수용 복지시설
(중풍,치매,노인성질환)
문의 : 055)237-4564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50번길 5-4
전화 055)277-7626 팩스 055)277-9101

대한불교조계종 황령선원

홍 제 사

선원장 혜 국
주 지 성 문

사부대중일동

· 매월(음) 초 하 루 - 초사흘 신중기도
· 매주(월) 다라니기도 - 오후 7시 ~ 9시

사회복지법인 화엄도량
노인요양시설 **효 림 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304번길 34(전포동)
TEL 051)802-0130 / FAX 804-1037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

회 장 박순곤
상임고문 박수관
고 문 김재운 김재진 조효식
최칠관 설동근 이윤희
박민식 박흥대 허인구
권청길 이시영 장남인
부 회 장 김수현 이상수 박영근
김종백 신재철 장인화
최삼섭 양재생
감 사 노종헌 박형주
사무총장 장병주
재무총장 박차수
기획이사 안천일
친목이사 공정근
사업이사 정연식
조직이사 이헌호
홍보이사 이현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71(부전동) 정산빌딩 9층
TEL 051)334-0108 / FAX 051)867-4397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

사부대중일동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
재단법인 관음선행장학회
사단법인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 부산시 사하구 제석로 79번길 33
TEL 051)294-9300~1

"한국불교의 중심! 부산불교!"
화합과 번영의 21세기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사)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가 수행과 정진에 앞장 서겠습니다.

(사)부산광역시 불교연합신도회

회 장 이윤희
상임부회장 김동열 김수현
김윤순 이갑준
박순곤 허인구
감 사 권기우
하만경
사무총장 박대성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
(양정동) 불교회관 401호
TEL 051)861-8801

대한불교조동종 종정 주석사찰

보 리 사

주 지 덕찬 지명

신도일동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627-2
TEL 031)829-4882

대한불교조동종 부종정 주석사찰

두리봉 행운사

회 주 덕룡 법공
주 지 행천 수임
총 무 지현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삼성리 216번지
TEL 010-9189-3346, 011-781-0218

대한불교조동종 포교부장 주석사찰

자 비 암

주 지 청 정
신도회장 김정순
총 무 김경주
관음회장 박춘옥
부 회 장 주숙자
연꽃회장 최진욱
홍보부장 김상곤
사 무 장 정 욱
재 무 박정은

신도일동

■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추산동 81-3번
TEL 055)241-1176

범어사금정불교대학
범어사금정불교상담대학

바로알고 바로믿어 바로행하는
범어사금정불교대학 ·
범어사금정불교상담대학

학 장 수 불
담임법사 지 장

총 동 문 회
재 학 생
일 동

■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16번길 27(거제동)
TEL 051)866-7277 / FAX 051)864-7290

대한불교조계종

혜 원 정 사

조 실 고 산
주 지 원 허

신 도 일 동
[재] 고산장학회

사회복지법인 혜 원
영도구 노인복지관
혜원재가노인서비스지원센터
선 재 어 린 이 집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68번길 47(연산동)
TEL 051)866-7771~3 FAX 866-7777

삼천배 참회기도 근본도량

대한불교조계종 감 로 사
감로불교대학

- 기초 / 경전 과정 -
회주 법 희
주지 혜 총
사부대중일동

■ 부산시 진구 전포 2동 33번지
TEL 051)809-0926 / FAX 803-0188

불교자비사상 실천현장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부산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 가릉빈가언어치료센터 ■ 용호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 용호방문요양파견센터 ■ 용호어린이집
■ 양정노인주간보호센터 ■ 용당어린이집
■ 무료급식(매일 400여명) ■ 노인대학(매일 200여명) 등

이사장 혜 총 관장 이춘성
소 장 김영곤 부장 서은해

■ TEL 051)628-6737 / FAX 628-6562

대한불교조계종

백양산 선 암 사

주 지 원 범

원효신도회, 원효봉사단회
원효불교대학, 원효거사회
원효합창단, 원효청년회
원효다도회

사부대중일동

고품격 추모문화를 추구하는 선암사추모관
· 선암사 직영으로 신뢰 높은 운영관리
· 천년고찰 선암사와 영구히 존재
· 매월1회 발복과 극락왕생 기원합동천도재
· 설, 추석, 백중 합동제사
문의 및 접수처 ☎ 051)803-7576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산로 138 (부암동)
TEL 051)803-7573 / FAX 803-7521

대한불교조계종 고려선찰

만 덕 사

(부산지방문화재 3호 만덕사지)

주 지 금산 박혜명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만덕로 63-13(만덕동)
TEL (051)334-3009

화해(내 안의 아이 치유하기)

틱낫한 스님 (프랑스 플럼빌리지 설립자)

〈4〉 고통 어루만지기

"내면의 자비 만나 평화로운 마음 되찾으세요"

고통스런 감정 알아차린 후 어루만진다

사람은 누구나 몸과 마음속에 어느 정도 질병을 가지고 있다. 이를 치유하는 최선의 방법은 모든 것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과 온전히 함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치유된다. 호흡에 집중을 할 때 우리의 들숨과 날숨은 평화로워지고 이완된다. 걷기에 마음을 기울이며 걸을 때 우리는 잡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걸을 수 있다. 이미 치유가 시작된 것이다.

격렬한 아픔에 마음이 휘말릴 때가 있다. 하지만 그 아픔은 마음을 다시 평화롭고 이완된 들숨과 날숨으로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된다. 종국에는 고통스런 감정이 되돌아오겠지만, 우리는 그것에 다시 휘말리지도 자제력을 잃고 더 흥분하지도 않고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고통스런 느낌과 싸우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 고통이 우리의 일부임을 알기에 우리 자신과 싸우고 싶지 않다. 아픔, 짜증, 질투 등은 모두 우리의 살점이다. 그런 감정이 일어나면 들숨과 날숨으로 되돌아가라. 그러면 그것들을 진정시킬 수 있다. 평화로운 호흡이 그런 격렬한 감정을 진정시켜 줄 것이다. 감정이 좀 진정되고 나면 내면에서 고통의 뿌리를 볼 수 있고, 그때 우리에게 아픔을 야기한 그 사람들 역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안다. 대체로 고통이 오면 오직 우리만이 고통스럽고 상대는 매우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은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 역시 많은 고통을 안고 있고, 자신의 격렬한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른다. 알아차림과 함께 호흡을 할 때 깨어 있음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고, 그때 우리의 고통과 상대방의 고통을 자비롭게 다루는 방법에 대한 지혜를 얻는다.

마음이 다쳤을 때 가능한 두 가지 사고방식이 있다. 하나는 우리를 더 화나게 하고 상대에 대한 보복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고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진정시키고 내면의 자비 및 이해와 접촉해 평화로운 마음을 되찾는 사고방식이다. 후자를 선택할 때 상대방 역시 고통받고 있음을 볼 수 있고, 그대 우리의 화는 사그라진다.

깊은 이완

우리의 몸이 평화롭지 못하거나 마음속에 격렬한 감정이 지나치면 호흡은 평화로울 수 없다. 깨어 있는 호흡을 수행하면 호흡이 점점 침착해지고 깊어지고 조화로워지며, 호흡에 있던 긴장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된다. 깨어 있는 호흡은 마음을 호흡으로 되돌려 놓는데, 계속하면 마음이 우리 몸 전체로 되돌아온다. 우리는 몸으로 되돌아가서 몸과 화해한다. 우리는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우리에게 어떤 갈등이 있는지 알게 된다. 그때 우리 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하고 무슨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알게 된다. 깨어 있는 호흡을 통해 우리는 몸이 우리의 집이고 고향임을 알게 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나의 몸을 알아차리네. 숨을 내쉬며 나는 나의 몸 전체에 웃음을 보내네."

우리 몸을 알아차리고 몸에 미소를 보내는 일은 매우 유쾌한 경험이다. 10~15분 정도 시간이 있다면 '깊은 이완' 이라는 치유수행을 할 수 있다. 먼저 편안한 자세를 취한다. 이때 바닥에 누워 호흡이라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나의 들숨을 알아차리네. 숨을 내쉬며 나는 나의 날숨을 알아차리네."

자리에 누워 그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우리 몸이 거기 있음을 즐길 수 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리 몸이 거기 존재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깊은 이완' 이며 우리 몸에 보내는 사랑의 실천이다.

먼저 몸 전체에 주의를 집중하고, 그런 후에는 몸의 각 부분에 마음을 집중한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나의 몸 전체를 알아차리네. 숨을 내쉬며 나는 나의 몸에서 모든 긴장을 놓아 보내네."

머리에서 시작해 발끝에서 끝낼 수 있고, 발끝에서 시작해 머리를 향해 나아갈 수도 있다. 마음을 완전히 집중해 몸의 각 부위들이 있는 자리를 알아차린다. 그리고 깨어 있음의 에너지로 그 부위를 감싸 안아 몸의 그 부위가 이완되고 긴장이 풀리도록 한다. 이제 몸의 각 부분을 개어 있음을 인식하고 감싸 안는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나의 뇌를 알아차리네. 숨을 내쉬며 나는 나의 뇌에 미소를 보내네."

몸의 각 부분에서 한 호흡(하나의 들숨과 날숨) 동안 머물 수도 있고, 열 호흡 동안 머물 수도 있다. 몸의 모든 부위에서 다 그렇게 하며 지나간다. 깨어 있음이라는 등불로 몸을 스캔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나의 눈을 알아차리네. 숨을 내쉬며 나는 나의 눈에 미소를 보내네."

나는 눈에서 긴장을 내보내는 수행을 한다. 눈에는 자주 긴장이 쌓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소가 중요하다. 미소는 얼굴 근육을 이완시키고, 그 미소를 몸의 각 부위에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얼굴에는 수백 개의 근육이 있는데, 우리가 화를 내거나 두려워 할 때 그 근육들에는 많은 긴장이 쌓인다. 하지만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그 숨을 알아차리며, 숨을 내쉬고 그 숨에 미소 지을 줄 안다면, 이 근육들에 쌓인 긴장을 풀 수 있다. 우리 얼굴은 그런 호흡 한 번으로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미소는 기적을 가져온다. 나는 내 눈에서 긴장이 풀리도록 한 후 나의 눈에서 미소를 보낸다. 당신의 눈이 거기 있음을 알고 그 눈에 사랑이 담긴 미소를 보내보라. 우리의 눈은 참으로 대단한 존재다. 그런 다음에는 귀로 간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나의 귀를 알아차리네. 숨을 내쉬며 나는 나의 귀에 미소를 보내네."

어깨에 이르면 이렇게 수행한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나의 어깨를 알아차리네. 숨을 내쉬며 나는 나의 어깨에 미소를 보내네."

어깨가 이완해 뻣뻣이 굳어 있지 않도록 돕는다. 폐에 이르면 폐를 감싸 안는다.



아픔 · 질투 등 괴로운 감정 일어날때
들숨 · 날숨으로 되돌아가 진정시켜야
깨어있음 계속 수행하면 고통 알아차려
고통을 우리 의식으로 초대해 안아주자

"숨을 들이쉬며 나는 나의 폐를 알아차리네. 숨을 내쉬며 나는 나의 폐에 미소를 보내네."

폐는 너무도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항상 폐에게 지저분한 공기만 주고 있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나의 심장을 알아차리네. 숨을 내쉬며 나는 나의 심장에 미소를 보내네."

나의 심장은 밤낮으로 뛰고 있다. 나의 심장을 진정 아끼기에 이제 나는 담배와 술을 끊어야겠다.

이렇게 우리는 몸 곳곳을 훑으며 깨어 있음의 등불로 몸을 스캔한다. 그리고 각 부위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안아 주고 미소를 보낸다.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한다. 아마도 깨어 있음의 에너지로 몸을 천천히 스캔하는 데는 10~15분, 어쩌면 20분 정도 걸릴 것이다. 각 부위에 미소를 보내면 그 부위의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된다.

아픈 부위에 이르면 거기서 더 길게 머물며 그 부위를 알아차리고 감싸 안는 데 시간을 들인다. 깨어 있음의 에너지로 그 부위를 안아 주고 미소를 보내어 그 부위에서 긴장이 완화되도록 한다. 몸에 통증이 있는 경우 깨어 있음을 통해 그것이 단지 물리적 통증에 불과함을 자신에게 알려준다. 그런 알아차림을 통해 우리는 더욱 이완되고, 그 결과 더 빨리 치유될 수 있다.

고통스런 감정을 보살피는 법

깨어 있음으로 자신의 몸을 잘 보살피는 방법을 배울 때 우리는 감정의 영역에 들어가기 시작한다. 감정에 대해 명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매 순간 일어나는 감정이 무엇이든, 그 감정이 유쾌하든 불쾌하든, 중성적이든 여러 감정들이 혼합됐든 간에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한다. 고통스런 감정을 보살피기 전에 우리는 먼저 고통스럽지 않은 감정을 보살피는 방법을 배운다.

부처님은 고통스런 감정을 다루기 전에 먼저 기운을 축적하기 위해 즐겁고 행복한 감정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다.

환자가 수술을 받기에는 아직 너무 약하다고 판단한 외과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을 견딜 수 있도록 먼저 충분히 쉬고 영양을 섭취하라고 조언하듯, 우리 역시 고통에 집중하기 전에 먼저 기쁨과 행복의 기반을 잘 다져 놓아야 한다. 먼저 기쁨에서 시작해 보자. 기쁨과 행복은 항상 우리 마음 속에 씨앗으로 존재한다.

"숨을 들이쉬며 나는 내 안에 기쁨의 감정이 있음을 알아차리네."

"숨을 내쉬며 나는 내 안에 있는 기쁨의 감정에 미소를 보내네."

"숨을 들이쉬며 나는 내 안에 행복의 감정이 있음을 알아차리네."

"숨을 내쉬며 나는 내 안에 있는 행복의 감정에 미소를 보내네."

깨어 있음

'내려놓기' 는 기쁨과 행복을 가능하게 해주는 첫 번째 원천이다. 하지만 내려놓기 수행만으로 가능한 행복은 지속 기간도 짧고 피상적이다. 행복의 두 번째 원천이 함께해야 하니 바로 '깨어 있음' 이다. 우리가 해돋이를 바라보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그 순간, 진행중인 프로젝트나 어떤 근심에서 정신이 팔려 있거나, 과거나 미래에 마음이 붙들려 있다면 아름다운 일출을 깊이 음미하며 즐길 수 없다. 깨어 있음이 부족할 대 우리는 그곳에 오롯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의 들숨과 날숨에 마음을 모으고 호흡 수행을 깊이 한다면 우리 마음 전부를 지금 이 순간으로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서 모두 해방되고, 마침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 깨어 있음은 우리가 온전히 그곳에 존재하도록 해 해돋이를 바라보고 명상하며 깊이 즐길 수 있게 해준다. 친구 하나가 먼 곳에서 찾아와 지금 함께 차 한잔 나누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깨어 있음이 함께 한다면 그 친구와 보낸 시간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사업도 프로젝트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저 친구와 함께하는 이 순간에만 마음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는 친구가 여기 있으며 그 친구와 함께 앉아 차 한잔 즐길 수 있음을 온전히 알아차리고 있다. 깨어 있음은 매 순간이 주는 기쁨을 매우 깊이 맛보도록 해준다.

기쁨과 행복은 약간 차이가 있다. 가령 우리가 사막을 횡단 중인데 물이 떨어져서 목이 매우 마르다고 해보자. 문득 저 앞에 오아시스가 보인다. 우리는 오아시스에 나무와 호수가 있어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런 알아차림이 기쁨을 가져다준다. 이제 쉬면서 물을 마실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아는 것, 그 느낌이 바로 기쁨이다. 오아시스에 도착하면 나무 그늘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손을 바가지 모양으로 만들어 물을 떠서 마신다. 그것이 행복이다. 행복과 달리 기쁨에는 흥분과 유사한 요소가 내포돼 있다.

만약 좌선이나 걷기 명상, 깊은 이완 중에 몸의 통증을 느낀다면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명상 때문에 고통받을 이유는 없다. 명상은 중노동이 아니다. 명상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라는 자양분을 준다. 명상을 통해 기쁨과 행복이 충분히 쌓여 강인해지면 우리는 내면에 자리한 고통 덩어리, 슬픔 덩어리, 절망의 응어리를 직면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이를 닦는 일, 아침을 짓는 일, 선방으로 걸어가는 일을 포함해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가 걷는 모든 걸음, 우리가 쉬는 모든 숨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어야 한다. 삶은 이미 고통으로 가득하다. 거기에 고통을 더 보탤 필요는 없다.

행복과 고통은 함께 다닌다

뿌리 깊은 고통의 씨앗을 변화시키려면 무엇을 하면 될까? 여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행복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다. 고통의 씨앗과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씨알을 키워 고통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간접적 변화다.

두 번째 방법은 쉬지 않고 깨어 있음을 수행해 고통의 씨앗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 씨앗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깨어 있음이라는 빛으로 그것들을 잘 씻어 준다. 우리 안에 있는 씨앗은 에너지장이다. 깨어 있음 역시 에너지장이다. 그 씨앗들이 깨어 있음과 만나면 에너지장과 에너지장이 맞부딪혀 씨앗의 힘이 약해진다. 깨어 있음이 그것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와 함께한 고통을 다스리는 세 번째 방법은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우리의 의식 안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건드리기 어려웠던 슬픔과 절망, 후회와 갈망도 초대한다. 그러고는 자리에 앉아 마치 옛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듯 대화한다. 하지만 이들을 초대하기 전에 먼저 깨어 있음이라는 등불이 켜져 있는지, 그 등불에서 나오는 빛이 안정되고 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틱낫한 스님이 쓴 〈화해〉(불광출판사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공고 제2014-6호

10 · 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신청안내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자분들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피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올해 말까지 피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 5.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1. 신청기한

2014.12.31.까지

2. 신청대상 및 신청인의 자격

가.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
1) 10 · 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피해자)
2) 10 · 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 · 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피해종교단체)
3)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사람의 유족
4)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승려이거나 승려의 신분으로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이 소속된 종교단체의 장

나. 의료지원금 지급 신청
1) 10 · 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

3. 신청서 접수기관

가.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 제출
1) 직접(방문) 제출 : 일과 시간 내(09:00~18:00)
2) 우편 제출 : 신청기간 내 도달

나. 주소 : ㉮110-300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68 동덕빌딩 9층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4. 신청시 제출서류

가.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
1) 피해신고 및 명예회복신청서 1부
2) 피해경위서 1부
3)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 서류에 아래 서류를 더함.
가) 명예회복(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 및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 (유족) 피해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소속된 종교단체의 장) 피해자의 소속 종교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 의료지원금 지급 신청
1) 피해신고 및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2) 피해경위서 1부
3)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을 한 경우, 2)의 서류 생략 가능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 서류에 아래 서류를 더함.
가) 명예회복(의료지원금) 신청(수령) 위임장 및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 (가족) 피해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5. 의료지원금 산정기준

「10 · 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료비, 개호비, 보조장구 구입비 등을 산정

6. 심의 · 결정절차

관계 법령에 따라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10 · 27법난 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결정

7. 기타

신청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www.1027beopnan.go.kr) 내 「피해자 신고서식」에서 내려받기하여 사용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10 · 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전화 (02)738-62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식품교육사

전통식품교육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전통식품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전통식품교육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전통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목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147-2020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제 기 동 02-966-0020 / 창 원 055-243-6333 / 호 남 063-288-5623 /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 울 산 052-260-1037 / 충청북부 043-263-9966 / 대 구 053-566-1116
강원서부 033-252-3682 / 경 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대 한 불 교 조 계 종
국제선센터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International Seon Center



주지 탄 웅

사부대중 일동

조계종 템플스테이
외국인 상시운영 거점사찰

서울 서남권 포교 거점 도량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67 (양천세무서 옆) ☎ 02)2650-2200
www.seoncenter.or.kr

佛紀 2558年 甲午年 Buddha' s birthday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불교 발전의 길.
종도 여러분과 함께 걸어 가겠습니다



불 교 광 장

이메일 bulgyo2013@hanmail.net

奉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祝



금강의 다음 100년
금강의 기상으로 맞이하는 새로운 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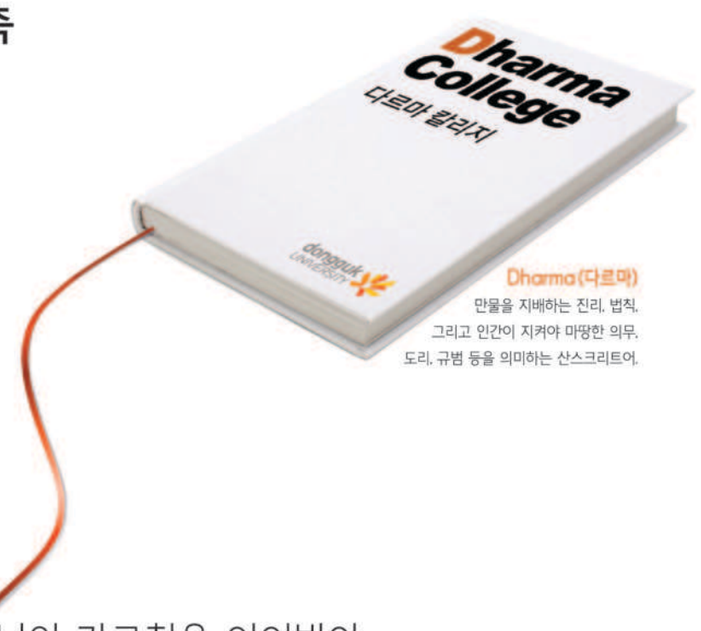
소수정예 맞춤식 교육으로 미래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금강대학교!
지혜와 깨달음을 담은 금강의 혜안으로
새로운 다음 100년을 맞이합니다.

불기 2558년
– 정병조 총장 외 교직원 일동 –

세상의 중심 금강대학교 GEUMGANG UNIVERSITY 320-931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상월로 522번지 TEL 041-731-3114 www.ggu.ac.kr

봉축 불기 2558년

건학108주년 변화와 혁신의 동국대학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세상을 비추고 깨우는 인재를 길러냅니다

교양교육의 새 지평을 열어가는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동서양 100권의 고전을 읽고 토론하며 글쓰기까지 아우르는 Great Books Seminar.
문과와 이과의 구분을 넘어선 융복합 교육 등의 과정을 통해 인류애와 보편적 도덕성을 갖춘
지혜와 자비의 불교 인재를 길러냅니다.

dongguk UNIVERSITY

禪本寺 (갓바위)



■ 기도안내 ■

- 약사재일법회 매월 음력 8일
- 정초보름기도 음력 1월 1일 ~ 1월 15일
- 철야정진기도 매월 그믐 – 7일, 매주 토요일(신묘장구대다라니)
- 영가삼칠기도 입재 및 회향 매월 음력 1일 ~ 21일
- 산신삼일기도 입재 및 회향 매월 음력 3일 ~ 5일
- 칠성삼일기도 입재 및 회향 매월 음력 7일 ~ 9일
- 용왕삼일기도 입재 및 회향 매월 음력 11일 ~ 13일

삼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합니다.
주지스님 이하 선본사(갓바위) 사부대중은 두 손 모아 인사드립니다. 팔공산 갓바위 약사여래 부처님은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시는 부처님으로서, 깨달음을 구하는 이는 정법으로 이끄시고, 병든이에게는 약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또한 힘들고 지쳐 쓰러졌을 때 항상 우리 곁을 지켜주시는 분이며 '약사여래불' 명호를 부르는 순간 부처님은 우리 곁으로 다가 오십니다. 저희 사부대중 또한 초심을 잃지 않고 달리는 말처럼 열심히 기도 정진 할 것을 다짐 합니다. 갑오년 새해에도 부처님과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 나아가시고, 우리 불자님들 가정에 약사 여래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하시어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약사여래불 나무약사여래불 나무십이상원약사여래불

문 의 : 053)851-1869, 853-9877, 851-1868
주 소 :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587번지
계좌번호 : 대구은행 179-04-060280-001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선본사)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선본사 갓바위
사부대중 두손모음

대한불교 조계종 # 갑 사

사부대중일동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2번지 전화 041)857-8981~2 www.gapsa.org



佛紀 2558年 甲午年 Buddha's birthday | 전면광고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 B25

"계를 지키면 늙도록 편안하고 잘 지내게 되나니, 지혜는 사람의 보배요, 복은 도둑맞는 법이 없다." 〈출요경〉



모든 불보살님의 가피가 저 바다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

익산 관음사

주지 덕림

관음사 성지순례단
신도 일동

이리 불교대학

학 장 덕림
부학장 김진수

■ 전북 익산시 갈산동 31-9
TEL 063)854-1578. 842-6652

대한불교조계종 24교구

능가산 내소사

주지 진학

사부대중 일동

■ 전북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로 243
TEL 063)583-7281
http://www.naesosa.org/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

금 선 암

주지 덕산

사부대중 일동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1192-1
TEL 063)221-8486

대한불교조계종 24교구

월명산 동국사

주지 종걸

사부대중 일동

홈페이지 : http://www.dongguksa.or.kr/

■ 전북 군산시 금광동 135-1번지
TEL 063)462-5366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

남 고 사

주지 원혜

사부대중 일동

■ 전북 전주시 동서학동 2가 724
TEL 063)284-9640

대한불교조계종 24교구

성 불 사

주지 월은 종명

명예회장 : 진여심
신도회장 : 정각행
거사회장 : 성문수

사부대중 일동

■ 전북 군산시 경암동 서래내길 34
TEL 063)445-3266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함라산 숭림사

(보물 제 825호 보광전)
템플스테이 지정사찰

주지 지광

신도회 관음회 일동

■ 전북 익산시 웅포면 송천리 5번지
TEL 063) 862-6394
홈페이지 : http://www.sunglimsa.com/

정 안 사

주지 정안

신도일동

■ 전북 군산시 회현면 고사리 310번지
TEL 063)466-6055

월명산 흥천사

회주 지환
주지 법희

사부대중 일동

[전북 군산시 동산길 29
부설 : 반야유치원]

■ TEL 063)445-3969
ttp://www.heungcheonsa.org/

지장보살의 사상을 실천코자 노력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오봉산 영선사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꿈을 실천하고 있는

등용청소년공부방

사단법인 사람과 희망

■ 전북 남원시 인월면 상우리 산32번지
TEL 063)636-2195
http://www.youngsunsa.org/
http://cafe.daum.net/youngsunsa

익산시 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

위원장 덕림(관음사)

사부대중 일동

■ 전북 익산시 갈산동 32번지
TEL 063)854-1578

익산불교사암연합회

회 장 덕림(관음사)
부회장 도안(백운사)
원영정사(관행심인당)
정수(금강관음사)
총 무 정산(삼기정각사)

사부대중 일동

■ 전북 익산시 갈산동 32번지
TEL 063)854-1578

익산불교신도연합회

회 장 : 이택회
명예회장 : 이의식 박중근
고 문 : 김동확 김진수
부 회 장 : 송동기 박찬용 김영배 김한철
최용호 모순영 문순복 윤광채
심송자 오창록 김효배 박순자
감 사 : 강권술 이영숙
사무1국장 : 유우상 사무2국장 : 이후범
재무국장 : 김종복 기획국장 : 한현상
홍보국장 : 이근영 환경국장 : 정현웅
문화예술국장 : 백상례 복지국장 : 정영임
포교국장 : 이병렬 예산국장 : 황금용
정보통신국장 : 김양희 체육국장 : 최형수
문화재국장 : 김용암 행사국장 : 이경재
봉사1국장 : 김효실 청소년교육국장 : 채곤석
(무순)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익불련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단 장 주정기
수석부단장 고태용
부 단 장 이택익
감 사 이의식, 구강식
군포교총괄팀장 이성강
어린이청소년1팀장 이미옥 어린이청소년2팀장 이정상
군포교1팀장 여영만 군포교2팀장 박갑기
군포교3팀장 박운성
교정교화1팀장 이재홍 교정교화2팀장 김진구
염불봉사1팀장 강석춘 염불봉사2팀장 송동기
사찰문화해설1팀장 권대택 사찰문화해설2팀장 이택회
지역봉사팀장 이연자
자원봉사1팀장 황화기 자원봉사2팀장 이용순
3팀장 김생곤
홍 보 팀 장 백덕기
호스피스팀장 박미숙

전북포교사 일동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56-5
전북불교회관내
TEL 063)252-4940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사부대중 일동

■ 전북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로 367
TEL 063)433-0012
http://www.maisantapsa.co.kr/

갤러리 색즉시공



부처님 오신 날

당신이
세상에 나투실 때
온 세상에는
꽃들이 만발하였답니다.
당신이
한손을 높이 들고
모든 존재가
고귀함을 일러 주실 때
흐르는 강물도
덩실 덩실
춤을 추었답니다.
…
그 법
도도히 흐르도록
저희
수행 하겠습니다.

그림 · 글=희상 스님

보시만큼 쉬운 일도 없어

이란보살의 인과이야기



〈승만경〉, '수순중생' 잘 드러나
"상황에 맞게 육바라밀 실천"

수순중생

〈승만경〉에서는 정법을 받아들이는 일과 육바라밀을 설하고 있는데, 수순중생(隨順衆生)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읽을 때마다 새롭게 마음에 새기게 된다. 수순중생이란 중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과 상황에 맞게 교화하는 것을 말한다. 〈승만경〉에서는 상대방이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 육바라밀을 실천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육바라밀은 주지하다시피 도를 이루게 하는 여섯 가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말한다. 불교에서 가르친 수순중생이 나를 성장시켰다는 생각이 들어 내용을 적어본다.

세존이시여, 정법을 받아들이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법을 받아들이는 일이 정법 자체와 다르지 않고, 정법 자체가 정법을 받아 지니는 일과 다르지 않아서, 정법 자체가 바로 정법을 받아 지니는 일이 됩니다. 세존이시여, 정법을 받아 지니는 일이 바라밀과 다르지 않으며 바라밀이 정법을 받아 지니는 일과 다르지 않아서, 정법을 받아 지니는 일이 바로 바라밀입니다.

어째서 그렇겠습니까?

정법을 받아 지니는 선남선녀는, 베푸는 일로 성숙시킬 이는 베풀어서 성숙시키고(중략), 몸을 버려서라도 저들의 마음을 따라주면서 성숙시켜 그들을 정법에 편히 머물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시바라밀이이라고 합니다.

계를 지키는 일로 성숙시킬 이는 여섯 가지 감각기관(눈 귀 코 혀 몸 뜻)을 수호하고 몸과 말과 뜻, 그리고 행동거지를 청정하게 저들의 마음에 따라주면서 성숙시켜 그들을 정법에 편히 머물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계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참는 일로 성숙시킬 일은 상대방이 욕을 하고 모욕을 주고 비방하고 흔들어 놓아도 화내지 않고 이익을 주려고 하며, 최상의 인욕을 발휘해서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저들의 마음에 따라 주면서 성숙시켜 그들을 정법에 편히 머물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욕바라밀이라고 합니다.

노력으로 성숙시킬 이는 상대방에게 나태라는 저열한 마음을 내지 않고 기꺼이 하려는 마음을 일으켜 노력하며 일상생활(행주좌와) 어느 때든, 저들의 마음에 따라 주면서 성숙시켜 그들을 정법에 편안히 머물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정진 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선정으로 성숙시킬 자에게는 상대방에 대해 산란심 없이 정념(正念)을 성취하여, 진과거에 닦았던 일을 결코 잊지 않고 저들의 마음에 따라주면서 성숙시켜 그들을 정법에 편히 머물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선정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지혜로 성숙시킬 이는,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저들이 가르침의 의미를 물어볼 때 싫증내지 않고 모든 논의, 모든 학문, 심지어 각종 기술과 예능에 관한 학문까지 가르쳐주어서 궁극적인 의미를 알게 하고, 저들의 마음에 끝까지 따라주면서 성숙시켜 저 중생을 정법에 편히 머물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혜바라밀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세존이시여, 정법을 받아지는 일이 바라밀과 다르지 않고 바라밀이 정법을 받아 지니는 일과 다르지 않아서 정법을 받아 지니는 일이 바로 바라밀입니다.

수순중생은 곧 인연에 따르는 것이며,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해 시비를 논하지 않고 행하는 것이며,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며, 티 없이 순수하게 사는 것이며,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며, 남을 돕는 것이며, 선하게 사는 것이다.

집에서 공부 모임을 가지다 보니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고 갔고 자연스럽게 상담 역할을 하게 되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하소연 하는 이에겐 시어머님을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모시라고 권했고, 자식이 대학에 가지 못하게 생겼다고 울상을 짓는 사람에겐 "벌써부터 못 간다고 불공을 드리지 마라. 갈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하고 기운을 북돋워주었다. 세탁소에 가면, 신발을 가지런히 놓아주며 "신발을 이렇게 놓으니까 좋지? 다음에는 이렇게 해봐" 하고 아이들에게 용돈을 조금 주고 나오면 다음에 가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상대방이 어려울 때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알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자존심을 다치지 않을 정도로 도와주기도 했다.

그들이 자신의 어려운 얘기를 다 풀어놓고는, "보살님은 그런 일 없으니까 잘 모르시죠?"라고 하면 "저기 어떤 여자가 그렇게 산다더라." 하고는,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희로애락이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남편이 밉다는 이에게 "어제 저녁에 뭐 해줬어요?" 하고 물어보았다.

"그냥 저냥 먹었지요."

"왜 그냥저냥 해줘요? 음식을 잘 대접하는 것에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시장을 봐다가 푸짐하게 잘 차려드리세요."

잘하는 게 이기는 것이고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가족에겐 소홀히 하면서 절에 다닌 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가정이 평화로워야 마음공부가 잘되는 것이다.

가정을 평화롭게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 사람의 환경을 먼저 이해해 주는 것이다. 나의 남편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 누나와 함께 산 사람이다. 아버지가 북으로 가셨기 때문에 그는 술만 마시면 통일노래를 부르는데, 그런 그에게 통일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한다거나 그 행위를 내가 불행하게 여긴다면 영원히 풀릴 수 없는 문제이며, 다 함께 불행한 것이다. 부모 밑에서 사랑을 받고 자란 나와 남편을 평면 비교할 수 없잖은가. 부모가 계셔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어렸을 때 환경을 이해해 주다보면 싸울 일이 없다.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여여회는 동사섭, 즉 보시, 애어(愛語), 이행(利行), 동사(同事)를 실천하는 신행생활의 장이 되었다. 그리고 누구나 자신만의 고유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격려하고 살려주었더니 주인의식이 심어졌다.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공부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연말이면 1만원 이내의 선물을 가지고 와서 교환했다. 서로 맞절을 하면서 한 해를 잘 지낸 것에 감사했고 다음 해를 기약했다. 그 날 만큼은 한복을 입고 오게 했는데, 일 년에 한 번 한복을 입는 그때 옷고름을 제대로 매는 법, 버선을 신는 법, 절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 자연스럽게 생활관 역할을 했다. 공부를 하고 가서 엄마 노릇을 잘하면 아이들에게 불교를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다. 엄마가 좋은 모습으로 변화하는 자체가 포교가 되는 것이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차츰 남편들이 보시금도 보내주었고, 법회에 간다고 하면 "만사 오케이"가 되었으니 보람이 있었다. 밥과 반찬이 남은 게 있으면 어른이 계시는 집부터 싸주었고, 집에 들어온 선물은 "거사님에게 가져다 드리라"하고 보냈다.

여수동좌(與誰同座)라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한다. 큰아들과 동갑인 우리 옆집 보살의 딸은 내가 권해 예절공부를 하고 예절교사가 되어서 여여회 대표주자로 강의도 보내고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가정이라는 도량에서 연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나의 임무였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쓰고 살기로 했다. 내일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풀어서 쓰기로 했다. 누가 참기름을 팔러 오면 "어디 절에 갈 일 있는데 이리 주세요."하고는 가지고 있는 걸 모두 사서 필요한 데 보냈다. 다른 곳도 도와주어야 하지만 나에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부처다.

어느 스님의 말씀처럼 무슨 고도의 도력이나 완벽한 인격이 아니어도 바로 이 자리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 보시다. 남에게 무언가를 주면 내 마음이 우선 기쁘다. 안심은 기쁜 데서 온다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것이다. 베푸는 데 조건이 있으면 덕이 되지 않는다. 물질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넘치기 전에 덜어내야 한다.

사람은 재능, 재물 등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도 모두 쓰고 살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다들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뭐가 있어 내 것인가?

좋다고 여기는 일은 취하고 나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생각되는 일은 버리는 일을 하지 않고 살아왔다. 불교를 알고 나니 그것이 수순중생을 하고 살아온 것이란 생각이 든다. 누가 도움을 요청하면 조건 없이 들어주며 살아왔다. 결코 부자가 아닌 사람이지만 재물을 재어두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하고 살아왔다. 항상 생일이요, 결혼식 날이요, 죽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왔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법회가 왜 그리도 빨리 오는지, 그래도 정말로 신나게 일한 세월이었다.

〈여여원 원장〉



佛紀 2558年 甲午年
Buddha' s birthday

'나누고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모든 불보살님의 가피가
저 바다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금강불교조계종 이사장 활안
무궁화무한월드 회장 애므린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일관도광명문화재단 이사장 광명
대한불교조계미륵선종 총무원장 설송
생활불교범행종 총무원장 지광
대한불교금륜조계종 종정 청해
대한불교승가회 총재 무공
환국불교조계종 종정 아산
한국거창배왕석예술문화연구원 위원장 석호
마애삼존불상무량정토성지순례봉찬회 회장
우리불교우리절용암산미륵사 총무원장 청송
고려대장경진흥원유지재단 이사장 장수
대한신불교천우종 종정 일강
대한불교단체총연합회국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성철
(사)한국불교조계종 종정 정암
대한불교조계선종 이사장 지암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서울지부 지회장 청산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부산지부 지회장 구암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대구지부 지회장 지영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인천지부 지회장 석수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광주지부 지회장 만봉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대전지부 지회장 태대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울산지부 지회장 월정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강원지부 지회장 월광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경기남부지부 지회장 일오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경기북부지부 지회장 광명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경남지부 지회장 청광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경북지부 지회장 설송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전남지부 지회장 동화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제주지부 지회장 경흥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충남지부 지회장 정섭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강원지부 지회장 병대
한국불교약불조계종 종정 불광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인
법사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해동
달마선원예술문화진흥원유지재단 이사 일동
대한불교신인종 종정 보인
대한불교천우종 총무원장 지암
환단도 이사장 태대
한국불교천신종 종정 정암
백산소도삼신문화재단중앙본부 이사장 일광
천통사찰조계종 총무원장 진상
해동불교임제조계종 총무원장 동진
대한불교해탈종문화재단 종정 대광
환국불교환인종 종정 아산
대한불교마야종 종정 정암
대한불교위앙종 종정 위산
정토불교조계종 정정 일오
한국종교무교천왕종 종정 송월
한국도교본산수성궁 회장 금란
세계불교달마조계종 종정 태일
대한불교호국조계종 종정 무량수
대민불교조계종 종정 일공
국제대성황문화재단 이사장 환인
대한불교구생종 총무원장 원당
한국불교조계종종단연합회중앙본부문화재단 이사장 월정
진언불교 종정 도성
법행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광
대불교조계종 종정 청해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천
대한불교승정원문화재단 원장 현각
한국호국불교조계종 종정 혜륜
금산문화재단 이사장 길주
대한불교유마종 총무원장 무허
한국생활불교보림종 총무원장 운장
천지신명봉양회 회장 성덕

대한불교종단단체사암총연합회 회장 도광
한국무교총본산 회장 일강
한정연무교총연합회 회장 월광
무궁화어머니재단 회장 뮤린
한국고건축진흥원예술문화재단 회장 광선
한국불교조계교종 종정 법성
대한선불종 종정 명조
대원불교유심종 종정 법일
한국범종교단체연합회 종정 청산
지역복지교정협의회 종정 인산
대한불교달마선종 종정 현광
대한불교의성종 종정 의성
대한불교해탈종총본산소원사문화재단 회장 동환
대한불교태선종연합 종정 태선
한국불교동방조계종 총무원장 법성
대선불교조계종 종정 동산
세계불교약사종 종정 인산
대한불교전법조계종 총무원장 일응
한국불교원각종 종정 혜철
월드불교법왕청 종정 청암
대한불교가야조계종 종정 혜산
대한불교팔만종 종정 운월
대한불교연화종 종정 동원
대각불교조계종 종정 혜남
용화세계미륵종 종정 월단
대한불교불광종 종정 청원
법왕불교조계종 종정 보문
세계불교지장선원종 종정 혜봉
사회복지재단황손보살의집 원장 지영
해탈불교조계종 종정 대광
박정희,육영수추모제례진흥회재단 회장 대광
법천불교종단연합회 회장 법천
해동불교화엄종 총무원장 영관
대한불교약사법사종 총무원장 약산
한국불교원효종 종정 법민
대한불교구화종 종정 구화
세계불교승가회 회장 원당
목멱사랑회 회장 재연
중앙불교조계종 종정 우담
한국고건축예술문화진흥원 회장 태인
대한불교대각종 종정 만청
선법륜종 총무원장 월암
대안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월
현대불교미륵종 총무원장 원공
세계불교화엄종 종정 월담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한국불교내외종 종정 청담
대한불교관음성종 총무원장 관행
미타불교조계종 종정 월산
대한불교조계종봉정선원 총무원장 법기
한국전통불교천부종 총무원장 서광
한국불교미타종 이사장 원상
대한불교금강여래종 총무원장 연화
법신불교정법종 총무원장 법통
대한불교반야종 총무원장 지법
대각교단대한불교현수종 총무원장 금화
대한불교대원종 종정 신풍
한국불교현조계종 총무원장 도현
대한불교법인종 종정 만오
대한불교선조계종 종정 기복
세계선불교조동종 총무원장 공산
대한불교약사여래종 총무원장 법환
대한불교천왕종 총무원장 해인
임제불교조계종 종정 지암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총무원장 연화
세계불교종단연합회 회장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현불
선종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명
대한불교반야수교원 총무원장 월성
천지대학일월용봉신선도문화재단 이사장 선학
세계불교대각종 종정 보각
한국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현
삼신신앙봉천재단 재단장 진순
참좋은인연문화재단 이사장 밀허
한국불교천불종 총무원장 혜담
통일불교조계종 종정 벽암
한국불교나한종 종정 대보
세계평화불교연맹 이사장 혜승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한국불교승가종단연합회 회장 지암
현대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동화
임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암
대한불교연합조계종 총무원장 혜일
대한불교신조계종 총무원장 금당
해동대한불광종 종정 법경
한국불교청동불상예술연구원 원장 청담
대한불교임제선원문화재단 주지 법현
대한불교조계종금강회 주지 청광
대중불교조계종문화재단 종정 향덕
세계불교국제연맹재단조계종 총무원장 향덕
대한불교일월여래종 원장 해월
대한불교원조계종 총무원장 만오
세계평화재단법황청 총무원장 태산
한국전통범종연구소 소장 광식
대한불교밀인수증회 주지 덕천
한국불교미술원보응문도회 사장 규진
한국불교환인종 종정 정안
대한불교전국비구니진흥회 이사장 일경
세계불교만불종 종정 일월
세계불교세심종 총무원장 범행
대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명
대한불교대각조계종 총무원장 부건
한국전통불교천불종 총무원장 만봉
대한불교여래종 종정 혜담
한국법화종 종정 법천
대한불교일월조계종 총무원장 장원
동방선도총본산 도령 이지영
용화사월대도 도주 용화
해동불교금강종 총무원장 해원
대한불교법운종 종정 지암
대한불교연지조계종 종정 황봉
한국불교종단단체협의회 회장 성철
한국도교삼청관문화재단 도장 대도
세계불교승가회한국본부 회장 보각
대한불교본조계종 총무원장 불광
천지불교태극종 종정 법성
대한불교통합조계종 총무원장 해봉
한국불교금강종 총무원장 진공
대한불교조계종국제승가총연맹 종정 혜산
대한불교용산조계종 종정 철산
한국불교화엄지장종 총무원장 영암
중생불교조계종둥지복지문화재단 종정 진표
대한대승불교조계종 종정 성범
석가불교조계종 종정 대각
대한호국무불천지종 종정 청산
유신불교조계종 종정 금강
대한불교조계종통합불교연합 이사장 영월
환국신앙천신교 종정 법안
세계불교법황청 종정 법열
대한불교염불종 종정 벽암
세계불교선종 총무원장 무상
정법대승불교조계종 종정 고림

한국불교조견종 총무원장 성문
대한불교법인통합조계종 총무원장 지현
조선불교조계종 종정 중천
한국전통민속문화강원도협회강원도교구 교구장 만오
대한용화불교칠성산신종 총무원장 천공
대성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거목
대한불교보현종 총무원장 영사
세계불교법사종 종정 청하
21세기디지털불교미륵대도 종정 흑성산
대한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현송고림
대한불교승가조계종사회복지협력봉사단 총무원장 월암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단체총연합회복지재단 이사장 도광
대한불교대조계종 총무원장 대공법해
대현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청각
불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운봉
대한불교법음종 종정 청암
세계불교조계종 종정 자현
생사참사랑실천회(웰다잉) 회장 보현
한국고미술문화재진흥협회 회장 무산
문화예술불자연예인협회 단장 운봉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 각성
대성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거목
실천생활불교진흥원 원장 경산
대한불교불조계종 총무원장 혜암
대한불교서각종 총무원장 법운
강원율사승가교육원 원장 월성
대한불교조계종승가회 회장 경보
포항시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법진
대한불교연화조계종 총무원장 일경
한국불교염불선종 총무원장 영운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보현종영사복지재단 원장 영사
한국전통문화총연합회충남교구 교구장 태극
한국전통문화총연합회강원도교구 교구장 신명
대한불교유가종 총무원장 법륜
대한불교원각회보리원 원장 각화
대한불교반야선종 총무원장 도우
한국대승불교불이종 총무원장 도원
한국불교선조계종 총무원장 법성
마하야나불교조계종 회장 청송
한국전통승복양공진흥회 회장 여래심
대한불교연화종용남사 주지 법성
한국불교태극조계종 총무원장 해도
해동불교일광조계종 총무원장 능견
자비실천운동본부 회장 해광
종단세계선불교 총무원장 안심
대한불교국제중도선 총무원장 동천
대승불교삼론종 총무원장 석봉
대한호국불교효예종 종정 법진
한국불교성지종 종정 원담
마하야나승가조계종 총무원장 청송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원봉
문무대왕대제보존진흥협회 회장 운담
중생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성문
대연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연
대한불교해인삼보종 총무원장 해인
법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무허
화쟁교단분황종 종정 현불
대한불교근본조계종 총무원장 성공
홍지문화재단 원장 홍지
사회복지법인산촌마을사람들복지재단 이사장 인봉
한국불교의식문화교육진흥협회 총무원장 일관
국제고미술교류진흥협회 회장 성철
대한불교삼계조계종 총무원장 해공
대한불교일붕조계종 총무원장 진공
한국불교선화종 총무원장 법산 호원
육영수생가보존회 육영수여사탄신숭모제례보존회 대표 법성

"중생정재의 합리적 관리와 통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사단법인 전국사설사암단체총연합회

총재 **각성**, 회장 **무산** / 전국종단관리위원장 **무공** / 재정위원장 **도현** / 증명대법사 **성해. 현불** / 고문 **정암. 혜철. 동원**

110-858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909호
전화 : (02)2198-5022(代), 2198-5023~4 팩스 : (02)2198-5025 H.P : 010-4167-3666 / E-mail : jonggyo119@hanmail.net http://www.kntga.or.kr

대한불교조계종

奉恩寺

회주 덕민 주지 원학



총무국장 종민
기획국장 정문
교무국장 혜찬
교육국장 일진
포교·사회국장 정진
원주국장 성륜

신도회 회장 운산 최정수
사 무 총 장 안지 이원표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 奉恩寺 | BONG EUN SA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삼성동 73번지) / www.bongeunsa.org
TEL 02)3218-4800 / FAX 02)544-2141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성지 낙가산 보문사

주지 등목

사부대중일동

■ 주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 828번길 44
전화 : 032)933-8271~3 / 팩스 : 032)933-8270
홈페이지 : http://www.bomunsa.me / 이메일 : bomunsa8270@hanmail.net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화계사
Samgaksan Hwagyesa

부처님오신날을 봉축드리며
어둠을 밝히고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는
세상이 되기를 화계사
사부대중은 서원합니다.

조 실 송원 설정 대종사
회 주 성광 대화상
주 지 수암 화상
신도회장 대법성

화계사 사부대중 일동

정기법회

초하루 기도	매월 초하루
칠 성 기 도	매월 (음) 7일
산 신 기 도	매월 (음) 16일
지 장 재 일	매월 (음) 18일
관 음 재 일	매월 (음) 24일
철야다라니	매월 둘째주 토요일
철야삼천배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신도교육

기본반(3개월과정)	화요일 / 일요일
교 양 반	토요일 (천수경,예불반야심경, 의식교육)
불교대학(2년과정)	수요일 / 토요일
대 학 원(1년과정)	화요일 / 일요일
경 전 반	금요일 / 토요일

서울시 강북구 화계사길 117 ☎ 02)902-2663 전송 02)990-1885 / wwww.hwagyesa.org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흥천사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성북구 흥천사길 29(돈암동) TEL 02)929-661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32-274 전화 053)767-3100 팩스 053)765-1600

백화도량 종남산 송광사

회주 금산 도영
주지 백강법진

사부대중일동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69번지 TEL 063)243-8091
http://www.songkwangsa.org

사회복지 법인 송광 정심원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01번지
TEL 063)243-1212

